

국어 교과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언어영역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농아인협회

국어 교과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 언어 영역

책임연구원 김승국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심리학과 졸업(문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졸업(문학박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주요 저서 ‘장애인의 언어와 사회 통합’
‘특수교육의 발전과 통합교육의 추진’
현 단국대학교 명예 교수

연구원 김응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강사)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연구보조원 오진영 (한국농아인협회 수화정책부 대리)
고영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강사)
이재연 (서울농학교 교사)

자문위원 주신기, 최종진, 김이호, 김기범, 강주해, 윤우중

검토원 강주해, 권석현, 김기범, 김승국, 김영관, 김이호, 김정환, 김희진, 변승일, 안석준,
안영희, 오진영, 윤우중, 이미혜, 이은미, 이재연, 장진권, 장진석, 주신기, 최종진

발행인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02) 3704-9114 팩스 (02) 3704-9154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 성동구 성수 2가 3동 289-20 보라빌딩 4층
전화 (02) 461-2261 팩스 (02) 461-2651

인쇄일 2010년 12월 14일

발행일 2010년 12월 14일

인쇄 애드피아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국어 교과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에 관하여 귀부와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연구책임자 김승국
(단국대학교 명예 교수)

연구 기관명 한국농아인협회
연구책임자 김 승 국

국어 교과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 결과 보고서

I. 연구과제명: 국어 교과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언어 영역

II. 연구 기간: 2010년 5월 18일 ~ 12월 14일 (7개월)

III. 연구 사업 추진 실적

1. 국어 교과서와 국어 문법 교과서에 수록된 어휘 조사

- 1) 초등학교 국어 읽기(1-6학년 1, 2학기 12권)에 수록된 어휘 조사: 9,624
- 2) 중학교 국어(1-3학년 1, 2학기 교과서 6권)에 수록된 어휘 조사: 9,674
- 3) 국어(고등학교 상, 하 2권)에 수록된 어휘 조사: 11,366
- 4) 고등학교 문법(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에 수록된 어휘 조사: 456
- 5) 7차 고교 문법 자습서(고영근·남기심, 2006)에 수록된 어휘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국립국어원, 2005)에 수록된 어휘 조사: 942
- 6) 표준국어재사전(국립국어원, 2008)에 수록된 전문 영역 '언어'의 어휘 조사: 4,208
- 7)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08)에 수록된 '조사' 357개 중에서 옛말, 방언, 잘못, 북한어 등 202개를 제외한 '조사' 조사: 155
- 8)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08)에 수록된 '어미' 2,526개 중에서 옛말, 방언, 잘못, 북한어 등 1,821개를 제외한 '어미' 조사: 705
- 9)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08)에 수록된 언어 영역의 어휘 조사: 4,208

2. 조사된 어휘 중에서 표준화할 어휘 선정

1) 선정 기준

- (1) 국어교과서·국어문법교과서·문법자습서·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등에서 가려낸 언어 영역의 어휘 가운데서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고 남은 것
- (2) 이들의 동의어와 관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언어 영역의 어휘에 들어 있는 것
- (3)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려낸 조사와 어미

3) 뜻풀이의 선정

여러 문헌에서 하고 있는 표제어별 뜻풀이 가운데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며 수화 단어의 뜻풀이와 일치하는 뜻풀이를 선정하였다. 수화 표제어의 뜻풀이는 국어 표제어의 뜻풀이와 일치하거나 그 일부와 일치한다. 뜻풀이 선정에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문법(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0)
- 7차 고교 문법 자습서(고영근·남기심, 2006)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국립국어원, 2005)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08)
- 동아 새국어사전(이기문 감수, 2007)
- 민중엡센스 국어사전(이희승 감수, 2001)

3. 수화 기호의 표준화

- 1) 수화 기호의 시안 작성(그림 또는 사진과 설명문으로)
- 2) 시안에 대한 검토원(농인 16, 건청인 4)의 검토
- 3) 자문위원(농인 6)과 연구원 합동 회의에서 검토원의 의견, 표제어별 시안 · 뜻풀이 · 용례 등을 참조하며 토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화 선정 기준에 알맞은 수화 기호 선정
 - (1) 각 표제어가 의미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며
 - (2) 표제어의 의미나 어원을 쉽게 연상할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으며
 - (3) 표시 방법이 단순하고 손동작이 편한 수화 기호를 우선 선정하기로 한다.
 - (4) 이미 표준화된 수화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 선정하기로 한다.
- 4) 자문위원과 연구원 합동 회의에서 선정된 기호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
- 5) 선정된 수화 표제어의 수
 - (1) 새롭게 표준화된 표제어: 1,162
 - (2) 이미 표준화된 표제어: 98
 - (3) 계: 1,260

발간사

수화는 일반 언어와 마찬가지로 형식과 내용을 갖춘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수화가 발전해야 농아인의 생활도 발전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 10년 동안 일상생활에 쓰이는 수화와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수화를 표준화하였습니다.

표준화된 일상생활 수화는 “한국 수화 사전”과 그 별책인 “일상생활 수화”로 펴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전문어의 수화는 “불교 수화”, “천주교 수화”, “기독교 수화”, “의학 수화”, “정보통신 수화”, “법률 수화”, “교통 수화” 등으로 나누어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출판된 책들은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와 지부, 국공립 도서관, 장애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기타 농아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수화를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한국 수화 동영상 웹사이트”를 편찬하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고, 현재 웹 기반 스마트폰용 수화 사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어 교과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표준화된 수화의 단어는 1,260개인데 그 가운데는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조사의 수화 기호 126개와 어미의 수화 기호 122개가 들어 있습니다. 수화 문장에서 조사와 어미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피어 찾아낸 어미와 조사의 수화 기호는 국어를 수화로 번역하거나 수화를 국어로 번역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표준화된 1만 7,600여 단어와 금년에 표준화된 단어를 합치면 무려 1만 8,760여 단어가 됩니다. 이 수는 외국에서 출판된 수화 사전 가운데서 비교적 큰 사전에 수록된 수화 표제어가 많아도 7,000단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수화 어휘 수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4 발간사

그렇지만 농아인이 일상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전문어의 수화를 사용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어 수화를 계속 표준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급의 수화 문장을 익히는 데 필요한 교재도 개발해야 하고, 직업별 직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교재를 편찬하는 일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소수의 언어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는 일이며, 이는 농아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온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머리말

국어 교과 용어의 수화 기호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국어 읽기, 중학교 국어, 고등학교 국어 등에 수록된 어휘를 조사하였다. 초등학교 국어 읽기 교과서(1~6학년 12권)에 수록된 어휘는 9,624개이며, 중학교 국어 교과서(1~3학년 6권)에 수록된 어휘는 9,674개이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상하 2권)에 수록된 어휘는 11,366개였다. 이들 가운데서 언어 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 어휘를 가려냈다.

조사와 어미는 국어 교과서에서 찾지 않고,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았다. 그 사전에는 조사가 357개 있었고, 어미가 2,526개 있었다. 이들 가운데서 옛말, 방언, 잘못, 북한어 등으로 표시되지 않은 조사 155개와 어미 705개를 가려냈다.

고등학교 국어 문법 교과서와 고교 문법 자습서에서는 언어 영역에 포함할 수 있는 단어만을 가려냈다. 국어 문법 교과서에서는 456개를, 고영근·남기심이 펴낸 고교 문법 자습서와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등에서는 942개를 가려낼 수 있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언어 영역으로 분류되는 어휘 4,208개를 가려냈다.

국어교과서·국어문법 교과서·문법 자습서·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등에서 가려낸 언어 영역의 어휘 가운데서 중복되는 것을 삭제하고 남은 것과 이들의 동의어와 관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려낸 것을 합친 1,012개,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려낸 조사와 어미 860개의 수화 기호를 표준화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언어 영역의 전문어 수화만을 표준화하기로 한 것은, 기타의 어휘는 앞으로 하게 될 일상생활 수화나 전문 영역별 수화를 표준화할 때 이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정된 용어의 수화 기호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수화 문형사전, 한국수화(1, 2, 3),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법 교육 등에서 국어의 조사나 어미가 수화 문장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것들로 조사와 어미의 수화 기호 시안을 작성하고, 수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사와 어미, 기타 용어의 수화 시안은 각각의 뜻풀이를 보고 만든 수화 기호나 이미 표준화된 수화의 형태소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결합으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시안은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농인 단체의 전·현직 임원, 농학교 전

6 머리말

· 현직 교사, 수화통역과와 특수교육과 교수, 국어학자, 수화통역사)으로 한국수화 표준화 연구에 참여했던 농인 16인과 건청인 4인, 계 20인에게 보내고 시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 후에 농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연구원 합동 회의에서, 검토위원들이 제출한 검토 의견, 표제어별 시안·뜻풀이·용례 등을 참조하며, 토론을 통해서 ①각 표제어가 의미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며, ②표제어의 의미나 어원을 쉽게 연상할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으며, ③표시 방법이 단순하고 손동작이 편한 수화 기호를 우선 선정하며, ④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표준화한 수화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우선 선정하기로 하고 이러한 선정 기준에 알맞은 수화 기호를 선정하였다.

표준화하기로 선정했던 표제어는 조사 155개와 어미 705개를 포함하여 모두 1,872개였으나 수화 기호로 표시할 수 있어서 선정된 표제어는 조사 126개와 어미 122개를 포함하여 모두 1,260개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조사’ 가운데서 수화 기호로 나타내지 않는 기호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미’ 가운데서 수화로 나타낼 수 없는 어미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제어별 구성은 표제어, 어법, 뜻풀이, 용례, 어원 정보, 동형어와 반형어, 수화의 그림, 수화 그림의 설명문 등으로 하였다.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도 전문위원회에서 제2차, 제3차의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수화 기호 가운데서 이미 표준화된 기호는 98개이며 이번에 새롭게 표준화된 기호는 1,162개다. 새롭게 표준화된 기호와 지난 10년 동안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한 기호 17,600여개를 합하면 모두 18,760여개가 된다. 이는 농인에게 국어 교육을 보다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하고 농인의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어 교과 용어의 수화 표준화 연구를 지원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사업의 주무 부서인 문화예술국 국어민족문화과(과장 최상현, 학예연구관 김선철, 주무관 장윤석)에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를 같이 해 주신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자문위원, 검토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 사업의 추진을 적극 도와주신 한국농아인협회에도 감사를 드린다.

2010년 12월 14일

책임연구원 김승국

일러두기

표제어

1. 표제어 선정 기준

한글을 사용하여 표기한 표제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1) 표제어가 의미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수화 기호를 선정한다.
- 2) 표제어의 의미나 어원을 쉽게 연상할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수화 기호를 선정한다.
- 3) 표시 방법이 단순하고 손동작이 편한 수화 기호를 선정한다.
- 4)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에 의해 표준화된 수화 기호를 우선 선정한다.

2. 제시 방법

- 1) 표제어의 표기에는 한글을 사용하였다. 관용적으로 로마자나 숫자로 표기하는 것도 한글로 표기하였다.
- 2) 한글의 표기가 동일한 표제어는 ‘3. 배열 순서’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어깨번호로 구분하였다.

3. 배열 순서

- 1) 표제어는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자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초성

ㄱ ㅋ ㆁ ㄷ ㅌ ㄹ ㄴ ㄷ ㅌ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2) 중성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ㅞ ㅟ ㅠ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3) 종성

어원 정보

- 1) 표제어의 어원, 구조 분석과 어원적 의미는 [] 안에 제시하였다.
- 2) 구성 성분이 연이어 결합한 복합어는 ‘+’ 기호를 사용하여 결합을 표시하였다.
 <예> 고향: [낳다+ 곳]
- 3) 구성 성분이 하나로 합성한 복합어는 ‘/’ 기호를 사용하여 합성을 표시하였다.
 <예> 납부: [돈/주다]

동형어와 반형어

- 1) 표현이 같은 수화를 동형어라 하였다. 동형어에는 동의어도 있고 동의어가 아닌 것도 있다. 동형어는 ‘=’ 기호를 앞세워 모두 보여주었다.
- 2) 표현이 반대가 되는 수화를 반형어라 하였다. 반형어에는 반의어도 있고 반의어가 아닌 것도 있다. 반대가 되는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도 반형어로 처리하였다. 반형어는 ‘↔’ 기호를 앞세워 모두 보여주었다.

수화 · 지문자 · 지숫자의 그림과 설명

- 1) 수화 · 지문자 · 지숫자의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표제어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림을 한국어로 설명하였다.
- 2) 하나의 표제어를 두 가지 수화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는 수화의 그림과 그림의 설명을 각각 ①, ②와 같이 나누었다.
- 3) 수화 · 지문자 · 지숫자의 설명에 손가락을 사용할 경우에는 손가락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의 번호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손가락의 번호는 ‘수화 · 지문자 · 지숫자의 설명에 사용한 손가락의 번호’에 제시하였다.

수화 사전에 쓰인 기호 및 약호

1) 어법

ㅁ 명사	ㅈ 조사	어미
원 원말	준 준말	해자 - 하다 자
하타 - 하다 타	해자타 - 하다 자타	되자 - 되다 자

2)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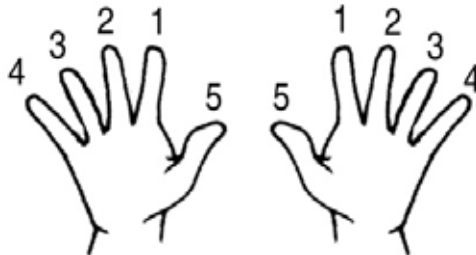
() 표제어의 원어 표시	¶ 용례 시작 표시
[] 한글 자모의 이름 표시	= 동형어 앞에
- 어미의 표시	↔ 반형어 앞에
- 표제어 부분의 되풀이 표시	[] 어원 표시
+ 결합의 표시	/ 합성의 표시
①②... 뜻풀이가 달라진 경우	

수화 · 지문자 · 지숫자의 설명에 사용한 손가락의 번호

수화·지문자·지숫자의 설명에 손가락을 사용할 때에는 손가락의 이름 대신 손가락의 번호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손가락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손가락의 번호

- 엄지손가락 : 5지
- 집게손가락 : 1지
- 가운뎃손가락: 2지
- 약손가락 : 3지
- 새끼손가락 : 4지



ㄱ

ㄱ[기역]*

한글 자모의 첫째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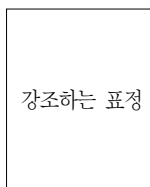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아래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가 ㄱ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또는 연결 어미 ‘-지’나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없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연결 어미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로’로 바뀔 수 있으며,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 방이 깨끗하지가 않다.



강조하는 표정을 짓는다.

가상 주어(假想主語)

문장에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나 가상할 수 있는 주어. 『ㄱ+가방을 가져가자.』에서 『ㄱ』은 가상할 수 있는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다.

[입시+ 생각+ 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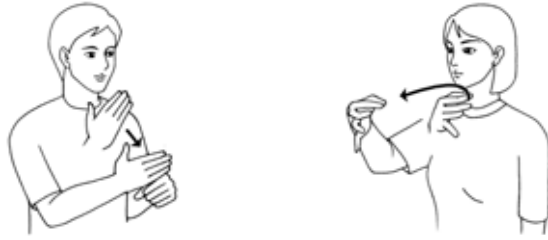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등에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등을 두 번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약간 위로 올린 다음, 5지를 잡고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가운뎃소리

가운뎃소리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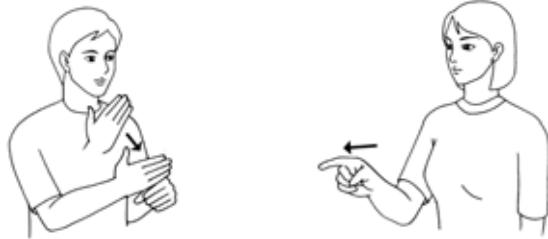
음절의 구성에서 중간 소리인 모음.
‘땅’에서 ‘ㄴ’, ‘들’에서 ‘ㄴ’ 따위이다.
중성(中聲).
[중(中)+ 음성]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가운뎃점(一黑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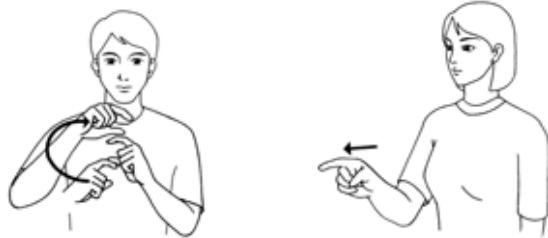
쉽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에 쓴다.
[중(中)+ 점을 찍음을 나타내는 동작]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짧게 내민다.

가점(加點) ㄹ ㄹ하타 ㄹ자

클이나 글자의 위아래나 옆에 강조하기 위하여 점을 찍음. 또는 그 점. 방점 찍기.
ㄹ 가점을 찍는다.
[추가+ 점]



1·5지를 펴서 1지가 위에 5지가 아래에 놓이게 하여 약간 구부린 오른 주먹을, 같은 모양의 왼 주먹의 5지 밑에 댄다가 왼 주먹의 1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짧게 내민다.

가획(加劃) ㄹ ㄹ하자 ㄹ자

원글자에 획을 더함.
ㄹ 한글은 기본 글자를 근간으로 다시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었다.
[추가+ 굵다(선)]



1·5지를 펴서 1지가 위에 5지가 아래에 놓이게 하여 약간 구부린 오른 주먹을, 같은 모양의 왼 주먹의 5지 밑에 댄다가 왼 주먹의 1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각자 병서(各字並書)

같은 자음 두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글자. ㄱ, ㄷ, ㅁ, ㅍ, ㅈ 따위가 있다.
[각+ 글자+ 이중+ 쓰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옮기며 2지를 5지에 대고 두 번 땡긴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손등이 위로 손끝이 입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돌려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간접 높임(間接-)

주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하여 주어의 간접적으로 높임.
¶ 선생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시다.
[간접+ 높이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어 왼쪽으로 수평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다.

간접 높임말(間接-)

높임을 받는 대상과 관계있는 인물이 나 소유물 따위를 높이는 말. '진지', '아드님', '따님' 따위가 있다.
[간접+ 높임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어 왼쪽으로 수평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간접 목적어(間接目的語)

목적어의 하나. “철수에게 돈을 주었다.”에서 ‘철수에게’ 따위를 이른다.
[간접+ 목적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어 왼쪽으로 수평 이동한 다음, 동그랗게 쥐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1·5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넣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간접법

간접법(間接法) ㄹ

남의 말을 인용할 때, 현재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칭이나 시제 따위를 고쳐서 말하는 화법. 간접 화법(間接話法).

[간접+ 방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어 왼쪽으로 수평 이동한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간접 의문형 어미

중세 국어에 있는 의문형 어미. ‘-나 가, -는가’.

[간접+ 의문+ 형(모양)+ 어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어 왼쪽으로 수평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간접 인용절(間接引用節)

주어진 문장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간접으로 인용하는 절. 간접 인용절에는 ‘고’가 쓰인다. 서술격 조사 ‘이다’로 끝난 간접 인용절에서는 ‘이라고’로 나타난다.

[간접+ 인용절]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어 왼쪽으로 수평 이동한 다음, 두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구부려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간접적인 발화(-發話)

요청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듣는 이가 말하는 이의 요구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말.

[간접+ -적+ 발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어 왼쪽으로 수평 이동한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간접 화법(間接話法)

남의 말을 인용할 때, 현재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칭이나 시제 따위를 고쳐서 말하는 화법. 간접법(間接法).

¶ 간접 화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다.
[간접+ 화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어 왼쪽으로 수평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감정 기호(感情記號)

컴퓨터 자판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적절히 조합하여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새로운 언어 표현 방식. 이모티콘. 그림말.

[감정+ 기호]



오른손의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리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감탄

감탄(感歎/感嘆) ㄹ [하자]*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함.
 ▶ 동해의 해돋이는 절로 감탄할 만큼 장관이었다.
 [감동+ 탄복]



입을 약간 벌리고, 약간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에서 턱까지 올렸다가 밖으로 반원을 그리며, 약간 구부린 왼손바닥에 닿게 천천히 내린 다음, 오른손의 1·2·3·4지와 5지를 맞대어 입에 댔다가 벌리며 입도 크게 벌린다.

감탄문(感歎文) ㄹ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감탄형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데, '날씨가 좋구나!' 따위로 표현한다.
 [감탄+ 문(文)]



입을 약간 벌리고, 약간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에서 턱까지 올렸다가 밖으로 반원을 그리며, 약간 구부린 왼손바닥에 닿게 천천히 내린 다음, 오른손의 1·2·3·4지와 5지를 맞대어 입에 댔다가 벌리며 입도 크게 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감탄법(感歎法) ㄹ

문장에서 종결 어미에 나타나는 서법의 하나.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독백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한다. '-구나' 따위의 어미로 표현한다.
 [감탄+ 방법]



입을 약간 벌리고, 약간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에서 턱까지 올렸다가 밖으로 반원을 그리며, 약간 구부린 왼손바닥에 닿게 천천히 내린 다음, 오른손의 1·2·3·4지와 5지를 맞대어 입에 댔다가 벌리며 입도 크게 벌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감탄사(感歎詞) ㄹ

품사의 하나.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의 부류이다.
 ▶ 감탄사를 연발하다.
 [감탄+ 단어]



입을 약간 벌리고, 약간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에서 턱까지 올렸다가 밖으로 반원을 그리며, 약간 구부린 왼손바닥에 닿게 천천히 내린 다음, 오른손의 1·2·3·4지와 5지를 맞대어 입에 댔다가 벌리며 입도 크게 벌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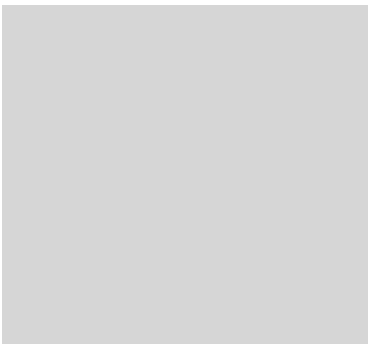
감탄 조사(感歎助詞)

감탄의 느낌이나 의미를 더하여 주는 조사. ‘도’, ‘나’, ‘그러’ 따위를 감탄 조사로 보는데, 보조사 ‘도’, ‘나’와 달리 비교 대상이 없이 그냥 감탄하는 것이며, 문장의 기락에 느낌을 더하는 기능이 있다.

[감탄+ 조사]



입을 약간 벌리고, 약간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에서 턱까지 올렸다가 밖으로 반원을 그리며, 약간 구부린 왼 손바닥에 닿게 천천히 내린 다음, 오른손의 1·2·3·4지와 5지를 맞대어 입에 댔다가 벌리며 입도 크게 벌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뻐다.

감탄형(感歎形) ㄷ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 ‘-구나’, ‘-도다’ 따위가 있다.

[감탄+ 형]



입을 약간 벌리고, 약간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에서 턱까지 올렸다가 밖으로 반원을 그리며, 약간 구부린 왼 손바닥에 닿게 천천히 내린 다음, 오른손의 1·2·3·4지와 5지를 맞대어 입에 댔다가 벌리며 입도 크게 벌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감탄형 종결 어미(感歎形終結語尾)

한 문장을 감탄형으로 맺어 주는 어미. ‘구나’ 따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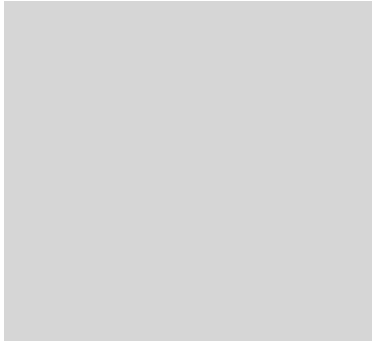
▶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구나.

[감탄형+ 종결 어미]



입을 약간 벌리고, 약간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에서 턱까지 올렸다가 밖으로 반원을 그리며, 약간 구부린 왼 손바닥에 닿게 천천히 내린 다음, 오른손의 1·2·3·4지와 5지를 맞대어 입에 댔다가 벌리며 입도 크게 벌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강모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강모음(強母音) ㅕ

어감(語感)이 밝고 산뜻한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따위가 있다. 양성 모음(陽性母音).
[강하다+ 모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때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같이 ㅈ

((체언 뒤에 붙어)) ①‘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눈같이 흰 박꽃. 소같이 일만 하다.
[두 가닥을 하나로 합치는 동작]
=같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다.

②((때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 새벽같이 떠나다.
[두 가닥을 하나로 합치는 동작]
=곧.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빠르게 울리며 1-5지 끝을 맞댄다.

개념(概念) ㄱ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 신문을 많이 읽다 보면 현대 사회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간추리다+ 생각]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벌려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모으며 주먹을 쥐면서 상하로 이어대고 목 밑으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다.

개념적 의미(概念的意味)

어떤 낱말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 사전적 의미. 외연적 의미. 인지적 의미.

[개념+ -적+ 의미]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벌려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모으며 주먹을 쥐면서 상하로 이어대고 목 밑으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개모음(開母音) ㄴ

저모음(低母音).

[열다+ 모음]



5지를 잡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보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잡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개방 집합

개방 집합(開放集合)

어휘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유동적인 것의 집합.

[개방+ 집합]



5지를 잡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보게 한 다음,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다.

개별 언어학(個別言語學)

특정 언어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학문.

[개별+ 언어+ 학(공부)]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옮기며 2지를 5지에 대고 두 번 뿔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개인어(個人語) ㉠

어떤 개인이 일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특정한 언어. 어떤 주어진 시기의 개인이 말하는 언어에 한정되는데, 한 개인의 언어 체계도 엄밀히 말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차가 있다는 관점에서 설정된 개념이다.

[개인+ -어(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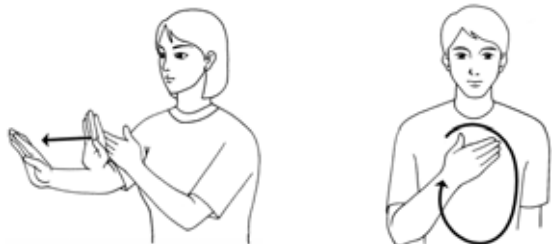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을 코에서 입을 중심으로 좌우로 벌리며 내리다가 좁히며 내려 두 1지 끝을 맞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객체(客體) ㉡

문장 내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 피동문 '선생님이 술래에게 잡히셨다.'에서 '술래'가 주체이면 '선생님'은 객체이다.

[밖+ 몸]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 손등을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린다.

객체 높임법(客體一法)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대우하여 표현하는 높임법. 현대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하여 ‘뵈다’, ‘드리다’, ‘여쭙다’를 써서 표현한다.

[객체+ 높임법]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 손등을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리고,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거나 조

((중결 어미 ‘-다’, ‘-니다’, ‘-는다’, ‘-라’ 따위의 뒤에 붙어))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뒤에 ‘하다’가 온다.

¶ 그녀는 예쁘다거나 귀엽다거나 하는 칭찬을 매우 좋아한다.

[두 번째를 나타내는 동작]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거나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으옵-’ 따위의 뒤에 붙어))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술** 건.

¶ 시간이 나면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한다.

[‘둘 중 어느 것이나’를 나타내는 동작] =든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댄다.

-거든 어미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그분을 만나거든 꼭 제 인사 말씀을 전해 주세요.

[거짓+ 입시] =만약.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을 오른쪽 볼에 댔다가 손을 펴서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등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등에 댄다.

거성

거성(去聲) ㄹ

①중세 국어 사성(四聲)의 하나. 높은 소리로, 글자에 표시할 때 왼쪽에 점 하나를 찍는다. ②한자음 사성의 하나. 높고 평탄한 소리이다.
[높다+ 평평하다+ 소리(음성)]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위로 올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거센소리 ㄹ

숨이 거세게 나오는 파열음. 국어의 ‘ㄹ’, ‘ㄷ’, ‘ㅌ’, ‘ㅍ’ 따위가 있다. 유기음.
[거세다+ 소리(음성)]



주먹을 쥔 왼 주먹 등에 오른손의 4지 옆으로 대고 위로 빠르게 스쳐 올리며 주먹을 쥔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건¹ ㄹ미

‘-거나’의 준말.
¶ 겉모양이야 어떻건 내용이 중요하다.
[‘둘 중 어느 것이나’를 나타내는 동작]
=든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댄다.

-건 ㄹ미

‘-거든’의 준말.
¶ 그게 좋건 내가 가져라.
[거짓+ 임시]
=만약.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끝을 오른쪽 볼에 댄다가 손을 펴서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등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등에 댄다.

-건마는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앞 절의 사태가 이미 어떠하니 뒤 절의 사태는 이러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그렇지 못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㉞ 건만.

¶ 바람이 불건마는 더위는 여전하다.
[반전(反轉)을 나타내는 동작]
=그러나.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건만 어미

‘-건마는’의 준말.

¶ 내 마음을 모를 리 없건만 그는 언제나 나를 무시했다.
[반전(反轉)을 나타내는 동작]
=그러나.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게 조

((주로 인칭 대명사 ‘내’, ‘네’, ‘제’에 붙거나 예스러운 표현으로는 ‘너희’, ‘저희’, ‘우리’, ‘뉘’ 따위 뒤에도 붙어)) ①‘에게①’의 준말.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 네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
[상대를 가리키는 동작]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내게’라고 할 때에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네게’라고 할 때에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상대방을 가리킨다).

②‘에게②’의 준말.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것을 내게 다오.
[상대를 가리키는 동작]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내게’라고 할 때에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네게’라고 할 때에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상대방을 가리킨다).

-게

③‘에게③’의 준말.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왜 내가 네게 잔소리를 들어야 하지?

[상대를 가리키는 동작]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내게’라고 할 때에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네게’라고 할 때에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상대방을 가리킨다).

-게 어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그것이 뒤에 오는 동작(상태)에 대한 목표(이유·기준·조건)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상대에게 지시하는 동작]

=시키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민다(사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동사로 나타낸다).

-게 어미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하게할 자리에 쓰여, 손아래나 허물없는 사이에 무엇을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자네 이것 좀 보게. 어서 들어오게.

요청 또는
부탁하는 표정

동사의 명령형

- ① 요청 또는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다. ② 동사의 명령형(예: 오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표시한다.

게로 ㄹ

((주로 인칭 대명사 ‘내’, ‘네’, ‘제’ 따위 뒤에 붙거나, 예스러운 표현으로는 ‘너희’, ‘저희’, ‘우리’, ‘뉘’ 따위 뒤에도 붙어)) ‘에게로’의 준말.

¶ 그 일이 끝나면 내게로 와라.

[가리키는 동작]

=것.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

-갯¹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아마.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얼굴 오른쪽 앞에서 전후로 두 번 약간 흔든다.

-갯²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 내겠다.
=①꼭. ②의지를 나타내는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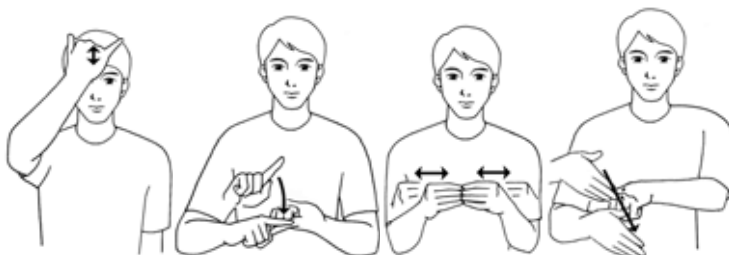


의지를 나타내는 표정

①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구부리며 서로 건다. ② 의지를 나타내는 표정을 짓는다.

격식체(格式體) 명

상대 높임법의 하나. 의례적으로 쓰며 표현은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이다.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따위가 있다.
[예의+ 적합하다+ 체(문장+ 식)]



4·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을 이마에 대고 상하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격 조사(格助詞)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앞말이 다른 말에 대하여 갖는 일정한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주격 조사,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호격 조사 따위가 있다.
[자격+ 조사]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검양법

검양법(謙讓法) ㅁ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대우하여 표현하는 높임법. 현대 국어에서는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하여 ‘뵈다’, ‘드리다’, ‘여쭙다’를 써서 표현한다. 객체 높임법(客體-法).

[검손+ 적합하다+ 방법]



오른손을 펴서 세워 손바닥을 코에 대고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검양어(謙讓語) ㅁ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말. ‘저희’, ‘여쭙다’ 따위가 있다.

[검손+ 적합하다+ -어]



오른손을 펴서 세워 손바닥을 코에 대고 고개를 약간 숙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겹글자 ㅁ

같은 자가 겹쳐져 이루어진 글자. 한글의 ‘ㄱ’, ‘ㄷ’, ‘ㅃ’, ‘ㅆ’, ‘ㅉ’이나 한자의 ‘叒’, ‘林’, ‘森’, ‘比’, ‘品’ 따위를 이른다.

[두 글자를 겹쳐 씀을 나타내는 동작 + 글자]



오른 주먹의 1·2지를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벌리고 그 옆면에 왼 주먹의 1·5지를 대고 붙인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겹낫표(一標) ㅁ

따옴표의 하나. 세로쓰기에 쓰는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할 때 또는 법률 이름에 쓴다.

[겹낫표를 나타내는 동작]



왼 주먹의 1·2·5지를 펴서 1·2지 끝이 아래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1·2지 끝이 위로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다.

겹문장(-文章) ㄷ

한 문장의 성분 속에 둘 이상의 절이 종속적인 관계로 겹쳐진 문장. 홑문장 하나가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안은 문장'과 홑문장이 서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 있다.
[이중+ 문장]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손등이 위로 손끝이 입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돌려 내린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겹받침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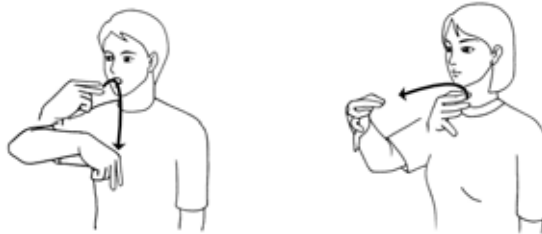
서로 다른 두 자음으로 이루어진 받침. 'ㄱ', 'ㄴ', 'ㄹ', 'ㄷ', 'ㅌ', 'ㅍ', 'ㅂ' 따위가 있다.
[겹받침을 나타내는 동작]



왼손을 약간 구부려 손가락 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밑으로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1·2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안쪽에서 밀어 넣는다.

겹소리 ㄷ

소리의 처음과 끝이 다르게 나는 소리. 복음(複音). 중음(重音).
[이중+ 음(音)]
=중음(重音).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손등이 위로 손끝이 입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돌려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경구개(硬口蓋) ㄷ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두꺼운 점막으로 덮여 있고, 앞쪽에 뼈가 있다. 단단입천장. 센입천장.
[단단하다+ 입천장을 가리키는 동작]
=단단입천장.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천장을 가리킨다.

경구개음

경구개음(硬口蓋音)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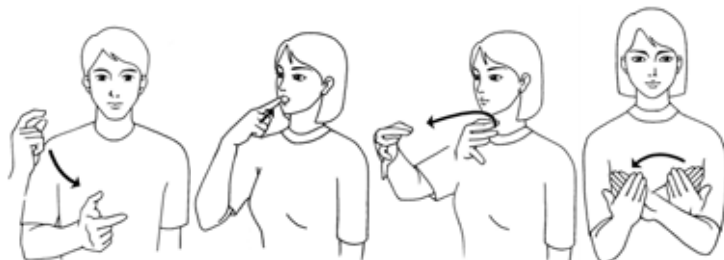
혓바닥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ㄷ’, ‘ㅌ’, ‘ㅍ’ 따위가 있다. 구개음(口蓋音).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音)]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천장을 가리키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경구개음화(硬口蓋音化) ㄷ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ㄷ’, ‘ㅌ’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ㄷ’이 되는 현상. ‘굳이’가 ‘구지’로, ‘굳히다’가 ‘구치다’로 되는 것 따위이다. 구개음화(口蓋音化).
[경구개음+변하다]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천장을 가리키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경어(敬語) ㄷ

상대를 공경하는 뜻의 말. ‘높임말’로 순화됨.
▶ 어른에게 깎듯한 경어를 쓰다.
[공경+어]



4·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을 이마에 대고 상하로 움직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으로 받쳐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경어법(敬語法) ㄷ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다. 높임법(-法). 존대법.
▶ 우리 국어는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이다.
[경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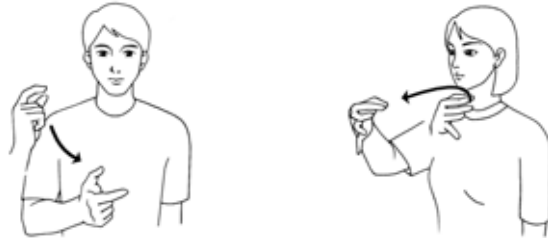


4·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을 이마에 대고 상하로 움직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으로 받쳐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경음(硬音) ㄱ

후두(喉頭) 근육을 긴장하거나 성문(聲門)을 폐쇄하여 내는 음. ‘ㄱ’, ‘ㄲ’, ‘ㅋ’, ‘ㆁ’, ‘ㅇ’ 따위의 소리이다. 된소리.

[단단하다+ 음(音)]
=된소리.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경험 동사(經驗動詞)

경험 관련 동사. ‘느끼다’, ‘바라다’, ‘배우다’ 따위가 있다.

[경험+ 동사]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옆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전후로 두 번 스쳐 내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계열적 관계(系列的關係)

문법적으로 동일한 무리에 들어 있는 각 언어 단위 속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관계. 영어의 인칭표(人稱表), 동사 변화표 따위이다.

[계열(관련+ 계통)+ -적(的)+ 관계]



두 손을 1·5지 끝을 맞대어 고리를 만들어 있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5지를 펴서 모로 세운 왼 주먹 밑에 오른 주먹의 손목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며 손가락을 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댔 다음,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교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조사 ‘에, 에게, 서, 에서, 께, 께서’ 따위의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나열되는 사물이 똑같이 선택됨을 나타낸다. 바로 뒤에 ‘간에’가 오기도 한다.

¶ 그 사람은 염치고 체면이없어. [‘또’의 ‘ㄷ’을 나타내는 동작]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고

-고 어미

((‘-고 있다’ 등 보조 용언이 있는 구
성에서)) 본용언에 붙는 연결 어미.
 ♣ 너 아직도 울고 있구나.
 [글자 ‘中’(중)을 나타내는 동작]
 =중(中).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다.

고구려어(高句麗語)

고구려의 언어. 원시 부여어를 이어
받아 형성되었으며, 원시 한어인 백
제어, 신라어와 친족 관계가 있다.
 [고구려+ -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가운데 위로 올린 다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고대 국어(古代國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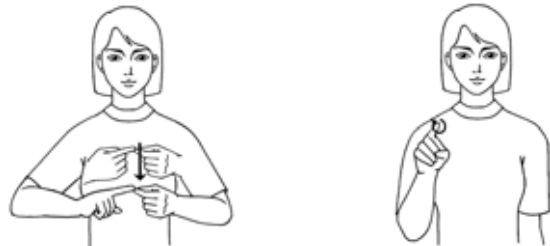
국어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였을 때에
가장 이른 시기의 언어. 우리나라에
서는 고려 이전, 특히 신라의 언어를
이른다.
 [고대(옛+ 때)+ 국어]



오른 주먹의 1·2·5지를 벌려 펴서 1·2지 바닥을 이마에 댄 다음,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리고,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들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고리점(一點) ㉠

마침표의 하나. 세로쓰기에 쓰는 문
장 부호 ‘·’의 이름이다. 서술·명령
·칭유 따위를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쓰거나,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
일을 표시할 때, 준말을 나타낼 때,
또는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세로쓰기를 나타내는 동작+ 고리
점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왼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약간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끝으로 작은 원을 그린다.

고모음(高母音)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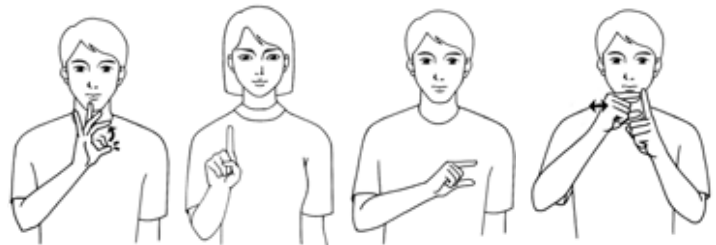
입을 조금 열고, 혀의 위치를 높여서 발음하는 모음. 국어에는 ‘ㅣ’, ‘기’, ‘ㅡ’, ‘ㅏ’ 따위가 있다.
[높다+ 모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목을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고유 명사(固有名詞)

날날의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여 부르기 위하여 고유 의 기호를 붙인 이름. 문법에서는 명사의 하나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해, 달’ 따위는 다른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유 명사에 속하지 않는다.
[고유(유일)+ 명사]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댔다가 2지를 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고유어(固有語) ㅁ

① 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 국어에는 ‘아버지’, ‘어머니’, ‘하늘’, ‘땅’ 따위가 있다.
¶ 한자어가 들어오면서 국어의 많은 고유어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② 어떤 고장 고유의 독특한 말.
[고유+ -어(語)]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댔다가 2지를 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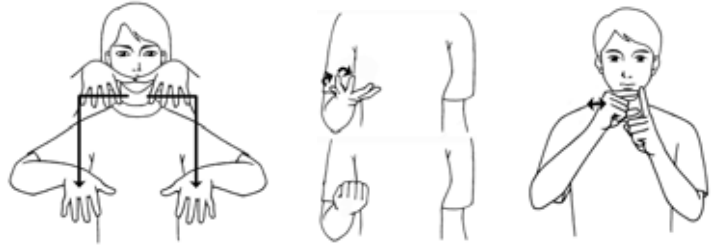
고유어계수사(固有語系數詞)

고유어 계열의 수사. 하나ㅎ, 둘ㅎ, 날굽, 여덥, 아홉 따위가 있다.
[고유어+ 계+ 수사]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댔다가 2지를 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고자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맞췄다가 약간 벌려 내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5지부터 차례로 접은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고자 어미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남의 뒷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한다.
 =싫다.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다.

골 조

((주로 명사에 붙어)) (예스러운 표현으로)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그대곤 아니면 뉘 능히 이 일을 하리오? 아들은 날곤 새면 지게를 지고 나갔다.



/과장된 동작과 표정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빠르게 올리며 1·5지 끝을 맞대며 동작과 표정을 과장되게 한다.

공손법(恭遜法) ㄷ

일정한 종결 어미를 선택함으로써 상대방을 대우하여 표현하는 높임법.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해체’, ‘해요체’ 따위가 있다. 상대 높임법(相對-法).
 [공손하다+ 법(法)]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으로 코밑을 오른쪽으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을 펴서 세워 손바닥을 코에 대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과 조*

①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았다.

②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한 시민이 도둑과 싸워 그 도둑을 잡았다.

③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대륙과 해양은 기후가 다르다.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끝 부분의 양면을 왼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는다.

과거(過去) 땡*

시제의 하나. 현재보다 앞선 시간 속의 사건임을 나타낸다. 활용하는 단어의 어간에 어미 ‘-ㄴ/-은/-는’이나 ‘-았/-었-’, ‘-더-’ 따위를 붙여 나타낸다.

[지나갔음을 나타내는 동작]

↔미래.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긴다.

과거 시제(過去時制)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과거+ 시제]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긴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을 대고 1·2지를 밖으로 돌린다.

과거 완료(過去完了)

동사 완료상의 하나. 과거의 어느 때에 이미 있었거나 행하여졌던 동작을 나타낸다. 과거 시제에 보조 어간 ‘-었-’을 더한 형태로 나타낸다.

[과거+ 완료]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기고,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은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댈다.

과거 진행

과거 진행(過去進行)

동사 진행상의 하나. 지나간 어느 때의 동작이 진행 중이었음을 나타낸다.

[과거+ 진행]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기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서로 엇갈리게 두 번 흔든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붙여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왼쪽 허리 앞으로 내린다.

과거 진행 완료(過去進行完了)

완료상(完了相) 시제의 하나. 진행되던 동작이 과거의 어느 때에 이미 끝났음을 나타낸다.

[과거진행+ 완료]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기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서로 엇갈리게 두 번 흔든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붙여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왼쪽 허리 앞으로 내리고,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은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다.

관계 부사(關係副詞)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의 구실을 겸한 부사. 곳·때·방법·이음 따위의 관계를 나타내며, 영어 따위의 일부 외국어에서 볼 수 있다.

[관계+ 부사]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이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댄다.

관계언(關係言) ㄷ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 조사가 있다.
[관계+ 말]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관계적 의미(關係的意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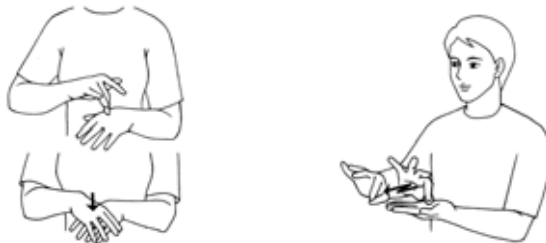
문장에서 단어, 시제, 높임법 따위의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
[관계+ -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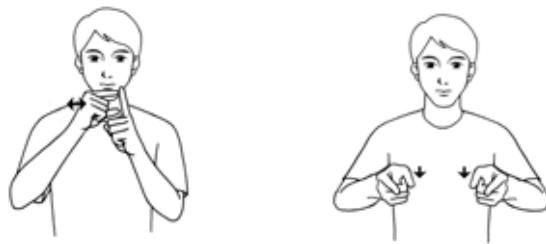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관용구(慣用句) ㄷ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語句). ‘발이 넓다’는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를 뜻하는 것 따위이다.
[습관+ 쓰다+ 구(句)]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댔다가 손바닥을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관용어

관용어(慣用語) ㄷ

습관적으로 쓰는 말.
[습관+ 사용+ 말]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댄다가 손바닥을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관용 어법(慣用語法)

어떤 사회에서 관습적으로나 일반적
으로 쓰는 말의 법칙.
[관용어+ 방법]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손의 2지를 댄다가 손바닥을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관형격(冠形格) ㄷ

문장 안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임을 보이는 격.
[관형+ 격(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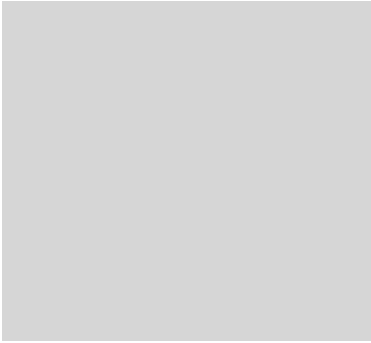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위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린다.

관형격 조사(冠形格助詞)

문장 안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의 관형어임을 보이는 조
사. '의'가 이에 해당한다.
[관형격+ 조사]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위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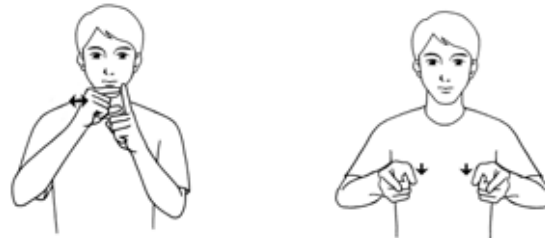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관형구(冠形句) ㄷ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어구. '맑고 고운 마음'의 '맑고 고운' 따위이다.
[관형+ 구(句)]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관형사(冠形詞) ㄷ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 조사도 붙지 않고 어미 활용도 하지 않는데, '순살코기'의 '순'과 같은 성상 관형사, '저 어린이'의 '저'와 같은 지시 관형사, '한 사람'의 '한'과 같은 수 관형사 따위가 있다.

[관형+ 단어]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冠形詞形轉成語尾)

용언의 어간에 붙어 관형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ㄴ’, ‘-는’, ‘-던’, ‘-르’ 따위가 있다.

[관형사+ 형+ 전성 어미]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앞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관형어(冠形語) ㄷ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 관형사, 체언,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동사와 형용사의 명사형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말 따위가 있다.

[관형+ -어(語)]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앞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관형절(冠形節) ㄷ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하여 관형어의 구실을 하는 형용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절(節). ‘철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에서 ‘철수가 온다는’처럼 종결형 어미로 끝난 문장에 ‘-는’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거나, ‘네가 좋아할 일이 생겼다.’에서 ‘네가 좋아할’처럼 종결형 어미가 올 자리에 ‘-(으)르, -(으)ㄴ’ 같은 관형사형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어미가 결합하여 뒤의 체언을 꾸민다.

[관형+ 절(節)]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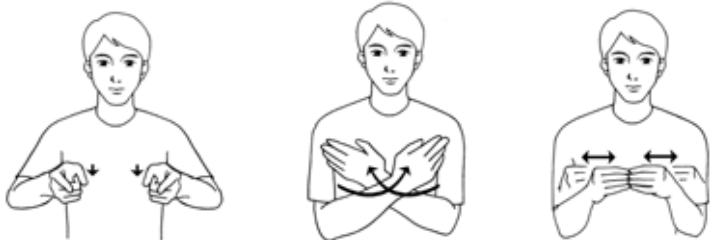
관형절을 안은 문장(冠形節-文章)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으)ㄴ, -던’이 붙어서 과거, 현재, 미래, 회상의 시간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관형절을 포함하는 문장.

[관형절+ 안다+ 문장]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리고, 두 팔을 벌렸다가 가슴에 모아 댄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괄호(括弧) ㄹ

문장 부호의 하나. 소괄호(()), 중괄호({ }), 대괄호([])가 있다. 묶음표. ㄹ 괄호를 사용한다.

[소괄호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각각 반원을 마주 보게 그리며 내린다.

교착어

교착어(膠着語) ㄷ

언어의 형태적 유형의 하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구실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로, 한국어·터키어·일본어·핀란드어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붙다+ -어(語)]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교체(交替/交遞) ㄷ 히타 되자*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대신함.

[자리바꿈을 하는 동작]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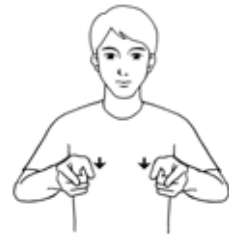


1지를 펴서 등이 옆으로 향하게 세운 두 주먹을 중앙으로 모아 두 팔이 교차하게 한다.

구(句) ㄷ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 절이나 문장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막. 종류에 따라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따위로 구분한다.

[단어+ 마디]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구강(口腔) ㄷ

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빈 곳. 음식물을 섭취·소화하며, 발음 기관의 일부분이 된다. 입안.

[입속을 가리키는 동작]

=입안.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입속을 가리킨다.

구개수음(口蓋垂音)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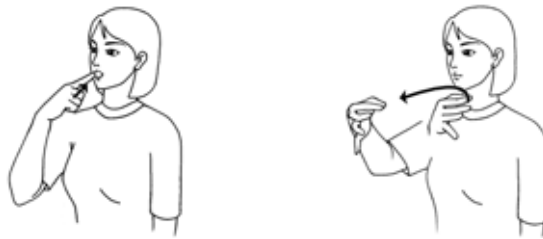
목젖과 후설면 사이에서 나는 소리.
목젖소리.
[목젖+ 음성]



벌린 입 앞에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구개음(口蓋音) [명]

혀바닥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ㄷ’, ‘ㅌ’, ‘ㄷ’ 따위가 있다. 경구개음(硬口蓋音). 센입천장소리(-天障-).
[입천장+ 소리]
=입천장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의 입천장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구개음화(口蓋音化) [명] [해타]
되자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구개음 ‘ㄷ’, ‘ㄷ’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ㄷ’이 되는 현상. ‘굳이’가 ‘구지’로, ‘굳히다’가 ‘구치다’로 되는 것 따위이다. 경구개음화.
[구개음+ 변화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의 입천장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 180도 돌려 세운다.

-구나 [어미]*

((‘이다’의 어간,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경치가 참 아름답구나.
[머릿속으로 전달됨을 나타내는 동작]
=느끼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다.

구두어

구두어(口頭語) [명]

문장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 구어(口語).

[입+ 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입 주위를 한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구두점(句讀點) [명]

글을 마치거나 쉬 때 찍는 마침표와 쉼표.

¶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구두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짧게 내민다.

-구려 [어미]

①(‘이다’의 어간,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하오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옷감이 색이 참 좋구려.

[-구나+ 맞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 다음,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다.

②(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하오할 자리에 쓰여, 상대방에게 원하는 태도로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더 늦으면 어두워질 테니 어서 가구려.



동사의 명령형

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 ② 동사의 명령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표시한다.

-구면 (어미)

‘-군’의 본말.

¶ 학교가 참 크구면. 그것참 그럴듯한 생각이구면그래. 가지가 실하니 열매도 많이 열리겠구면. 20년이 지났으니 그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겠구면.

[머릿속으로 전달됨을 나타내는 동작]

=느끼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다.

구어(口語) (땡)

문장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 구두어. 입말.

[입+ 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입 주위를 한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구어문(口語文) (땡)

구어체로 쓰인 문장.

¶ 현대 중국에서는 지식인만이 쓰던 문어문보다는 구어문인 백화문으로 새로운 문학을 창작하려고 하였다.

[구어+ 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입 주위를 한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구어체(口語體) (땡)

구어(口語)로 쓰인 문체.

¶ 개화기에 글을 말하는 대로 쓰지는 언문일치 운동이 일어나고부터 점차로 구어체 문장을 쓰게 되었다.

[구어+ 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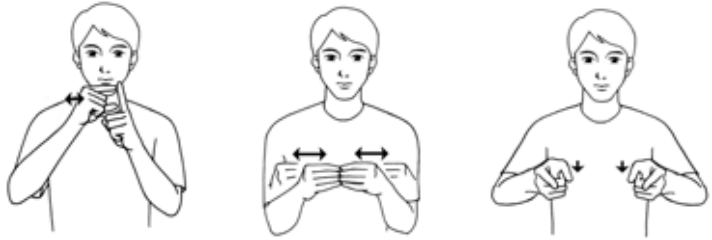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입 주위를 한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구절

구절(句節) ㄷ

구(句)와 절(節)을 아울러 이르는 말.
[구+ 절(節)]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떴다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국립국어원(國立國語院)

국어 생활의 향상을 꾀하고, 국어 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1년 1월 23일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개원 당시의 명칭은 '국립국어연구원'이었으나 2004년 11월 11일 국립국어원으로 바뀌었다.
[국립+ 국어원]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우고,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운다.

국문 연구소(國文研究所)

융희 원년(1907) 7월에 학부(學部) 안에 설치한 국문 연구 기관. 주시경, 지석영 등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약 3년 동안 국어 통일에 관한 토의를 하였다.
[국문(나라+ 글자)+ 연구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며 주먹을 쥐고 등을 왼 주먹 등에 대고 안으로 당긴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국어(國語) ㄹ*

- ①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 이 책은 이십여 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 ②우리나라의 언어. ‘한국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르는 말이다.
 ¶ 국어 성적/국어를 가르치다.
 [나라+ 말]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국어 국문학회(國語國文學會)

- 국어학과 국문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1952년에 설립한 학회. 정기적인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회지(會誌) 《국어 국문학》을 발간한다.
 [국어+ 국문(나라+ 문학)+ 학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왼손의 5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ㄷ’자 모양을 만들어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왼 손가락 사이에 옆으로 두 번 넣었다 빼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댔다가 안으로 원을 그리며 돌려 두 손목을 마주 댔다.

국어 독본

국어 독본(國語讀本)

예전에, 국어를 가르칠 때 쓰던 교과서.

¶ 선생님은 떠들썩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국어 독본을 읽기 시작한다. <<정한숙, IYEU도>>

[국어+ 읽다+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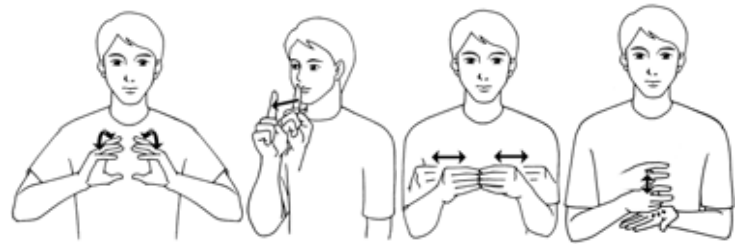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으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을 두 번 오르내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닿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려 편다.

국어 문법(國語文法)

①국어의 문법. ②국어의 단어가 서로 관계를 맺어서 문장을 이루는 법칙.

¶ 내가 중학 시대부터 큰 관심과 취미를 가지고 공부한 것이 국어 문법이였다. <<이희승, 먹추의 말참견>>

[국어+ 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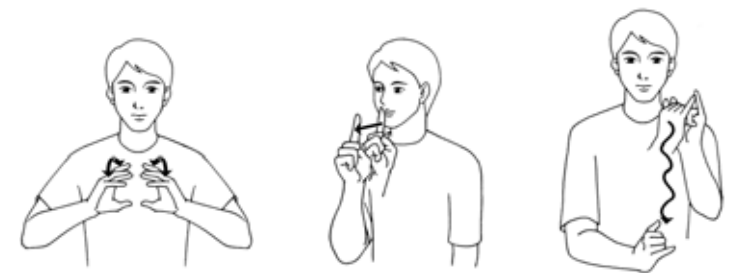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국어사(國語史) [명]

국어의 변화에 관한 역사.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국어의 음운, 어휘, 문법이 변천해 온 역사를 다룬다.

¶ 선생님께서는 평생 옛 문헌들과 국어사 연구의 기본 자료를 영인하셨는데, 이는 후학들의 국어사 연구에 큰 힘이 되었다.

[국어+ 역사]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4·5지를 펴서 세운 두 손을 마주 댔다가 오른손만 약간 흔들면서 아래로 내린다.

국어 연구 학회(國語研究學會)

1908년에 주시경 등이 우리말과 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조직한 학회.

[국어+ 연구+ 학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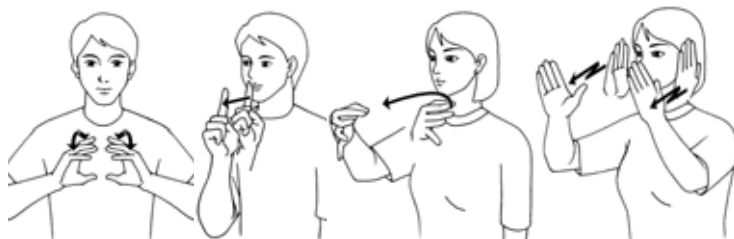


오른 주먹을 쥐고 등을 왼 주먹 등에 대고 안으로 당기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댔다가 안으로 원을 그리며 돌려 두 손목을 마주 댄다.

국어 음성학(國語音聲學)

국어의 말소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국어+ 음성학]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국어학(國語學) ㉠

국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국어의 음운, 문법, 의미 구조와 국어가 변천해 온 역사, 방언 따위를 연구한다.

㉠ 국어학을 전공하다.

[국어+ 학]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국어학사(國語學史) ㉡

국어학의 변천 과정의 역사.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 일제 강점기의 국어 연구는 국어 문법의 연구와 국어의 역사적 연구, 즉 국어학사의 연구로도 나타났다.

[국어학+ 역사]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 다음, 4·5지를 펴서 세운 두 손을 마주 댔다가 오른손만 약간 흔들면서 아래로 내린다.

국제 음성 기호

국제 음성 기호(國際音聲記號)

1888년 국제 음성학 협회가 정한 자모 기호. 말소리의 표기 방법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주로 로마자를 쓰며 여러 문자에서 글자를 빌려 와 로마자에 어울리도록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소리의 길이, 강세, 억양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구별 부호를 쓴다.

[국제+ 음성+ 기호]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두 손을 마주 보게 하여 동시에 밖으로 크게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군 어미

①(‘이다’의 어간,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뒤에는 보조사 ‘요’가 오기도 한다. ②‘-구나’의 준말.

¶ 학교가 참 크군.

=느끼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다.

굴곡 어미(屈曲語尾)

조사와 어미를 이르는 말.

[굽다+ 어미]



오른 주먹의 1지를 구부려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굴절 접사(屈折接辭)

조사와 어미를 이르는 말. 굴곡 어미(屈曲語尾).

[굴절(모습+ 바꾸다①)+ 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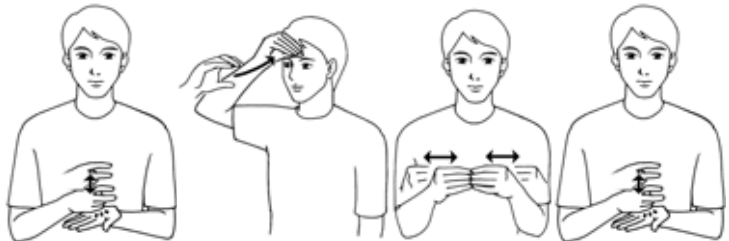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1지를 펴서 등이 옆으로 향하게 세운 두 주먹을 중앙으로 모아 두 팔이 교차하게 하고,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규범 문법(規範文法)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한 문법. 언어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문법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과학 문법과 대립한다. 실용문법.

[규칙(법)+ 모범+ 문법]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이마 앞에서 이마로 옮겨 1지 옆면이 닿게 이마에 대며 5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맞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댔다 떼다.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규칙 활용(規則活用)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할 때에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규칙적인 것.

[규칙(법+ 차례)+ 활용]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쪽을, 구부린 오른손으로 덮어 두 손을 동시에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힘주어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두 번 스쳐 낸다.

그레

그레 ㄹ

((-구면, -군, -지'와 같은 해할 자리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자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면그레.

[두 가닥을 하나로 합치는 동작]
=같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휘둥그렇게 뜬다.

그레 ㄹ

((하게할 자리나 하오할 자리 또는 합쇼할 자리의 일부 종결 어미 뒤에 붙어)) 청자에게 문장의 내용을 강조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자네가 이야기를 좀 하게나그러.
=바르다.



/고개를 끄덕이며 강조하는 표정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으로 코밀을 오른쪽으로 스쳐 내며 고개를 끄덕이며 강조하는 표정을 짓는다(뭔가를 정중히, 간절히 부탁할 경우).

그림 문자(-文字)

휴대 전화나 인터넷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호. 키(Key)의 문자, 숫자, 그림, 도형 따위를 조합해 감정이나 의사를 나타내는 문자. 회화 문자.

[그림+ 문자]
=회화 문자.



오른 손가락 등으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뗀다.

근대 국어(近代國語)

국어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였을 때에,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국어. 중세 국어의 문법 체계와 음운 체계가 많이 바뀌었다.

[근대(가깝다+ 과거+ 시대)+ 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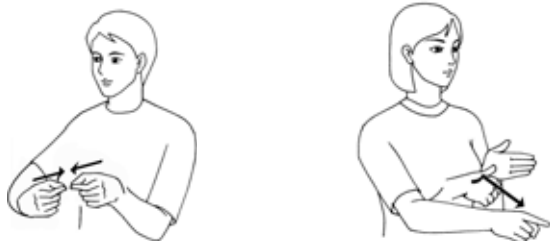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주먹을 모로 세워 전후에서 접근시켜 맞댄 다음,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기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리고,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근칭(近稱)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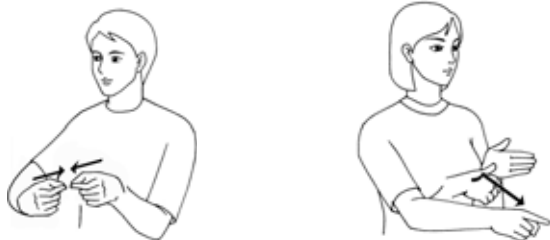
삼인칭 가운데, 말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장소를 가리키는 일. 또는 그런 말. ‘여기’, ‘이리’, ‘이’ 따위가 있다.
[가깝다+지칭]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주먹을 모로 세워 전후에서 접근시켜 맞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민다.

근칭 대명사(近稱代名詞)

말하는 사람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물, 방향, 처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이분’, ‘이것’, ‘여기’ 따위가 있다.
[근칭+대명사]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두 주먹을 모로 세워 전후에서 접근시켜 맞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글

글 (명)*

①어떤 생각이나 일 따위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 ¶ 여행 다녀온 느낌을 글로 적어 놓았다.
 ②학문이나 학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는 견문도 넓거니와 글도 대단하다.
 ③글자. ¶ 글을 못 배워 자기 이름 적 자도 못 쓴다.
 =글자.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글자 (명)*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 칠판에 적은 글자가 잘 안 보인다.
 =글.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금기어(禁忌語) (명)

불쾌하고 두려운 것을 연상하므로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말.
 [사용+ 말다+ -어(語)]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긍정문(肯定文) (명)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
 [긍정+ 문(文)]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왼 주먹의 1지는 위로 오른 주먹의 1지는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자로 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기관(氣管) ㄷ

척추동물의 후두에서 허파에 이르는, 숨 쉴 때 공기가 흐르는 관. 심장 위에서 좌우의 기관지로 갈라진다.
[공기+ 기관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콧구멍으로 향하게 하여 밀어 올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목 위쪽에 댄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린다.

기본형(基本形)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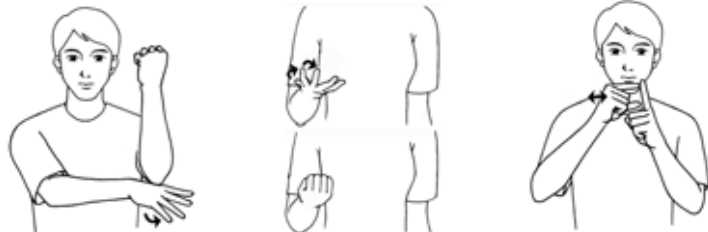
활용하는 단어에서 활용형의 기본이 되는 형태. 국어에서는 어간에 어미 '-다'를 붙인다.
[기본+ 형(形)]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며 손가락을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기수사(基數詞)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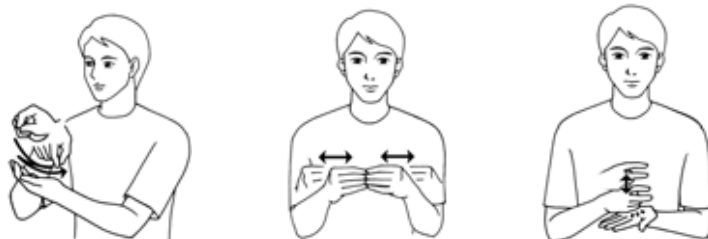
수량을 셀 때 쓰는 수사. 하나, 둘, 셋 따위이다. 양수사(量數詞).
[기본+ 수사]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며 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5지부터 차례로 접은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뎨다.

기술 문법(記述文法)

특정한 시기의 한 언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문법.
[기술+ 문법]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두 번 그어 내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기에

-기에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예스러운 표현으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맛있어 보이기에 사 왔다.

[스치거나 부딪힘에 기인함을 나타내는 동작]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댄다.

기호(記號) 평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기호로 나타낸다.

[적어 넣음을 나타내는 동작+ 종류 + 이름]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긴 부정문(-否定文)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사용하여 만든 부정문. 후행 부정.

[길다+ 부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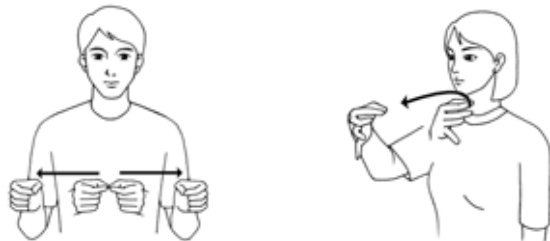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모로 세워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긴소리 평

길게 내는 소리.

[길다+ 소리(음성)]

=장음(長音).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모로 세워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ㄱ [쌍기역]*

한글 자모 ‘ㄱ’의 된소리 글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아래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으로 한 번 옮긴다.

까지 ㄱ*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①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동생을 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②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비까지 내리니 내일 가거라.

③그것이 극단적인 경우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봅시다.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다.

께 ㄱ

①‘에게①’의 높임말.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 형님께 무슨 일이 생겼나요?

②‘에게②’의 높임말.

▶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제일 먼저 알려 드리고 싶어요.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내민다.

③‘에게③’의 높임말.

▶ 선생님께 야단을 맞았어요.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내민다(다만,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 경우에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다).

끝어 적기

끝어 적기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그 각각을 음절이나 성분 단위로 밝혀 적음. 또는 그 표기법. 분철(分綴).

[나누다+ 적다]

=분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끝소리 명

①종성(終聲). ②어떠한 음절이나 단어의 끝에 나는 소리. '바다'에서 'ㅌ', '강'에서 'ㅇ' 따위이다.

[끝+소리]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ㄴ

ㄴ[니은]*

한글 자모의 둘째 글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ㄴ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③’보다 더 구어적이다.

▶ 그렇게 천천히 걸다간 지각하겠다.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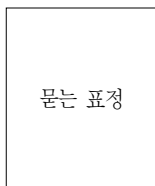
/강조하는 표정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등에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등을 대며 강조하는 표정을 짓는다.

-ㄴ가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르’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하계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그게 정말인가? 자네 어디 아픈가?
=②묻다.



① 묻는 표정을 짓는다.



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다.

-ㄴ데

-ㄴ데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시오-’ 따위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
=그러나.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ㄴ커녕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 보조사 ‘ㄴ’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다.

¶ 하루 종일 국은커녕 물 한 모금도 못 마셨다.

[자리가 뒤바뀜을 나타내는 동작]
=커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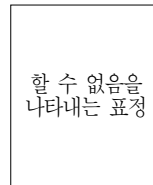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손끝을 모아 쥘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전후로 놓았다가 동시에 반원을 그리며 움직여 두 손의 위치를 반대로 바꾸어 놓는다.

나 [조]

[1]①((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인 것처럼 표현하는데 쓰기도 한다.

¶ 심심한데 영화나 보러 가자.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정을 짓는다.

②((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 흔히 놀람의 뜻이 수반된다.

¶ 선생님은 시를 백 수나 외우신다더라.
=정도.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높이에서 상하로 두 번 움직인다.

③((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수량이나 정도를 어림잡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몇 시나 되었을까?”

④((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말 뒤에 붙어)) 많지는 아니 하나 어느 정도는 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답 마리나 잡았지.

=얼마.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5·1·2·3·4지 순으로 접는다.

⑤((종결 어미 ‘-다’, ‘-니다’, ‘-는다’, ‘-라’ 따위에 붙어)) 화자가 인용하는 내용에 스스로 가벼운 의문을 가진다는 뜻이나 그 내용에 별 관심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빈정거리는 태도나 가벼운 불만을 나타낸다.

¶ 그래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나 뭐 그러던데.

=아마.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얼굴 오른쪽 앞에서 전후로 두 번 약간 흔든다.

⑥((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맨 뒤에 나열되는 말에는 붙지 않을 때도 있다.

¶ 그런 걸 아무에게나 물어볼 수는 없잖아.

=무엇.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좌우로 두 번 흔든다.

[2]((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나열되는 사물 중 하나만이 선택됨을 나타낸다.

¶ 건강을 위해 담배나 술을 끊어야 한다.

=또는.



오른 주먹의 1·2지를 벌려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목을 좌우로 두 번 돌린다.

-나

-나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르’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사오-’ 따위 뒤에 붙어)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키는 크나 힘은 약하다.

[반전(反轉)을 나타내는 동작]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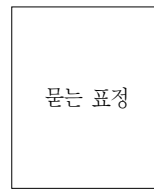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나 (어미)

((주로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였-’, ‘-졌-’ 뒤에 붙어)) 「1」 하계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자네 언제 떠나나?



묻는 표정을 짓는다.

나란히 쓰기

훈민정음에서, 초성자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일. 각자 병서 ‘ㄱ, ㄷ’ 따위와 합용 병서 ‘래, ㅁㅁ’ 따위가 있다. 병서(並書).

[두 글자를 동시에 적어 넣음을 나타내는 동작+쓰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나란히 세워 약간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나마 (조)

((받침 없는 체언류나 부사어 뒤에 붙어)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어떻게 될지 말하기에는 부족한 조건이지만 아쉬운 대로 인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네 덕에 늦게나마 일을 마칠 수 있었다.

[반전(反轉)을 나타내는 동작]

=그러나.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날숨소리 ㄴ

내쉬는 숨에 의하여 발음되는 소리.
호기음(呼氣音). 호식음(呼息音).
[내쉬다+ 음성]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코로 향하게 하였다가 밖으로 비스듬히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낫표(-標) ㄴ

따옴표의 하나. 세로쓰기에 쓰는 문장 부호 ‘「 」’의 이름이다.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을 나타낼 때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나타낼 때에 쓴다.
[낫표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왼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아래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다.

낫춤말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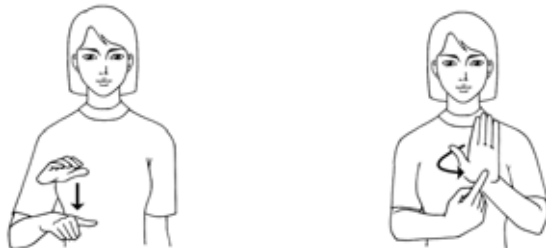
①사람이나 사물을 낮추어 이르는 말. ‘저 사람’에 대하여 ‘저자’라고 하는 따위이다. ②상대를 높이는 뜻에서 자기와 자기가 속한 무리를 낮추어 이르는 말. ‘나’를 ‘저’, ‘우리’를 ‘저희’라고 하는 따위이다. ③상대편을 높이는 뜻이 없이 쓰는 말. 주로 ‘하계체’, ‘해라체’, ‘해체’ 따위를 쓴다.
[낮추다+ 말]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아래로 약간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낫춤 표현(-表現)

①사람이나 사물을 낮춤. ②상대를 높이는 뜻에서 자기와 자기가 속한 무리를 낮춤. ③상대편을 높이는 뜻이 없음.
[낮다+ 표현]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아래로 약간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내용

내용(內容) ㄷ*

(글이나 말 따위에) 나타나 있는 사항.
=과정(課程).



왼손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밑에서 오른손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약간 흔들며 내린다.

내포적 의미(內包的意味)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 연상적 의미. 함축적 의미.
[내포+ -적+ 의미]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손의 1·5지 사이에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넣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냐 ㄹ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ㄹ' 받침인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애가 네 동생이나? 그게 뭐냐?
[①-ㄴ가. ②눈을 쳐다보면서 묻는 표정]
=①묻다.



눈을 쳐다보면서 묻는 표정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다. ② 눈을 쳐다보면서 묻는 표정을 짓는다.

-네 ㄹ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①하게할 자리에 쓰여,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자네 차례네.

조금 대접해 주는 표정

조금 대접해 주는 표정을 짓는다. 표정을 짓지 않아도 뜻이 잘 전달되는 경우에는 표정을 짓지 않는다.

②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지금 깨달은 일을 서술하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드러난다.
 ¶ 우리 아이 노래도 잘 부르네!
 [①-구나. ②-구나+ 같다. ③근사하다]
 =①-구나.



-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다.
- 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다.



- ③ 손등이 밖으로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목을 상하로 자연스럽게 흔든다.

높임말 ㉞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 ‘아버님’, ‘선생님’ 따위의 직접 높임말, ‘진지’, ‘따님’, ‘아드님’ 따위의 간접 높임말, ‘뵙다’, ‘여쭙다’, ‘드리다’ 따위의 객체 높임말이 있다. 존경어. 존대어. 존댓말. 존칭어.
 ¶ 친한 선후배 사이이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높임말로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 예의이다.
 [높이다+ 말]



-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린다.

높임법(-法) ㉞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다. 경어법. 존대법.
 ¶ 우리 국어는 경어법이 발달한 언어이다.
 [높이다+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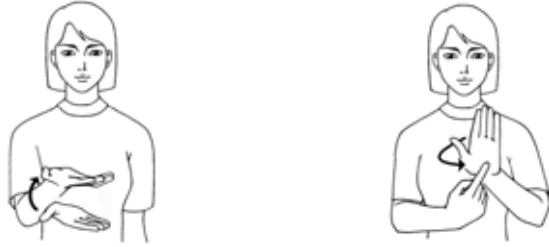


-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높임 표현

높임 표현(-表現)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함.
[높이다+ 표현]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느낌꼴 (명)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용언 및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 '-구나', '-도다' 따위가 있다. 감탄형(感歎形).
[느끼다+ 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느낌말 (명)

독립어로서, 느낌을 나타내는 말. '아!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에서 '아' 따위이다.
[느끼다+ 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느낌법(-法) (명)

문장에서 종결 어미에 나타나는 서법의 하나.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한다. '-구나' 따위의 어미로 표현된다. 감탄법(感歎法).
[느끼다+ 방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느낌표(-標) [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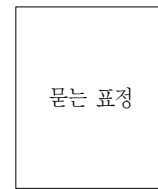
마침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나타낼 때에 쓴다.
[느낌표를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느낌표(!)를 그린다.

-느냐 [어미]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였-’,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너는 그때 학생이었느냐?
[①물음표 ②묻는 표정. ③-냐]
=①물음표. ③문다.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물음표(?)를 그린다.

② 묻는 표정을 짓는다.



③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다.

-느라고 [어미]

①((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나는 책을 읽느라고 밤을 새웠다.
[부딪힘에 기인함을 나타내는 동작]
=때문.
②-노라고.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떼는다.

는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껏.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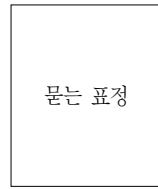
-는가 어미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았-’, ‘-겠-’ 뒤에 붙어)) 하게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시간 좀 있는가?

[①물음표. ②묻는 표정]

=①물음표.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물음표(?)를 그린다.

② 묻는 표정을 짓는다.

-는구나 어미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너는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구나.

[머릿속으로 전달됨을 나타내는 동작]

=느끼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다.

-는데 어미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았-’, ‘-겠-’ 뒤에 붙어))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눈이 오는데 차를 몰고 나가도 될까?

=그러나.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는지 어미

((‘있다’, ‘없다’, ‘계시다’의 어간,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뒤에 보조사 ‘요’가 오기도 한다.

¶ 고향에는 잘 다녀오셨는지.
[물음표를 나타내는 동작]
=물음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물음표(?)를 그린다.

는커녕 조

((받침 없는 체언류나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 보조사 ‘는’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다.

¶ 그는 돕기는커녕 방해할 생각만 하고 있는 듯했다.
[자리가 뒤바뀔을 나타내는 동작]
=커녕.



손등이 위로 향하게 손끝을 모아 쥘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전후로 놓았다가 동시에 반원을 그리며 움직여 두 손의 위치를 반대로 바꾸어 놓는다.

능동(能動) 뎡

주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
[자발+ 움직이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왼 팔목 등을 힘주어 탁 치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능동문(能動文) 뎡

능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철수가 친구를 엮다.’, ‘아이가 밥을 먹다.’, ‘사냥꾼이 토끼를 잡다.’ 따위가 있다.
[능동+ 문장]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왼 팔목 등을 힘주어 탁 치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능동사

능동사(能動詞) ㄷ

주어가 제 힘으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철수가 친구를 업다.’, ‘아이가 밥을 먹다.’, ‘사냥꾼이 토끼를 잡다.’ 따위에서 ‘업다’, ‘먹다’, ‘잡다’ 따위이다.

[능동+ 단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왼 팔목 등을 힘주어 탁 치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땀다 땀다.

니 ㄹ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 ((‘-니 -니’ 구성으로 쓰여))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

▶ 시장에는 사과니 배니 온갖 과일이 잔뜩 나와 있다.

[두 번째를 나타내는 동작]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니 ㄷ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오-’, ‘-더-’ 뒤에 붙어))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봄이 오니 꽃이 핀다.

[부딪힘에 기인함을 나타내는 동작]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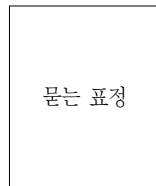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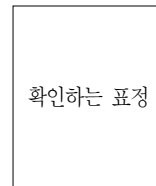
-니 ㄷ

((‘이다’의 어간이나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냐’에 비하여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준다.

▶ 너는 밥을 먹었냐?



묻는 표정



확인하는 표정

① 묻는 표정을 짓는다.

② 확인하는 표정을 짓는다(확인 의문문의 경우).

-니까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오-’, ‘-더-’ 뒤에 붙어)) ‘-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부딪힘에 기인함을 나타내는 동작]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떼다.

-니까는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오-’, ‘-더-’ 뒤에 붙어)) ‘-니까’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니까’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말이다. Ⓢ 니깐.
 ¶ 잘못을 하니까는 야단 맞지.
 [부딪힘에 기인함을 나타내는 동작]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떼다.

-니깐 어미

‘-니까는’의 준말.
 ¶ 배가 고프니깐 밥이 잘 먹힌다.
 [부딪힘에 기인함을 나타내는 동작]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떼다.

ㄷ

ㄷ[디글]*

한글 자모의 셋째 글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다¹ ㄷ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 ((주로 ‘-다 -다’ 구성으로 쓰여))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그는 농구다 축구다 못하는 운동이 없다.

[두 번째를 나타내는 동작]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다² ㄷ

‘다가’의 준말.

¶ 책상을 어디다 둘까?

[한정된 공간을 가리키는 동작]
=곳.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다’ 앞에 놓이는 수화 단어에 ‘곳’을 나타내는 기호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곳’을 표시하지 않는다).

-다 (어미)

① '-다가①'의 준말.

¶ 무슨 일을 하다 말면 소용이 없다.
좋다 말았다.

② '-다가②'의 준말.

¶ 공연히 까불다 혼났다.

③ '-다가③'의 준말.

¶ 일어났다 앉았다 어쩔 줄을 모르다.

=-다가.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대고 오른손을 전후로 움직인다.

다가 (조)

((장소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부사어 나 일부 조사에 붙어))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보조사. ㉞ 다.

¶ 책상을 어디다가 둘까요?

[한정된 공간을 가리키는 동작]
=곳.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방향을 나타내는 받침 없는 부사어 나 일부 조사에 붙어))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보조사.

¶ 철수에게다가 표를 몰아주자.

[나갈 방향을 가리키는 동작]
=향하다.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얼굴 양옆에서 밖으로 쭉 내린다.

((수단을 나타내는 받침 없는 부사어 나 일부 조사에 붙어))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보조사.

¶ 병으로다가 머리를 내리쳤다.

[잡아들이는 동작]
=가지다.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쥘다.

-다가

((대상을 나타내는 받침 없는 부사어 나 일부 조사에 붙어)) 의미를 더 뚜렷하게 하는 보조사.

¶ 영화한테다가 모든 사실을 말했다.
[상대를 가리키는 동작]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

-다가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①어떤 동작이나 상태 따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작이나 상태로 바뀔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아이는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대고 오른손을 전후로 움직인다(‘-다가’의 기호로 표시하지 않아도 뜻이 잘 전달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②어떤 일을 하는 과정이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원인이나 근거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못을 박다가 손을 다쳤다. 놀기만 하다가 낙제했다.

[글자 ‘中’(중)을 나타내는 동작]
=중(中).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다.

다의어(多義語) ㉸

둘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 ‘다리’는 원래 ‘사람이나 짐승의 몸통 아래 붙어서 몸을 받치며 서거나 걸거나 뛰게 하는 부분’을 가리키지만, ‘책상 다리’, ‘지렛다리’처럼 ‘물건의 하체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이른다.

[뜻+ 여러 가지+ -어(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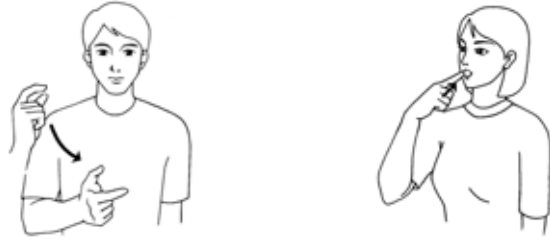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모로 세워 좌우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단단입천장(-天障) ㄷ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두꺼운 점막으로 덮여 있고, 앞쪽에 뼈가 있다. 션입천장(-天障). 경구개(硬口蓋).

[단단하다+ 입천장]
=경구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의 입천장을 가리킨다.

단락(段落) ㄷ

긴 글을 내용에 따라 나눌 때, 하나하나의 짧은 이야기 토막.

▶ 이 단락의 주제문을 찾아보자.
[이야기+ 문단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왼 손바닥으로 받치고 전후로 두 번 흔든 다음, 오른손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밑에서 왼손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한다.

단모음(單母音) ㄷ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지 않는 모음.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며, 이 중에서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단순+ 모음]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오른손을, 주먹의 등이 위로 향한 왼 팔등에 내려놓으며 1·5지를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단문(單文) ㄷ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 “철수가 꽤 똑똑하지.”, “그가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따위이다.

[단순+ 문]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오른손을, 주먹의 등이 위로 향한 왼 팔등에 내려놓으며 1·5지를 편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단어

단어(單語) ㄷ*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 “철수가 영희의 일기를 읽은 것 같다.”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철수’, ‘영희’, ‘일기’, ‘읽은’, ‘같다’와 조사 ‘가’, ‘의’, ‘를’, 의존 명사 ‘것’ 따위이다.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뺏다 뺏다.

단어 문자(單語文字)

한 문자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문자.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를 이른다. 표어문자(表語文字).
[단어+ 문자]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뺏다 뺏다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뺏다 뺏다.

단어 형성론(單語形成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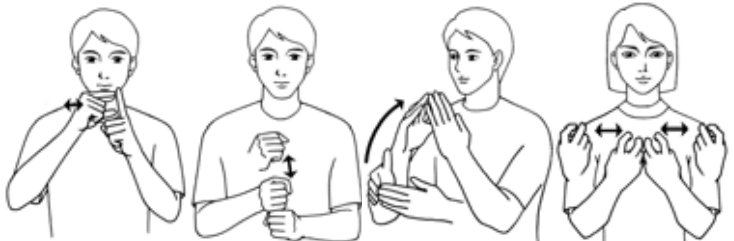
단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조어론(造語論).
[단어+ 형성+ 논하다]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뺏다 뺏고,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세우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뺏다 뺏다.

단어 형성법(單語形成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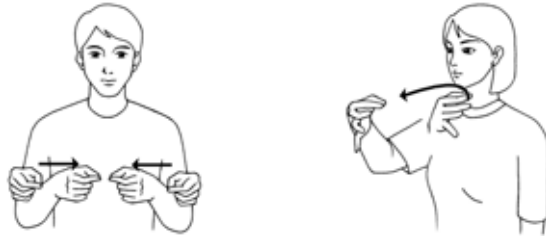
두 용언을 합하여 새로운 용언을 만들거나, 용언의 어간과 명사를 합하여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방법.
[단어+ 형성+ 방법]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뺏다 뺏고,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맞대어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세우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단음(短音) ㄷ

짧은소리. 홀소리.
[짧다+ 소리(음성)]
=짧은소리.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모로 세워 좌우에서 접근시켜 맞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단일어(單一語) ㅁ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된 말. ‘하늘’,
‘땅’, ‘밥’ 따위이다.
[단 하나임을 나타내는 동작+ -어
(語)]



오른손의 5지와 2지 끝을 맞댔다가 떴기며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단자음(單子音)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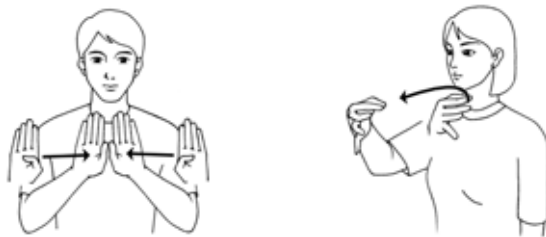
홀으로 소리 나는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ㅎ’ 따위가 있다.
[단순+ 자음]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오른손을, 주먹의 등이 위로 향한 왼 팔뚝에 내려놓으며 1·5지를 펴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배를 스쳐 내리며 5지 바닥이 보이도록 손목을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달음소리 ㅍ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
리.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ㅣ’ 따위가 있다. 파열음
(破裂音).
[달다+ 소리(음성)]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접근시켜 마주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대

-대 (어미)

‘-다고 해’가 줄어든 말.

☞ 사람이 아주 똑똑하다. 철수도 오겠대?

※ ‘-대’는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고, ‘-데’는 화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보고하듯이 말할 때 쓰이는 말로 ‘-더러’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인다.



오므려 세운 오른손을 손끝이 턱 밑으로 향하게 하여 당기며 손을 벌려 편다.

대괄호(大括弧) (ㄹ)

묶음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쓰고, 묶음표 안에 묶음표가 있을 때에 바깥 묶음표로 쓴다.

[대괄호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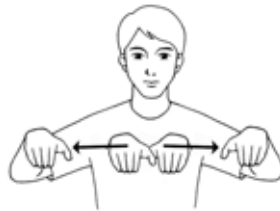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대괄호([])를 그린다.

대등적 연결 어미(對等的連結語尾)

의미적으로 대등한 두 절(節)을 이어주는 연결 어미. ‘-고’, ‘-(으)며’, ‘-(으)나’ 따위가 있다.

[대등+ -적+ 연결 어미]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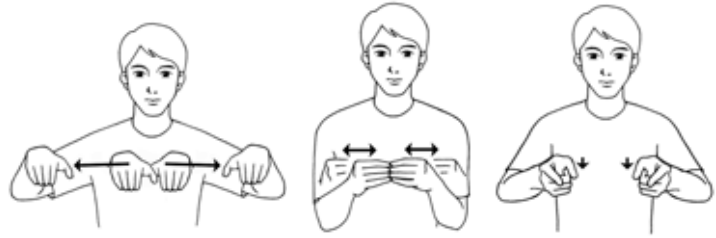


자연스럽게 편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고 전후로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위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대등절(對等節) ㄷ

한 문장 안에서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연결된 절(節). ‘산은 높고 물은 맑다.’에서 ‘산은 높고’와 ‘물은 맑다’는 서로 대등한 절이다. 대립절(對立節).

[대등+ 절(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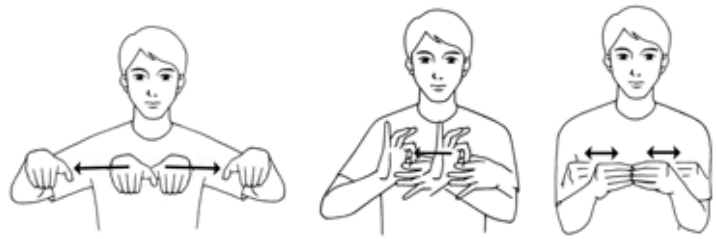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등적 연결 어미(-고, -나)에 의해서 이어진 문장으로 앞 절이 뒤 절에 대해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대등하다+ 이어진 문장(있다+ 문장)]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고리를 만들어 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대로 ㄹ

((체언 뒤에 붙어)) ①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②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다.

대립절(對立節) ㄷ

한 문장 안에서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연결된 절(節). ‘산은 높고 물은 맑다.’에서 ‘산은 높고’와 ‘물은 맑다’는 서로 대등한 절이다. 대등절.

[대립+ 절(節)]



손끝을 맞대고 둥글게 쥘 두 손의 손끝을 맞대며 약간 위로 올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대명사

대명사(代名詞) ㄹ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또는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품사.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로 나뉘는데, 인칭 대명사는 ‘저’, ‘너’, ‘우리’, ‘너희’, ‘자네’, ‘누구’ 따위이고, 지시 대명사는 ‘거기’, ‘무엇’, ‘그것’, ‘이것’, ‘저기’ 따위이다.

[대신+ 명사]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대치(代置) ㄹ 하타 ㄹ자*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음.

¶ 말소리가 대치된다.

=대리. 대신. 대체.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린다.

대칭 동사(對稱動詞)

‘와/과’가 필요한 동사. 만나다. 닮다. 싸우다 등.

[대칭(균형+ 같다)+ 동사]



손끝이 밖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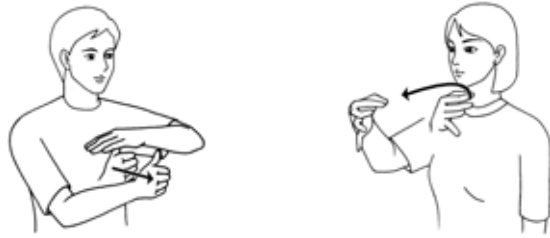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대표음(代表音) [땡]

초성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일련의 자음들이, 받침으로 쓰일 때에는 그 가운데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될 때, 그 하나의 자음을 이르는 말. 받침에서 ‘ㄱ, ㅋ, ㆁ’이 ‘ㄱ’으로, ‘ㄷ, ㅌ, ㅅ, ㅆ, ㆁ’이 ‘ㄷ’으로, ‘ㅂ, ㅍ’이 ‘ㅂ’으로 발음되는데, 이 ‘ㄱ’, ‘ㄷ’, ‘ㅂ’ 따위이다. 대표 소리.

[대표+ 음(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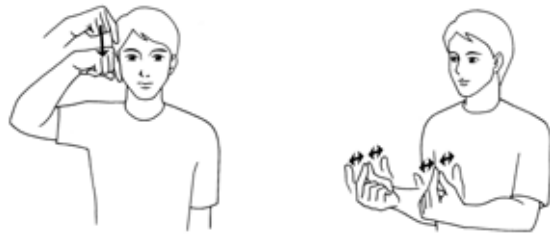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바닥 밑을 스쳐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더구나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며, 그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할머니는 건강이 좋으시더구나.
[구나+ 같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다.

-더군 [어미]

①(‘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며, 그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오해도 많이 받았겠더군요.
[느낌을 나타내는 동작]
=느끼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다.

②‘-더구나’의 준말.

¶ 너희 과장 참 좋은 사람이더군.
[구나+ 같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다.

-더니

-더니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과거의 사태나 행동에 뒤이어 일어난 상황을 이어 주는 연결 어미.

☞ 날씨가 무덥더니 비가 온다.

[부딪힘에 기인함을 나타내는 동작]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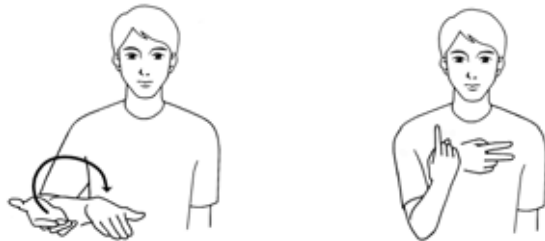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떼다.

-더라도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도’보다 그 뜻이 강하다.

☞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일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도]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2지를 접고 1지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더러 조사

((사람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이 동생더러 금덩이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①그. 에게. ②그녀.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더러’가 남성 뒤에 놓이는 경우).



② 왼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바닥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가리킨다(‘더러’가 여성 뒤에 놓이는 경우).

-던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이 과거에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 그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결혼하였다.

=겪다. 직.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목을 스쳐 내린다.

-던데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과거의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그 사람 참, 잘 달리던데!

=맞다.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다.

도 **조**

((체언류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①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②양보하여도 마찬가지로 허용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찬밥도 좋다.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2지를 잡고 1지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③((주로 ‘...도 ...도’ 구성으로 쓰여))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

¶ 아기가 눈도 코도 다 예쁘다.

④놀라움이나 감탄, 실망 따위의 감정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 서울에는 사람이 참 많기도 하지.



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붙인다.



②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2지를 잡고 1지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도록

⑤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하여,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⑥보통이 아니거나 의외의 경우에, 예외성이나 의외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보조사.

¶ 집 앞까지 갔다가도 그냥 왔지요.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2지를 접고 1지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도록 [어미]

((동사 어간이나 일부 형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거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뒤에 '은', '도', '까지' 따위의 보조사가 올 수 있다.

¶ 학생들은 밤이 새도록까지 토론을 계속하였다. 손님이 편히 주무시도록 조용히 하여야 한다.

[①도록. ②위하다]



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약간 구부려 끝을 오른쪽에서 왼손바닥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천천히 크게 한다.
②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옆면을 돌려 낸다.

독립 성분(獨立成分)

문장의 주성분이나 부속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성분. '어머나, 물리볼 정도로 멋있어졌구나!', '철수야, 파란 하늘 좀 봐.'에서 '어머나', '철수야' 따위의 독립어가 이에 속한다.

[독립+ 성분(일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우고, 왼 주먹의 1·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좁혀 5지 끝으로 왼 주먹의 5지 끝을 스쳐 낸다.

독립신문(獨立新聞) [명]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발행하던 기관 신문. 1919년 8월 21일 이광수가 사장 겸 편집국장이 되어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창간하여 발행하다가 그해 10월 이 이름으로 고쳤는데 1925년 9월에 극심한 재정난과 일제의 간접적 탄압으로 폐간되었다.

[독립+ 신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우고, 오른 팔꿈치를 왼 손등에 올려놓고 오른 손가락을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하여 두 번 오르렸다 편다.

독립어(獨立語) ㄹ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는 말. 감탄사, 호격 조사가 붙은 명사, 제시어, 대답하는 말, 문장 접속 부사 따위가 이에 속한다. ‘아, 달이 밝다.’, ‘주한아, 산에 가자.’, ‘청춘, 이것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예, 맞습니다.’, ‘날씨가 흐리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는다.’에서 ‘아’, ‘주한아’, ‘청춘’, ‘예’, ‘그러나’ 따위이다.
[독립+ -어(語)]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독립언(獨立言) ㄹ

독립적으로 쓰이는 문장 성분. 감탄사가 있다.
[독립+ 단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우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동격어(同格語)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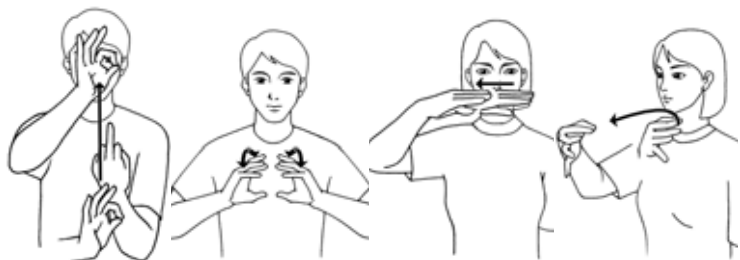
문장에서 같은 자격을 가지는 단어나 구. ‘북악, 낙타, 목멱, 인왕이 서울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다’에서 ‘북악’, ‘낙타’, ‘목멱’, ‘인왕’은 모두 주어 자격이다.
[같다+ 격(자격)+ -어(語)]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뿔을 그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동국정운식 한자음(東國正韻式 漢字音)

《동국정운》에서, 당시의 한자음을 중국의 《홍무정운》의 음을 참고하여 새롭게 고쳐 훈민정음으로 표기하여 규정하여 놓은 음. 당시 조정에서는 이것을 사회적으로 장려하고 규범화하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 한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관적이고 사대주의적이며 복고주의적인 성격이었으므로 실현될 수 없었다.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 밑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천천히 위로 올린 다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러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들고,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으로 코밑을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동남 방언

[동국(동(東)+ 나라)+ 정운(바르다 + 음(音))+ -식(式)+ 한자+ 음(音)]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손가락을 벌려 손끝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린 오른 손등으로 두 번 두드리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동남 방언(東南方言)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남부를 중심으로 한 방언.

[동(東)+ 남(南)+ 방언]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 밑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천천히 위로 올린 다음, 두 손바닥으로 배를 스쳐 올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동부 방언(東部方言)

우리나라 방언을 동서로 나누었을 때, 동쪽 지역의 방언을 이르는 말. 동북 방언과 동남 방언이 이에 속한다.

[동부+ 방언]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 밑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천천히 위로 올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동북 방언(東北方言)

함경도, 강원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언.

[동(東)+ 북(北)+ 방언]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 밑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천천히 위로 올린 다음, 두 주먹을 가슴 앞으로 올려 떠는 동작을 하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동사(動詞) ㄷ

주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 활용을 하며, 그 뜻과 쓰임에 따라 본동사와 보조 동사, 성질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 어미의 변화 여부에 따라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로 나뉜다.

[동작+ 단어]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뻬다.

동음이의(同音異義) ㄷ

글자의 소리가 서로 같으나 뜻이 다름.

[음(音)+ 같다+ 뜻+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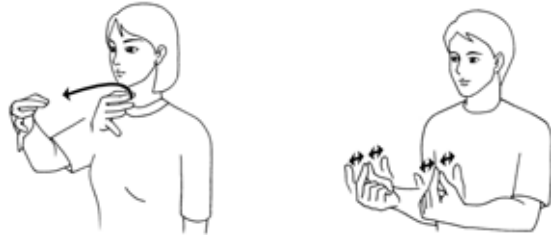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이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손등을 두 번 댔다 뻬다.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ㄹ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동음이의+ 단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이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밀면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손등을 두 번 댔다 떼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동작상(動作相) ㄹ

전통 문법에서, 동사가 가지는 동작의 양태(樣態)·특질 따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의 하나.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 따위가 있다. 상(相).
[동작+ 상(相)]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동화(同化) ㄹ

말소리가 서로 이어질 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소리의 변화를 이르는 말.
[같다+ 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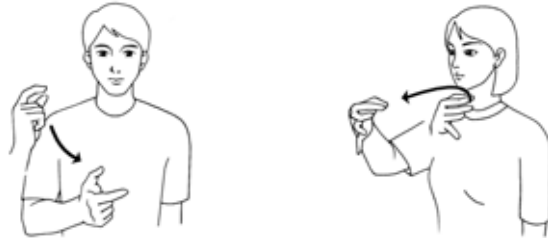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된소리 ㄹ

후두(喉頭) 근육을 긴장하게하거나 성문(聲門)을 폐쇄하여 내는 음. ‘ㄱ’, ‘ㄷ’, ‘ㅂ’, ‘ㅅ’, ‘ㅈ’ 따위의 소리이다. 경음.

[단단하다+ 소리]
=경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두 자리 서술어(一敘述語)

주어 이외에 목적어나 부사어, 또는 보어를 필수적으로 더 요구하는 서술어. ‘우정은 보석과 같다.’와 같은 경우이다.

[둘+ 곳+ 서술어]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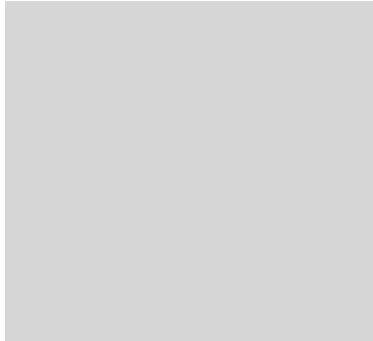
드러냄표(一標) ㄹ

문장 부호의 하나. 문장 내용 가운데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보일 때에 쓰는 것으로, 문장 부호 ‘·’나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붙인다.

[드러내다+ 기호]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댈다.

든 [조]

‘든지’의 준말.
▶ 사과든 포도든 배든 다 좋다.
[‘둘 중 어느 것이나’를 나타내는 동작]
=든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댈다.

-든 [어미]

①‘-든지①’의 준말. ②‘-든지②’의 준말.
▶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한 가지는 해야 한다. 무엇을 그리든 잘만 그려라. 싫든 좋든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어디에 살든 고향을 잊지는 마라.
=든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댈다.

든가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또는 종결 어미 ‘-다, -니다, -는다, -라’ 따위의 뒤에 붙어)) 든지.
▶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 왔으니, 키위든가 딸기든가 먹고 싶은 대로 갖다 먹어라.
[‘둘 중 어느 것이나’를 나타내는 동작]
=든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댈다.

-듣가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주로 ‘-듣가 -듣가’ 구성으로 쓰여)) ①-듣지①.

¶ 밥이 없으니 점심으로 떡을 먹든가 빵을 먹든가 해라.

②-듣지②.

¶ 그가 서울로 가든가 부산으로 가든가 난 관심 없다.

=듣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만다.

듣지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또는 종결 어미 ‘-다, -나다, -는다, -라’ 따위의 뒤에 붙어))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듣] 듣.

¶ 사과듣지 배듣지 다 좋다.

[‘둘 중 어느 것이나’를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만다.

-듣지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주로 ‘-듣지 -듣지’ 구성으로 쓰여))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듣지 -듣지’ 구성으로 쓰일 때는 흔히 뒤에 ‘하다’가 온다.

¶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만다.

듣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 이야기를 할 때에는 듣는 이의 나이나 직업 따위를 고려해야 한다.

[듣다+ 사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이 오른쪽 귀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위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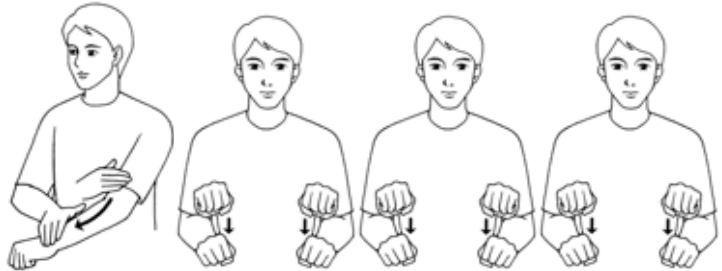
들 조

((체언,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다들 떠나갔구나.
=②여러 가지.



- ① 오른손을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 ②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모로 세워 좌우
으로 한바퀴 크게 돌린다. 으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③ ‘안녕들 하세요’라고 할 때에는 ‘안녕’의 두 번째 동작을 세 번 반복한다.

-뜻 어미

‘-뜻이’의 준말.

¶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처럼.



-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아랫입술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붙인다.

-뜻이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뜻.

¶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다.
=처럼.



-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아랫입술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붙인다.

ㄷ [쌍디글]*

한글 자모 ‘ㄷ’의 된소리 글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한 번 옮긴다.

따라 조

((주로 ‘오늘’, ‘날’ 따위의 체언 뒤에 붙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경우에 만 공교롭게’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오늘따라 택시도 안 잡힌다.
[우연히 마주침을 나타내는 동작]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구부려 오른손이 안쪽에 놓이게 전후로 마주 보게 하여 빠르게 맞댄다.

따옴표(-標) ㄷ*

문장 부호의 하나. 큰따옴표(“ ”), 겹낫표(『 』), 작은따옴표(‘ ’), 낫표(「 」)가 있다.

[따옴표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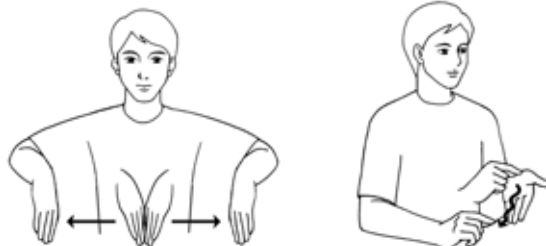


두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구부려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돌린다.

띄어쓰기 ㄷ 하타

글을 쓸 때, 각 낱말을 띄어 쓰는 일.
¶ 아직 저학년의 글이라 띄어쓰기가 미흡하고 원고지 쓰는 법도 틀린 곳이 많다.

[띄다+쓰다]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약간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을 가슴 앞에서 마주 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리

리[리을]*

한글 자모의 넷째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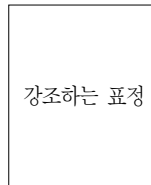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리 [조]

((조사 '에, 으로',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받침 없는 일부 부사 뒤에 붙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를'보다 더 구어적이다.

▶ 아무리 해도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다.



강조하는 표정을 짓는다.

-리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리'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시오-' 따위의 뒤에 붙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고 추측, 예정, 의지, 가능성 등 확정된 현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어미.

▶ 집에서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바빠졌다. 아홉 시에 떠날 기차인데 벌써 타나? 숨바꼭질할 사람은 여기 붙어라.

=①아마. ②꼭.



- 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얼굴 오른쪽 앞에서 전후로 두 번 약간 흔든다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②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구부리며 서로 건다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르게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구어체로)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다시 연락할게.
=약속.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구부려 서로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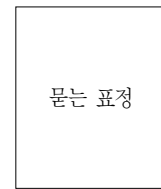
-르까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①해할 자리에 쓰여, 현재 정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이 나무에 꽃이 피면 얼마나 예쁠까?
=①물음표.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물음표(?)를 그린다.



② 묻는 표정을 짓는다.

②(주로 ‘-르까 하다’, ‘-르까 싶다’, ‘-르까 보다’ 구성으로 쓰여)) 해할 자리에 쓰여, 현재 정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자기나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종결 어미.

¶ 남은 것은 내가 다 먹을까 보다.
[생각+ 중(中)]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다.

르랑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조사 ‘에, 에서’, 어미 ‘-고서, -어서’ 따위 뒤에 붙어)) (구어체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정하여 가리키는 데 쓰는 보조사. 흔히 뒤에는 충고하는 말이 온다.

¶ 그 반질랑 팔 생각 마라.
=것.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반질랑’이라고 할 때에는 ‘반지’의 둘째 동작이 끝나는 왼손의 손가락 등으로 향해 ‘것’의 동작을 한다).

-르래

-르래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

▶ 집에 갈래. 언제 할래?

[①싶다. ②싶다/묻는 표정]

=싶다.



/묻는 표정

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다.

②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이며 묻는 표정을 짓는다.

-르망정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혹은 ‘비록 그러하다 하여도 그러나’에 가까운 뜻을 나타낸다.

▶ 시험에 떨어질망정 컨닝은 하지 않겠다.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르수룩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이나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 절 일의 어떤 정도가 그렇게 더하여 가는 것이, 뒤 절 일의 어떤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어린아이일수록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다.

=더욱.



1·5지를 펴서 1지가 위에 5지가 아래에 놓이게 하여 약간 구부린 오른 주먹을, 같은 모양의 왼 주먹의 5지 밑에 댔다가 왼 주먹의 1지 위에 올려놓는다.

-르지언정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뒤 절을 강하게 시인하기 위하여 뒤 절의 일과는 대립적인 앞 절의 일을 시인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르망정’보다 다소 강한 느낌이 있다.

▶ 그것은 무모한 행동일지언정 용감한 행동은 아니다.

[맞다+ 그러나]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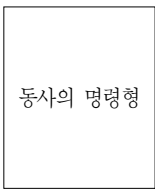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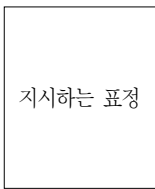
-라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너 자신을 알라.
[시킴을 나타내는 동작]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힘을 주어 내린다.



② 지시하는 표정을 짓는다.

③ 동사의 명령형(예: 마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표시한다.

라고 [조]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①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뒤에는 부정의 뜻을 가진 말이 올 때가 많다.

¶ 시골 아이라고 그것도 모르겠니?
박사라고 무엇이든 다 아나?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떼다.

②(‘라고는’이나 ‘라곤’ 구성으로 쓰여) 강조하여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뒤에는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정의 뜻 또는 부정에 가까운 뜻을 가지는 말이 온다.

¶ 형편이 어려워지니 친구라곤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것.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린다.

라도

라도 [조]

((받침 없는 체언어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①그 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임을 나타낸다.

¶ 냄새라도 맡아 보았으면 좋겠다.
=괜찮다.



오른 주먹의 4지를 펴서 끝 바닥을 턱에 가볍게 두 번 덴다.

②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나타내는 보조사.

¶ 아무라도 있으면 나와 보시오. 크기만 컸지 가벼워서 어린애라도 들 수 있다. 우리 중 아무라도 한 사람은 가야 하지 않겠니?

=도.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2지를 접고 1지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라든지 [조]

((받침 없는 체언류나 부사어에 붙어))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상관없는 사물들을 열거할 때 쓰는 조사. 꼭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따위의 것들을 가리킨다는 뜻이 있다.

¶ 바닷가라든지 강가를 거닐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문학에 관계된 책은 뭐든 읽고 싶다.

=든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덴다.

라야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어떤 일의 조건으로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꼭 필요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이 일은 자네라야 감당할 수 있을 걸세. 공사가 끝난 뒤에라야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꼭.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구부리며 서로 건다.

라야만 ㄹ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일의 조건으로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꼭 필요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보조사 '라야와 보조사 '만'이 결합한 말이다.

예) 요즘 사람들은 명절이나 제사 때라야만 고향을 찾아간다.
=만.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댄다가 2지를 뿡긴다.

란 ㄹ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화제로 삼을 때에 쓰는 보조사.

예)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참다운 친구야.
[어느 쪽인지를 묻는 동작/의문 표정]
=무엇.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좌우로 두 번 흔든다.

랑 ㄹ

[1] ①어떤 행동을 함께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동생이 언니랑 싸우다니.
=같이.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다.

②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동생이 언니랑 싸우다니.
=①과. ②와.



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끝 부분의 양면을 왼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는다('과'를 나타내는 경우). 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끝 부분의 양면을 왼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는다('와'를 나타내는 경우).

-러

[2]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백화점에 가서 구두랑 모자랑 원피스랑 샀어요.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러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가거나 오거나 하는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나물 캐러 가자.

[①목적. ②위하다]

=①목적. ②위하다.



- ① 동그랗게 쥐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1·5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넣는다. ②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옆면을 돌려 낸다.

-려고¹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내일은 일찍 일어나려고 한다. 집을 마련하려고 저축을 한다.

[①생각+중. ②싶다]

=②싶다.



-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좌우로 약간 돌린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다(의도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②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다(욕망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려고²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주어진 사태에 대하여 의심과 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아무려면 싸우기야 하려고. 설마 가구가 방보다 크려고?

=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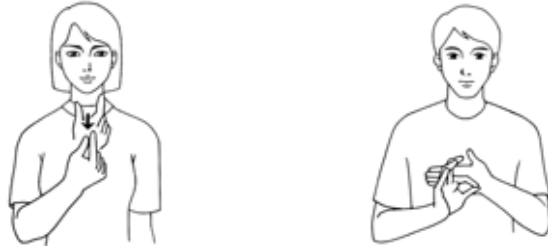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얼굴 오른쪽 앞에서 전후로 두 번 약간 흔든다.

-려면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어떤 의사를 실현시키려고 한다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기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한다.
[싶다+ -면]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목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면서 손가락을 붙인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등에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등을 댜다.

로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①움직임의 경로를 나타내는 격 조사.

¶ 대구로 해서 부산에 간다.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 어깨 위에서 밖으로 반원을 그리며 내민다.

②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 나무로 집을 짓는다.

③어떤 일의 수단·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 꿀로 단맛을 낸다.
=가지다.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쥐다.

④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 조사. ‘말미암아’, ‘인하여’, ‘하여’ 등이 뒤따를 때가 있다.

¶ 이 고장은 사과로 유명하다.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댜다.

로마자

⑤시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는 봄가을로 보약을 먹는다.
 =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린다.

로마자(Roma字) (명)

그리스 문자에서 유래한 음소 문자로 라틴어를 표기하는 문자. 현재, 유럽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알파벳은 26자이다.

[로마+ 글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 바닥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떼다.

로마자 표기법(Roma字表記法)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 현행 표기법은 2000년 7월에 문화관광부에서 고시한 것이다.

[로마자+ 표기+ 방법]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 바닥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떼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로부터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로’와 보조사 ‘부터’가 결합한 말이다.

¶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왔다.

[출발을 나타내는 동작]

=부터.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손 위에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오른손을 왼쪽으로 이동한다.

로서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이 문제는 너로서 시작되었다.

=동기.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뿜겨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로써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어)) ①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로’보다 뜻이 분명하다.

¶ 콩으로써 매주를 쏜다. 쌀으로써 떡을 만든다.

②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로’보다 뜻이 분명하다.

¶ 팔로써 단맛을 낸다.

=가지다.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쥔다.

를 [조]

((조사 ‘에, 으로’,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받침 없는 일부 부사 뒤에 붙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너는 어찌자고 혼자 시장을 갔니?

=것.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이 용례에서는 왼손으로 ‘시장’의 두 번째 동작인 ‘곳’을 표시하고 왼손의 손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가리킨다).

-리라

-리라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으리-’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나는 돌아가리라. 내 기필코 나의 꿈을 이루고야 말리라.
=꼭.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구부려 서로 건다.

ㅁ

ㅁ[미음]*

한글 자모의 다섯째 글자.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세워 쥔 오른 주먹의 1·2지를 구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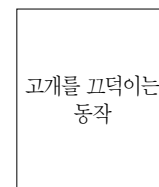
-ㅁ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오후에 가ㅁ. 내가 뒤에서 밀ㅁ.
[①약속. ②고개를 끄덕이는 동작. ③'하다'의 반복]
=①약속.



①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구부려 서로 건다.



② 고개를 끄덕인다.



③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손목을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두 번 두드린다.

마는

마는 [조]

((중결 어미 '-다, -냐, -자, -지' 따위의 뒤에 붙어)) 앞의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 따위를 나타내는 보조사. ㉞ 만.

▶ 영화를 보고는 싶지마는 시간이 안 난다.

[반전(反轉)을 나타내는 동작]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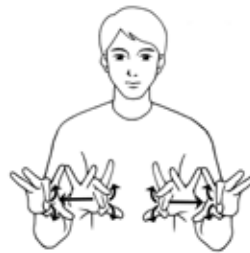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마다 [조]

((체언 뒤에 붙어)) '날날이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다.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양옆으로 이동하며 2지를 5지에 대고 두 번 튕긴다.

마따나 [조]

(('말' 뒤에 붙어)) '말한 대로, 말한 바와 같이'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 자네 말마따나 쉬는 게 좋겠네.

[맞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대로.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다.

마저 [조]

((체언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하나 남은 마지막임을 나타낸다.

▶ 막내마저 출가를 시키니 허전하다.

[막다른 데에 이르는 동작]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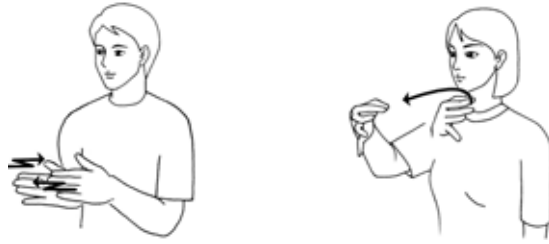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다.

마찰음(摩擦音)

입안이나 목청 따위의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 ‘ㅅ’, ‘ㅆ’, ‘ㅎ’ 따위가 있다.

[마찰+ 소리]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대고 비빈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마침표(-標) ㄹ

문장 부호의 하나. 주로 문장을 끝맺을 때 쓰는 것으로 온점(.),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가 있다.

[마치다+ 기호]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만 ㄹ

① 다른 것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하루 종일 잠만 잤다.
 ②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을 나타내는 보조사.
 ¶ 하나만 당첨되어라.
 ③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보조사.
 ¶ 눈만 감아도 잠이 올 것 같다.
 =뻔.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댔다가 2지를 뺀다.

④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그를 만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꼭+ 만]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구부리며 서로 건 다음,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댔다가 2지를 뺀다.

만

⑤(‘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 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청군이 백군만 못하다.

⑥겨우 그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이만 물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정도.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높이에서 상하로 두 번 움직인다.

만² ㄹ

‘마는’의 준말. ㉮ 마는.

¶ 먹고는 싶지만 돈이 없다. 집에서 쉬겠다더니만 웬일로 나왔니? 나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다.

[반전(反轉)을 나타내는 동작]

=그러나.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만치 ㄹ

만큼.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나도 너만치 먹었다. 부모님에게 만치 잘해 드리고 싶었다.

[수준을 나타내는 동작]

=정도.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높이에서 상하로 두 번 움직인다.

만큼 ㄹ*

((체언이나 조사의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나도 당신 만큼은 할 수 있다.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는데!

[수준을 나타내는 동작]

=정도.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높이에서 상하로 두 번 움직인다.

말 [명]*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또는 그것을 문자로 나타낸 것. 언어.
 [입에서 말이 나옴을 나타내는 동작]
 =말하다. 언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말다 부정문(-不定文)

동사 어간에 ‘-지 말다’를 붙여 만든 부정문.
 [말다+ 부정문]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친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말다 부정법(-不定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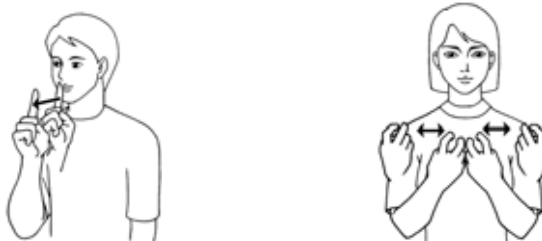
말다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말다+ 부정법]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왼 손바닥을 내리친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말법(-法) [명]

말의 일정한 법칙. 어법(語法).
 ¶ 손윗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우리말의 어법이다.
 [말+ 방법]
 =어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말소리

말소리 [명]

- ① 말하는 소리.
- ☞ 말소리가 높아진다.
- ② 음성(音聲).
- [말+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말하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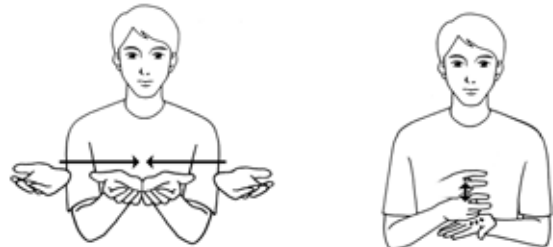
- 이야기를 하는 사람.
- [말하다+사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위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별린다.

맞춤법(-法)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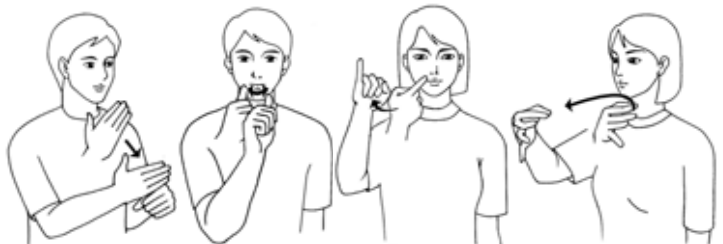
- 어떤 문자로써 한 언어를 표기하는 규칙. 정서법. 철자법.
- ☞ 맞춤법에 맞게 글을 고치다.
- [맞추다+법]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나란히 놓았다가 가운데로 접근시켜 4지 옆면을 맞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매개 모음(媒介母音)

- 두 자음 사이에 끼여 음(音)을 고르게 하는 모음. ‘먹으니’, ‘손으로’에서 ‘-으-’ 따위이다. 조음소.
- [매개+모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위 입 앞에서 좌우로 흔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메타언어(meta言語) ㄷ

다른 언어를 기술하거나 분석하는 데 쓰는 언어. 영어 문법을 한국어로 설명할 경우에 한국어를 말한다. 상위 언어(上位言語).

[상위+언어]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펴서 손등을 왼 손등에 올려놓았다가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며 ㄴ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잔칫상에는 배며 대추며 사과며 여러 가지 과일이 차려져 있었다. 교수며 정치가며 내로라하는 저명인사가 모두 모였다.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면 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 비가 오면 눈을 갈자.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등에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등을 댄다.

-면서 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 따위가 동시에 겹쳐져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 그 옷은 거무스름하면서 보랏빛을 띤다.
=계속.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오른쪽 어깨 위에서 왼쪽 허리 앞으로 내린다.

명령문

명령문(命令文) ㄷ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문장. 명령형 어미로 끝맺는데 ‘눈을 크게 떠라.’ 따위이다.

[명령+ 문(文)]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입에 댔다가 힘주어 밖으로 비스듬히 내리며 1지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댈다.

명령법(命令法) ㄷ

문장에서 종결 어미에 나타나는 서법의 하나.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한다. ‘-어라’, ‘-게’ 따위의 어미로 표현된다.

[명령+ 방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입에 댔다가 힘주어 밖으로 비스듬히 내리며 1지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명령형(命令形) ㄷ

명령이나 요구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나 보조 동사의 활용형(活用形). ‘다녀와라’, ‘다녀오게’, ‘다녀오오’, ‘다녀옵시오’의 ‘-아라(어라)’, ‘-게’, ‘-오’, ‘-옵시오’ 따위가 있다.

[명령+ 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입에 댔다가 힘주어 밖으로 비스듬히 내리며 1지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명령형 종결 어미(命令形終結語尾)

명령문을 종결하는 어미.

[명령형+ 종결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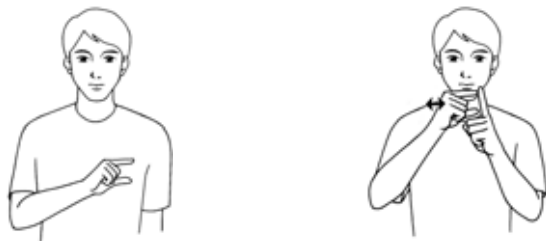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입에 댔다가 힘주어 밖으로 비스듬히 내리며 1지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명사(名詞)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 특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쓰이는 이름이나 일반적인 사물에 두루 쓰이는 이름이냐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자립적으로 쓰이느냐 그 앞에 반드시 꾸미는 말이 있어야 하느냐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뉜다.
[이름+ 단어]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댈다.

명사구(名詞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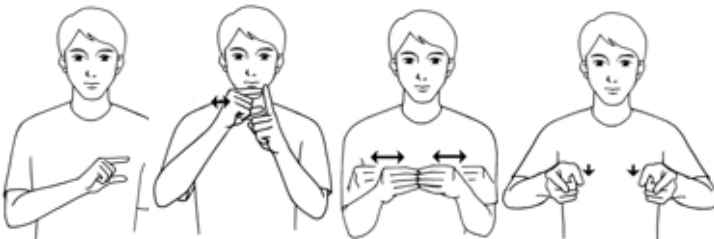
명사의 구실을 하는 구. '저 성실한 학생이 철수이다.'에서 '저 성실한 학생' 따위이다.
[명사+ 구(句)]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댈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명사절(名詞節) ㉸

문장에서 명사 구실을 하는 절. '철수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음이 분명하다.'에서 '철수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음' 따위이다.
[명사+ 절(節)]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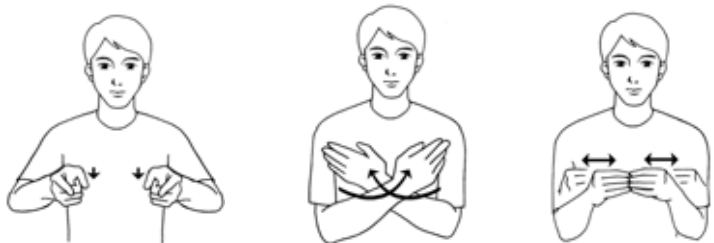
명사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을 안은 문장(名詞節-文章)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기능을 하는 명사절을 포함하는 문장.
[명사절+ 안다+ 문장]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리고, 두 팔을 벌렸다가 가슴에 모아 댄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명사형(名詞形) ㄷ

용언이 명사와 같은 구실을 하게 하는 활용형. 용언의 어간에 ‘-ㄴ’, ‘-음’, ‘-기’ 따위가 붙어서 이루어진다. ‘놀람’, ‘먹음’, ‘읽기’ 따위가 있다.
[명사+ 형]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명사형 전성 어미(名詞形轉成語尾)

문장에서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음’, ‘-기’ 따위가 있다.
[명사형+ 전성 어미]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위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모아쓰기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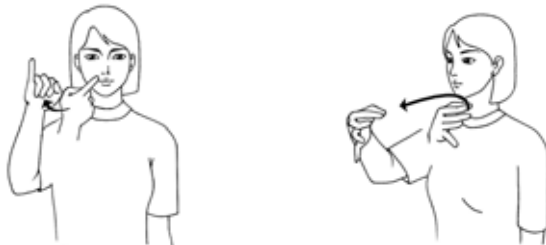
한글 자모를 가로세로로 묶어서 쓰는 방식. 한글의 현행 자형 방식을 '풀어쓰기'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모으다+쓰다]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모음(母音) [명]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그 통로가 좁아 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따위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ㄱ', 'ㅋ', 'ㆁ', 'ㄷ', 'ㅌ', 'ㄴ', 'ㄹ' 따위가 있다. 흡소리.
[어머니+음성]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모음 동화(母音同化)

모음과 모음이 서로 닮게 되는 음운 변화. 모음 조화, 전설 모음화 따위가 있다.
[모음+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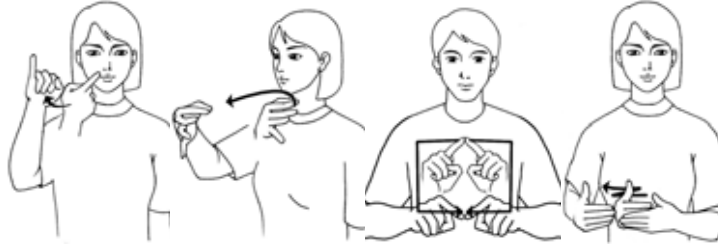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모음 사각도

모음 사각도(母音四角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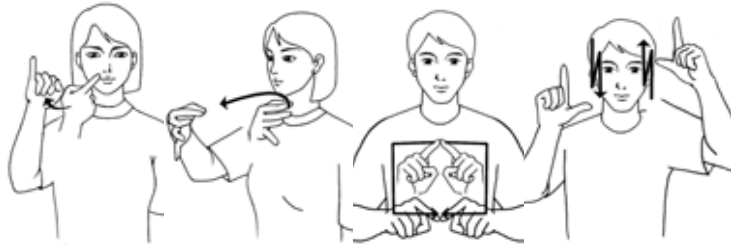
모음 사각형(母音四角形).
[모음+사각+그림]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때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네모를 그린 다음, 오른 손가락 등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다.

모음 사각형(母音四角形)

모음 사각도(母音四角圖). 모음을 조음 위치와 개구도에 따라 사각형으로 분류하여 그림으로 보인 것. 국어에 서는 ‘ㅣ’가 전반부 상단, ‘ㅏ’가 후반부 상단, ‘ㅑ’가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모음+사각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때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네모를 그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모음 조화(母音調和)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의 모음이 앞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 ‘ㅏ’, ‘ㅑ’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ㅣ’, ‘ㅓ’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깎아’, ‘숨어’, ‘알록달록’, ‘얼룩덜룩’, ‘갈쌍갈쌍’, ‘글썽글썽’, ‘줄줄’, ‘줄줄’ 따위가 있다.
[모음+조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때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린 끝을 상하로 댄다가 좌우로 돌려 댄 다음, 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주먹의 1지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 바닥을 댄다.

모음 체계(母音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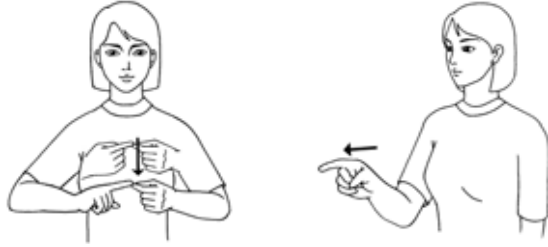
한 언어가 가지는 모음들 상호 간의 유기적 관계. 소리 나는 위치, 개구도와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소리의 변화 유무에 따라 나눈다.
[모음+체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때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맞댔다가 약간 벌려 내린다.

모점(一點) ㄹ

점표의 하나. 세로쓰기에 쓰는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낼 때에 쓴다.
[세로쓰기를 나타내는 동작+ 모점 (‘.’)을 나타내는 동작]



왼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약간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짧게 내민다.

목구멍소리 ㄹ

목구멍, 즉 인두의 벽과 혀뿌리를 마찰하여 내는 소리.
[목구멍+ 소리]
=후음(喉音).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목을 가리킨 다음, 왼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그 속을 가리키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목소리 ㄹ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성음.
[목+ 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목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목안 ㄹ

인두.
[인두의 위치를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목을 가리킨 다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 안에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수평으로 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점을 찍는다.

목적격

목적격(目的格) ㄹ

문장 안에서, 체언이 서술어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격.

[목적+ 격(자격)]



동그랗게 쥐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1·5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넣은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린다.

목적격 조사(目的格助詞)

문장 안에서, 체언이 서술어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격 조사. ‘을/를’이 있다.

[목적격+ 조사]



동그랗게 쥐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1·5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넣은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목적어(目的語) ㄹ

문장에서 동사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철수가 책을 읽는다.’에서 ‘책’ 따위이다.

[목적+ -어(語)]



동그랗게 쥐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1·5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넣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목젓소리 ㄹ

목젓과 후설면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구개수음(口蓋垂音).

[목젓+ 소리]



벌린 입 앞에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목청 ㄹ

후두(喉頭)의 중앙부에 있는 소리를 내는 기관. 앞 끝은 방패 연골의 내면에, 뒤 끝은 피열(披列) 연골에 부착한 탄력 있는 두 개의 인대로 자유롭게 늘어나고 줄어들어 공기의 통로 폭을 조절하며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에 의하여 진동되어 소리가 난다. 성대(聲帶).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목 위쪽에 댄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

ㄹ 목청을 가다듬다.
[목청을 나타내는 동작]

목청소리 ㄹ

목구멍, 즉 인두의 벽과 혀뿌리를 마찰하여 내는 소리. 목구멍소리.
[목청+ 소리]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목 위쪽에 댄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목청소리되기 ㄹ

어떤 음이 동시 조음되면서 성문(聲門)의 폐쇄나 긴장이 따르게 되는 현상. 성문화(聲門化).
[목청소리+ 되다]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목 위쪽에서 목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목청울림소리 ㄹ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 국어의 모든 모음이 이에 속하며, 자음 가운데에는 ‘ㄴ’, ‘ㄹ’, ‘ㄷ’, ‘ㅇ’ 따위가 있다. 유성음(有聲音).
[목청+ 울림을 나타내는 동작+ 소리]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목 위쪽에서 목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린 다음, 오른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가락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목 앞에서 전후로 약간 흔들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몸말

몸말 ㄷ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체언(體言).

[몸+ 말]
=체언.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못 부정문(-否定文)

‘못’, ‘-지 못하다’와 같이 ‘못’에 의해서 성립하는 부정문. 주로 주체의 무능력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다.

[못+ 부정문]



오른 주먹의 1지 옆면과 5지 바닥으로 오른쪽 볼을 집은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못 부정법(-否定文)

‘못’과 ‘-지 못하다’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못+ 부정법]



오른 주먹의 1지 옆면과 5지 바닥으로 오른쪽 볼을 집은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1·2지를 펴서 구부러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몽골 문자(Mongol文字)

몽골어 표기에 쓰는 문자. 16세기에 아이유시가 기존의 위구르 문자를 개량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왼쪽에서부터 세로쓰기한다.

[몽골+ 문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눈 꼬리에 대고 치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뺐다.

몽골어(Mongol語)

알타이 어족에 속한 몽골 어군의 여러 언어. 내외 몽골을 중심으로 중국의 변경 지구, 아프가니스탄, 불가강 유역 등지에서 몽골 민족이 쓰는 언어 전반을 이르며, 좁은 뜻으로는 위구르계 몽골 문자로 쓰인 몽골어문어(文語)를 이른다.

[몽골+ -어(語)]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눈 꼬리에 대고 치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몽골 어군(Mongol語群)

알타이 어족에 속한 어파. 두음 법칙과 모음 조화가 있으며 전치사가 없고 주어와 서술어에 선행하는 따위의 특징이 있다. 몽골어, 부랴트어, 오이라트어(語), 칼미크어(語), 모골어(語) 따위가 있다.

[몽골어+ 군]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눈 꼬리에 대고 치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댔다가 안으로 원을 그리며 돌려 두 손목을 맞댄다.

무성음(無聲音) (땡)

성대(聲帶)를 진동시키지 않고 내는 소리. 국어에서는, 자음의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ㆁ’, ‘ㄹ’, ‘ㅎ’, ‘ㅇ’, ‘ㅁ’, ‘ㅂ’, ‘ㅅ’, ‘ㅈ’이다. 안울림소리.

[울림을 나타내는 동작+ 없다+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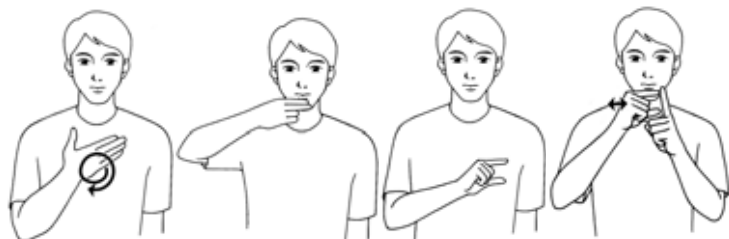


오른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가락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목 앞에서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톡에 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무정 명사(無情名詞)

감정을 나타내지 못하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키는 명사.

[감정+ 없다+ 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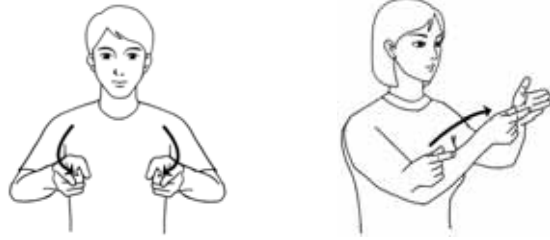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톡에 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뉘음표

뉘음표(-標) ㉟

문장 부호의 하나. 소괄호(()), 중괄호({ }), 대괄호([])가 있다.
[괄호+ 기호]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각각 반원을 마주 보게 그리며 내리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문법(文法) ㉟*

말의 구성과 운용상의 규칙.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 국어 시간에 문법을 배우다.
[문(文)+ 법(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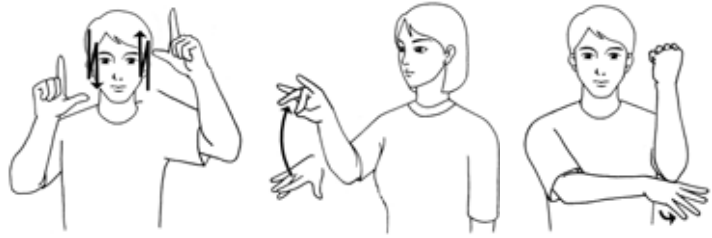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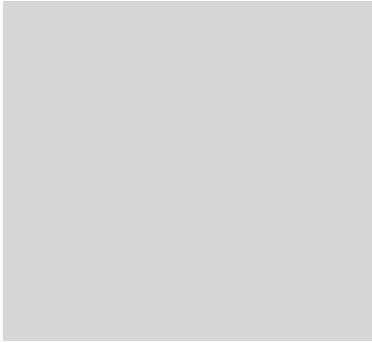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문법 형태소(文法形態素)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문어(文語) ㄹ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 아닌, 문장에서만 쓰는 말.
[문장+ 말]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문자(文字) ㄹ*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인 기호 체계. 한자 따위의 표의 문자와 로마자, 한글 따위의 표음 문자로 대별된다.
¶ 언어와 문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댔다.

문자 언어(文字言語)

문자로 표기한 말. 음성 언어에 상대하여 글자를 매개로 표기한 것을 이른다.
[문자+ 언어]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댔다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문장

문장(文章) ㄹ*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는 것. ‘철수는 몇 살이니?’, ‘세 살.’, ‘정말?’ 따위이다.
 ¶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고쳤다.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문장론(文章論)

문장을 기본 대상으로 하여 문장의 구조나 기능, 문장의 구성 요소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통사론(統辭論).
 [문장+ 논하다]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문장 부사(文章副詞)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 화자(話者)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잇는 접속 부사로 나눈다. ‘과연’, ‘절마’,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아마’, ‘정녕’, ‘아무쪼록’, ‘하물며’,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즉’, ‘곧’, ‘땀’, ‘혹은’, ‘또는’ 따위가 있다.
 [문장+ 부사]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댔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문장 부사어(文章副詞語)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어.
 [문장+ 부사어]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댔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운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문장 부호(文章符號)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부호.
[문장+ 부호]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대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문장 성분(文章成分)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관형어·부사어·독립어 따위가 있다.
¶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 관계.
[문장+ 일부]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좁혀 5지 끝으로 왼 주먹의 5지 끝을 스쳐 낸다.

문장의 확대(文章-擴大)

홀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겹문장이 되는 과정.
[문장+ 의+ 확대]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여 모로 세워 양옆으로 벌린다.

문장 종결 표현(文章終結表現)

국어의 문장에서 가장 끝에 오는 종결 표현. 국어의 종결 표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종결 어미이다.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뉜다.
[문장+ 종결+ 표현]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문체론

문체론(文體論) ㄷ

어법, 어휘, 억양과 같은 언어 표현의 개성적인 특성을 특정의 개인, 민족, 시대, 유파, 장르 따위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

[문체+ 논하다]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문화 체육 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문화, 예술, 방송 행정, 간행물, 청소년, 체육, 출판, 해외 문화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08년 2월 문화관광부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문화+ 체육+ 관광부]



왼손의 5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c'자 모양을 만들어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편 오른 손가락을 왼 손가락 사이에 옆으로 넣은 다음, 두 주먹을 양어깨 높이에서 두 번 위로 올렸다 내리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어깨 뒤로 향하게 하여 돌리며 밖으로 내밀었다가, 약간 구부린 오른손을 오른쪽 어깨에 올려놓는다.

물결표(-標) ㄷ

이음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내지'의 뜻으로 쓰거나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에 쓴다.

[물결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결 모양을 그린다.

물렁입천장 ㄷ

여린입천장(-天障). 연구개(軟口蓋). 입천장 뒤쪽의 연한 부분. 점막(粘膜) 밑에 가로무늬근이 있어 코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뒤 끝 중앙에 목젓이 있다.

[물렁하다+ 입천장]



5지와 1:2:3:4지 사이를 약간 벌린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마주 보게 하여 부드럽게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의 입천장을 가리킨다.

물음표(-標) ㄹ*

마침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낼 때에 쓴다.

[물음표를 그리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물음표(?)를 그린다.

물질 명사(物質名詞)

나누어 셀 수 없는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 국어에는 ‘물’, ‘술’, ‘가루’ 따위가 있다.

[물질+ 명사]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을 오른손의 5지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낸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뺐다 뺐다.

-므로 ㄹ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그는 부지런하므로 성공할 것이다.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댈다.

미래(未來) ㄹ*

발화(發話) 순간이나 일정한 기준적 시간보다 나중에 오는 행동, 상태 따위를 나타내는 시제(時制).

[‘앞으로’를 나타내는 동작]

=앞날. 장래. 장차.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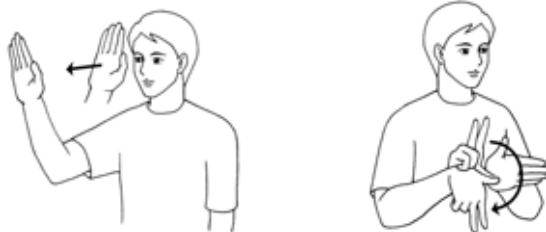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오른쪽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민다.

미래 시제

미래 시제(未來時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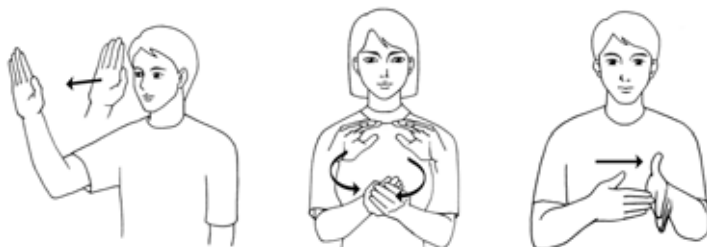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시제.
[미래+ 시제]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오른쪽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을 대고 1·2지를 밖으로 돌린다.

미래 완료(未來完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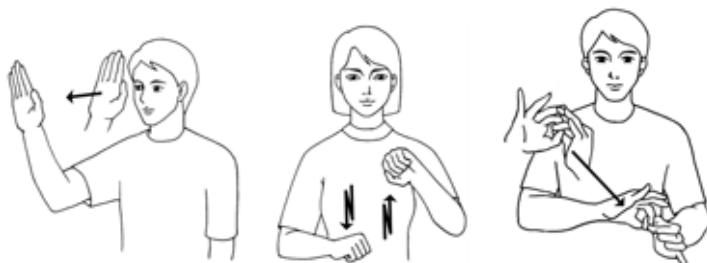
미래의 동작이 막 끝나서 그 결과가 나타나 있음을 표현하는 시제 동작상(動作相). 현재 완료에 ‘-겠-’을 더하여 쓴다. ‘그 시간이면 학교를 갔겠다.’ 따위이다.
[미래+ 완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오른쪽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밀고,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은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댈다.

미래 진행(未來進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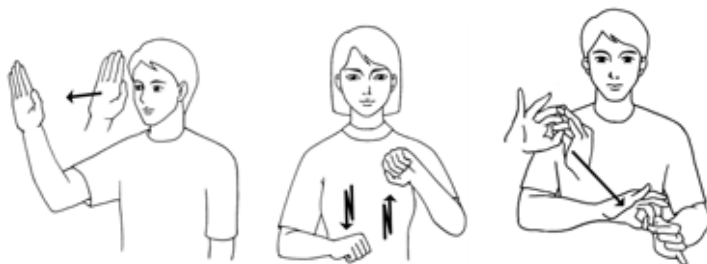
미래에 동작이 계속 중일 것임을 나타내는 어법. ‘-고 있겠다’, ‘-고 있는 중이겠다’ 따위로 표시된다. ‘내년이면 철수가 학교에 다니고 있겠지.’ 따위이다.
[미래+ 진행]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오른쪽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서로 엇갈리게 두 번 흔든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붙여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왼쪽 허리 앞으로 내린다.

미래 진행 완료(未來進行完了)

이어 가던 움직임이 미래에 끝났음을 보이는 시제. ‘내년 이맘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일을 다 끝마쳤겠다.’ 따위이다.
[미래+ 진행+ 완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오른쪽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서로 엇갈리게 두 번 흔든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붙여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왼쪽 허리 앞으로 내리고,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은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댈다.

미래형(未來形)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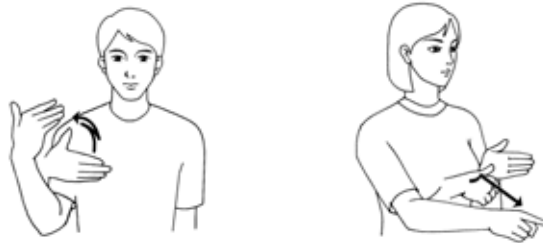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 형태.
[미래+ 형태]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오른쪽에 세웠다가 밖으로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미지칭(未知稱) ㄹ

모르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누구’, ‘아무’, ‘아무개’, ‘어느’, ‘무엇’ 따위가 있다.
[모르다+ 지칭]



자연스럽게 편 오른손의 손끝으로 오른쪽 가슴을 두 번 스쳐 올린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잡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민다.

민간 어원(民間語源) ㄴ

언어학적 방법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되지 않고, 민간에서 속설로 믿어지고 있는 어원. 임진왜란 전에 발간된 책에 ‘행주치마라는 말이 이미 있는데도 임진왜란 때 행주(幸州)에서의 싸움과 관련지어 유래를 설명하는 것 따위이다. 민속어원.

[민간+ 어원]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4·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맞댔다가 아래로 내리며 원을 그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뿜겨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민속 어원

민속 어원(民俗語源)

민간 어원.

[민속(사람+ 식(式))+ 어원]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위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뺏겨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민족어(民族語) ㄹ

각 민족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민족의 역사와 함께 형성되었으며,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민족+ -어(語)]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세위 마주 댔다가 오른손을 흔들면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위 좌우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ㅂ

ㅂ[비읍]*

한글 자모의 여섯째 글자.



오른 주먹의 1·2·3·4지를 펴서 붙여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다.

-ㅂ니까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합쇼할 자리에 쓰여,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얼마나 기쁩니까?
=문다. -습니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다.

-ㅂ니다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합쇼할 자리에 쓰여, 현재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매우 기쁩니다.
=-습니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내린다.

-ㅂ시다

-ㅂ시다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하오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그의 말을 믿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①-자. ②부탁하다]

= ①-자. ②부탁하다.



- 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힘주어 젖힌다. ②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

밖에 (조*)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 반드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스치며 손목을 돌려 내밀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다.

반대말(反對-) (평)

그 뜻이 서로 정반대되는 관계에 있는 말. 한 쌍의 말 사이에 서로 공통되는 의미 요소가 있으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한 개의 의미 요소가 있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 ‘충각’과 ‘처녀’, ‘위’와 ‘아래’, ‘작다’와 ‘크다’, ‘오다’와 ‘가다’ 따위이다. 반의어(反義語/反意語).

[반대+ 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손끝이 위로 향하게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을 마주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반말(半-) (평)

①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매우 친밀할 때 쓰는, 높이지도 낮추지도 아니하는 말. ‘이 책 재미있어?’, ‘아주 재미있는걸’에서와 같이 종결 어미 ‘-아(어)’, ‘-지’, ‘-군’, ‘-ㄴ걸’ 따위가 쓰인다. 해체.

② 손아랫사람에게 하듯 낮추어 하는 말. ▶ 그 아이는 버릇없이 아무에게나 반말을 해 댔다.

[반(半)+ 말]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대고 오른손을 전후로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반모음(半母音) ㄹ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소리. ‘ㄴ’, ‘ㅇ’, ‘ㄷ’, ‘ㅂ’, ‘ㄱ’, ‘나’, ‘내’, ‘거’, ‘게’ 따위의 이중모음에서 선행음으로 나는 ‘ㄹ’, ‘w’ 따위이다.

[반(半)+ 모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대고 오른손을 전후로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반복(反復) ㄹ ㄹ타

같은 일을 되풀이함.

▶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동작]

=되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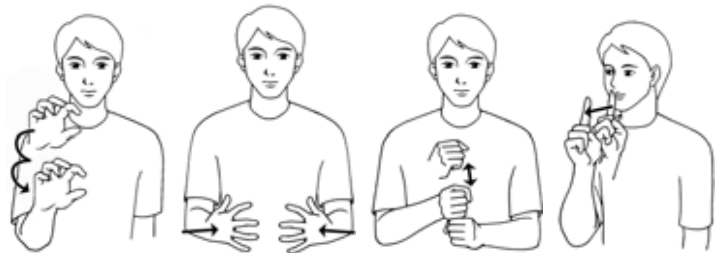


오른손을 구부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두 번 반원을 그리며 내린다.

반복 합성어(反復合成語)

어근 하나가 겹쳐서 이루어진 합성어. ‘사람사람’, ‘깍깍’, ‘철썩철썩’, ‘구불구불’ 따위가 있다.

[반복+ 합성어]



오른손을 구부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두 번 반원을 그리며 내리고,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반사적 의미(反射的意味)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원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반사+ -적+ 의미]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댄다 떼면서 밖으로 비스듬히 올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반설음

반설음(半舌音) ㉞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에서 ‘ㄱ’ 소리를 이르는 말. 현대 음성학의 설전음 ‘ㄱ’ 또는 실측음 ‘ㄱ’에 해당한다. 반혓소리(半-).

[반+ 혀+ 소리]

=반혓소리.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대고 오른손을 전후로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키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반어 의문문(反語疑問文) ㉞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의문문. 예를 들어 ‘철수한테 책 한 권 못 사 줄까?’의 ‘못 사 줄까’는 ‘사 줄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수사 의문문(修辭疑問文).

[반어(반대+ -어)+ 의문문]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손끝이 위로 향하게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을 마주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댈다.

반의 관계(反義關係) ㉞

둘 이상의 단어에서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

[반대+ 뜻+ 관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손끝이 위로 향하게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을 마주치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밀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 다음,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반의어(反義語/反意語) ㉞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 ‘남자’와 ‘여자’, ‘충각’과 ‘처녀’, ‘위’와 ‘아래’, ‘작다’와 ‘크다’, ‘오다’와 ‘가다’ 따위이다. 반대말.

[반대+ 뜻+ -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손끝이 위로 향하게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을 마주치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밀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반잇소리(半-) ㄹ

훈민정음에서, ‘ㄹ’을 이르는 말. 반치음.

[반(半)+ 잇소리(치음)]
=반치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대고 오른손을 전후로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반점(半點) ㄹ

쉽표의 하나. 가로쓰기에 쓰는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낼 때에 쓴다.

[반점을 나타내는 동작]
=콧마.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반쯤 돌린다.

반치음(半齒音) ㄹ

반잇소리(半-). 훈민정음에서, ‘ㄹ’을 이르는 말.

[반(半)+ 잇소리(치음)]
=반잇소리.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대고 오른손을 전후로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반혓소리(半-) ㄹ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에서 ‘ㄹ’ 소리를 이르는 말. 현대 음성학의 설전음 ‘r’ 또는 설측음 ‘l’에 해당한다. 반설음(半舌音).

[반+ 혀+ 소리(음성)]
=반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X’자로 맞대고 오른손을 전후로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키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받침

받침 ㄷ

①한글을 적을 때 모음 글자 아래 받쳐 적는 자음. ‘밖’, ‘춥’에서 ‘ㄱ’, ‘ㄴ’ 따위이다. ②종성(終聲).

[글자를 나타내는 동작/받침을 나타내는 동작]



왼손을 약간 구부려 손가락 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밑으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안쪽에서 밀어 넣는다.

발성(發聲) ㄷ 하타 ㄷ자

①목소리를 냄. 또는 그 목소리.
¶ 그녀는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가락의 멋을 표현했다.

②말을 꺼냄. 또는 말을 함.
¶ 그의 첫 발성은 이리했다. “하여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이병주, 행복어 사전》

[음성/음성]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미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발음(發音) ㄷ 하타

음성을 냄. 또는 그 음성.

¶ 발음을 잘못하다.

[말+음성]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발음 기관(發音器官)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말소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일체의 기관. 목청, 성문, 울대마개, 목안, 입안, 코안 따위가 있다. 음성 기관. 조음 기관.

[발음+기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리고,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안쪽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꼭 짚은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모로 세워 좌우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발음법(發音法)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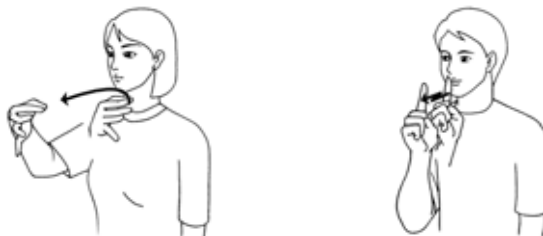
표준 발음법.
[발음+ 법(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발화(發話) ㄹ 하타 되자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또는 그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음의 연쇄체.
[목소리+ 말하다]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두 번 내민다.

발화시(發話時) ㄹ

말하는 이가 말을 시작하는 때.
ㄹ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을 때의 시제를 현재,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설 때의 시제를 과거라 한다.
[발화+ 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두 번 내밀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린다.

발화 행위

발화 행위(發話行爲)

발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 ‘선언,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행위.

[발화+ 행위]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두 번 내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방언(方言) ㉠

①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②사투리.

¶ 방언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로 답사를 떠난다.

[지방+ 말]

=지역 방언.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방언 어휘(方言語彙)

방언은 분화를 거듭하면서 매우 다른 형태로 변화하거나, 외부의 언어로부터 새로운 형태를 받아들여 각 방언에서 현저하게 달라진 단어들.

[방언+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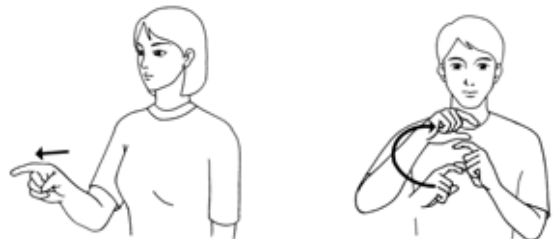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모로 세워 좌우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방점 찍기(傍點-)

중세 국어 각 음절의 성조를 표시하기 위한 《훈민정음》의 표기법. 평성은 점이 없고, 거성은 한 점, 상성은 두 점을 글자의 왼쪽에 찍는다.

[점+ 추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짧게 내민 다음, 1·5지를 펴서 1지가 위에 5지가 아래에 놓이게 하여 약간 구부린 오른 주먹을, 같은 모양의 왼 주먹의 5지 밑에 댔다가 왼 주먹의 1지 위에 올려놓는다.

배타적 분포(排他的分布)

한 쌍의 언어음이나 언어 형식에서,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일. 조사 ‘을’과 ‘를’은 앞의 체언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나 ‘을’은 자음 뒤에서만, ‘를’은 모음 뒤에서만 나타나는 따위이다. 상보적 분포(相補的分布).

[배타적+ 분포]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손등을 댔다 떴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 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맞댔다가 밖으로 벌려 내밀며 활짝 편다.

백제어(百濟語) [명]

백제의 언어. 원시 한어(韓語)를 이어받아 형성되었으며 신라어와 매우 비슷하였으나 어휘에 차이가 있었다.

[백제+ -어(語)]



오른손의 1:2:5지 끝을 맞대고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변별적 자질(辨別的資質)

한 언어의 음이 가진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단위 사이의 최소의 대표적인 단위. 변별적 특질(辨別的特質).

[변별+ -적+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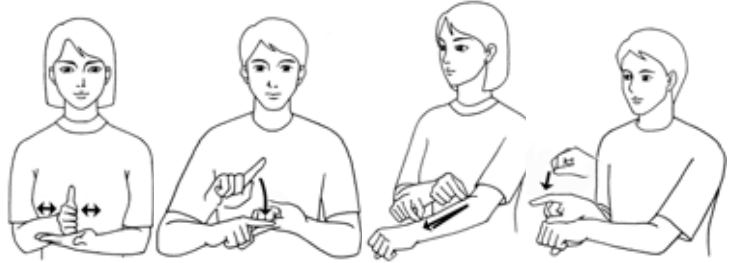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왼 주먹 등에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주먹을 쥐고 1지를 펴면서 편다.

변별적 특징

변별적 특징(辨別的特質)

한 언어의 음이 가진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단위 사이의 최소의 대표적인 단위. 변별적 자질(辨別的資質).

[변별+ -적+ 특징]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목 등에서 팔꿈치 쪽으로 빠르게 올렸다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바닥을 왼 주먹 등에 내려놓으며 1지를 편다.

변이음(變異音) ㄹ

같은 음소에 포괄되는 몇 개의 구체적 음이 서로 구별되는 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때의 음. 예를 들어, ‘감기’의 두 ‘ㄱ’ 소리는 같은 문자로 표기하나 실제로는 앞의 ㄱ은 [k], 뒤의 것은 [g]와 같이 서로 음가가 다른데, 한 음운으로 묶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음성을 그 음운에 상대하여 이른다. 이음(異音).

[다르다+ 음(音)]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손등을 두 번 댔다 떼니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변칙 활용(變則活用)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 ‘돕다’가 ‘도와’로, ‘오다’가 ‘오너라’로 되는 것 따위이다. 불규칙활용(不規則活用).

[변칙(변하다+ 규칙)+ 활용]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 180도 돌려 세우고,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쪽을, 구부린 오른손으로 덮어 두 손을 동시에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힘주어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두 번 스쳐 낸다.

변형 생성 문법(變形生成文法)

언어는 무한한 수의 문장을 지배하는 한정된 수의 규칙으로 이루어지며, 이 유한한 수의 규칙이 곧 문법이라는 이론. 1950년대 중반에 미국의 언어학자 촘스키(Chomsky, N.)가 창시한 이론으로 문장을 심층 구조와 표층 구조로 구분한다. 심층 구조를 만드는 규칙인 구절 구조 규칙과, 심층 구조를 표층 구조로 바꾸어 주는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c'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변형 규칙에 의하여 문장 생성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변형+ 생성+ 문법]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병렬문(並列文)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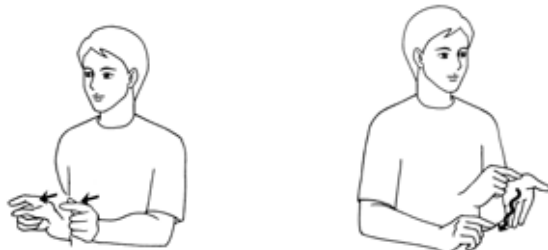
둘 이상의 홀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중문(重文).
[병렬+ 문(文)]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나란히 세워 약간 내민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병서(並書) ㉕ ㉖

훈민정음에서, 초성자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붙여 쓰는 일. 각자 병서 'ㄱ, ㄷ' 따위와 합용 병서 'ㄱ, ㄷ' 따위가 있다. 나란히 쓰기.
[병렬+ 쓰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나란히 세워 약간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보격

보격(補格) ㄹ

문장 안에서, 체언이 보어임을 표시하는 격.

[돕다+ 자격]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린다.

보격 조사(補格助詞)

문장 안에서, 체언이 보어임을 표시하는 격 조사. ‘철수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에서의 ‘가’,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에서의 ‘이’ 따위이다.

[보격+ 조사]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댄다.

보고 ㄹ

((사람이나 동물을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주로 구어체에서 쓰인다.

¶ 누가 너보고 그 일을 하라고 그러더냐?

[상대를 가리키는 동작]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

보다 ㄹ

((체언 뒤에 붙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 내가 너보다 크다.

[한 쪽이 더 위임을 나타내는 동작]



1지를 펴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두 주먹을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보어(補語) ㄹ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수식어. 국어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 ‘가’를 취하여 나타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칠수가 지도자가 되었다’의 ‘지도자가’ 따위이다.

[돕다+ -어(語)]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보조 동사(補助動詞) ㄹ

본동사와 연결되어 그 풀이를 보조하는 동사. ‘감상을 적어 두다.’의 ‘두다’, ‘그는 학교에 가 보았다.’의 ‘보다’ 따위이다.

[보조+ 동사]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켜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보조 부호(補助符號)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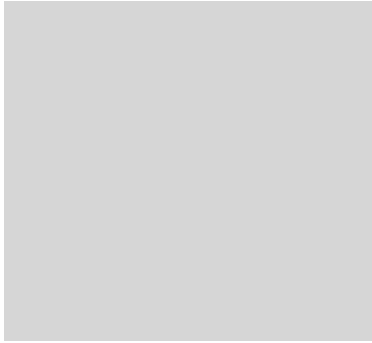
글을 쓸 때에,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문장 부호 느낌표, 마침표, 물음표, 쉼표 따위가 있다.

[보조+ 부호]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대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보조사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보조사(補助詞) ㄷ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은’, ‘는’, ‘도’, ‘만’, ‘까지’, ‘마저’, ‘조차’, ‘부터’ 따위가 있다.

[돕다+ 단어]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댄다.

보조어(補助語) ㄷ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국어 대신 사용하는 언어.

▶ 에스페란토는 전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조어로 창안되었다.

[돕다+ -어(語)]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보조 용언(補助用言)

본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가 있다. ‘가지고 싶다’의 ‘싶다’, ‘먹어 보다’의 ‘보다’ 따위이다.

[보조+ 용언]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댄다.

보조적 연결 어미(補助的連結語尾)

본용언에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어말 어미. 예전에는 부사형 어미로 분류되었는데 ‘-아/어’, ‘-게’, ‘-지’, ‘-고’ 따위를 이른다.

[보조적+ 연결 어미]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자연스럽게 편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고 전후로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보조 형용사(補助形容詞)

본용언과 연결되어 의미를 보충하는 구실을 하는 형용사. ‘먹고 싶다’의 ‘싶다’, ‘예쁘지 아니하다’의 ‘아니하다’ 따위이다.

[보조+ 형용사]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뻐다.

보통 명사(普通名詞)

같은 종류의 모든 사물에 두루 쓰이는 명사. ‘사람’, ‘나라’, ‘도시’, ‘강’, ‘지하철’ 따위가 있다.

[보통+ 명사]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뻐다.

보편성 의존 명사

보편성 의존 명사(普遍性依存名詞)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등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이는 의존 명사. ‘분’, ‘데’, ‘것’, ‘바’ 따위가 있다.

[보편+ 성+ 의존 명사]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1·5지 끝 바닥을 맞댄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5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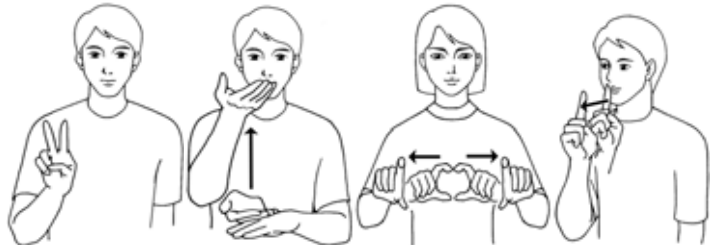


오른쪽 어깨 앞에서 두 주먹을 상하로 이어대고 윗몸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복수 표준어(複數標準語)

표준어 규정(1988)에서는 ‘녕쿨-딩쿨’ 등과 같이 둘 이상이 널리 쓰이면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데, 이런 말들을 ‘복수 표준어’라고 한다.

[둘+ 이상(以上)+ 표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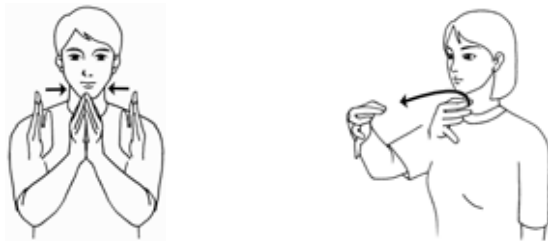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펴서 손등을 왼 손등에 올려놓았다가 위로 올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복음(複音) ㄷ

소리의 처음과 끝이 달리 나는 소리. 겹소리. 중음(重音).

[겹+ 소리(음성)]



가슴 앞에서 두 손바닥을 맞댔다가 살짝 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복자음(複子音) ㄹ

둘 이상의 단자음으로 이루어진 자음. 겹친 소리의 앞뒤가 바뀌어도 음가(音價)가 달라지지 않는 ‘ㄱ’, ‘ㄷ’ 따위와, 음가가 둘인 ‘ㄴ’, ‘ㄹ’ 따위가 있다. 중자음(重子音).

[겹+ 자음]



가슴 앞에서 두 손바닥을 맞댔다가 살짝 떼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배를 스쳐 내리며 5지 바닥이 보이도록 손목을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복합 관형사(複合冠形詞)

둘 이상의 말이 결합된 관형사. ‘한두’, ‘서너’, ‘여남은’ 따위가 있다. 합성 관형사(合成冠形詞).

[합성+ 관형사]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뺏다 뺏다.

복합 동사(複合動詞)

둘 이상의 말이 결합된 동사. ‘본받다’, ‘앞서다’, ‘들어간다’, ‘가로막다’ 따위가 있다. 합성 동사(合成動詞).

[합성+ 동사]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뺏다 뺏다.

복합 명사

복합 명사(複合名詞)

둘 이상의 말이 결합된 명사. '눈발', '눈물', '새해', '지름길', '늦더위', '부슬비' 따위가 있다. 합성 명사(合成名詞).

[합성+ 명사]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복합어(複合語) ㄷ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거나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말. '덧신', '떡이'와 같은 파생어와, '집안', '공부방'과 같은 합성어로 나뉜다.

[합성+ -어(語)]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본동사(本動詞) ㄷ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동사. '나는 문을 열어 보았다'에서 '열어'가 해당한다.

[기본+ 동사]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며 손가락을 펴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본용언(本用言) ㄷ

문장의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면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 '나는 사과를 먹어 버렸다.', '그는 잠을 자고 싶다.'에서 '먹다', '자다' 따위이다.

[기본+ 용언]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며 손가락을 펴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부름말 ㄷ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 ‘아버지’, ‘어머니’, ‘여보’ 따위가 있다. 호칭어(呼稱語).
[부르다+ 말]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뒤에서 손끝이 5지 등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두 번 접으며 당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에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부사(副詞) ㄷ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품사. 활용하지 못하며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뉜다. ‘매우’, ‘가장’, ‘과연’, ‘그리고’ 따위가 있다.
[두 번째임을 나타내는 동작+ 단어]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뻗다.

부사격 조사(副詞格助詞)

문장 안에서, 체언이 부사어임을 보이는 조사. ‘에’, ‘에서’, ‘(으)로’, ‘와/과’, ‘보다’ 따위가 있다.
[부사격+ 조사]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뻗고,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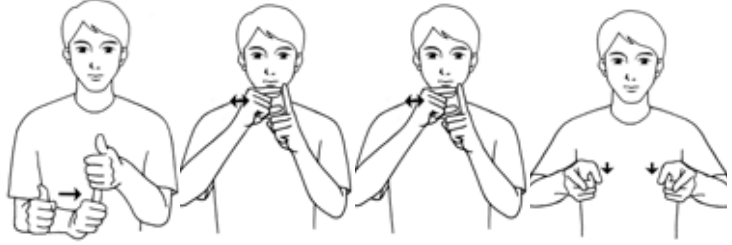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뻗다.

부사구

부사구(副詞句) ㄷ

문장에서 부사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구. '철수는 아주 열심히 산다.'에서 '아주 열심히' 따위이다.
[부사+ 구(句)]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때는 동작을 반복하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부사성 의존 명사(副詞性依存名詞)

문장에서 부사어로만 쓰이는 의존 명사. '먹을 만큼 먹었다.'의 '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의 '대로' 따위가 있다.
[부사+ 성+ 의존 명사]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때고,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다음,



오른쪽 어깨 앞에서 두 주먹을 상하로 이어대고 윗몸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부사어(副詞語) ㄷ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 부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어절·관용어,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말, 어미 '-게'로 활용한 형용사, 부사성 의존 명사구 따위가 있다.
[부사+ -어(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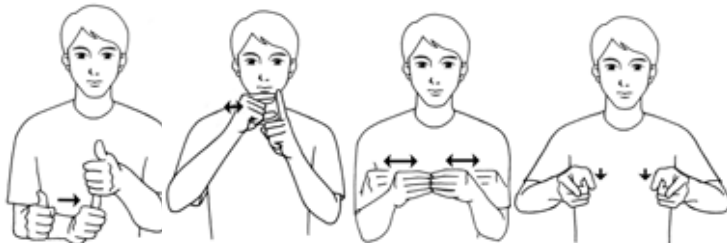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때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부사절(副詞節) ㉔

문장에서 부사어의 구실을 하는 절. '우리가 그 사람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에서 '그 사람의 도움 없이' 따위이다.

[부사+ 절(節)]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副詞節-文章)

절 전체가 부사어의 기능을 하여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을 포함하는 문장.

[부사절+ 안다+ 문장]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리고, 두 팔을 벌렸다가 가슴에 모아 댄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부사형(副詞形) ㉕

동사, 형용사 따위의 어간에 활용 어미 '-아/어', '-게', '-지', '-고' 따위가 붙어 부사와 같은 구실을 하는 활용형.

[부사+ 형]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부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副詞形語尾)

문장에서 부사어 구실을 하게 하는 활용 어미. 학교 문법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로 본다.
[부사형+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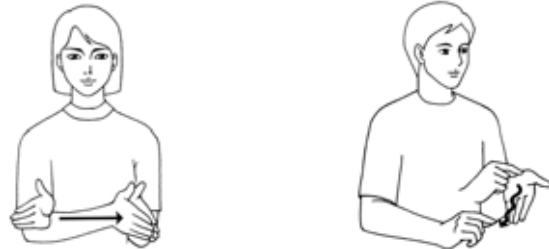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부서(附書) 땡 [하자]

훈민정음에서, 중성(中聲)인 모음은 초성(初聲)의 아래나 오른쪽에 붙여 쓰는 일. 붙여쓰기.
[붙이다+쓰다]
=붙여쓰기.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부속 성분(附屬成分)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 뜻을 더하여 주는 문장 성분. 부사어, 관형어 따위가 있다.
[부속+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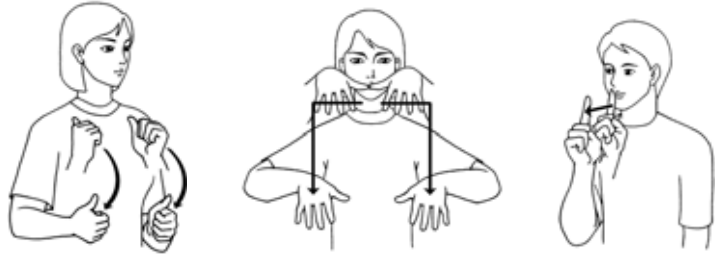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등에서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돌려 끌어들이며 주먹을 쥔 다음, 왼 주먹의 1·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좁혀 5지 끝으로 왼 주먹의 5지 끝을 스쳐 낸다.

부여계 언어(夫餘系言語)

역사 시대 이후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터전을 잡게 된 언어 중 북방의 언어.

[부여+ 계+ 언어]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주먹을 가슴 위쪽에 댔다가 동시에 아래로 내린 다음,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맞댔다가 약간 벌려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부정(否定) ㅁ ㅎ타 ㄷ자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

¶ 그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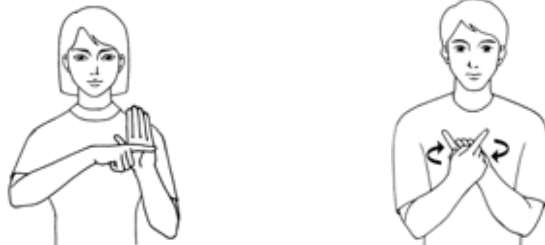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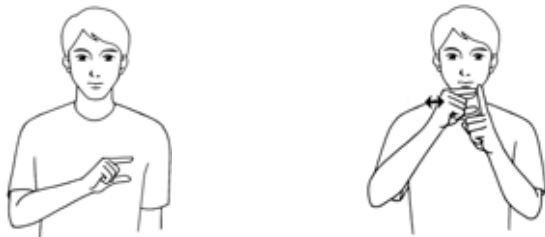
부정 대명사(不定代名詞)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 '아무', '아무개' 따위가 있다. 부정칭 대명사(不定稱代名詞).

[부정+ 대명사]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부정문

부정문(否定文) ㉞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 ‘철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는 오늘 학교에 가지 못했다.’, ‘무리하게 일을 하지 마라.’ 따위이다.

[부정+ 문(文)]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댄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부정법(否定法) ㉞

언어 내용의 전체나 일부를 부정하는 문법.

[부정(否定)+ 방법]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부정 부사(否定副詞) ㉞

용언의 앞에 놓여 그 내용을 부정하는 부사. ‘아니’, ‘안’, ‘못’ 따위가 있다.

[부정+ 부사]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댄다.

부정 의문문(否定疑問文) ㉞

부정의 형태를 띤 의문문. ‘철수는 안 왔니?’, ‘철수를 아직도 못 만났니?’ 따위이다.

[부정+ 의문문]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부정칭(不定稱)

부정칭 대명사(不定稱代名詞).
[정하다+ 아니다+ 지칭]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으로 가슴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을 친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리고,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댄다 떼면서 잡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민다.

부정칭 대명사(不定稱代名詞)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 ‘아무’, ‘아무개’ 따위가 있다. 부정칭(不定稱).
[부정칭+ 대명사]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으로 가슴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을 친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리고,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댄다 떼면서 잡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민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뺀다.

부정 표현(否定表現)

부정 부사와 부정 용언을 사용하는 표현.
[부정+ 표현]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댄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부터

부터 ㄹ*

((체언이나 부사어 또는 일부 어미 뒤에 붙어))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뒤에는 끝을 나타내는 ‘까지’가 와서 짝을 이룬다.

☞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다.
[출발을 나타내는 동작]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손 위에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오른손을 왼쪽으로 이동한다.

부표제어(副標題語) ㄹ

사전에서, 다른 표제어에 딸려 배열되는 말. 주로 ‘-하다’, ‘-되다’ 따위가 붙어 파생된 말을 이른다.

[부+표제어]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된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1·2·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등을 대고 안으로 닿기며 1·2·5지 끝을 맞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분절성(分節性) ㄹ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소, 음운으로 쪼개어 나눌 수 있으며, 한정된 음운을 결합하여서 수많은 형태소, 단어를 만들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여러 단위로 나누어지고 결합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

[분리+성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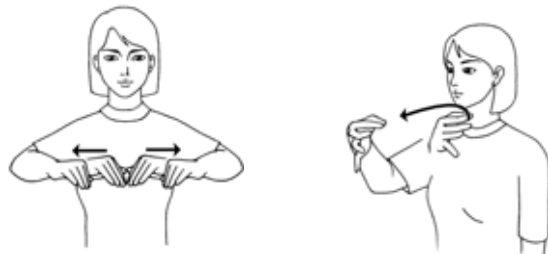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다.

분절음(分節音) ㄹ

음절을 자음이나 모음으로 분리할 수 있는 음. ‘별’은 ‘ㅂ’, ‘ㄷ’, ‘ㄹ’로 나눌 수 있다.

[분리+음(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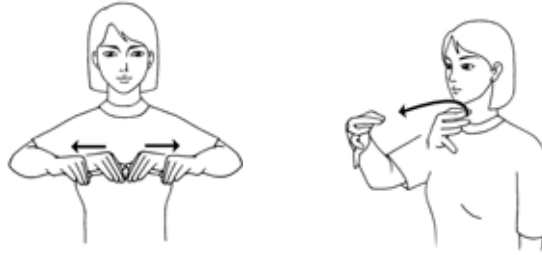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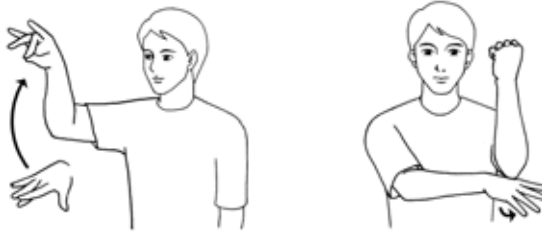
분절 음소(分節音素)

‘음소’를 운소(韻素)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분리+ 음소]



손등이 위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구부린 두 손의 손가락 등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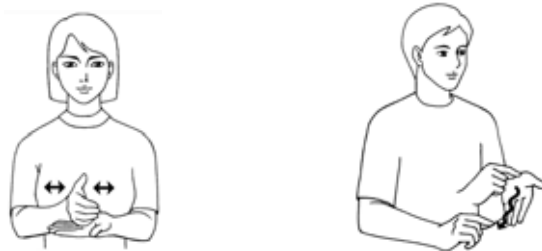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붙인 다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 등을 대고 손가락을 활짝 편다.

분절(分綴) 명 하타 되자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 그 각각을 음절이나 성분 단위로 밝혀 적음. 또는 그 표기법. 끊어 적기.

[나누다+ 적다]

=끊어 적기.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불규칙 용언(不規則用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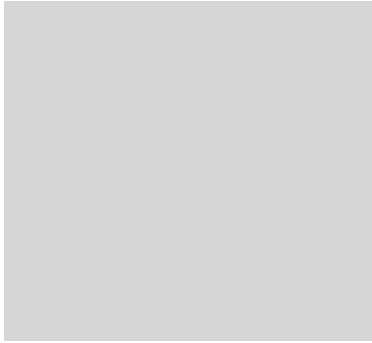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

[불규칙(불법+ 조항)+ 용언]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두 번 올려 낸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고,

불규칙 활용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오른쪽으로 뒤집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뺐다 뺐다.

불규칙 활용(不規則活用)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일. '돕다'가 '도와'로, '오다'가 '오너라'로 되는 것 따위이다.

[불규칙+ 활용]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을 두 번 올려 댄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쪽을, 구부린 오른손으로 덮어 두 손을 동시에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힘주어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두 번 스쳐 낸다.

불완전 동사(不完全動詞)

①어미의 활용이 완전하지 못한 동사. '가로되'·'가론'의 꼴로만 활용하는 '가로다', '달라'·'다오'의 꼴로만 활용하는 '달다', '데리고'·'대려'의 꼴로만 활용하는 '데리다' 따위가 있다.

②보충하는 말이 있어야 서술이 완전해지는 동사.

[불완전+ 동사]



두 손의 손끝을 마주보게 하였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은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 앞에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왼 손바닥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상하로 흔들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불청불탁(不清不濁) 명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 가운데 ‘ㅇ’, ‘ㄴ’, ‘ㄹ’, ‘ㅇ’, ‘ㄹ’, ‘ㅅ’ 따위에 공통 되는 음성적 특질을 이르는 말. 현대 음성학의 유성 자음에 해당한다.
[맑다+아니다+흐리다+아니다]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리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눈앞에서 겹치게 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린다.

붙여쓰기 명

글을 쓸 때, 각 낱말을 붙여 쓰는 일. 부서(附書).
[붙이다+쓰다]
=부서.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붙임표(-標) 명

이음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사전, 논문 등에서 파생어나 합성어를 나타내거나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때,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외래어와 한자어가 결합하는 경우에 쓴다.

[붙임표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하이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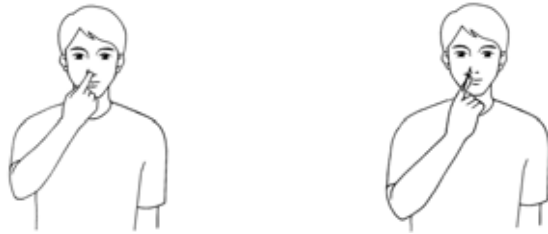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비강

비강(鼻腔) ㄷ

콧구멍에서 목젓 윗부분에 이르는 빈 곳. 냄새를 맡고, 공기 속의 이물을 제거하며, 들이마시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코안.

[코+ 콧속을 가리키는 동작]
=코안.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에 댄 다음, 그 끝으로 콧속을 가리킨다.

비격식체(非格式體)

표현이 부드럽고 주관적인 느낌을 주는 상대 높임법. '해체', '해요체' 따위가 있다.

[예의+ 적함하다+ 아니다+ 문체]



4·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을 이마에 대고 상하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린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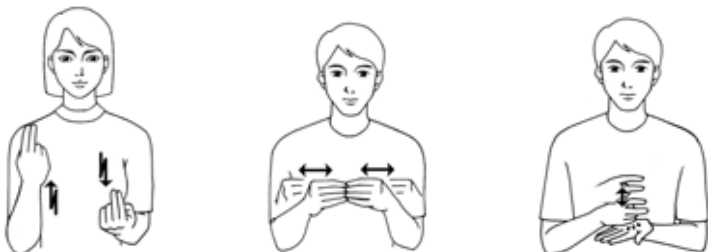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비교 문법(比較文法)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 상호 간의 문법적 사실을 비교하고 연구하여 공통 조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법.

[비교+ 문법]



두 손의 1·2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나란히 세워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비문(非文)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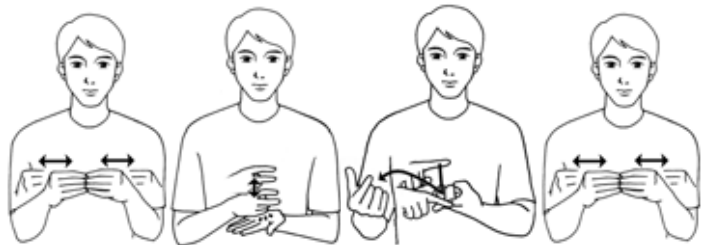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적합하지 않다+ 문장]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댔다가,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오른쪽으로 눌린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댈다.

비문법적 문장(非文法的文章)

국어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문장.
[문법+ 적합하지 않다+ 문장]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댔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댔다가,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오른쪽으로 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비밀어(秘密語) ㉕

은어가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부르는 말. 은어.
[비밀+ -어(語)]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 손끝으로 두 번 긁어 들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비속어(卑俗語) ㉖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 속어(俗語).
[저속하다+ 말]
=속어.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코에 댔다가 그 끝이 밖으로 향하게 약간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비어

비어(卑語/鄙語)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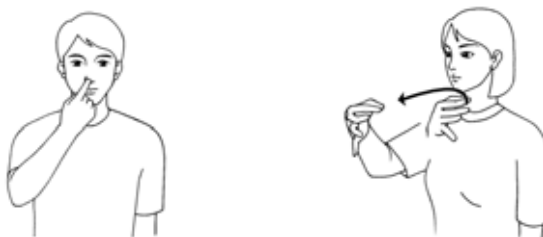
- ①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
 ¶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대상을 낮추거나 낮잡는 뜻으로 이르는 말.
 ¶ ‘군바리’는 군인의 비어이다.
 [천하다+ 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떼고, 1·5지 끝을 맞대어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약간 흔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비음(鼻音) ㄷ

-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 ‘ㄹ’, ‘ㅇ’ 따위가 있다. 콧소리.
 [코+ 소리]
 =콧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에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비음화(鼻音化)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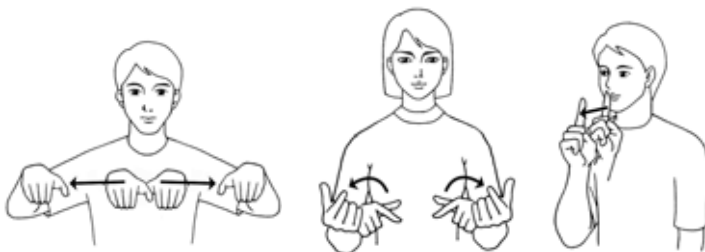
- 어떤 음의 조음(調音)에 비강의 공명이 수반되는 현상. ‘십만’이 ‘십만’, ‘먹는다’가 ‘멍는다’가 되는 것 따위이다.
 [비음+ 변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에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비표준어(非標準語) ㄷ

- 표준어가 아닌 말.
 ¶ 비표준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다.
 [표준+ 아니다+ -어(語)]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빗금 ㄷ

쉽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대응·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나 구, 절 사이에 쓰거나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쓴다.
[빗금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 어깨 앞에서 왼쪽 아래로 내린다.

ㅂ [쌍비읍]*

한글 자모 ‘ㅂ’의 된소리 글자.



오른손의 1·2·3·4지를 붙여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으로 한번 옮긴다.

ㅃ [쌍집표] (-標) ㄷ

안드러냄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글자의 자리를 비워 둘 때에 쓴다.
[쌍집표를 나타내는 동작]



두 주먹의 1지와 5지를 벌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옆으로 약간 벌려 1·5지 끝을 맞댄다.

ㅆ [조]*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그것 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
¶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만.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댄다가 2지를 뺀다.



시[시웃]*

한글 자모의 일곱 째 글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사건시(事件時) ㉞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시간과 관련되는 문장을 설명
할 때 쓰는 말이다.
[사건+ 시(時)]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양옆으로 붙였다 벌리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왼 주먹의 1·5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끼우고 밖으로 돌린다.

사동(使動) ㉞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시키다+ 움직이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사동문(使動文) ㉞

사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철수가 동생에게 책을 읽힌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따위이다.
[사동+문(文)]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민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사동법(使動法) ㉞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방법. 사동사에 의한 방법과 주동사에 어미 ‘-게’를 붙이고 보조 동사 ‘하다’를 쓰는 방법이 있다. 대개 대응하는 주동문이 존재하며, 주동문의 주어는 주격 조사 대신 ‘-에게’, ‘-한테’가 붙어 새로운 문장 성분이 된다.
[사동+방법]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민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힌다.

사동사(使動詞) ㉞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고 남에게 그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함을 나타내는 동사. 대개 대응하는 주동문의 동사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따위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특수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대응하는 주동사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동+단어]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민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댄다.

사동 접미사(使動接尾辭)

사동사가 되게 하는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
[사동+접미사]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민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사동 표현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C’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사동 표현(使動表現)

사동사나 사동 접미사를 사용해서 하는 문장 표현.
[사동+ 표현]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사동형(使動形) ㄹ

사동사의 형태.
[사동+ 형태]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사물 대명사(事物代名詞)

어떤 사물이나 처소 따위를 이르는 대명사. ‘그’, ‘이것’, ‘어디’, ‘무엇’ 따위가 있다. 지시 대명사(指示代名詞).
[사물(물건+ 여러 가지)+ 대명사]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을 오른손의 5지 바닥으로 두 번 스쳐 낸 다음, 1·5지를 편 오른 주먹의 손목을 좌우로 약간 흔들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댄다.

사이시옷 [명]

한글 맞춤법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쓰는 'ㅅ'의 이름. 순우리말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따위에 받치어 적는다. '아랫방', '아랫니', '나뭇잎' 따위가 있다. [사이+ 지문자 'ㅅ']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여 어깨 높이에서 가슴 높이로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한다.

사잇소리 [명]

①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그 사이에 덧생기는 소리. ②삼입음. [사이+ 소리]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여 어깨 높이에서 가슴 높이로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사잇소리 현상(-現象)

합성 명사에서,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뒷말이 'ㄹ', 'ㄴ'으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하나 덧나고,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면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에 'ㄴ'이 둘 덧나는 현상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여 어깨 높이에서 가슴 높이로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리고,

사전

을 이르는 말. ‘냇가’, ‘산골’, ‘훗날’, ‘에셋일’ 따위를 발음할 때 일어난다.
[사잇소리+ 현상]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약간 아래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사전(辭典) ㄹ

어떤 범위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신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 최근에는 콤팩트디스크 따위와 같이 종이와 아닌 저장 매체에 내용을 담아서 만들기도 한다.
ㄹ 사전(辭典)을 편찬하다.
[사전의 두꺼움을 나타내는 동작/의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C' 모양이 되게 편 왼손의 5지 밑에 대고 밖으로 내민다.

사전적 의미(辭典的意味)

어떤 낱말이 지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 개념적 의미. 외연적 의미. 인지적 의미.
[사전+ -적+ 의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C' 모양이 되게 편 왼손의 5지 밑에 대고 밖으로 내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사전학(辭典學) ㄹ

사전 편찬에 관한 일을 연구하는 학문.
[사전+ 학(공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C' 모양이 되게 편 왼손의 5지 밑에 대고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사회 방언(社會方言)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에 따라 분화 된 언어.

[사회+ 방언]



4·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맞댔다가 아래로 내리며 원을 그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사회성(社會性) ㄷ

사회생활을 하려는 인간의 근본 성질. 인격, 혹은 성격 분류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 사회에 적응하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대인 관계의 원만성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사회+ 성질]



4·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맞댔다가 아래로 내리며 원을 그린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다.

사회적 의미(社會的意味)

말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되는 의미들.

[사회+ -적+ 의미]



4·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맞댔다가 아래로 내리며 원을 그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밀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상(相)

전통 문법에서, 동사가 가지는 동작의 양태(樣態)·특질 따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의 하나.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 따위가 있다. 동작상(動作相).

=모양.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상대 높임

상대 높임(相對-)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할 때.
[상대+ 높이다]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전후로 마주 세운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다.

상대 높임법(相對-法)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해체’, ‘해요체’ 따위가 있다. 공손법.
[상대+ 높임법]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전후로 마주 세운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힌다.

상보적 분포(相補的分布)

한 쌍의 언어어나 언어 형식에서,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일. 조사 ‘을’과 ‘를’은 앞의 체언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나 ‘을’은 자음 뒤에서만, ‘를’은 모음 뒤에서만 나타나는 따위이다. 배타적 분포.
[상보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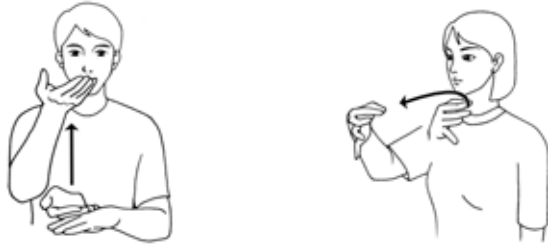
1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의 바닥을 맞대고 좌우로 두 번 돌린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 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맞닿다가 밖으로 벌려 내밀며 활짝 편다.

상성(上聲) ㄹ

①중세 국어 사성(四聲)의 하나.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로, 글자에 표시할 때 왼쪽에 점 두 개를 찍는다. ②한자 사성의 하나. 처음이 낮고 차차 높아지다가 가장 높게 되었을 때 그치는 소리이다. 거성(去聲), 입성(入聲)의 소리들과 아울러 측성(仄聲)이라고 한다. ③윗소리.
[상(上)+ 소리]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펴서 손등을 왼 손등에 올려놓았다가 위로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상위어(上位語) ㄹ

어떤 말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뜻이 있는 말. 상의어(上義語).
[포함+ -어(語)]



두 손을 약간 구부러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상위 언어(上位言語) ㄹ

다른 언어를 기술하거나 분석하는데 쓰는 언어. 영어 문법을 한국어로 설명할 경우에 한국어를 말한다. 메타언어(meta言語).
[상위+ 언어]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펴서 손등을 왼 손등에 올려놓았다가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상의어(上義語) ㄹ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는 단어. 상위어(上位語).
[상(上)+ 뜻+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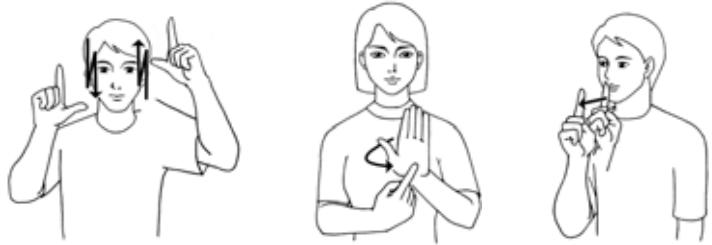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펴서 손등을 왼 손등에 올려놓았다가 위로 올린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밀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상징어

상징어(象徵語) ㉞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단어. 의성어와 의태어로, ‘멍멍’, ‘탕탕’, ‘아장아장’, ‘엇글엇글’ 따위가 있다.

[상징(모양+ 나타내다)+ -어(語)]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상하 관계(上下關係)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

[상하+ 관계]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펴서 손등을 왼 손등에 올려놓았다가 위로 올린 다음,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손등을 댔다가 아래로 내리고,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상형(象形) ㉞

한자 육서(六書)의 하나. 물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를 본떠서 ‘日’ 자를 만드는 따위이다.

[모양+ 본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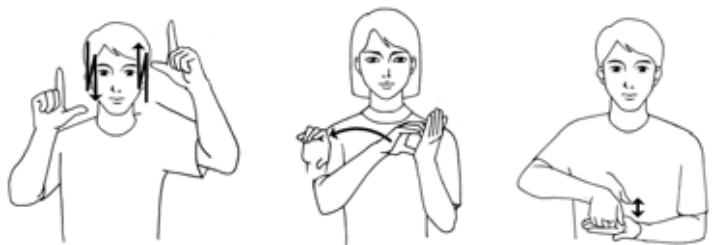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반쯤 구부러 끝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옮겨 놓는다.

상형 문자(象形文字)

①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 회화 문자에서 발전하여 단어 문자로 된 것으로, 원형과의 관련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문자. 한자, 수메르 문자, 이집트 문자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②한자의 육서(六書) 가운데 하나로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자. 해를 본뜬 ‘日’, 달을 본뜬 ‘月’, 산을 본뜬 ‘山’ 따위가 있다. 형상 문자.

[상형+ 문자]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반쯤 구부러 끝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뗀다.

새로에 ㄹ

((조사 ‘는’, ‘은’의 뒤에 붙어)) ‘고사하고’, ‘그만두고’, ‘커녕’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생각하면 비바람은새로에 벼락이 빗방울처럼 쏟아진다 하여도 원통할 것이 없으며... <최남선, 백두산 근참기>

[자리가 뒤바뀜을 나타내는 동작]
=커녕.



손등이 위로 향하게 손끝을 모아 쥘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전후로 놓았다가 동시에 반원을 그리며 움직여 두 손의 위치를 반대로 바꾸어 놓는다.

새말 ㅁ

신어(新語).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신어(新語).

[새롭다+ 말]
=신어.



두 손 각각 손끝을 모아 끝을 양쪽 눈 밑에 댔다가 떼며 활짝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생략 표현(省略表現)

언어 표현 중에서 어떤 성분을 생략함.

[생략+ 표현]



왼손을 펴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바닥을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의 손등으로 스쳐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서 ㄹ

①'에서①'의 준말

¶ 시장서 산 물건인데 싸고 좋다.

②'에서②'의 준말

¶ 서울서 전화가 왔다.

[한정된 공간을 가리키는 동작]
=에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서견

서견 ㄹ

((체인 뒤에 붙어)) ‘...이랑 함께’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동생서견 왔다.

[‘함께’를 나타내는 동작]

=함께.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다.

서남 방언(西南方言)

전라도 대부분과 충남 일부 지역에서 쓰는 방언.

[서(西)+ 남(南)+ 방언]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뒤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내린 다음, 두 손바닥으로 배를 스쳐 올리고,1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서부터 ㄹ

‘에서부터’의 준말.

¶ 한 시서부터 공연이 시작될 것이다.

[출발을 나타내는 동작]

=부터.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손 위에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오른손을 왼쪽으로 이동한다.

서북 방언(西北方言)

평안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방언.
[서(西)+ 북(北)+ 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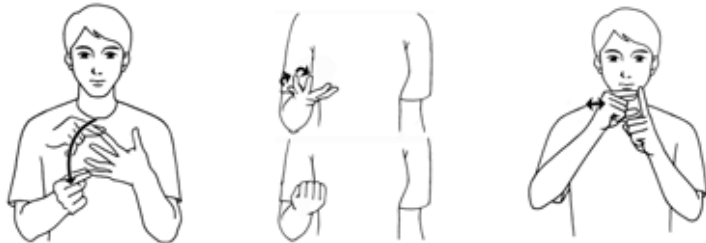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뒤에서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아래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을 가슴 앞으로 올려 떼는 동작을 하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서수사(序數詞) ㉞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첫째, 둘째, 셋째 따위의 고유어 계통과 제일, 제이, 제삼 따위의 한자어 계통이 있다.
[순서+ 수사]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5지부터 차례로 접은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서술격(敍述格) ㉞

문장 속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
[서술(과정+ 나타내다)+ 격]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린다.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敍述格助詞)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 뒤에 붙어 서술어 자격을 가지게 하는 격 조사. ‘이다’가 있는데, ‘이고’, ‘이니’, ‘이면’, ‘이지’ 따위로 활용하며, 모음 아래에서는 어간 ‘이’가 생략되기도 한다.

[서술격+ 조사]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앞통을 그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댄다.

서술문(敍述文) 평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평서형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데 ‘하얀 눈이 왔다.’ 따위이다. 평서문(平敍文).

[서술+ 문]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서술부(敍述部) 평

서술어 단독으로나 목적어, 보어 또는 그들에 딸린 부속 성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

[서술+ 부(部)]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댄다가 안으로 원을 크게 그리며 돌려 두 손목을 맞댄다.

서술성(敍述性) ㉔

단어 또는 단어의 결합이 문장에서 서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

[서술+ 성]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다.

서술성 의존 명사(敍述性依存名詞)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는 의존 명사.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일만 할 뿐이다”에서 ‘따름’, ‘뿐’ 따위이다.

[서술성+ 의존 명사]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두 주먹을 상하로 이어대고 뒷뎠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서술어(敍述語) ㉔

한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 “철수가 웃는다.”에서 ‘웃는다’, “철수는 점잖다.”에서 ‘점잖다’, “철수는 학생이다.”에서 ‘학생이다’와 같이 주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종결형으로 나타난다. 풀이말.

[서술+ -어(語)]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敍述語-數)

서술어가 그 성격에 따라 필요한 문장 성분들의 개수.

[서술어+ 자리+ 수]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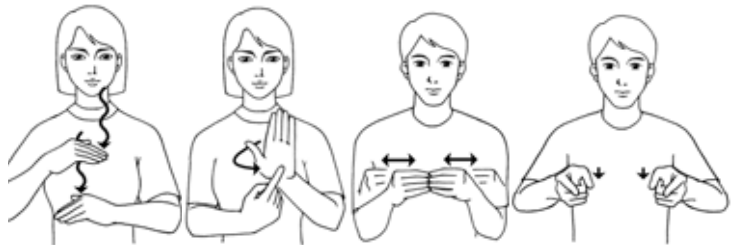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5지부터 차례로 접는다.

서술절(敍述節) ㉞

문장에서 서술어 구실을 하는 절. “철수가 마음이 넓다.”에서 ‘마음이 넓다’ 따위이다.

[서술+ 절(節)]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서술절을 안은 문장(敍述節-文章)

[서술절+ 안다+ 문장]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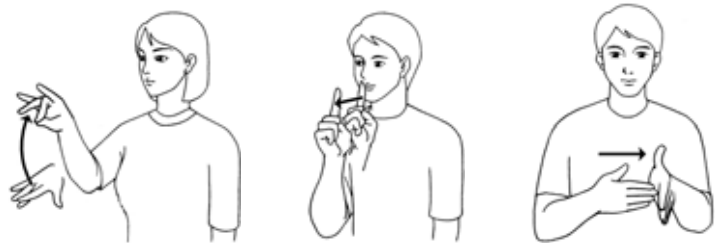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리고, 두 팔을 벌렸다가 가슴에 모아 댄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선어말 어미(先語末語尾)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 ‘-시-’, ‘-읍-’ 따위와 같이 높임법에 관한 것과 ‘-았-’, ‘-는-’, ‘-더-’, ‘-겠-’ 따위와 같이 시상(時相)에 관한 것이 있다.

[먼저+ 어말 어미]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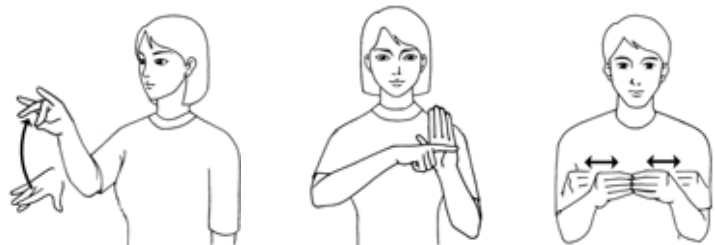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위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선행 부정(先行否定)

짧은 부정문. 부정 요소가 서술 용언 앞에 놓인 부정.

¶ 그는 양복을 안 입는다.

[먼저+ 부정문]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댄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설근음

설근음(舌根音) ㄱ

혀뿌리와 여린입천장·목젖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ㄱ’, ‘ㅋ’, ‘ㅇ’ 따위가 있다. 혀뿌리소리.

[혀뿌리+소리]

=혀뿌리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킨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펴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설량 ㄷ

격 조사 ‘서’와 보조사 ‘ㄷ량’이 결합한 말.

¶ 여기설량 차를 세우지 마라. 덧셈도 모르고설량 어떻게 나눗셈을 배울 수 있겠니?

[한정된 공간을 가리키는 동작]

=곳.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설면음(舌面音) ㄷ

전설면(前舌面)과 경구개, 후설면(後舌面)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전자를 전설음, 후자를 후설음이라고 한다. 혀바닥소리.

[혀바닥+소리]

=혀바닥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내민 혀 바닥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설명 문법(說明文法)

문법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함께 기술하는 문법.

[설명+문법]



두 주먹을 상하로 엇갈리게 스치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설명 의문문(說明疑問文)

상대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어디’, ‘언제’,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따위의 의문사를 쓴 문장이다.

[설명+ 의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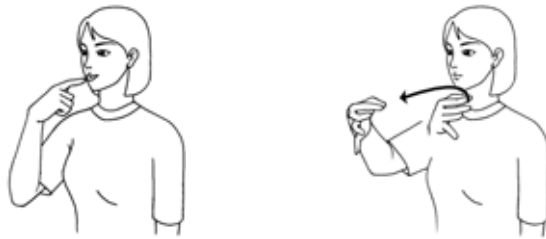
두 주먹을 상하로 엇갈리게 스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설음(舌音) ㄹ

혀끝과 잇몸의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ㄴ’, ‘ㄷ’, ‘ㄷ’ 따위가 있다. 혀소리.

[혀+ 음성]

=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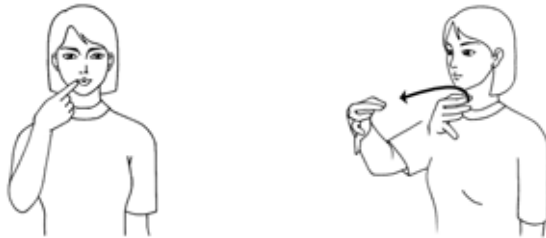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설측음(舌側音) ㄹ

혀끝을 윗잇몸에 아주 붙이고, 혀 양쪽의 트인 데로 날숨을 흘려 내는 소리. ‘쌀’, ‘길’ 따위의 ‘ㄹ’ 음이다. 혀옆소리.

[혀 옆+ 소리]

=혀옆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약간 내민 혀의 옆면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설형 문자(楔形文字)

기원전 3000년경부터 약 3,000년간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고대 오리엔트에서 광범위하게 쓰인 문자. 회화 문자에서 생긴 문자로, 점토 위에 갈대나 금속으로 새겨 썼기 때문에 문자의 선이 췌기 모양으로 보인다.

[췌기 모양+ 문자]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역삼각형을 그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댄다.

성대

성대(聲帶) ㉔

후두(喉頭)의 중앙부에 있는 소리를 내는 기관 앞 끝은 방패 연골의 내면에, 뒤 끝은 피열(披列) 연골에 부착한 탄력 있는 두 개의 인대로, 자유롭게 늘어나고 줄어들어 공기의 통로 폭을 조절하며 혀에서 나오는 공기에 의하여 진동되어 소리가 난다. 목청.

[음성+ 기관지]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목 위쪽에 댔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

성대문(聲帶門) ㉔

양쪽 성대(聲帶) 사이에 있는 좁은 틈. 안정(安靜) 호흡을 할 때에는 벌어져서 삼각형이 되고 소리를 낼 때에는 사이가 좁아진다. 성문(聲門).

[성대+ 문(門)]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목 위쪽에 댔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성문(聲門) ㉔

양쪽 성대(聲帶) 사이에 있는 좁은 틈. 안정(安靜) 호흡을 할 때에는 벌어져서 삼각형이 되고 소리를 낼 때에는 사이가 좁아진다. 성대문(聲帶門).

[음성+ 문(門)]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한다.

성문음(聲門音) ㉔

목구멍, 즉 인두의 벽과 혀뿌리를 마찰하여 내는 소리. 목구멍소리.

[성문+ 음(音)]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5지를 접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성문화(聲門化) ㄷ

어떤 음이 동시 조음되면서 성문(聲門)의 폐쇄 또는 긴장을 수반하게 되는 현상. 목청소리되기. 후두화(喉頭化).

[성문+ 변하다]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 다음, 5지를 잡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맞댔다가 좌우로 벌려 두 손바닥이 마주 보게 하고,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성분 부사(成分副詞)

문장의 한 성분을 꾸며 주는 부사. ‘성상 부사(性狀副詞)’, ‘지시 부사(指示副詞)’, ‘부정 부사(否定副詞)’ 따위가 있다.

[성분+ 부사]



왼 주먹의 1·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좁혀 5지 끝으로 왼 주먹의 5지 끝을 스쳐 내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c’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성분 부사어(成分副詞語)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어. [성분+ 부사어]



왼 주먹의 1·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좁혀 5지 끝으로 왼 주먹의 5지 끝을 스쳐 내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c’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때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성상 관형사(性狀冠形詞)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관형사. ‘재’, ‘현’, ‘순(純)’ 따위가 있다.

[성상(성질+ 상태)+ 관형사]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성상 부사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성상 부사(性狀副詞)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을 한정하여 꾸미는 부사. '잘', '매우', '바로' 따위가 있다.

[성상+ 부사]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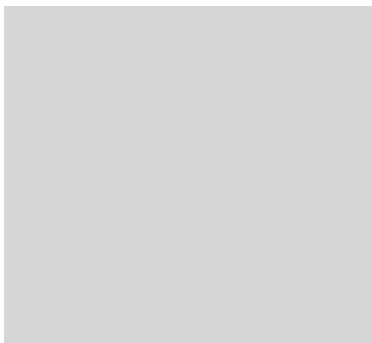
성상 형용사(性狀形容詞)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달다', '고프다', '불다' 따위가 있다.

[성상(성질+ 상태)+ 형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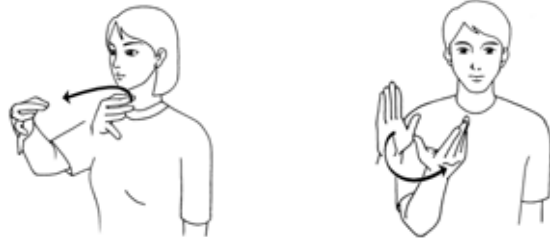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성음(成音)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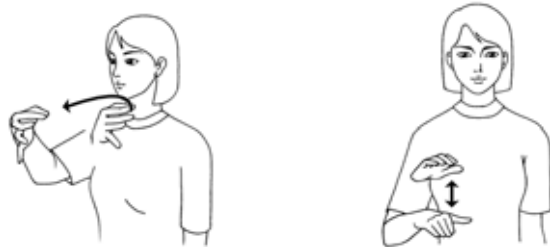
음절 이루기.
[음절(음성)+ 되다]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 다음,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성조(聲調) ㄹ

음절 안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 기능을 가진다. 중국어의 사성 따위가 있다.
[소리+ 높낮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위아래로 움직인다.

-세 ㄹ

((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ㄹ' 받침인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 하게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이제 그만 일어나세.
[①-자. ②-자/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하자는 표정]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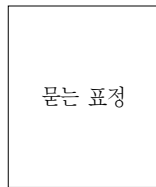


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힘주어 쫓는다. ②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힘주어 쫓히며 고개를 끄덕이며 같이 하자는 표정을 짓는다.

-세요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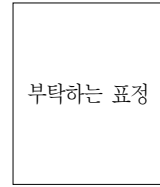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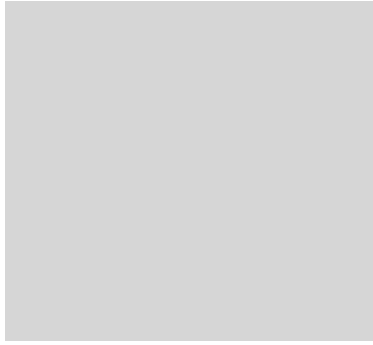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또는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세요.

▶ 갑자기 웬일이세요? 어서 가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의문문: 묻는 표정. 비니까. 명령문: 부탁하다. 부탁하는 표정. 동사의 명령형. 동사의 청유형(예: 주세요)]
=②묻다. ③부탁하다. ⑥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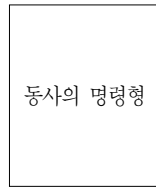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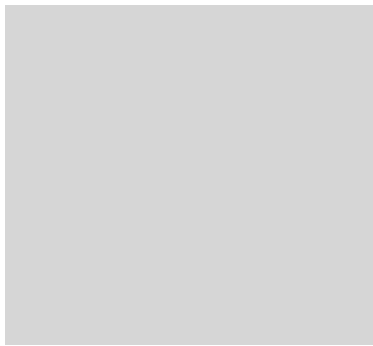
① 묻는 표정을 짓는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세 자리 서술어



③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④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다.



⑤ 동사의 명령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표시한다.

⑥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을 펴서 손등을 두 번 댔다 떼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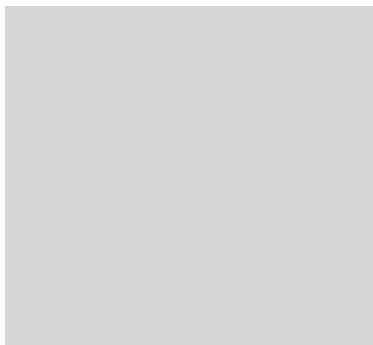
세 자리 서술어(-敍述語)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의 세 가지를 요구하는 서술어.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셨다.'와 같은 경우이다.

[셋+ 곳+ 서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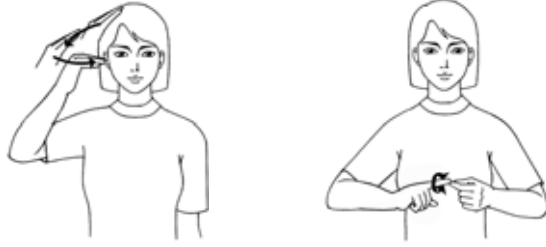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세종 대왕(世宗大王)

조선 제4대 왕(1397~1450). 이름은 도(禔). 자는 원정(元正). 집현전을 두어 학문을 장려하였고,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측우기·해시계 따위의 과학 기구를 제작하게 하였다. 밖으로는 6진(鎭)을 개척하여 국토를 확장하고, 쓰시마[對馬] 섬을 정벌하여 왜구의 소요를 진정하는 등 조선 왕조의 기틀을 튼튼히 하였다. 재위 기간은 1418~1450년이다. [한글+ 크다+ 왕(王)]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의 2지 옆면을 오른 주먹의 1·5지 끝으로 스쳐 올린 다음, 주먹을 쥐고 5지를 펴서 왼 손등에 세운다.

센입천장(-天障) ㄷ

입천장 앞쪽의 단단한 부분. 두꺼운 점막으로 덮여 있고, 앞쪽에 뼈가 있다. 경구개. 단단입천장. [단단하다+ 입천장]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천장을 가리킨다.

센입천장소리(-天障-) ㄷ

혀바닥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ㄷ’, ‘ㄸ’, ‘ㅌ’ 따위가 있다. 경구개음. 구개음(口蓋音). [센입천장+ 소리]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천장을 가리키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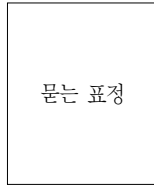
-셔요

-셔요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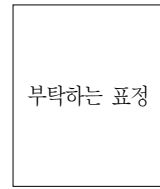
‘-시어요’의 준말.

¶ 벌써 가셔요? 어서 가셔요. 자 모두 여기를 보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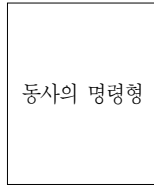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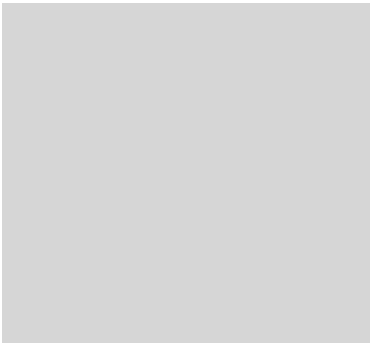
=-세요. ②묻다. ③부탁하다. ⑥주세요.



- ① 묻는 표정을 짓는대(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③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④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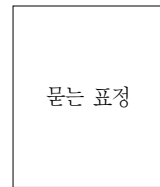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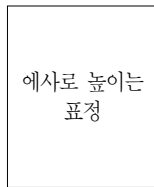


- ⑤ 동사의 명령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표시한다.
- ⑥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을 펴서 손등을 두 번 댔다 떼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소 어미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하오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그곳에는 내가 가겠소. 그것이 말이 되는 것 같소? 식사 좀 드소.
=③부탁하다.



- ① 예사로 높이는 표정을 짓는다.
- ② 묻는 표정을 짓는대(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③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소괄호(小括弧) (명)

묵음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원어·연대·주석·설명 따위를 넣을 때에 쓰고,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단어·구에 쓰며, 빈자리임을 나타낼 때에 쓴다. [괄호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손목을 밖으로 돌려 내린다.

소리대로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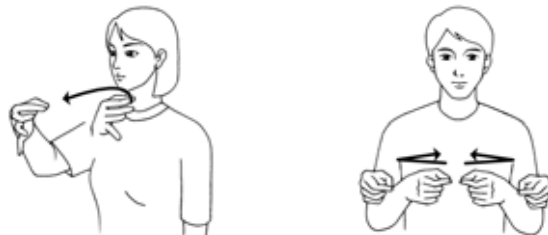
[소리+ 대로+ 적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이 귀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소리의 길이

[음성+ 길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 다음,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모로 세워 맞닿다가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맞댄다.

-소서

-소서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협소할 자리에 쓰여,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용서하소서. 건강하소서.
=주세요.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손등을 두 번 땀다 땀다.

속담(俗談) **땡***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결코 헛말이 아니다.

[이어 내려움을 나타내는 동작+ 말]



손끝을 모은 두 손을 상하로 마주 땀다 땀다 하며 아래로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땀다가 밖으로 내민다.

속어(俗語) **땡**

통속적으로 쓰는 지속적인 말.

¶ 말을 쓸데없이 늘어놓다 보면 안 해도 괜찮을 비어나 속어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게 돼 자기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저속하다+ 말]

=비속어.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코에 땀다가 그 끝이 밖으로 향하게 약간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땀다가 밖으로 내민다.

손 **죵**

((어미 ‘-다’, ‘-니다’, ‘-는다’ 뒤에 붙어)) ((주로 ‘치다’, ‘하다’ 따위의 말 앞에 쓰여))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내가 잘못을 줌 했다손 치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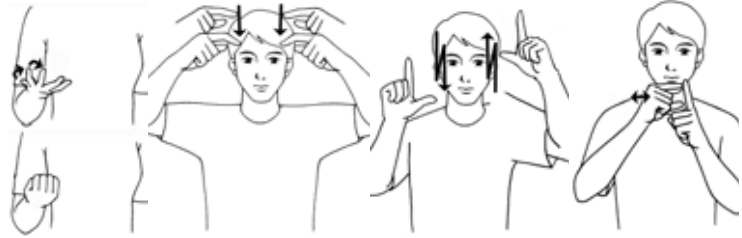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둥그라미를 만들어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수 관형사(數冠形詞)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관형사. '두 사람'의 '두', '세 근'의 '세' 따위이다.

[수(數)+ 관형사]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5지부터 차례로 접고,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땀다 땀다.

수사(數詞) ㄷ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 양수사와 서수사가 있다.

[수(數)+ 단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5지부터 차례로 접은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땀다 땀다.

수사 의문문(修辭疑問文)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문장. 반어 의문문(反語疑問文).

[수사(꾸미다)+ 의문문]



손끝을 맞댄 두 손을 상하로 손목을 돌려가면서 엇갈리게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땀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땀다.

수식어(修飾語) ㄷ

수식어.

[수식+ -어(語)]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볼에 대고 살짝 돌린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땀다가 밖으로 내민다.

수식언

수식언(修飾言) ㉔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문장 성분. 활용하지 않으며,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수식어.

[수식+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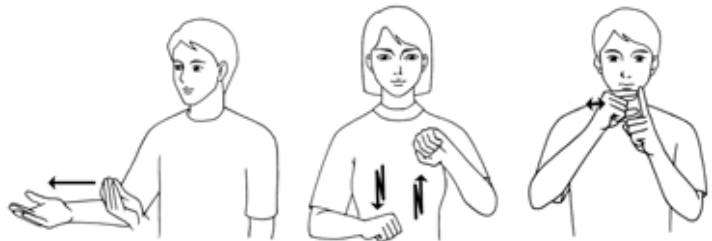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볼에 대고 살짝 돌린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수여동사(受與動詞) ㉕

드리다, 바치다, 받다, 주다 등 수여 관련 동사.

[수여+ 동사]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수지도(樹枝圖) ㉖

변형 생성 문법 이론에서, 한 문장의 구절 구조(句節構造)를 규칙에 의하여 생성되고 유도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수형도(樹形圖).

[나무+ 가지+ 그림]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번갈아 위로 올려 세우고, 오른 손가락 등으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다.

수형도(樹形圖) ㉗

변형 생성 문법 이론에서, 한 문장의 구절 구조(句節構造)를 규칙에 의하여 생성되고 유도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나무+ 모양+ 그림]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를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부딪친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오른 손가락 등으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다.

수혜동사(受惠動詞)

돕다, 받다, 얻다, 잃다 등 수혜 관련 동사.

[수혜+ 동사]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두 손을 안으로 당기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뻐다.

순경음(唇輕音) ㄹ

고어에서, 입술을 거쳐 나오는 가벼운 소리. 《훈민정음》에서 순음 아래 'ㅇ'을 연서(連書)하여 표시한 음인 'ㄹ', 'ㄴ', 'ㄷ', 'ㅍ' 따위이다. 입술 가벼운소리.

[입술+ 가볍다+ 소리]

=입술가벼운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입술에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아래에서 손목을 구부리며 가볍게 올리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순음(唇音) ㄹ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ㄹ', 'ㄴ', 'ㄷ', 'ㅍ'이 여기에 해당한다. 양순음(兩唇音).

[입술+ 음성]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입술에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순음화(唇音化) ㄹ

①어떤 음(音)이 동시 조음으로써 원순성을 동반하는 현상. 입술소리되기.

②어떤 언어의 역사에서 원순음이 아니던 음이 원순음으로 변화하는 현상. 예를 들면 '불[火]'이 '불', '풀[草]'이 '풀'로 변한 것이 있다.

[입술소리+ 변화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입술에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숨김표

숨김표(-標) ㄹ

안드러냄표의 하나. 문장 부호 ‘○○’ 또는 ‘××’의 이름이다. 금기어나 비속어, 또는 비밀로 해야 할 사항 등과 같이 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을 때에 쓴다.

[숨다+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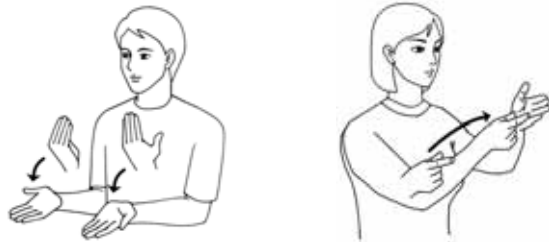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대고 왼손으로 1·2지를 감싸 펴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쉽표(-標) ㄹ

문장 부호의 하나. 반점(,), 모점(), 가운데점(·), 쌍점(:), 빗금(/)이 있는데 흔히 반점만을 이르기도 한다.

[쉬다+ 기호]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밖으로 내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습니까 ㄹ*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았-', '-겠-' 뒤에 붙어) 합쇼할 자리에 쓰여,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벌써 오셨습니까?

=문다. -버니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댄다.

-습니다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합쇼할 자리에 쓰여, 현재 계속 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습니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내린다.

시간 부사(時間副詞)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내일’, ‘일찍’, ‘금방’, ‘먼저’ 따위가 있다.

[시간+ 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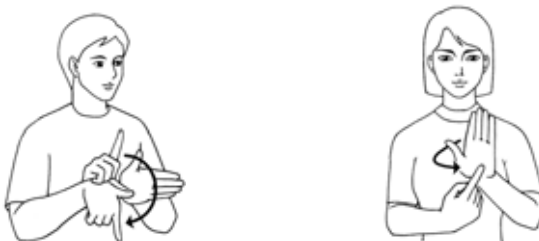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을 대고 1지를 밖으로 돌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시간 표현(時間表現)

시제나 선어말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어 등으로 실현되는 표현.

[시간+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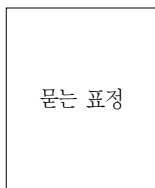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을 대고 1지를 밖으로 돌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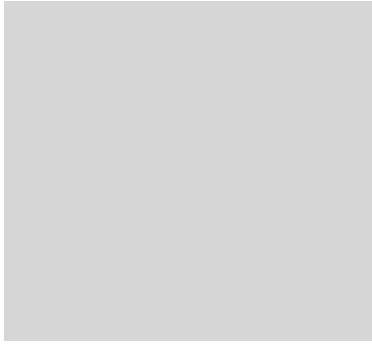
-시어요 어미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또는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해오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시-’와 ‘-어요’가 결합한 말이다.

¶ 제 선생님이지어요. 벌써 가지어요?
=묻다. ③부탁하다. 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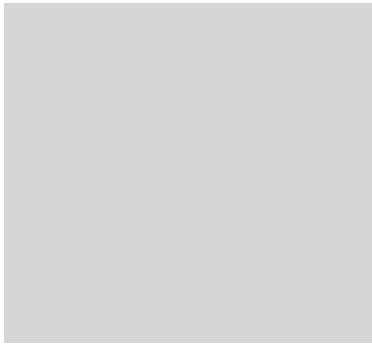


① 묻는 표정을 짓는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부탁하는 표정

- ③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④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⑤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손등을 두 번 댄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시여 ㅈ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여'의 높임말. 어미 '-시-'와 호격 조사 '여'가 결합한 말이다.

▶ 전능자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문자 'ㄱ' / 부름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입 앞 가까이에 댄다가 약간 올리면서 내민다.

시제(時制) ㅊ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 과거·현재·미래가 있으며,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절대 시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 상대 시제가 있다.

[지문자 'ㅈ' / 시간]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을 대고 1·2지를 밖으로 돌린다.

신라어(新羅語) ㄷ

신라의 언어. 원시 한어를 이어받아 형성되었고 중세 국어의 근간이 되었으며 현대 국어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신라+ -어(語)]



5지를 펴서 밖으로 구부린 왼 주먹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두 번 두드린 다음,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신어(新語) ㄷ

새로 생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새말.

[신(新)+ -어(語)]

=새말.



두 손 각각 손끝을 모아 끝을 양쪽 눈 밑에 댔다가 떼며 활짝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신어사전(新語辭典) ㄷ

새로 생긴 말이나 새로 들어온 외래어를 모아서 풀이한 책.

[신어+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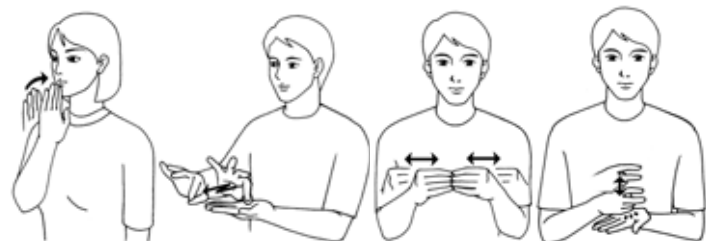


두 손 각각 손끝을 모아 끝을 양쪽 눈 밑에 댔다가 떼며 활짝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C' 모양이 되게 편 왼손의 5지 밑에 대고 밖으로 내민다.

실용 문법(實用文法)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칙을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한 문법. 언어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문법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과학 문법과 대립한다. 규범 문법(實用文法).

[실용+ 문법]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댔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 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댔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실질 형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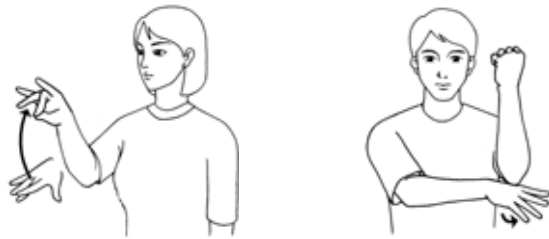
실질 형태소(實質形態素)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읽' 따위이다. 어휘 형태소.

[실질+ 형태소]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심리적 태도(心理的態度)

말하는 이의 '단정, 확인, 감탄, 사실의 전달, 사실의 추정' 등 다양한 느낌을 전달하는 것.

[심리+ -적+ 태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댄다가 왼 손바닥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십시오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합쇼할 자리에 쓰여,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부탁하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

ㅅ[쌍시옷]*

한글 자모 ‘ㅅ’의 된소리 글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한 번 옮긴다.

쌍점(雙點) ㄷ

첨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내포되는 종류를 들거나 작은 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 쓰며,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거나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 그리고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

[쌍점 표시 동작]
=콜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점을 찍고, 그 밑에서 다시 한 번 점을 찍는다.

ㅇ[이응]



ㅇ[이응]*

한글 자모의 여덟째 글자.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다.

ㅏ[아]*

한글 자모의 열다섯째 글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ㅑ [조]*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격조사.

▶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부름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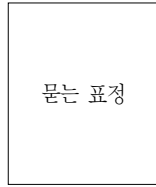


오른손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손목을 두 번 흔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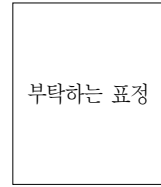
-아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네가 맞아. 무얼 찾아? 깨끗이 닦아. 함께 가.
=③-자.



묻는 표정



부탁하는 표정

- ① 묻는 표정을 짓는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②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 ③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힘주어 젖히며, 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을 짓는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아도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 ㅓ’인 어간 뒤에 붙어))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네가 옳아도 참아야 한다.
[①그러나. ②도]
=-어도.



- ①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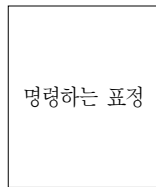


- ②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2지를 접고 1지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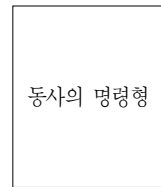
-아라 [어미]

①(‘가다’와 ‘가다’로 끝나는 동사, ‘오다’와 ‘오다’로 끝나는 동사를 제외하고 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내 손을 꼭 잡아라. 그것을 잘 보아라.



명령하는 표정



동사의 명령형

- ① 명령하는 표정을 짓는다.
- ② 동사의 명령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표시한다.

-아서

②((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참, 달도 밝아라. 아이, 좋아라.
=근사하다.



손등이 밖으로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목을 상하로 자연스럽게 흔든다.

-아서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어간에 붙어)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길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간다.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뻐다.

-아야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1」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떡어 보아야 맛을 알지.
「2」 아무리 가정하여도 영향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성난다고 돌을 차 보아야 제 발만 아프지.
[지문자 ‘야’]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 다음, 손가락을 다 접고 1·2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아야만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미 ‘-아야’에 보조사 ‘만’이 결합한 말이다.

¶ 마음이 맞아야만 함께 일을 할 수 있다.
[지문자 ‘야+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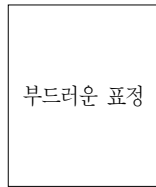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 다음, 손가락을 다 접고 1·2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댔다가 2지를 튕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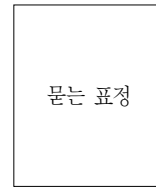
-아요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아’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 지금 문 단아요, 벌써 문을 단아요?
어서 손을 잡아요 자, 우리 모두 함께 해 보아요.
=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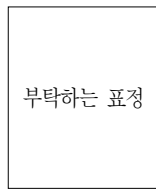


부드러운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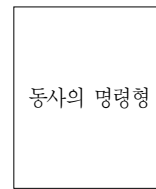


묻는 표정

- ①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다(서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② 묻는 표정을 짓는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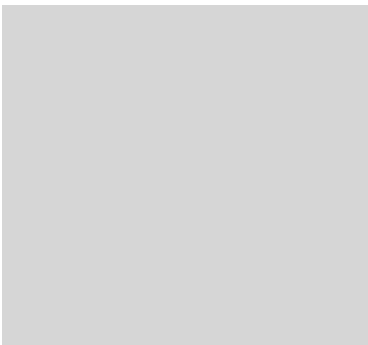


부탁하는 표정



동사의 명령형

- ③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④ 동사의 명령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표시한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 ⑤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힘주어 젖히며 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을 짓는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아음(牙音) ㄹ

훈민정음에서 ‘ㄱ’, ‘ㅋ’, ‘ㅇ’, ‘ㄷ’을 이르는 말. 어금닛소리.

[어금니+음성]

=어금닛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어금니를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아주낮춤

아주낮춤 (명)

- ①인칭 대명사에서, 가장 낮추어 이르는 말. ‘너’, ‘저’, ‘소인’ 따위가 있다.
- ②서술어의 종결형에서, 청자를 아주 낮추는 등분.
[아주+ 낮추다]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아래로 약간 내린다.

아주높임 (명)

- ①인칭 대명사에서, 가장 높여 이르는 말. ‘어르신’, ‘각하’ 따위가 있다.
- ②서술어의 종결형에서, 청자를 아주 높이는 등분.
[아주+ 높이다]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다.

안긴 문장(-文章)

- 안은 문장 안에 들어간 홀문장. ‘우리는 철수가 유능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에서 ‘철수가 유능한 일꾼이라는’ 따위이다.
[안기다+ 문장]



두 팔을 벌렸다가 가슴에 모아 댄 다음,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안드러냄표(-標) (명)

- 문장 부호의 하나. 숨김표(○○, ××), 빠짐표(□), 줄임표(……)가 있다.
[드러내다+ 아니다+ 기호]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리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안 부정(-否定)

안 부정법에 의한 부정.
[아니다+ 부정]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린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댄다.

안 부정문(-否定文)

안 부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정문. 주로 단순한 부정이나 주체의 의도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표현한다.
[아니다+ 부정문]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린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안 부정법(-否定法)

‘-이/가 아니다’, ‘-지 아니하다’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아니다+ 부정법]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였다가 손목을 양옆으로 돌린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안울림소리

안울림소리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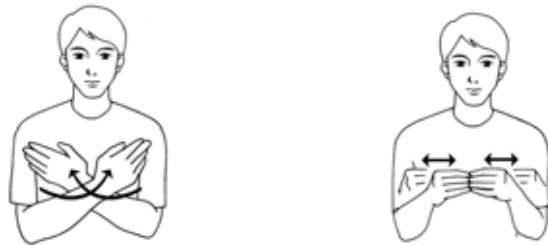
목청 떨림이 없이 나는 소리. 국어에 서는, 자음의 ‘ㄱ’, ‘ㄷ’, ‘ㅂ’, ‘ㅅ’, ‘ㅈ’, ‘ㅊ’, ‘ㅋ’, ‘ㅌ’, ‘ㄲ’, ‘ㅇ’, ‘ㅎ’, ‘ㄱ’, ‘ㄷ’, ‘ㅂ’, ‘ㅅ’, ‘ㅈ’이다. 무성음(無聲音).
[울림+ 없다+ 소리(음성)]



오른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가락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목 앞에서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닥을 톡에 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안은 문장(-文章) ㄴ

홀문장을 포함한 문장. ‘지구가 등글다는 것은 오래전에 증명되었다.’에서 ‘지구가 등글다는 것’은 안긴 문장이고, 전체의 문장은 안은 문장이다.
[안다+ 문장]



두 팔을 벌렸다가 가슴에 모아 댄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알타이 어족(Altai語族)

튀르크어파, 몽골어파, 만주·통구스어파를 포함하는 어족. 모음 조화가 있으며, 어두의 자음 조직이 제한을 받는다. 접속사가 없고, 자음 교체와 모음 교체가 없는 것 따위의 특징이 있는데, 한국어와 일본어를 포함하는 학설도 있다.
[지문자 ‘알타이’+ -어(語)+ 이어내림을 나타내는 동작]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고, 주먹을 쥐고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1·2·3지를 펴서 벌려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1지는 벌리고 2·3지를 붙였다가 오른 주먹을 쥐고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 다음, 오른 주먹의 4지를 펴서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왼손등을 내려 긁는다.

알파벳 문자(alphabet 文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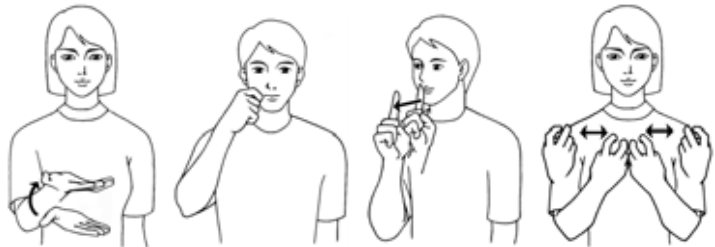
표음 문자 가운데 음소적 단위의 음을 표기하는 문자. 한글, 로마자 따위가 있다. 음소 문자(音素文字). [알파벳(지문자 'abc'+ 지문자)+ 문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한 오른손의 5지를 접고, 1,2,3,4지와 5지를 등글게 한 오른손의 손등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가볍게 상하로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땀다 땀다.

압존법(壓尊法) [명]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語法).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 따위이다. [높이다+ 못하다+ 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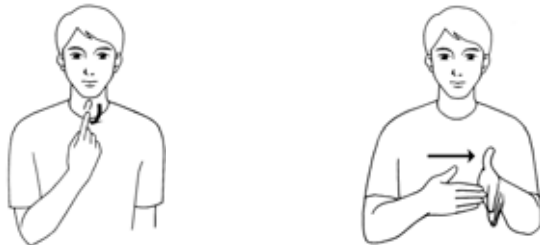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 옆면과 5지 바닥으로 오른쪽 볼을 잡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았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가, 고'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 나는 그것을 먹어보았다. 동생은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목을 스쳐 내린다. ②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땀다.

[①꺾다. ②끝. ③동사의 과거형. ④아직]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



③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예: 어제)로 표시한다. ④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 앞에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왼 손바닥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상하로 흔든다(부정문의 경우).

-았었

-았었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

¶ 작년만 해도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많았었다.

[과거+ 끝]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긴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다.

앞혀바닥소리 [평]

혀의 앞부분과 경구개 사이에서 조음되는 소리. 전설음(前舌音).

[혀끝을 가리키는 동작+ 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바닥 앞쪽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H [애]*

한글 자모 ‘ㅏ’와 ‘ㅑ’를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ㅑ [야]*

한글 자모의 열여섯째 글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야¹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또는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

[가리키는 동작]

=것.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

야² [조]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격조사.

¶ 새야 새야 파랑새야.

[부름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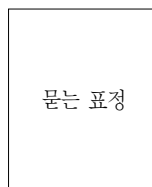


오른손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손목을 두 번 흔든다.

-야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을 때 쓰는 종결 어미.

¶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뭐야?



묻는 표정을 짓는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야말로 [조]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강조하여 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김 교수야말로 이 시대의 학자다. 너야말로 조용히 해라.

[곧고 바른 것을 나타내는 동작 <바른 말>]

=정말.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다.

약모음

약모음(弱母音) ㅁ

음성 모음(陰性母音). 어감(語感)이 어둡고 큰 모음. ‘ㄱ’, ‘ㄷ’, ‘ㄷ’, ‘ㄱ’, ‘ㄱ’, ‘ㄷ’, ‘ㄱ’, ‘ㄱ’ 따위가 있다. 음성 모음.

[약하다+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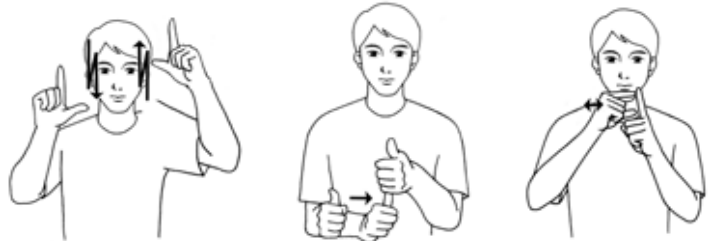


두 손을 손바닥이 가슴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힘없이 밀어뜨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잡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양상 부사(樣相副詞)

화자(話者)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 ‘과연’, ‘설마’,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따위가 있다. 양태부사(樣態副詞).

[모양+ 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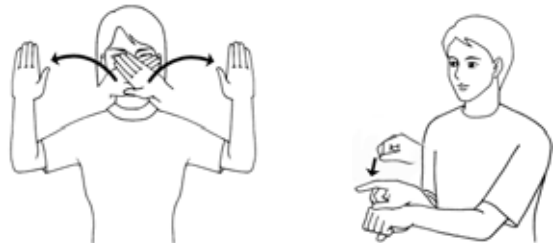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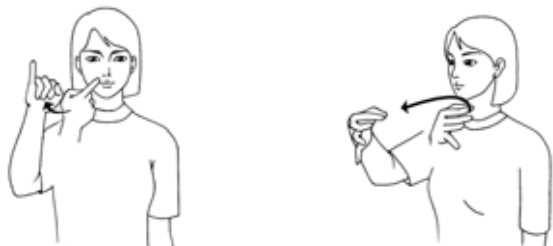
양성 모음(陽性母音)

어감(語感)이 밝고 산뜻한 모음. ‘ㄴ’, ‘ㄴ’, ‘ㄴ’, ‘ㄴ’, ‘ㄴ’, ‘ㄴ’ 따위가 있다. 강모음.

[양성+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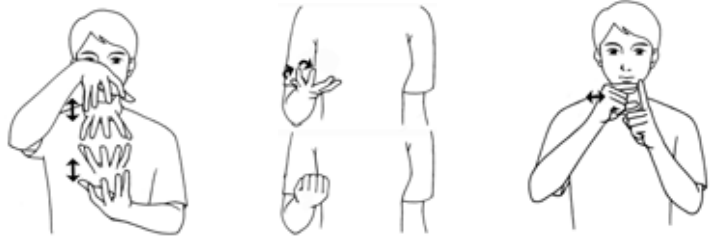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얼굴 앞에서 교차하게 하였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잡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양수사(量數詞)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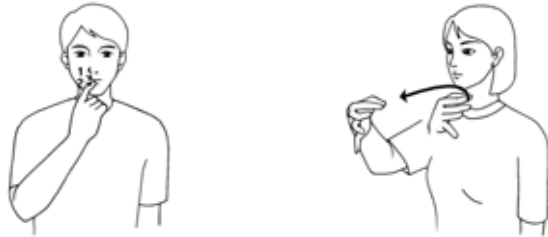
기수사(基數詞). 수량을 셀 때 쓰는 수사. 하나, 둘, 셋 따위이다. 기수사.
[수량+ 수사]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오른손이 위에 놓이게 두 손의 손가락 끝이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두 번 벌렸다 좁히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5지부터 차례로 접은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땀다.

양순음(兩唇音)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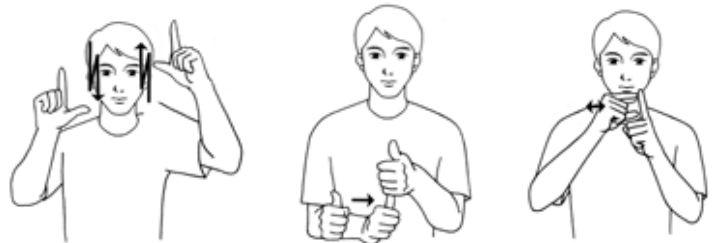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ㄷ’, ‘ㅌ’, ‘ㄷ’, ‘ㄷ’이 여기에 해당한다. 순음(唇音). 입술소리.
[두 입술+ 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두 입술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양태 부사(樣態副詞)

화자(話者)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 부사. ‘과연’, ‘설마’, ‘제발’, ‘정말’, ‘결코’, ‘모름지기’, ‘응당’, ‘어찌’ 따위가 있다. 양상 부사.
[모습+ 부사]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댔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땀다.

H [애]*

한글 자모 ‘ㅏ’와 ‘ㅣ’를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2·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ㅏ[어]

ㅏ[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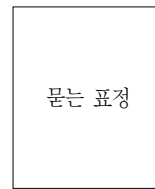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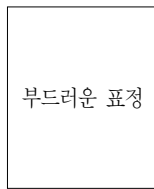
한글 자모의 열일곱째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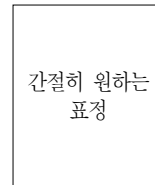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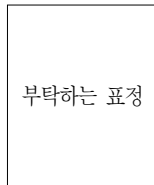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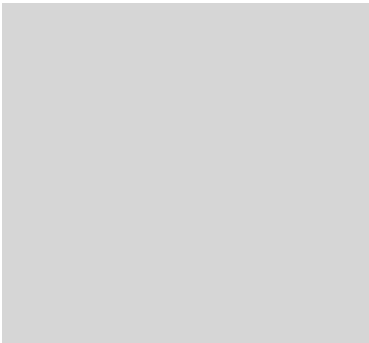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어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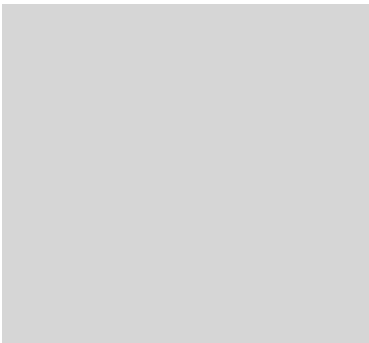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명령·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나는 지금 밥 먹어. 뭐가 그리 우스워? 빨리 붙어. 우리 함께 읽어.
=㉕-자.



- ①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다(서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② 묻는 표정을 짓는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③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④ 간절히 원하는 표정을 짓는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

- ⑤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힘주어 갖기며 같이 하자는 또는 권하는 표정을 짓는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어간(語幹) ㄷ

활용어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 ‘보다’, ‘보니’, ‘보고’에서 ‘보-’와 ‘떡다’, ‘떡니’, ‘떡고’에서 ‘떡-’ 따위이다.

[단어+ 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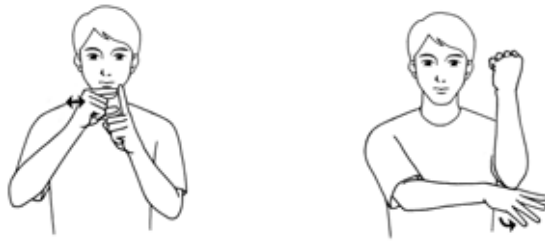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 다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아 스쳐 올린다.

어근(語根) ㄷ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달개’의 ‘달-’, ‘어른스럽다’의 ‘어른’ 따위이다.

[단어+ 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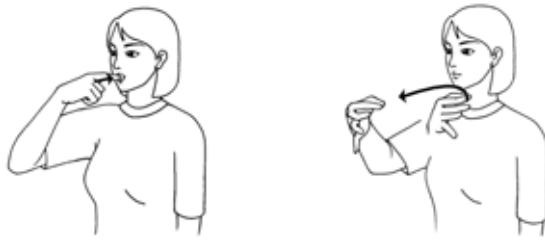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어금닛소리 ㄷ

훈민정음에서 ‘ㄱ’, ‘ㄴ’, ‘ㅇ’, ‘ㅋ’을 이르는 말. 아음(牙音).

[어금니+ 소리]

=아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어금닛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어도 ㄷ

((끝음절의 모음이 ‘ㄱ’, ‘ㄴ’이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재물은 적어도 마음은 넉넉하다. 걸은 걸어도 속은 희다.

[①그러나. ②도]

=-아도.



①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 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②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 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2지를 접고 1지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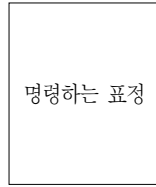
-어라

-어라 어미

①((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ㅓ'가 아닌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천천히 먹어라.

[①-해. ②명령하는 표정]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밀며 약간 위로 올린다.

② 명령하는 표정을 짓는다.

②((끝 음절의 모음이 'ㅏ, ㅓ'가 아닌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아이, 딱하고 가엾어라. 몹시도 만나고 싶어라.

=-구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머리 오른쪽에서 서서히 내린다.

어말(語末) ㅁ

단어의 끝.

[언어+ 마지막]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다.

어말 어미(語末語尾)

활용 어미에서 맨 뒤에 오는 어미. 선어말 어미와 대립되는 용어로서 보통은 어미라고 불리며, 종결 어미·연결 어미·전성 어미 따위로 나뉜다.

[어말+ 어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어문 규범(語文規範)

언어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기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아우르는 말이다.

[말+ 글+ 규범(바르다+ 모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으로 코끝을 오른쪽으로 스쳐낸 다음,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이마 앞에서 이마로 옮겨 1지 옆면이 닿게 이마에 대며 5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맞댄다.

어미(語尾) ㅁ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 ‘점잖다’, ‘점잖으며’, ‘점잖고’에서 ‘-다’, ‘으며’, ‘고’ 따위이다.

[언어+ 마지막]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위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어미변화(語尾變化) ㅁ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꿈. 또는 그런 일. 국어에서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형태를 이르는데, 이로써 시제·서법 따위를 나타낸다. 활용(活用).

[어미+ 변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위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고,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어법

어법(語法) ㄷ

말의 일정한 법칙. 말법.

¶ 손윗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우리말의 어법이다.

[말+ 방법]

=말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어법대로 적기

[어법(언어+ 법)+ 대로+ 적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어서 ㄹ

((끝음절의 모음이 ‘ㄱ, ㄷ’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나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그는 워낙 성실한 사람이어서 뭘 해도 성공할 것이다.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뗀다.

어순(語順) ㄷ

문장 성분의 배열에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

¶ 국어는 영어와 어순이 다르다.

[어(語)+ 순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는다.

-어아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앞 절의 일이 뒤 절 일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사람은 먹어야 산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산다.

[①꼭. ②지문자 ‘야’]



- ①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구부리며 서로 건다.
- ②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 다음, 손가락을 다 잡고 1·2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어아지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①상대편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동의를 구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늦으면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②독백 투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이 책은 영순이에게 주어야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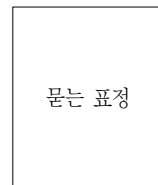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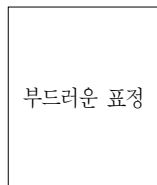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어요 [어미]

((끝음절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어’와 보조사 ‘요’가 결합한 말이다.

¶ 지금 밥 먹어요. 벌써 밥 먹어요? 빨리 밥 먹어요. 우리 같이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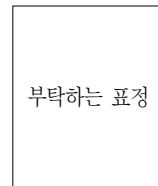
[서술: 부드러운 표정. 의문: 묻는 표정. -습니까. 명령/청유: 부탁하는 표정]



- ①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다(서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② 묻는 표정을 짓는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③묻다.

※ ‘이다’와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을 때는 ‘-어요’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③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④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다(명령이나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어용론

어용론(語用論) ㄷ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장소 따위로 구성되는 맥락과 관련하여 문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미론의 한 분야. 화용론(話用論).

[어(語)+ 사용+ 논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어원(語源/語原) ㄷ

어떤 단어의 근원적인 형태. 또는 어떤 말이 생겨난 근원.

▶ ‘설날’이란 말의 어원을 밝히다.

[말+ 근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오른 주먹을 돌리며 1지를 뿜겨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어절(語節) ㄷ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로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된다.

[말+ 마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어종(語種) ㄷ

언어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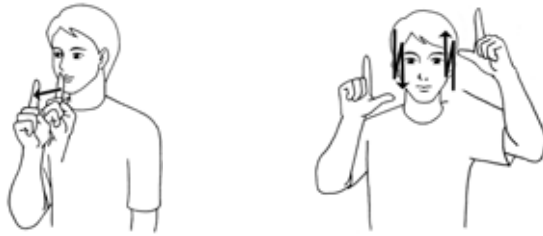
[언어+ 종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간다.

어형(語形) ㄹ

말이나 단어의 형태.
[말+ 형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어형 변화(語形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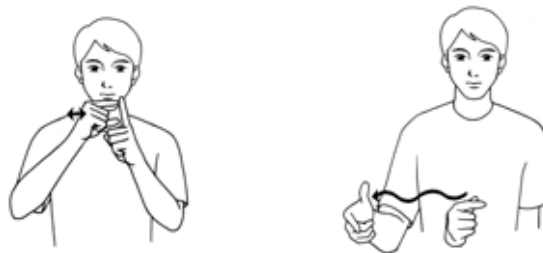
단어의 형태에 일어나는 음성(音相) 변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동사와 형용사는 그 어형 변화에 따라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
[어형+ 변화]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어휘(語彙)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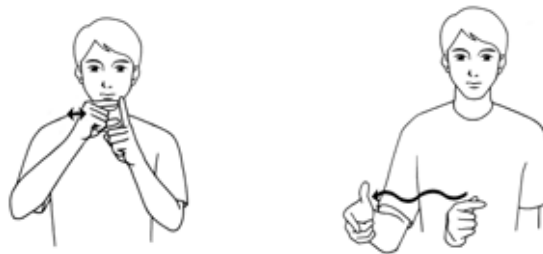
일정한 범위에 들어 있는 단어의 집합.
[단어+ 여러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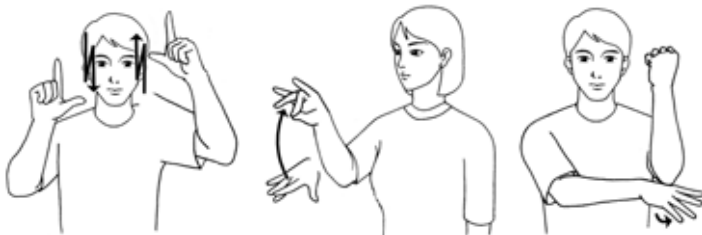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자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모로 세워 좌우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어휘 형태소(語彙形態素)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읽' 따위이다. 실질 형태소(實質形態素).
[어휘+ 형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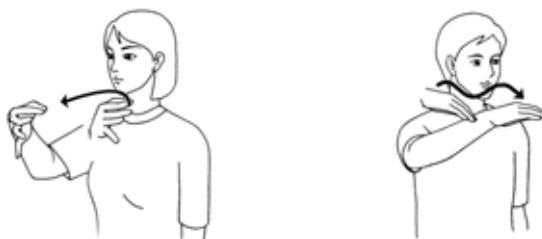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자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모로 세워 좌우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억양(抑揚) [땡 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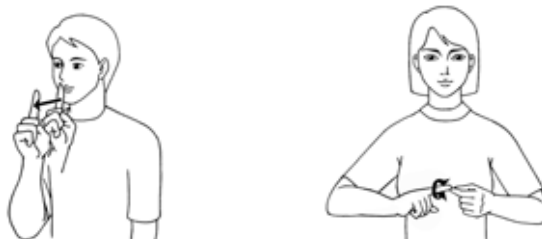
음(音)의 상대적인 높이를 변하게 함. 또는 그런 변화. 음절 억양, 단어 억양, 문장 억양 따위가 있다.
 ¶ 사무적인 억양으로 말한다.
 [음(音)+ 높낮이를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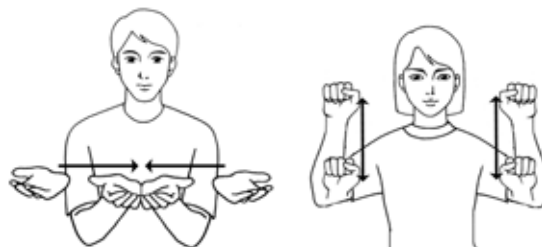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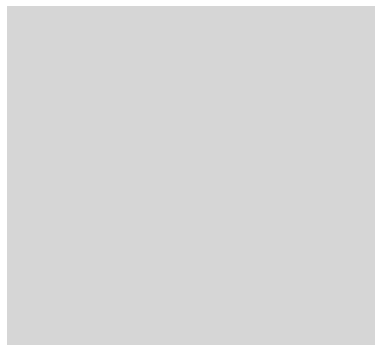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약간씩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밖으로 내린다.

언문일치 운동(言文一致運動)

말과 글의 일치 운동.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 독립 협회를 비롯한 애국 계몽 단체와 《독립신문》을 위시한 신문, 잡지가 앞장서서 한자 전용(專用)의 관습을 버리고 국한문 혼용을 주장하였다.
 [말+ 글+ 일치+ 운동]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나란히 놓았다가 가운데로 접근시켜 4지 옆면을 맞댄 다음, 두 주먹을 어깨 위로 동시에 두 번 올렸다 내린다.

언어(言語) ㄷ*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

¶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입에서 말이 나옴을 나타내는 동작]
=말. 말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언어 공동체(言語共同體)

언어 사회(言語社會).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 집단. 언어 사회.

[언어+ 공동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4지를 맞댔다가 안으로 돌려 5지를 맞댄다.

언어 기호(言語記號)

의식 사실(意識事實)과 청각 영상이 결합되어 언어에 사용되는 기호. 음성과 그 음성으로써 표시되는 의미로 성립된다.

[언어+ 기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언어 능력(言語能力)

언어 사용자가 무한히 많은 수의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 변형 생성 문법의 기본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언어+ 능력]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주먹을 쥐고 반쯤 굽힌 왼팔의 위쪽에 오른손의 5지 옆면을 댔다가 반원을 그리며 내려 팔꿈치 위쪽에 4지 옆면이 닿게 한다.

언어 분류

언어 분류(言語分類)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언어를 특징지어 분류하는 일.

[언어+ 분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다.

언어 사회(言語社會)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 집단.

[언어+ 사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4·5지를 펴서 세운 두 주먹을 맞댔다가 아래로 내리며 원을 그린다.

언어 유형학(言語類型學)

언어의 계통에 관계없이 언어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일반 법칙을 기술(記述)하는 학문.

[언어+ 유형+ 학]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왼손의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앞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언어학(言語學) ㉔

인간의 언어와 관련한 여러 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 언어의 기능과 본질, 언어의 역사, 언어의 변이, 언어와 인간의 관계 따위를 주로 연구한다.

[언어+ 학]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앞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언어 형식(言語形式)

일정한 뜻이 들어 있는 일정한 소리의 결합.

[언어+ 형식(모양+ -식(式))]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위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언중(言衆) ㄷ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언어 사회 안의 대중(大衆).

[언어+ 대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바닥이 안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의 손가락을 5지부터 구부려 주먹을 쥔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위 좌우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다.

-었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ㅏ, ㅑ’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 예전에는 나도 그것을 먹었다. 철수는 밥을 먹었다. 밥을 안 먹었다.

[①쥔다. ②끝. ③과거를 나타내는 품사. ④아직]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목을 스쳐 내린다.



②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다.

※ 과거시제가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표시하는데 사용되었을 경우나 형용사에 ‘았/었’이 붙어 있을 경우 수화에서는 현재시제로 표시한다.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



③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예: 작년)로 표시한다.

④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 앞에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왼 손바닥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상하로 흔든다(부정문인 경우).

-었었

-었었 (어미)

((끝음절의 모음이 ‘ㅓ, ㅗ’가 아닌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현재와 비교하여 다르거나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어미.

☞ 이 저수지에는 물고기가 적었었다.

[과거+ 끝]

=-았었.



오른손을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 어깨 너머로 넘긴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다.

ㄱ [에]*

한글 자모 ‘ㄱ’와 ‘ㅣ’를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4지를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에 [조]

[1] ((체언 뒤에 붙어)) ①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옷에 먼지가 묻다.

[한정된 공간을 가리키는 동작]

=곳.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에' 앞에 놓이는 수화 기호에 '곳'을 나타내는 기호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곳'을 표시하지 않는다).

②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 우리, 오후에 만나자. 그 시간에 뭐할 거니? 진달래는 이른 봄에 핀다.

=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린다.

③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바람에 꽃이 지다. 그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깬다. 그까짓 일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뗀다.

④앞말이 조건, 환경, 상태 따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냈니?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기쁨에 넘치는 나날이었다.
=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린다.

⑤앞말이 제한된 범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포유류에 무엇이 있지? 이곳에서 생산되는 것에 좋은 것이 있다고 들었소.
=중(中).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다.

⑥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국에 밥을 말아 먹다. 커피에 설탕을 타다. 3에 4를 더하다.
=더.



1·5지를 펴서 1지가 위에 5지가 아래에 놓이게 하여 약간 구부린 오른 주먹을, 같은 모양의 왼 주먹의 5지 밑에 댄다가 왼 주먹의 1지 위에 올려놓는다.

에게

[2] ((체언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잔칫집에서 밥에, 떡에, 술에 아주 잘 먹었다. 아버지가 책에, 연필에, 장난감에 이것저것 많이 사 주셨다.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에게 [조]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①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조] 계.

¶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②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조] 계.

¶ 친구들에게 합격 사실을 알린다.
=에게.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체언이 남성인 경우).
② 왼 주먹의 4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바닥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가리킨다(체언이 여성인 경우).

에게다¹ [조]

격 조사 '에게'에 보조사 '다'가 결합한 말로 행동이 미치는 상대방을 나타내는 말.

¶ 이 일을 누구에게다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

[상대를 가리키는 동작]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

에게다² [조]

격 조사 '에게'에 보조사 '다'가 결합한 말로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말.

¶ 그에게다 댈 것이 못된다.

[상대를 가리키는 동작]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

에는 ㄹ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시계의 바늘이 돌아감을 나타내는 동작]
=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린다.

에다 ㄹ

①'에다가①'의 준말.
¶ 귀중품은 집에다 두고 다니는 게 중단 말이야.
=곳.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에다' 앞에 놓이는 수화 기호에 '곳'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을 경우에는 '곳'을 표시하지 않는다).

②'에다가②'의 준말.
¶ 백 원에다 백 원을 더하니 이백 원이 되었다. 물에다 밥을 말아 먹었다.
[더 붓는 동작 <침잔(添盞)>]
=더.



1-5지를 펴서 1지가 위에 5지가 아래에 놓이게 하여 약간 구부린 오른 주먹을, 같은 모양의 왼 주먹의 5지 밑에 댄다가 왼 주먹의 1지 위에 올려놓는다.

에다가 ㄹ

①일정한 위치를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에'에 보조사 '다가'가 결합한 말이다.
¶ 그건 창고에다가 넣어 두어라.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는 계획이었다. 상자는 여기에다가 둘까?
=곳.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에다가' 앞에 놓이는 수화 기호에 '곳'을 나타내는 기호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곳'을 표시하지 않는다).

에서

②더해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에'에 보조사 '다가'가 결합한 말이다.

¶ 누가 술에다가 물을 탔다. 이번 달에는 월급에다가 수당도 붙는다. 그는 장님에다가 앉은뱅이였다. 거기에다가 들은 더 보태야 될 것이다.
=더.



1·5지를 펴서 1지가 위에 5지가 아래에 놓이게 하여 약간 구부린 오른 주먹을, 같은 모양의 왼 주먹의 5지 밑에 댄다가 왼 주먹의 1지 위에 올려놓는다.

에서 [조]

((체언 뒤에 붙어)) ①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②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서울에서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냐?
=곳.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③앞말이 근거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지다.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쥘다.

④앞말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이에서 어찌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
=보다.



1지를 펴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두 주먹을 상하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에서부터 [조]

범위의 시작 지점이나 어떤 행동의 출발점,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에서’와 보조사 ‘부터’가 결합한 말이다. [㉠] 서부터.
 ¶ 고향까지는 서울에서부터 천 리가 된다.

[‘곳+ 부터’]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손 위에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오른손을 왼쪽으로 이동한다.

에설랑 [조]

앞말이 장소의 뜻을 더욱 뚜렷이 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에서’에 보조사 ‘크랑’이 결합한 말이다.

¶ 그곳에설랑 얌전히 있어라. 학교에 설랑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산에 설랑 새를 잡고 바다에설랑 고기를 잡자.

=곳.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에설랑’ 앞에 놓이는 수화 기호에 ‘곳’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 경우에는 ‘곳’을 표시하지 않는다).

에야 [조]

시간·공간상의 일정한 범위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에’에 보조사 ‘야’가 결합한 말이다.

¶ 정오가 가까운 시각에야 잠자리에 서 일어났다. 이곳에야 찾아오지 못하겠지.

[한정된 공간을 가리키는 동작]
 =곳.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에야’ 앞에 놓이는 수화 기호에 ‘곳’의 기호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곳’을 표시하지 않는다).

에의 [조]

앞말이 처소나 시간,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를 관형어로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에’와 격 조사 ‘의’가 결합한 말이다.

¶ 어린이들은 내일의 희망이다.
 =의.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낀다.

엔들

엔들 ㄴ

((주로 장소나 때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양보와 반어의 뜻을 겸하여 나타내는 보조사.

¶ 나 같은 나그네가 어느 곳엔들 못 가랴.

[어느 쪽인지를 묻는 동작/의문 표정]

=어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좌우로 두 번 흔든다.

ㄹ[어]*

한글 자모의 열여덟째 글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왼쪽으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여도 ㅁ

((‘하다’나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공부는 아무리 하여도 끝이 없다. 지난 일은 후회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가 말은 그렇게 하여도 본심은 착하다.

[반전(反轉)을 나타내는 동작]

=그러나.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여린입천장(-天障) ㅂ

입천장 뒤쪽의 연한 부분. 점막(黏膜) 밑에 가로무늬근이 있어 코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뒤 끝 중앙에 목젓이 있다. 물렁입천장. 연구개.

[물렁하다+ 입천장]



5지와 1·2·3·4지 사이를 약간 벌린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마주 보게 하여 부드럽게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의 입천장을 가리킨다.

여린입천장소리(-天障-) ㄹ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ㅇ’, ‘ㄱ’, ‘ㅋ’, ‘ㄲ’ 따위가 있다. 연구개음(軟口蓋音).

[물렁하다+ 입천장+ 소리]
=연구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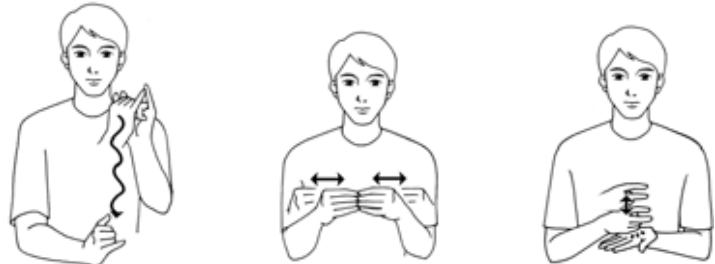


5지와 1·2·3·4지 사이를 약간 벌린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마주 보게 하여 부드럽게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의 입천장을 가리키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역사 문법(歷史文法)

한 언어의 문법 체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역사+ 문법]



4·5지를 펴서 세운 두 손을 마주 댔다가 오른손만 약간 흔들면서 아래로 내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댔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역사성(歷史性) ㄹ

역사적인 성질.

ㄹ 언어에는 역사성이 있다.

[역사+ 성(性)]



4·5지를 펴서 세운 두 손을 마주 댔다가 오른손만 약간 흔들면서 아래로 내린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다.

역사 언어학(歷史言語學)

어떤 언어 현상을 여러 시대에 걸쳐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통시언어학(通時言語學).

[역사+ 언어학]

=통시 언어학.



4·5지를 펴서 세운 두 손을 마주 댔다가 오른손만 약간 흔들면서 아래로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연결어

연결어(連結語) [명]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 국어에서는 주로 접속 부사가 이 구실을 한다. 접속어.

[연결+ 단어]



자연스럽게 편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고 전후로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연결 어미(連結語尾)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 '-게', '-고', '-(으)며', '-(으)면', '-(으)나', '-아/어', '-지' 따위가 있다. 연결형.

[연결+ 어미]



자연스럽게 편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고 전후로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위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연구개음(軟口蓋音) [명]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ㅇ', 'ㄱ', 'ㅋ', 'ㆁ' 따위가 있다. 여린입천장소리(-天障-). 후구개음. 후설음.

[물렁하다+ 입천장+ 음성]
=여린입천장소리.



5지와 1·2·3·4지 사이를 약간 벌린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마주 보게 하여 부드럽게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천장을 가리키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연상적 의미(聯想的意味)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 내포적 의미. 함축적 의미.

[연상+ -적+ 의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 다음,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고 서로 걸어 오른쪽 약간 위로 이동하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연서(連書) [연서]

훈민정음에서, 순경음(唇輕音)을 표기하기 위하여 순음자(唇音字) 밑에 ‘ㅇ’을 이어 쓰는 일. ‘몽’, ‘봉’, ‘퐁’, ‘뺑’ 따위가 있다. 이어 쓰기.
[잇다+ 쓰다]
=이어 쓰기.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고리를 만들어 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연철(連綴) [연철]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씌. 또는 그런 방법. ‘말씀이’를 ‘말씀미’로 쓰는 것 따위이다. 이어 적기.
[종성이 다음 초성으로 올림을 나타내는 동작]
=이어 적기.



왼손을 약간 구부려 손가락 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밑으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안쪽에서 밀어 넣었다가 오른쪽으로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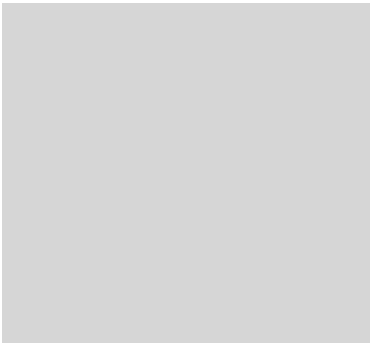
-였 [어미]

((‘하다’나 ‘하다’가 붙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 나는 교사였다. 노래 연습을 하였다. 어제는 공부를 하였다. 숙제는 안 하였다.
[①겪다. ②끝. ③과거를 나타내는 품사. ④아직]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묵을 ②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다.

예 [예]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



- ③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예: 지난주)로 표시 한다. ④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 앞에서,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왼 손바닥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상하로 흔든다(부정 문인 경우).

예 [예]*

한글 자모 'ㄱ'와 'ㅇ'을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2·4지를 펴서 벌려 바닥이 왼쪽으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예사소리(例事-) ㄹ

구강 내부의 기압이나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파열되는 음. 국어의 된소리 'ㄱ', 'ㄷ', 'ㅃ', 'ㅆ', 'ㅉ'에 대하여 'ㄱ', 'ㄷ', 'ㅂ', 'ㅅ', 'ㅈ' 따위를 이른다. 평음.

[보통(예사)+ 음성]



1·5지 끝이 밖으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예정상(豫定相) ㄹ

동사의 동작상의 하나. 그 기준점에서 상황이나 상태가 그렇게 전개될 것임을 나타낸다. 현재 예정상, 과거 예정상, 미래 예정상이 있다.

[예정+ 상(相)]



왼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밑에서 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펴서 구부린 오른손을 안으로 당긴 다음,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으로 가슴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치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ㄴ[오]*

한글 자모의 열아홉째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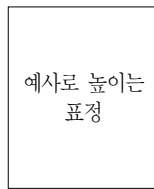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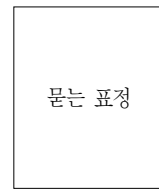
-오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하오 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중요 하오. 얼마나 심려가 크시오? 부모님이 기다릴 테니 빨리 집으로 돌아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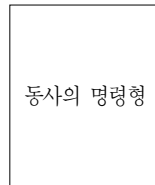
예사로 높이는 표정



묻는 표정

- ① 예사로 높이는 표정을 짓는다(서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② 묻는 표정을 짓는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①예사로 높이는 표정. ②묻는 표정. ③부탁하다. ④동사의 명령형]



동사의 명령형

- ③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④ 동사의 명령형이 있는 경우 그것으로 표시한다.

은점(-點) [명]

마침표의 하나. 가로쓰기에 쓰는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서술·명령·청유 따위를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쓰거나,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나 준말을 나타낼 때에,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

[마칩다+ '.']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짧게 내민다.

나[와]

나 [와]*

한글 자모의 ‘ㄴ’과 ‘ㄹ’을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목을 돌려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와 [조]*

[1]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나들이를 했다.

[2]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된 자리에는 쉼표를 찍는다.

¶ 개와 고양이. 너와 내가 아니면 우리 조국을 누가 지키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끝 부분의 양면을 왼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는다.

완곡어(婉曲語) [평]

금기어 대신에 불쾌감이 덜하게 만든,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말.

[부드럽다+ -어(語)]



5지와 1·2·3·4지 사이를 약간 벌린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마주 보게 하여 부드럽게 두 번 굽혔다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완곡어법(婉曲語法) [평]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쓰는 표현법. ‘변소’를 ‘화장실’이라고 하거나 ‘죽다’를 ‘돌아가다’로 표현하는 것 따위를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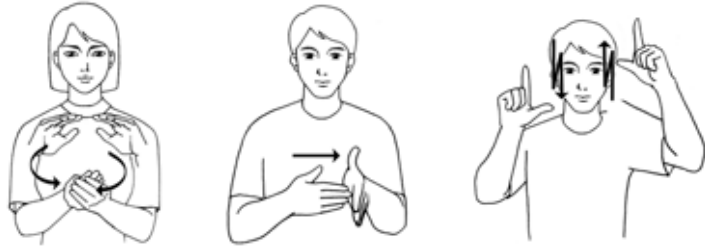
[완곡어+ 방법]



5지와 1·2·3·4지 사이를 약간 벌린 두 손의 손가락을 서로 마주 보게 하여 부드럽게 두 번 굽혔다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완료상(完了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동작상(動作相). ‘-아[어] 있다’로 표시하며 각 시제마다 있다.
[완료+ 상(相)]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은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내 [왜]*

한글 자모의 ‘ㄱ’와 ‘내’를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1·4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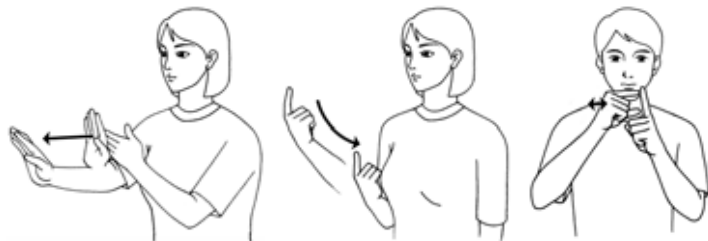
한글 자모 ‘ㄱ’와 ‘ㅣ’를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4지를 펴서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외래어(外來語) ㄷ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 차용어(借用語).
[밖+ 오다+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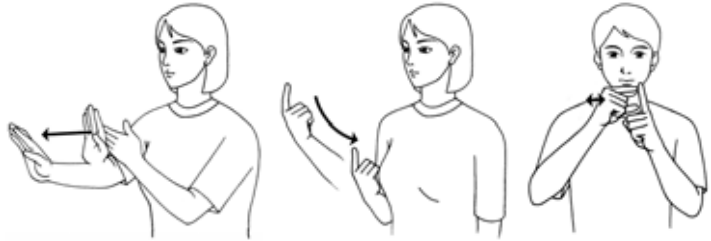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 손등을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몸 가까이로 당긴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外來語表記法)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 현행 표기법은 1986년 1월에 문교부에서 고시한 것이다.

[외래어+ 표기+ 법]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 손등을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몸 가까이로 당긴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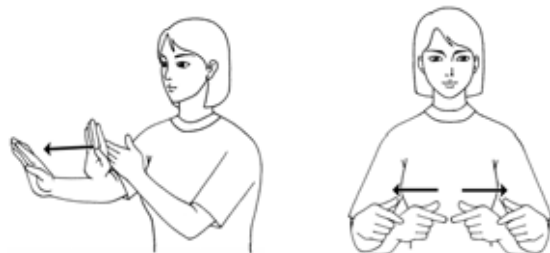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외연적 의미(外延的意味)

어떤 낱말이 지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 개념적 의미. 사전적 의미. 인지적 의미.

[바깥+ 늘리다+ -적+ 의미]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 손등을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을 반쯤 구부려 손바닥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여 모로 세워 양옆으로 벌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댔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ㅍ [요]*

한글 자모의 스무째 글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용언(用言) ㄷ

국어 단어 가운데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어들. 동사, 형용사가 있다.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눈다.

[사용하다+ 단어]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용언 어간(用言語幹)

용언이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것.

[용언+어간]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 다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을 오른손으로 잡아 스쳐 올린다.

ㅌ[위]

ㅌ[위]*

한글 자모의 스물한째 글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울대마개

후두 어귀를 덮고 있는 뚝경과 같은 구조. 속에는 물렁뼈가 있다. 후두개(喉頭蓋). 후두덮개.

[후두+ 덮개를 나타내는 동작]
=후두개. 후두덮개.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목 위쪽에 댄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 왼 주먹을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오른쪽에 오른손의 손바닥을 대고 1·2·3·4지를 접어 왼손의 1지 윗면에 대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울림소리 [명]

목청 떨림이 있는 소리. 국어의 모든 모음이 이에 속하며, 자음 가운데에는 ‘ㄴ’, ‘ㄹ’, ‘ㄷ’, ‘ㅇ’ 따위가 있다. 유성음(有聲音).

[울리다+ 소리]
=유성음.



오른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가락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목 앞에서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ㄷ [위]*

한글의 자모 ‘ㅌ’와 ‘ㄱ’를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1지 바닥이 왼쪽으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원순 모음(圓脣母音)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오’, ‘우’, ‘니’, ‘기’ 따위가 있다. [둥글다/입술+ 모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그 옆면을 입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원칭(遠稱) ㄹ

삼인칭 가운데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일. 또는 그 말. ‘저’, ‘저것’, ‘저기’, ‘저리’ 따위가 있다. [멀다+ 지칭]



두 주먹의 1·5지 끝을 붙여 마주 댄다가 오른손을 밖으로 내민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댄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민다.

원칭 대명사(遠稱代名詞)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물건, 장소, 방향 따위를 가리키는 대명사. ‘저이’, ‘저것’, ‘저기’ 따위가 있다. [원칭+ 대명사]



두 주먹의 1·5지 끝을 붙여 마주 댄다가 오른손을 밖으로 내민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댄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떼다.

계[워]

계[워]*

한글 자모 ‘ㄱ’와 ‘워’를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1·4지를 펴서 바닥이 왼쪽으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계[워]*

한글 자모 ‘ㄱ’와 ‘ㅣ’를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4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ㅠ[유]*

한글 자모의 스물두째 글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약간 벌려 끝이 아래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유기음(有氣音) ㄹ

숨이 거세게 나오는 파열음. 국어의 ‘ㄷ’, ‘ㄱ’, ‘ㅌ’, ‘ㅍ’ 따위가 있다. 거센 소리.

[거세다+소리]



주먹을 쥔 왼 주먹 등에 오른손의 4지 옆면을 대고 위로 빠르게 스쳐 울리며 주먹을 쥔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유성 마찰음(有聲摩擦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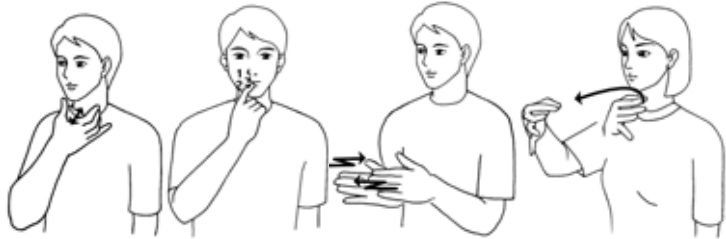
[울리다+ 마찰음]



오른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가락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목 앞에서 전후로 약간 흔들고, 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대고 비빈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유성 양순 마찰음(有聲兩脣摩擦音)

[울리다+ 양순+마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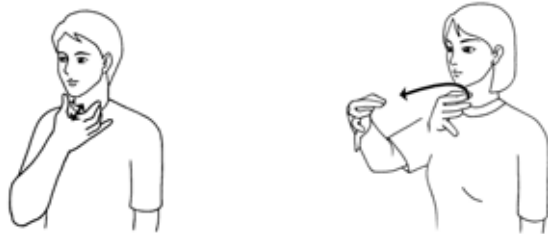
오른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가락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목 앞에서 전후로 약간 흔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두 입술을 가리키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대고 비빈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유성음(有聲音) [명]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 국어의 모든 모음이 이에 속하며, 자음 가운데에는 ‘ㄴ’, ‘ㄷ’, ‘ㄹ’, ‘ㅇ’ 따위가 있다. 목청울림소리. 울림소리.

[울리다+ 소리]

=울림소리.



오른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가락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목 앞에서 전후로 약간 흔들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유성 자음(有聲子音)

발음할 때에, 목청이 떨려 울리는 자음.

[울리다+ 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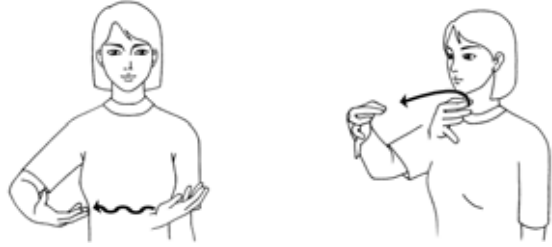
오른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가락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목 앞에서 전후로 약간 흔들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배를 스쳐 내리며 5지 바닥이 보이도록 손목을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유음

유음(流音) ㄹ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 국어의 자음 ‘ㄹ’ 따위이다.

[흐르다+ 소리]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유음화(流音化)

유음 ‘ㄹ’ 앞뒤에서 ‘ㄴ’이 ‘ㄹ’로 동화되는 현상.

[유음+ 변하다]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유의 관계(類義關係)

말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서로 비슷한 단어들의 관계.

[뜻+ 비슷하다+ 관계]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 다음,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고 두 번 비비고,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유의어(類義語) ㄹ

뜻이 서로 비슷한 말.

[뜻+ 비슷하다+ -어(語)]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 다음,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고 두 번 비비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유정 명사(有情名詞)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

[감정+ 있다+ 명사]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 다음, 4·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끝을 코끝에 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땀다 땀다.

-[의]*

한글 자모의 스물셋째 글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다.

-으나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미.

¶ 그녀는 마음은 좋으나 현명하지 못하다.

[반전(反轉)을 나타내는 동작]
=그러나.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으라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예스러운 표현으로) 해라할 자리에 쓰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하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그대들 앞날에 영광이 있으라.
[권함을 나타내는 동작]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약간 밖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약간 위로 올린다.

으로

으로 ㉠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①움직임의 경로를 나타내는 격 조사.

¶ 한국으로 해서 미국을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 어깨 위에서 밖으로 반원을 그리며 내민다.

②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 콩으로 매주를 쏜다.

③어떤 일의 수단·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 붓으로 글씨를 쓴다.
=가지다.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쥘다.

④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 조사. '말미암아', '인하여', '하여' 등이 뒤따를 때가 있다.

¶ 병으로 죽다. 지각으로 벌을 받다.
가난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다.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뻗다.

⑤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인간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맞다.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다.

⑥시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조석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다.
모임 날짜를 이달 중순으로 정했다.
시험 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했다.
=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린다.

으로서 ㉠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 ①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의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입장.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밑으로 향하게 하여 왼 손바닥에 두 번 댄다.

②(예스러운 표현으로) 어떤 동작이 시작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남쪽으로서 햇빛이 들어온다.
=곳.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으로서 ㉡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①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 조사.

¶ 콩으로써 메주를 쑨다.
②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으로②’보다 뜻이 분명하다.

¶ 그는 진실해야 한다는 이념으로써 나라를 다스렸다.
=가지다.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가락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쥘다.

-으면

-으면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 내일 날씨가 좋으면 쇼핑을 가겠다.
=-면.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등에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등을 댄다.

-으므로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강물이 깊으므로 배 없이는 건널 수 없다.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뻐다.

-으세요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으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좋으세요?

[①부탁하다. ②묻다]



- 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다(이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으시어요 (어미)

‘으시어요’의 준말.

¶ 이리 앉으시어요. 그렇게 좋으시어요?
[①부탁하다. ②묻다]



- 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다(이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으시어요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미 ‘-으시-’와 ‘-어요’가 결합한 말이다. ㉠ 으셔요.

¶ 할머니는 진지를 드시어요. 몸이 편찮으시어요? 제 손을 잡으시어요. [①묻다. ②부탁하다]



-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②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으십시오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합쇼할 자리에 쓰여, 정중한 명령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부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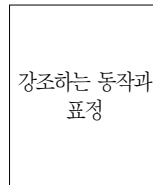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

은 조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동작과 표정을 강조하듯이 한다.

-은가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하게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이 우물은 얼마나 깊은가?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가? [①묻다. ②물음표]



-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다(상대가 있는 경우).
- 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물음표(?)를 그린 다(상대가 없는 경우).

은어

은어(隱語) **명**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 상인·학생·군인·노름꾼·따위의 각종 집단에 따라 다른데, 의태어·의성어·전도어(顛倒語)·생략어·수식어 따위로 그 발생을 나눌 수 있다. 비밀어.

[조작+ 언어]



모로 세운 왼 주먹 위를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은지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①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 ¶ 기분이 좋은지 휘파람을 분다.
- ②해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 요즘은 어때? 건강은 좋은지? =물음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물음표(?)를 그린다.

은커녕 **조**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 보조사 ‘은’에 보조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다.

- ¶ 천 원은커녕 백 원도 없다.
- [자리가 뒤바뀔을 나타내는 동작] =커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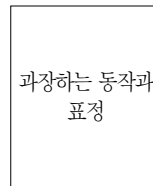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손끝을 모아 쥘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전후로 놓았다가 동시에 반원을 그리며 움직여 두 손의 위치를 반대로 바꾸어 놓는다.

을 **조**

((받침 있는 일부 부사 뒤에 붙어))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맘껏을 마시라.



동작과 표정을 과장한다.

-을까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 헤할 자리에 쓰여, 현재 정해지지 아니한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그 사람은 돌아왔을까?
=물음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물음표(?)를 그린다.

을랑 [조]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구어체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정하여 가리키는 데 쓰는 보조사. 격 조사 ‘을’ 대신 쓰여 목적어에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은’ 정도의 뜻을 나타내며, 흔히 뒤에는 충고하는 말이 온다.

¶ 이런 책을랑 아이들에게 읽히지 마세요.

[가리키는 동작]
=것.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책을랑’이라고 할 때에는 ‘책’의 끝 동작으로 나타내는 왼손의 손바닥으로 향해 ‘것’의 동작을 한다).

을랑은 [조]

보조사 ‘을랑’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말. ‘을랑’보다 강조의 뜻이 있다.

¶ 그 사람을랑은 부르지 마라.
[가리키는 동작]
=것.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그 사람을랑은’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

-을망정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았’ 뒤에 붙어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비록 그러하지만 그러나’ 혹은 ‘비록 그러하다 하여도 그러나’에 가까운 뜻이 된다.

¶ 차라리 얼어 죽을망정 컵물은 아니 쪼겠다.
[맞다+ 그러나]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을지라도

-을지라도 (어미)

((‘르’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뒤에 붙어))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어떤 미래의 일에 대하여 ‘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의 뜻을 나타낸다.

▶ 마음에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색하지 마라.

[아미+ 그러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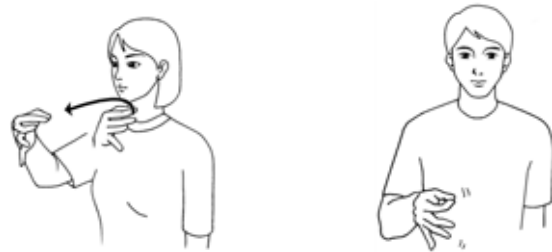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얼굴 오른쪽 앞에서 전후로 두 번 약간 흔든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2지를 접고 1지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음가(音價) ㉠

발음 기관의 기초적 조건에 의한 단위적 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성음 현상.

[소리+ 값]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좌우로 가볍게 두 번 흔든다.

음성(音聲) ㉡*

사람의 입으로 내는 소리. 특히 말할 때 사용되는 소리만을 음성이라 한다. 말소리.

[소리가 나오는 길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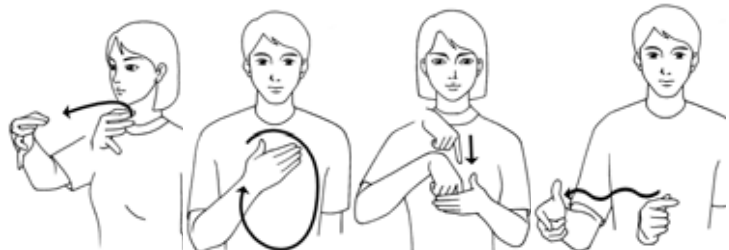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음성 기관(音聲器官)

발음 기관. 조음 기관.

[음성+ 기관]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리고,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안쪽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꼭 짚은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모로 세워 좌우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음성 기호(音聲記號)

말소리를 음성학적으로 표시하는 기호.

[음성+ 기호]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러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음성 모음(陰性母音)

어감(語感)이 어둡고 큰 모음. ‘ㄱ’, ‘ㄷ’, ‘ㄴ’, ‘ㅈ’, ‘ㅊ’, ‘ㅋ’, ‘ㆁ’, ‘ㅅ’, ‘ㅆ’ 따위가 있다. 약모음.

[음성(어둡다+ 성질)+ 모음]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두 손을 중앙으로 모아 교차하게 한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음성 언어(音聲言語)

음성으로 나타내는 언어. 몸짓이나 표정 또는 글자로써 하는 표현에 상대되는 말이다.

[음성+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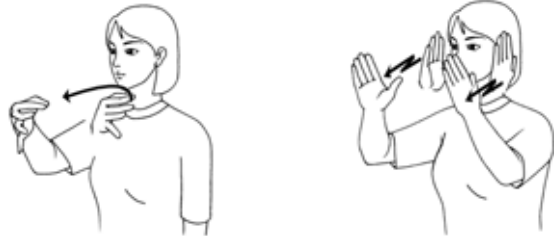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음성학

음성학(音聲學) ㄷ

말소리를 자연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어떤 발음 기관의 어떠한 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며, 또한 만들어진 말소리가 어떻게 전달되고 청취되는지 등을 관찰하는 학문.

[음성+ 학]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음세 어미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하게할 자리에 쓰여, 기꺼이 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우리 같이 먹음세.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

고개를 끄덕인다.

음소(音素) ㄷ

더는 작게 나눌 수 없는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 하나 이상의 음소가 모여서 음절을 이룬다.

[소리+ 본디(처음+ 기본)]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붙인 다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 등을 대고 손가락을 활짝 편다.

음소 문자(音素文字)

표음 문자 가운데 음소적 단위의 음을 표기하는 문자. 한글, 로마자 따위가 있다. 알파벳문자.

[음소+ 문자]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붙이고,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 등을 대고 손가락을 활짝 편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뺐다 뺐다.

음소적 표기법(音素的表記法)

형태소가 그것이 실현되는 환경에 따라서 모습을 바꿀 때, 바뀐 대로 적는 표기법. 중세 국어에서 중성을 여덟 자(字)에 국한하여 적었던 것 따위이다. 표음주의 표기법.

[음소+ -적+ 표기법]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붙인 다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 등을 대고 손가락을 활짝 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음운(音韻) ㄹ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사람들이 같은 음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 소리로, ‘남’과 ‘납’이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ㄹ’와 ‘ㄴ’, ‘물’과 ‘벌’이 다른 뜻의 말이 되게 하는 ‘ㄹ’과 ‘ㄴ’ 따위를 이른다. 음운은 사람들의 관념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의 ‘ㄹ’을 영어에서는 ‘l’과 ‘r’의 두 개의 음운으로 인식한다.

[뜻+ 구별+ 소리]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음운 교체(音韻交替)

어떤 음운이 형태소의 끝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듣다[聞]’가 ‘들어’, ‘들으니’ 따위로 활용할 때 ‘ㄷ’이 ‘ㄹ’로 교체되는 것 따위이다.

[음운+ 교체]

=음운 변동.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1지를 펴서 등이 옆으로 향하게 세운 두 주먹을 중앙으로 모아 두 팔이 교차하게 한다.

음운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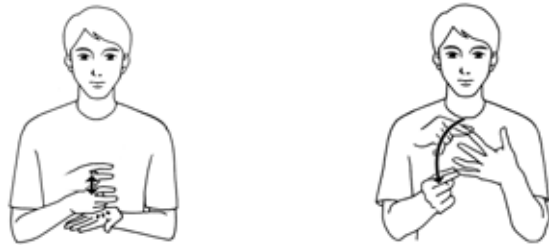
음운 규칙(音韻規則)

음운이 서로 결합하여 더 큰 단위를 만들어 갈 때 존재하는 규칙.

[음운+ 규칙]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는다.

음운 대응(音韻對應)

음운 대응 법칙.

[음운+ 변화]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음운 대응 법칙(音韻對應法則)

어떤 시기에 일어난 소리의 변화에 대한 규칙. 음운 대응. 음운 법칙.

[음운+ 변화+ 규칙]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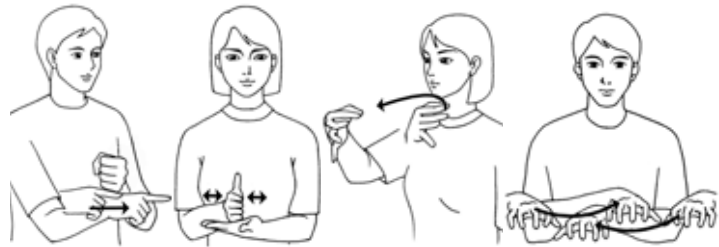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우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는다.

음운 도치(音韻倒置)

한 단어나 어군(語群)의 내부에서 두 음소 또는 그 연속이 서로 위치를 바꾸는 현상. ‘즐다>질다’, ‘구름>구름’ 따위의 음소 도치와 ‘반찬>찬반’ 따위의 음절 도치가 있다.

[음운+ 도치]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약간 구부려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 두 손을 중앙으로 모아 두 팔이 교차되게 한다.

음운 동화(音韻同化)

소리와 소리가 이어서 날 때에, 한 소리가 다른 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소리가 나는 음운 현상. 모음 조화, 원순 모음화, 유음화 따위가 있다.

[음운+ 동화]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음운론

음운론(音韻論) ㄷ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말소리인 음운을 대상으로 음운 체계를 밝히고, 그 역사적 변천을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음운+ 논하다]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땀다 땀다.

음운 문자(音韻文字)

한 음운이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문자. 로마자 따위가 있다.

[음운+ 문자]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땀다 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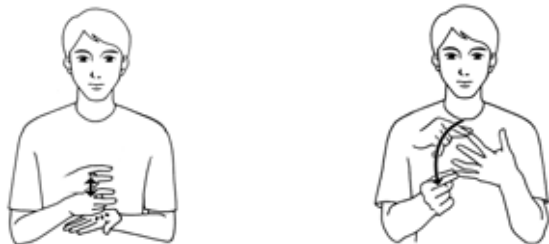
음운 법칙(音韻法則)

음운 대응 법칙.

[음운+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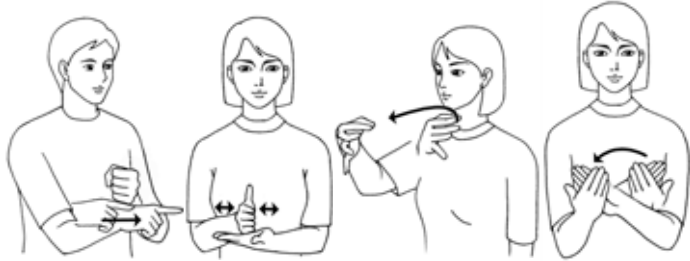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는다.

음운 변화(音韻變化)

음운 체계 안의 어떤 음운 또는 그 체계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일. 예를 들면 중세 국어에서 쓰이던 ‘ㅅ’ 등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ㅆ’ 등으로 변한 것 따위가 있다.
[음운+ 변화]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음운 변동(音韻-變動)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과 만나 그 음운의 모양이 달라지는 현상.
[음운+ 변동]
=음운 교체.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1지를 펴서 등이 옆으로 향하게 세운 두 주먹을 중앙으로 모아 두 팔이 교차하게 한다.

음운 체계(音韻體系)

한 언어가 가지는 음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하고 유기적인 관계.
[음운+ 체계]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맞댔다가 약간 벌려 내린다.

음운 탈락(音韻脫落)

두 형태가 결합된 합성어에서, 한 음운이 탈락하거나 약하게 되는 음운 변화. 예를 들어 ‘술+나무’가 ‘소나무’, ‘불+삽’이 ‘부삽’이 되는 것 따위이다.
[음운+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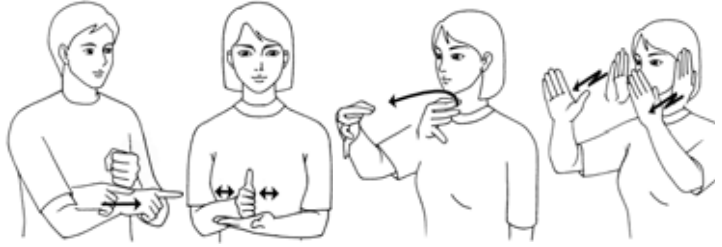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손을 펴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바닥을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오른손의 손등으로 스쳐 내린다.

음운학

음운학(音韻學)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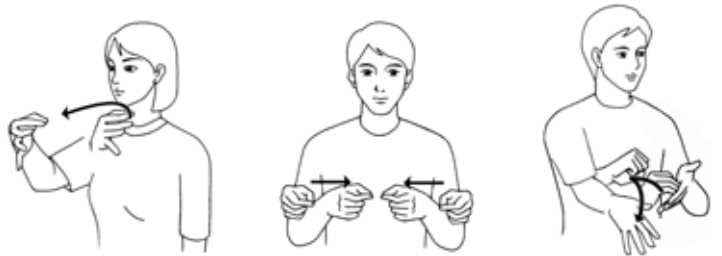
①한자의 음운, 사성(四聲), 반절 따위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②음운론.
[음운+ 학]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린다.

음의 생략(音-省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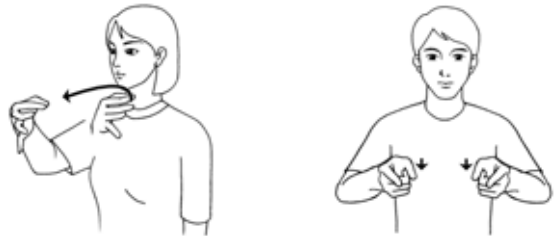
말을 빨리 하기 위하여 소리를 줄이는 현상. ‘가야가’가 ‘가’, ‘기쁘어’가 ‘기빠’, ‘보았다’가 ‘봤다’로 되는 따위이다.
[음(音)+ 짧다+ 생략]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모로 세워 좌우에서 접근시켜 맞대고, 손바닥이 안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손가락 끝을 댄다가 오므려 밑으로 내리며 손가락을 편다.

음절(音節)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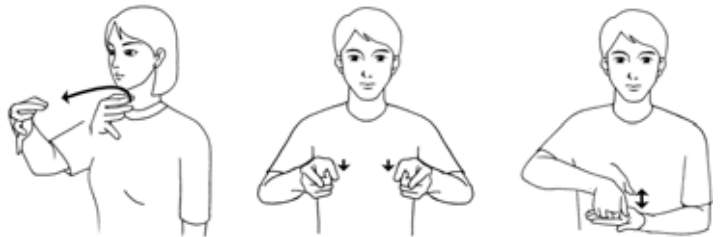
발음할 때 한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혹은 한 문치로 이루어진 소리의 덩어리. 음절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모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앞뒤에 자음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침’의 ‘아’와 ‘침’ 따위이다.
[음성+ 마디]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음절 문자(音節文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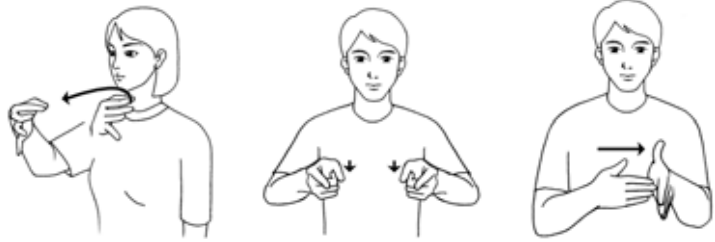
한 음절이 한 글자로 되어 있어 더는 나눌 수 없는 표음 문자. 일본의 가나 따위가 있다.
[음절+ 문자]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리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댄다 떼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국어에서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소리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음운 교체 현상.
[음절+ 끝소리+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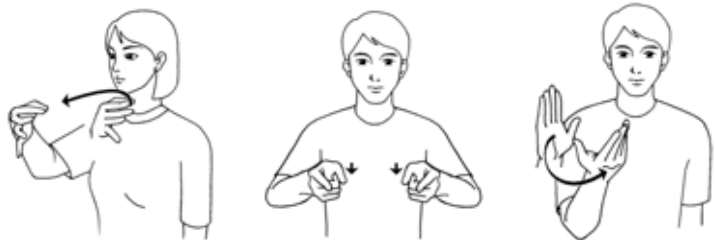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리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 다음, 손가락을 벌려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손의 손가락을 오른 주먹의 1·5지로 1지부터 4지까지 차례로 살짝 잡았다 놓는다.

음절이루기

성음(成音).
[음절+ 이루다(되다)]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리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ㄴ[의]*

한글 자모 ‘ㄴ’와 ‘ㄷ’를 어울려 쓴 글자.



오른 주먹의 1·4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다.

의

의 조*

((체언 뒤에 붙어)) 앞 체언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관형격 조사.

¶ 나의 옷. 우리의 각오. 나의 작품.
승리의 길. 학문의 연구. 서울의 찬가.
책의 저자. 물의 온도. 꽃의 향기.
축하의 잔치. 질투의 감정. 나의 친구.
하늘의 별. 고대의 문화. 한 잔의 술.
국민의 대다수. 불후의 명작. 철의 여인.
순금의 보석. 건설의 역사.
=의.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낀다.

의견 광고(意見廣告)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

[의견+ 광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대고 전후로 약간 돌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의도형(意圖形) 평

어떤 의도, 희망을 나타내는 연결법의 활용형. '-려', '-고자' 따위가 있다.

[의도(숨다+ 뜻)+ 형/활용형]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왼 손바닥에 대고 왼손으로 1·2지를 감싸 쥘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의문 대명사(疑問代名詞)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대명사. '누구', '무엇', '어디' 따위가 있다.

[의문+ 대명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펴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뗀다.

의문문(疑問文) ㄷ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답을 요구하는 문장. 의문형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데, “거기서 무얼 하고 있나?”, “아직도 밖에 비가 오느냐?” 따위이다.

[의문(질문)+ 문(文)]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의문사(疑問詞) ㄷ

의문의 초점이 되는 사물이나 사태를 지시하는 말.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어떻게’, ‘얼마’ 따위가 있다.

[의문+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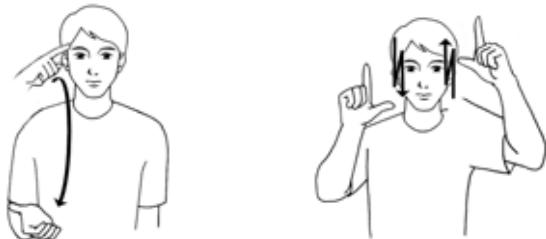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뎠다.

의문형(疑問形) ㄷ

용언과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의 하나.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느냐’, ‘-는가’ 따위가 붙은 꼴이다.

[의문+ 형(形)]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의문형 어말 어미(疑問形語末語尾)

의문을 나타내는 ‘-는가, -나, -는가’ 따위의 어미.

[의문형+ 어말 어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의문형 종결 어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의문형 종결 어미(疑問形終結語尾)

종결 어미 중에서 의문문을 만드는 어미.

¶ 한국의 가을 하늘은 맑니?
[의문형+종결 어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의미(意味)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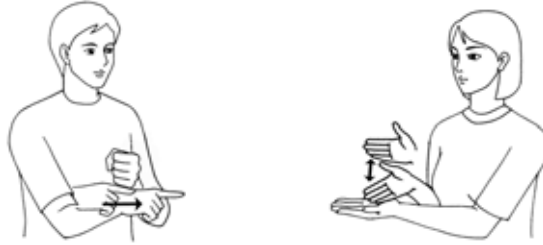
①말이나 글의 뜻. ②행위나 현상이 지닌 뜻. ③사물이나 현상의 가치.
¶ ①단어의 사전적 의미. ②역사적 의미. ③여가를 의미 있게 보낸다.
[쭈셔서 캐는 동작 <사리(事理)를 캐는 것>]
=까답. 뜻. 이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의미론(意味論) ㄷ

단어와 문장의 뜻과 실제 상황에 나타나는 발화의 뜻을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의미+ 논하다]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의미 변화(意味變化)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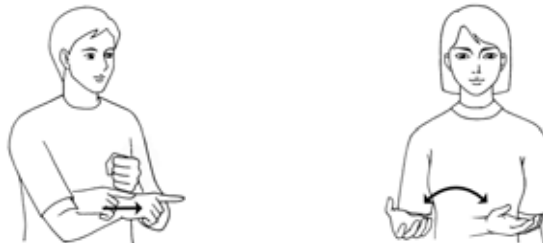
단어가 그 본디의 풀대로 혹은 소리를 더하거나 덜하여서 그 뜻을 여러 가지로 바꾸는 일.
[의미+ 변화]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의미 이동(意味移動) ㄷ

‘어리다’가 ‘어리석다’의 뜻을 가지다가 근대 이후 ‘나이가 적다’의 뜻을 가지게 된 것처럼 단어에 결합된 의미가 이동하는 일.
[의미+ 이동]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 다음, 오른손을 구부려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의미 축소(意味縮小) ㄷ

단어 본래의 의미보다 그 뜻이 사용 범위가 좁아지는 일.
[의미+ 축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여 모로 세워 양옆에서 중앙으로 모은다.

의미 확대

의미 확대(意味擴大) ㄹ

단어 본래의 의미보다 그 뜻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일.

[의미+ 확대]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여 모로 세워 양옆으로 벌린다.

의성 부사(擬聲副詞)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부사. ‘으앙으앙’, ‘개굴개굴’, ‘철썩철썩’ 따위가 있다.

[소리+ 흉내 내다+ 부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이 귀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이고,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이마 앞에서 이마로 옮겨 1지 옆면이 닿게 이마에 대며 5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맞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반쯤 구부려 끝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뗀다.

의성어(擬聲語) ㄹ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씩씩’, ‘멍멍’, ‘땡땡’, ‘우당탕’, ‘퍼덕 퍼덕’ 따위가 있다.

[소리+ 흉내 내다+ -어(語)]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반쯤 구부려 끝이 귀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이고,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이마 앞에서 이마로 옮겨 1지 옆면이 닿게 이마에 대며 5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맞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반쯤 구부려 끝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의존 명사(依存名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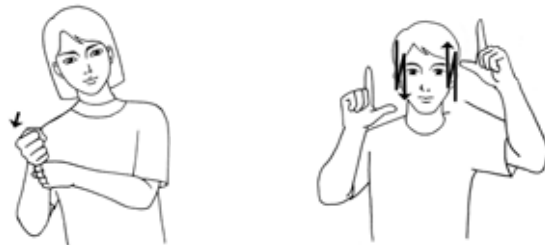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사. ‘것’, ‘따름’, ‘뻘’, ‘데’ 따위가 있다. 형식 명사.
[의존+ 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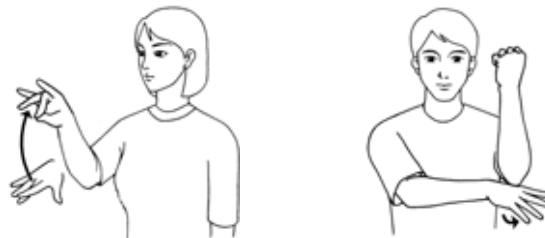
오른쪽 어깨 앞에서 두 주먹을 상하로 이어대고 윗뿔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의존 형태소(依存形態素)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어간, 어미, 접사, 조사 따위가 있다.
[의존+ 형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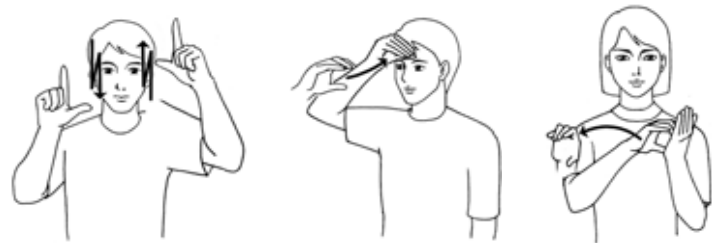
오른쪽 어깨 앞에서 두 주먹을 상하로 이어대고 윗뿔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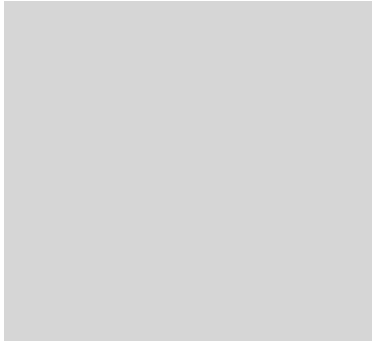
의태 부사(擬態副詞)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부사. ‘뒤뚱뒤뚱’, ‘까불까불’, ‘데굴데굴’ 따위가 있다.
[모습+ 흉내 내다+ 부사]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이마 앞에서 이마로 옮겨 1지 옆면이 닿게 이마에 대며 5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맞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반쯤 구부려 끝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의태어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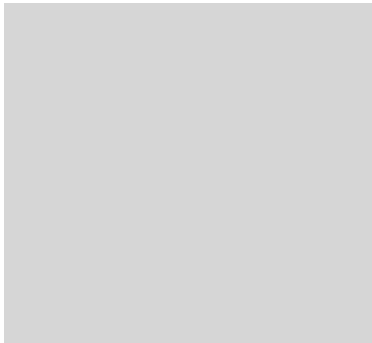
의태어(擬態語) ㄷ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아장아장', '엇금엇금', '번쩍번쩍' 따위가 있다.

[모양+ 흉내 내다+ -어(語)]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이마 앞에서 이마로 옮겨 1지 옆면이 닿게 이마에 대며 5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맞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반쯤 구부려 끝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옮겨 놓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ㅣ [이]*

한글 자모의 스물넷째 글자.



오른 주먹의 4지를 펴서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이 [조]

((목적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김밥이 먹고 싶다. 우리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힘껏이 겨우 이거야?
=껏.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

이고 [조]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주로 '...이고 ...이고' 구성으로 쓰여))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 나열되는 사물이 똑같이 선택됨을 나타낸다. 바로 뒤에 '간에'가 오기도 한다.

¶ 책이고 책상이고 다 타 버렸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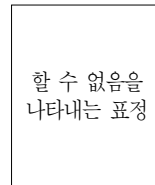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이나 [조]

[1] ①((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때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마치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인 것처럼 표현하는 데 쓰기도 한다.

¶ 그것이나 가져라.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표정을 짓는다.

②((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수량이 크거나 많음, 혹은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보조사.

¶ 벌써 반이나 끝났다.

③((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수량이나 정도를 어렵잡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열 살이나 되었겠다.
=정도.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높이에서 상하로 두 번 움직인다.

이나마

④((수량의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말 뒤에 붙어)) 많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는 뭘을 나타내는 보조사.

¶ 그 사람은 돈푼이나 있다고 거만하다.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오?
=얼마.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5·1·2·3·4지 순으로 접는다.

⑤((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맨 뒤에 나열되는 말에는 붙지 않을 때도 있다.

¶ 그는 문학이나 음악이나 모두 소질이 있다. 산이나 들이나 모두 초만원이다.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2]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나열되는 사물 중 하나만이 선택됨을 나타낸다.

¶ 바자회 물품으로 책이나 옷을 받고 있다.
=또.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이나마 ㄹ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어떻게 말해지기에는 부족한 조건이지만 아쉬운 대로 인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반전(反轉)을 나타내는 동작]
=그러나.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이니 [조]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주로 '-이니 -이니' 구성으로 쓰여))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떡이니 과일이니 잔뜩 먹었다.
[손가락을 펴서 두 번째를 나타내는 동작]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이다¹ [조]

((체언 뒤에 붙어)) 주어와 지시하는 대상의 속성이나 부류를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서술격 조사.

¶ 침묵은 금이다.
=마찬가지.

※ 서술격 조사 '이다'의 수화 기호는 없다. 주어와 지시하는 대상이 주어와 같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만 '마찬가지'의 수화 기호로 나타낸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다.

이다² [조]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주로 '-이다 -이다' 구성으로 쓰여))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연습이다 레슨이다 시간이 하나도 없다.
[손가락을 펴서 두 번째를 나타내는 동작]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이동(移動) [명] [해자타]*

옮겨 움직임. 움직여 자리를 바꿈.
[옮겨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손을 구부려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이든

이든 ㉠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이든지.

¶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다. 무엇 이든 구하면 얻으리라.

[이것저것을 번갈아 가리키는 동작 <둘 중 어느 것이나>]
=든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댄다.

이든지 ㉡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무슨 일이든지 잘할 자신이 있다.
[이것저것을 번갈아 가리킴을 나타내는 동작 <둘 중 어느 것이나>]
=든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댄다.

이라고 ㉢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①마음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이른바'의 뜻이 들어 있다.

¶ 이것도 일이라고 했니?
=맞다.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다.

②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이유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뒤에는 부정의 뜻을 가진 말이 올 때가 많다.

¶ 시골이라고 약속도 없는 줄 아니?
=때문.



왼 주먹의 손가락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며 손을 댄다.

③(‘-이라고는’이나 ‘-이라곤’ 구성
으로 쓰여) 강조하여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뒤에는 수적으로
나 양적으로 부정의 뜻 또는 부정에
가까운 뜻을 가지는 말이 온다.

¶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사
람.
=것.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

이라도 ㄹ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①그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을 나타내는 보조
사.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
의 것임을 나타낸다.

¶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렴.
=괜찮다.



오른 주먹의 4지를 펴서 끝 바닥을 턱에 가볍게 두 번 댄다.

②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나타
내는 보조사.

¶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모르는 것이
있다.
=도.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2지를
잡고 1지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이라든지 ㄹ

((받침 있는 체언류나 부사어에 붙
어)) 어느 것이나 선택되어도 상관없
는 사물들을 열거할 때 쓰는 조사.
꼭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따위의 것
들을 가리킨다는 뜻이 있다.

¶ 그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든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 주먹의 1·2지 바닥 위쪽에 차례로 댄다.

이러야

이러야 [조]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어떤 것을 들어 말하면서 꼭 그것임을 지정하여 말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이 일은 그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꼭.



두 주먹의 4지를 펴서 구부리며 서로 건다.

이러야만 [조]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일의 조건으로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꼭 필요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보조사 '이러야와 보조사 '만'이 결합한 말이다.

¶ 아버지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이라야만 드신다.
=만.



오른손의 1지 끝을 턱에 대고 5지 바닥을 2지 손톱에 댔다가 2지를 뿜긴다.

이런 [조]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화제로 삼을 때에 쓰는 보조사.

¶ 책이란 겉표지만으로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뜻+무엇인가]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흔든다.

이랑 [조]

[1] 어떤 행동을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오늘 동생이랑 싸웠다. 나는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러 갔다.

=①과. ②함께.



①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끝 부분의 양면을 왼 주먹의 1·5지 끝으로 잡는다('동생이랑'이라고 할 경우).
②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다('친구들이랑'이라고 할 경우).

[2]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떡이랑 과일이랑 많이 먹었다.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이머 [조]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그림이며 조각이며 미술품으로 가득 찬 화실 옷이며 신이며 죄다 흩어져 있었다.

[두 번째를 나타내는 동작]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이모티콘(emoticon) [땡]*

컴퓨터나 휴대 전화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하여 만든 그림 문자. 감정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사용한다. 감정 기호, 그림말.

[감정+ 그림+ 문자]



오른손의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린 다음, 오른손의 손가락 등으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내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땀다 땀다.

이시여 [조]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이여'의 높임말. 어미 '-시-'와 호격 조사 '여'가 결합한 말이다.

¶ 하늘이시여, 우리를 지켜 주소서.
[지문자 'ㄱ' /부름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입 앞 가까이 댔다가 약간 올리면서 내린다.

이야

이야 [조]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이런 일이야 문제없다. 사람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가리키는 동작]
 =것.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이야' 앞에 '사람'이 올 경우에는 '것' 대신 '그 사람'의 수화 기호로 표시한다).

이야기 명 하타 되자*

①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하여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글. ¶ 이야기가 오고 가다.
 ②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알려 주는 말. ¶ 내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시오.
 ③ 어떤 사실에 관하여, 또는 있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꾸며 재미있게 하는 말. ¶ 거짓말 같은 이야기.
 ④ 소문이나 평판. ¶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왼 손바닥으로 받치고 전후로 두 번 흔든다.

이야말로 [조]

((받침 있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강조하여 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통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업이지.
 [곧고 바른 것을 나타내는 동작 <바른 말>]
 =정말.



5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지 옆면을 턱 중앙에 댄다.

이어 쓰기(連書)

훈민정음에서, 순경음(唇輕音)을 표기하기 위하여 순음자(唇音字) 밑에 'ㅇ'을 이어 쓰는 일. '몽', '봉', '퐁', '뺑' 따위가 있다. 연서(連書).
 [잇다+ 쓰다]
 =연서.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고리를 만들어 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어 적기

한 음절의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씀. 또는 그런 방법. ‘말씀이’를 ‘말씀미’로 쓰는 것 따위이다. 연결(連綴).

[종성을 다음 초성으로 올림을 나타내는 동작]

=연철.



왼손을 약간 구부려 손가락 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밑으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안쪽에서 밀어 넣었다가 오른쪽으로 올린다.

이어진 문장(-文章)

두 개 이상의 흘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하여 이어진 전체 문장. 앞에 오는 문장을 앞 절, 뒤에는 오는 문장을 뒤 절이라고 한다. 대등하게 이어지는 것과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새가 온다.’, ‘여름이면 날이 덥다.’ 따위이다.

[이어지다(있다+ 되다)+ 문장]

=중문(重文).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고리를 만들어 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이음(異音) ㉞

같은 음소에 포괄되는 몇 개의 구체적인 음이 서로 구별되는 음의 특징을 지니고 있을 때의 음. 예를 들어, ‘감기’의 두 ‘ㄱ’ 소리는 같은 문자로 표기하나 실제로는 앞의 ㄱ은 [k], 뒤의 것은 [g]와 같이 서로 다른 음가를 가지는데, 한 음운으로 묶인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음성을 그 음운에 상대하여 이른다. 변이음(變異音).

[다르다+ 음(音)]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손등을 두 번 댔다 떴다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이음표(-標)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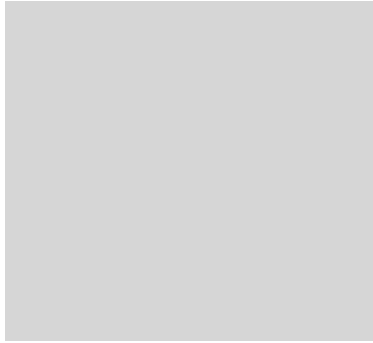
문장 부호의 하나. 줄표(—), 붙임표(-), 물결표(~)가 있다.

[있다+ 기호]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고리를 만들어 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손을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서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구부려 끝을 왼손바닥에 올려 댔다 다음,

이인칭 의문형 어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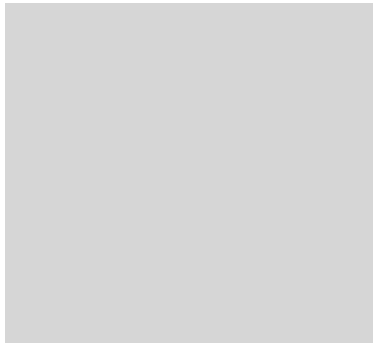
이인칭 의문형 어미(二人稱疑問形語尾)

중세 국어에 있는 의문형 어미. ‘-는 다, -리다’ 따위가 있다.

[너+ 지칭+ 의문+ 형+ 어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댄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이중 모음(二重母音)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 ‘ㅑ’, ‘ㅕ’, ‘ㅛ’, ‘ㅠ’, ‘ㅟ’, ‘ㅠ’, ‘ㅢ’, ‘ㅤ’, ‘ㅥ’, ‘ㅦ’, ‘ㅨ’ 따위가 있다.

[이중(二重)+ 모음]

=중모음(重母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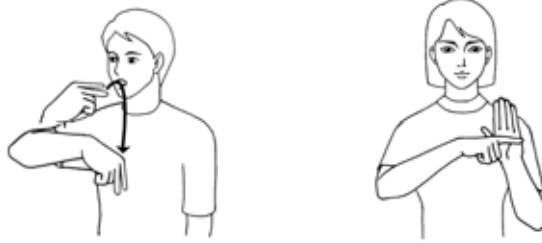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손등이 위로 손끝이 입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돌려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이중 부정(二重否定)

한 번 부정한 것을 다시 한 번 부정하여 긍정을 나타내는 일.

[이중+ 부정]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손등이 위로 손끝이 입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돌려 내린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댄다.

이중 주어(二重主語)

하나의 문장에 이중으로 들어 있는 주어. ‘코끼리가 코가 길다.’에서 ‘코끼리’와 ‘코가’, ‘그 나무가 잎이 푸르다.’에서 ‘나무’와 ‘잎’ 따위이다.

[이중+ 주어]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손등이 위로 손끝이 입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돌려 내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약간 위로 올린 다음, 5지를 잡고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이중 주어문(二重主語文)

표면 구조에서 둘 이상의 주격 체언이 한 서술 용언과 어울리는 문장.

[이중주어+ 문(文)]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손등이 위로 손끝이 입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돌려 내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약간 위로 올린 다음, 5지를 잡고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이해 어휘(理解語彙)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낱말 모두.

[이해+ 어휘]



왼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오른쪽으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벌린 다음, 그 사이로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안에서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밖에서 안으로 밀어 넣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모로 세워 좌우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인두

인두(咽頭) 咽*

식도와 후두에 붙어 있는 깔때기 모양의 부분. 목안.

[인두의 위치를 가리키는 동작]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목 양쪽에 댄다.

인용격 조사(引用格助詞)

앞의 말이 인용됨을 나타내는 조사. 직접 인용으로 “언제 오겠나?”라고 물었다.”의 ‘라고’와 “우선 멈춤’이라고 적혀 있었다.”의 ‘이라고’가 있고, 간접 인용으로 ‘그는 내일 온다고 말했다.’와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영철이라고 말했다.’의 ‘고’가 있다.

[큰마음표+ 격(자격)+ 조사]



두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구부려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댄다.

인용문(引用文) 文

남의 말이나 글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따온 문장.

[큰마음표+ 문(文)]



두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구부려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인용어(引用語)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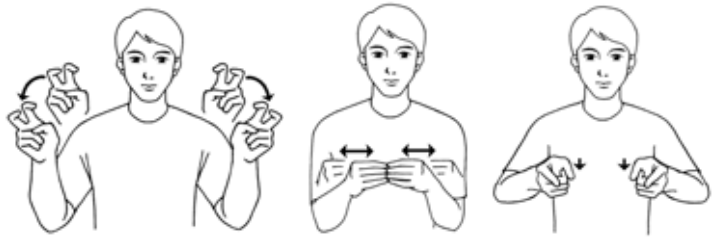
다른 말이나 글에서 끌어 쓴 말.
[큰따옴표+ -어(語)]



두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구부려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인용절(引用節)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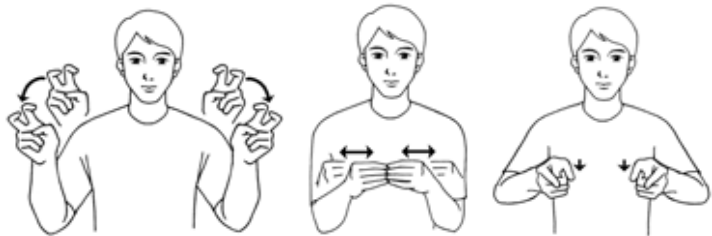
남의 말이나 글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따온 절.
[큰따옴표+ 절(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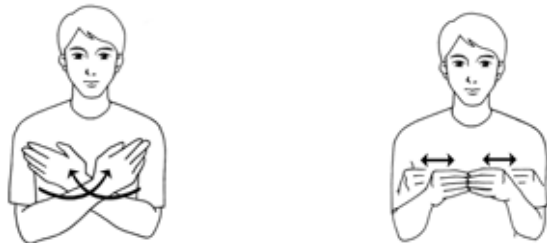
두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구부려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인용절을 안은 문장(引用節-文章)

판 데서 인용한 절이나 문장이 상위 문에 안기는 문장.
㉮ “문을 열어라”하고 손님이 아이에게 말했다.
[큰따옴표+ 안다+ 문장]



두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구부려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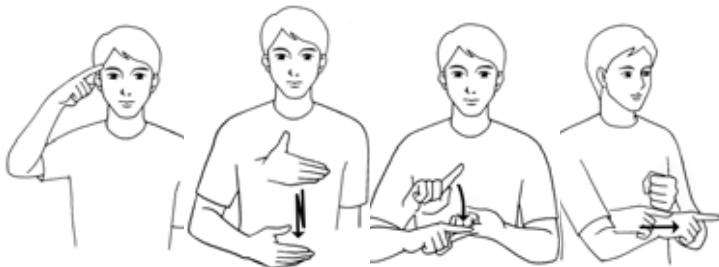


두 팔을 벌렸다가 가슴에 모아 댄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인지적 의미

인지적 의미(認知的意味)

어떤 낱말이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객관적인 의미. 개념적 의미. 사전적 의미. 외연적 의미.
[인지+ -적+ 의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 번 쓸어내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인칭(人稱) ㄹ

명사, 대명사, 동사에 관계하는 문법 범주의 하나.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제일 인칭, 청자를 가리키는 제이 인칭, 제일 인칭과 제이 인칭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키는 제삼 인칭이 있다.
[사람+ 지칭]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잡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린다.

인칭 대명사(人稱代名詞)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제일 인칭에 '나', '저', '우리', 제이 인칭에 '너', '너희', '자네', 제삼 인칭에 '이', '그', '저', '아이들', '저어들', '그어들', 미지칭에 '누구', '누구들', 부정칭에 '아무', '아무들' 따위가 있다.
[사람+ 지칭+ 대명사]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양옆으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린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잡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일랑 ㄹ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구어체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정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뒤에는 충고하는 말이 온다.

¶ 술일랑 다시 마시지 마라.

[가리키는 동작]

=갓.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

일랑은 ㄹ

보조사 '일랑'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말. '일랑'보다 강조의 뜻이 있다.

¶ 폐품일랑은 다 창고에 넣어라.

[가리키는 동작]

=갓.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다.

일반 언어학(一般言語學)

개별 언어가 아닌, 세계 여러 언어의 보편적 성격과 법칙을 연구하는 언어학.

[일반+ 언어학]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앞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일 · 삼인칭 의문형 어미

중세 국어에 있는 의문형 어미. '-니여, -뇨, -리여'가 그 예이다.

[니+ 그+ 지칭+ 의문+ 형+ 어미]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가리키고,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민 다음.

입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밖으로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펴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입말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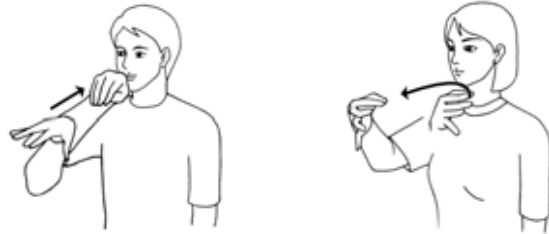
문장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 구어(口語). 구두어(口頭語). 구어.
[입+ 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입 주위를 한 바퀴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입성(入聲) ㄹ

①한자음 사성의 하나. 짧고 빨리 거두어들이는 소리. ②중세 국어 사성(四聲)의 하나. 소리의 높낮이와는 별도로, 종성이 ‘ㄱ, ㄷ, ㅂ’로 끝나는 음절들을 묶은 것이다.
[거두어들이다+ 소리]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입으로 끌어당기며 5지를 중심으로 나머지 손가락 끝을 모아 붙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입술가벼운소리 ㄹ

고어에서, 입술을 거쳐 나오는 가벼운 소리. 《훈민정음》에서 순음 아래 ‘ㅇ’을 연서(連書)하여 표시한 음인 ‘ㄹ’, ‘ㄹ’, ‘ㄹ’, ‘ㄹ’ 따위이다. 순경음(唇輕音).
[입술+ 가볍다+ 소리]
=순경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입술에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아래에서 손목을 구부리며 가볍게 올리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입술소리 [명]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ㅂ’, ‘ㅃ’, ‘ㄸ’, ‘ㄹ’이 여기에 해당한다. 순음. 양순음(兩脣音).
[입술+ 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입술에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입술소리되기 [명]

어떤 언어의 역사에서 원순음이 아닌 음이 원순음으로 변화하는 현상. 예를 들면 ‘불(火)’이 ‘불’, ‘풀(草)’이 ‘풀’로 변한 것이 있다. 순음화(脣音化).
[입술소리+ 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입술에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가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다.

입안 [명]*

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빈 곳. 음식 물을 섭취하고 소화하며, 발음 기관의 일부분이 된다. 구강.
[입속을 가리키는 동작]
=구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입속을 가리킨다.

입음 [명]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 피동(被動).
[‘시키다’의 피동형+ 움직이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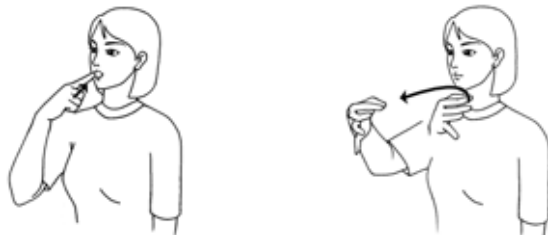
입천장소리

입천장소리(-天障-) 명

혀바닥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ㅈ’, ‘ㅉ’, ‘ㅊ’ 따위가 있다. 구개음(口蓋音).

[입천장+소리]

=구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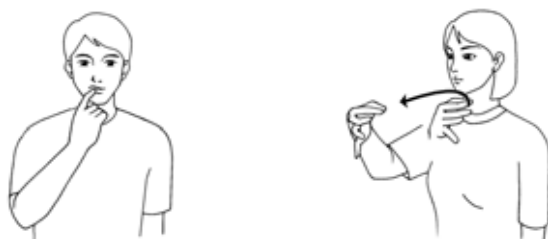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천장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잇몸소리 명

혀끝과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한글의 ‘ㄷ’, ‘ㅌ’, ‘ㄸ’, ‘ㄴ’, ‘ㄹ’ 따위가 있다. 치경음(齒莖音). 치조음.

[잇몸+소리]

=치경음. 치조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잇몸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잇사이소리 명

혀끝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놓여 이 사이에서 마찰되어 나는 소리. 치간음(齒間音).

[이+사이+소리]

=치간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마주 보게 하여 어깨 높이에서 가슴 높이로 내리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잇소리 명

혀끝과 윗니 또는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현대 국어에서 ‘ㅅ’, ‘ㅆ’, ‘ㄴ’, ‘ㄹ’ 따위를 이른다. 치음(齒音).

[이+소리]

=치성. 치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ㅈ

지[지읒]*

한글 자모의 아홉째 글자.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세운다.

-자 [어미]

①((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나 사실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동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가운데로 돌리며 1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②((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그 상태와 더불어 다른 일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날이 덥자 냉방 기계가 잘 팔리고 있다.
=더블다.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다.

-자

③(‘이다’ 어간 뒤에 붙어) 일정한 자격과 함께 다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그는 나의 학교 선배이자 스승이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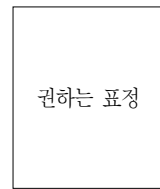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자 **어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철수야, 학교 가자. 밥을 같이 먹자.
[①-자. ②권하는 표정]



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힘주어 젖힌다.

② 권하는 표정을 짓는다.

자격격(資格格) **명**

자격을 나타내는 격. ‘(으)로서’와 같은 조사로 나타낸다.

[자격/자격]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두 번 그린다.

자격격 조사(資格格助詞)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서’가 있다.

[자격격(자격=격)+ 조사]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두 번 그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댄다.

자동사(自動詞)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 ‘꽃이 피다.’의 ‘피다’, ‘해가 쏸다.’의 ‘쏸다’ 따위이다.
[스스로+ 동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c’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자립 명사(自立名詞)

다른 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자립+ 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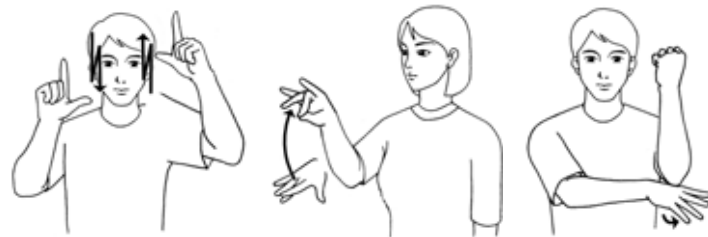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댔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c’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자립 형태소(自立形態素)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혼자 설 수 있는 형태소 ‘철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철수’, ‘책’ 따위이다.
[자립+ 형태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명치 부위를 스쳐 올려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을 대고 세우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자릿수

자릿수(-數) ㄹ

자리의 개수.
[자리+수(數)]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 다음,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대고 좌우로 스쳐 낸다.

-자마자 ㄹ

((동사 어간이나 어미 '-으시-' 뒤에 붙어))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지자 잇따라 곧 다음 절의 사건이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집에 닿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끝+곧]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빠르게 올리며 1·5지 끝을 맞댄다.

자음(子音) ㄹ

목, 입, 혀 따위의 발음 기관에 의하여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 조음 위치에 따라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으로, 조음 방법에 따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으로 나뉜다.
[아들+음성]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배를 스쳐 내리며 5지 바닥이 보이도록 손목을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자음 동화(子音同化)

음절(音節)의 끝 자음(子音)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닮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예를 들어 '밤물'이 '밤뭇'로, '섭리'가 '섭니'로, 이 '섭니'가 다시 '섭니'로 바뀌는 것을 이른다. ≒ 자음 동화 작용 · 자음 접변.
[자음+동화]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배를 스쳐 내리며 5지 바닥이 보이도록 손목을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두 번 붙인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자의성(恣意性) ㄹ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 약속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임의+ 성질]



주먹을 쥔 두 팔을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돌린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다.

자질 문자(資質文字)

발음 기관을 본뜬 기본 글자 ‘ㄱ’에 획을 더하거나 (‘ㅋ’) 겹쳐 씌(‘ㄲ’)으로써, ‘거셈’이나 ‘뽕’의 음운 자질이 추가된 글자.

[자질+ 문자]



왼 주먹 등에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주먹을 쥐고 1지를 펴면서 댄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뻐다.

작은따옴표(-標) ㄹ

따옴표의 하나. 가로쓰기에 쓰는 문장 부호 ‘ ’ ’의 이름이다. 따운 말 가운데 다시 따운 말이 들어 있을 때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작은따옴표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구부러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돌린다.

장면

장면(場面)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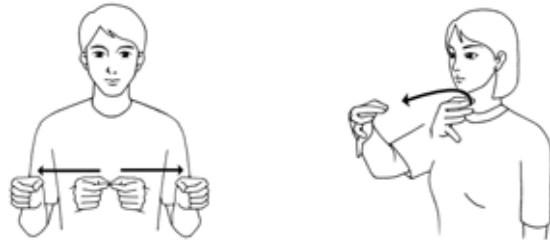
이야기에 필요한,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위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
[곳+ 모양]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장음(長音) ㉡

긴소리.
[길다+ 소리(음성)]
=긴소리.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모로 세워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재귀 대명사(再歸代名詞)

선행(先行) 체언을 도로 나타내는 삼 인칭 대명사. '저', '자기', '당신' 따위가 있다.
[되돌리다+ 대명사]



오른손을, 손끝이 오른쪽 어깨 너머로 향하게 하였다가 내리며 손끝을 모아 왼 손바닥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재귀 동사(再歸動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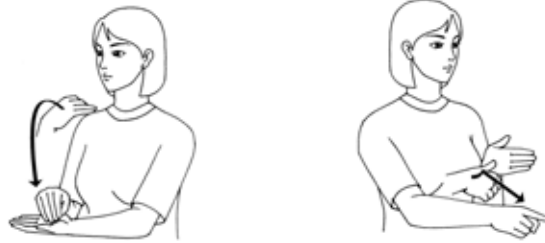
동사가 취한 목적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재귀 대명사에 한정되는 동사. 재귀 대명사 외의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것과, 재귀 대명사만 취하는 것이 있다.
[되돌리다+ 동사]



오른손을, 손끝이 오른쪽 어깨 너머로 향하게 하였다가 내리며 손끝을 모아 왼 손바닥에 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재귀칭(再歸稱)

재귀 대명사(再歸代名詞).
[되돌리다+ 지칭]



오른손을, 손끝이 오른쪽 어깨 너머로 향하게 하였다가 내리며 손끝을 모아 왼 손바닥에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때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린다.

저모음(低母音) [땡]

입을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모음. ‘ㅏ’, ‘ㅑ’ 따위가 있다. 개모음(開母音).
[낮다+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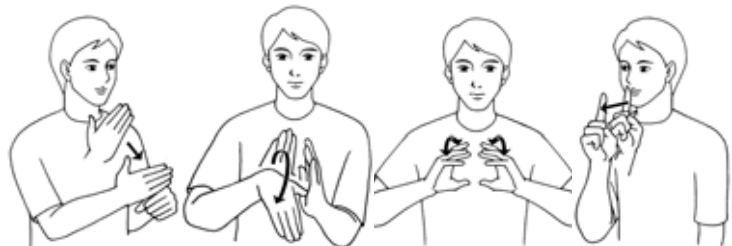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아래로 약간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전기 중세 국어(前期中世國語)

고려의 건국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중세 국어 중에서 훈민정음 창제 전까지의 국어를 말한다.
[전기(전(前)+ 동안)+ 중세 국어]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세워 등을 댔다가 오른손만 안으로 당긴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어깨 높이에서 가슴 높이로 내리고,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리고,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전문어

전문어(專門語) [땡]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

[전문+ -어]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웠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전설 모음(前舌母音)

혀의 앞쪽에서 발음되는 모음(母音). 우리말에는 ‘ㅣ’, ‘애’, ‘배’, ‘귀’, ‘괴’ 따위가 있다.

[혀+ 앞+ 모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킨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오른 손바닥을 얼굴 옆에서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전설음(前舌音) [땡]

혀의 앞부분과 경구개 사이에서 조음되는 소리. 혀앞소리.

[혀+ 앞+ 소리]

=혀앞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킨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오른 손바닥을 얼굴 옆에서 밖으로 내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전성 어미(轉成語尾)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명사 전성 어미, 관형사 전성 어미와 부사 전성 어미로 나뉘며, ‘-기’ · ‘-(으)ㄴ’ · ‘-ㄴ’ · ‘-ㄹ’ · ‘-아/어’ · ‘-게’ · ‘-지’ · ‘-고’ 따위가 있다.

[바꾸다+ 어미]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전음법(轉音法) ㉞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국어 단어를 발음대로 전음하는 방법.

▶ ‘독립문’을 전음법으로 표기하면 ‘Dongnimmun’이 된다.

[발음+ 대로+ 적다+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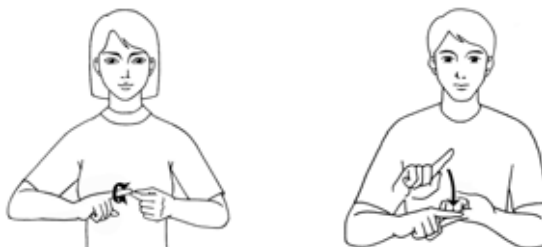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두 번 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전자법(轉字法) ㉞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국어 단어를 글자대로 전자하는 방법.

▶ ‘독립문’을 전자법으로 표기하면 ‘Doklibmun’이 된다.

[글자+ 대로+ 적다+ 법]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전청(全淸) ㉞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 가운데 ‘ㄱ’, ‘ㄷ’, ‘ㅂ’, ‘ㅅ’, ‘ㅈ’, ‘ㅇ’ 따위에 공통 되는 음성적 특질을 이르는 말. 현대 음성학의 무성 자음에 해당한다.

[온전하다+ 맑다]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보게 하였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전탁

전탁(全濁) ㄹ

①훈민정음의 초성 체계 가운데 ‘ㄱ’, ‘ㄷ’, ‘ㅃ’, ‘ㅆ’, ‘ㅈ’, ‘ㅊ’ 따위에 공통되는 음성적 특질을 이르는 말. 훈민정음의 17초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동국정운의 23자모에는 포함된다. ②중국 성운학에서 성모를 분류할 때에 비음(鼻音)을 제외한 유성자음을 이르는 말.

[온전하다+ 흐리다]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보게 하였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눈앞에서 겹치게 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절(節) ㄹ

주어와 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 둘 이상의 문장이 합쳐질 때 사용하는 말. 안긴 문장.

[문장+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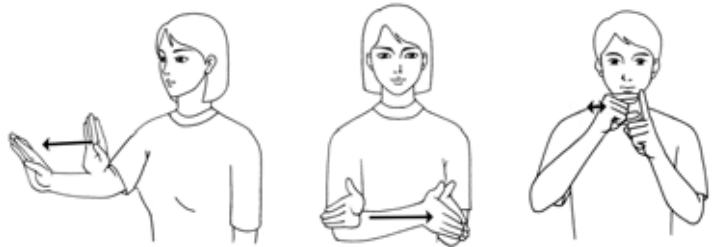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접두사(接頭辭) ㄹ

어근의 앞에 붙는 파생 접사. ‘맨손’의 ‘맨-’, ‘들볶다’의 ‘들-’, ‘시퍼렇다’의 ‘시-’ 따위가 있다. 접두어.

[앞+ 붙다+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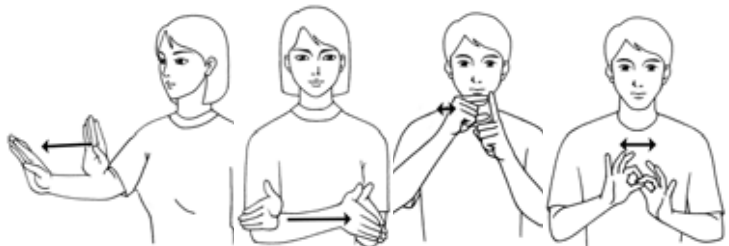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오른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밖으로 내린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接頭辭-派生語)

어근의 앞에 파생 접사(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접두사+ 의하다+ 파생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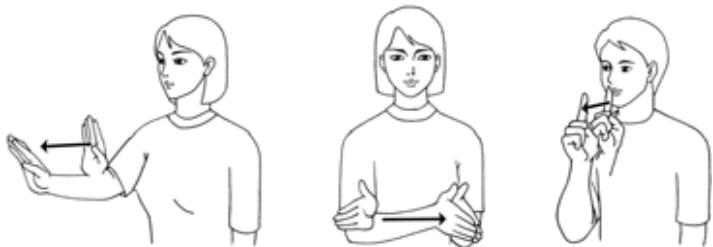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오른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밖으로 내린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고,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이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접두어(接頭語) [명]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로, 어근이나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맨손'의 '맨-', '들볶다'의 '들-', '시퍼렇다'의 '시-' 따위가 있다. 접두사.
[앞+ 붙다+ 말]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오른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밖으로 내민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접미사(接尾辭) [명]

어근의 뒤에 붙는 파생 접사. '선생님'의 '-님', '떡보'의 '-보', '지우개'의 '-개', '떡히다'의 '-히' 따위가 있다.
[마지막+ 붙다+ 단어]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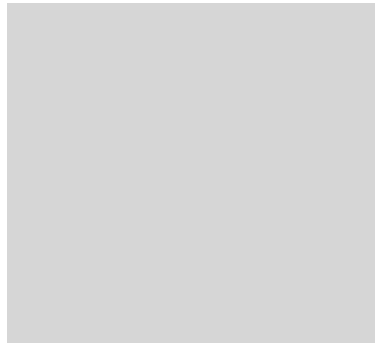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接尾辭-派生語)

어근의 뒤에 파생 접사(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단어.
[접미사+ 의하다+ 파생어]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떴 다음,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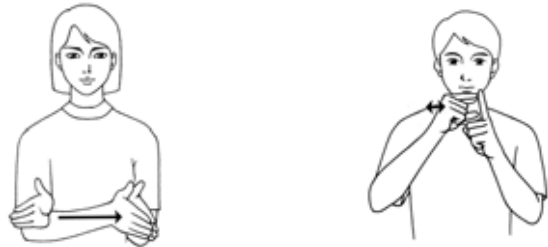
접사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접사(接辭)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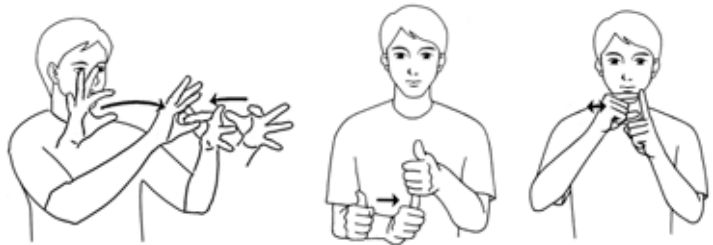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語根)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 접두사(接頭辭)와 접미사(接尾辭)가 있다.
[붙다+ 단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접속 부사(接續副詞)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부사.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하지만' 따위가 있다.
[접속+ 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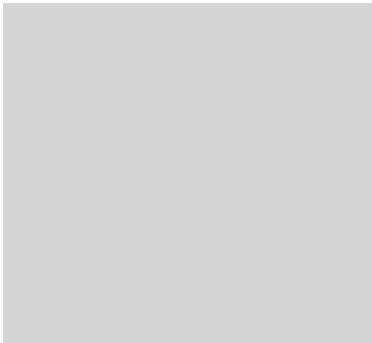
왼손은 손바닥이 안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안쪽에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웠다가 왼 손으로 이동하며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우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접속 부사어(接續副詞語)

문장에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와 같은 문장 접속 부사나 '맞'과 같은 단어 접속 부사.
[접속+ 부사어]



왼손은 손바닥이 안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안쪽에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웠다가 왼 손으로 이동하며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우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접속어(接續語) ㉞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 성분. 국어에서는 주로 접속 부사가 이 구실을 한다. 연결어(連結語).
[접속+ -어(語)]



왼손은 손바닥이 안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안쪽에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웠다가 왼 손으로 이동하며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접속 조사(接續助詞) ㉟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와’, ‘과’, ‘하고’, ‘(이)나’, ‘(이)랑’ 따위가 있다.
[접속+ 조사]



왼손은 손바닥이 안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안쪽에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웠다가 왼 손으로 이동하며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우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댔다 떼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정서법(正書法) ㊦

어떤 문자로써 한 언어를 표기하는 규칙. 맞춤법(-法).
[바르다+ 쓰다+ 법]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으로 코밀을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정서적 의미

정서적 의미(情緒的意味)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감정 등을 드러내는 의미.

[정서+ -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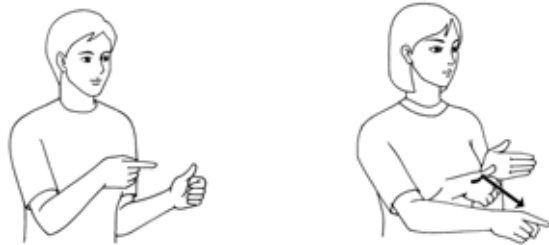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왼쪽으로 두 바퀴 돌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제삼 인칭(第三人稱)

삼인칭(三人稱). 화자와 청자 이외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 ‘그’, ‘그녀’, ‘그이’ 따위이다.

[그+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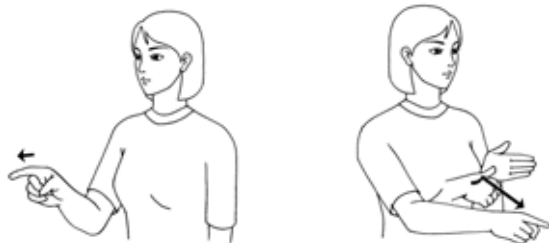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가리킨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민다.

제이 인칭(第二人稱)

듣는 사람을 이르는 인칭. 예를 들어 ‘너는 성실한 사람이다.’에서 ‘너’, ‘자네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네.’에서 ‘자네’ 따위이다. 이인칭(二人稱).

[너+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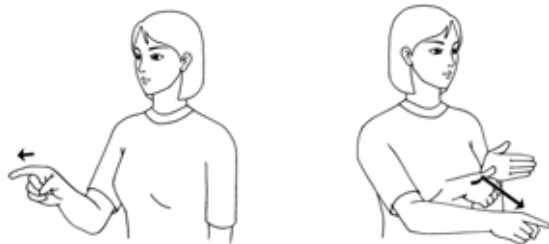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민다.

제이 인칭 대명사(第二人稱代名詞)

듣는 사람을 이르는 인칭으로 ‘너, 너희, 자네’ 따위가 있다.

[제이 인칭+ 대명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약간 내민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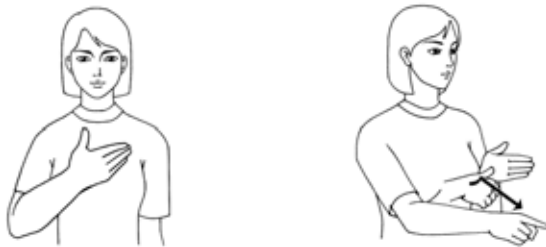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제일 인칭(第一人稱)

말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의 동아리를 이르는 인칭. 예를 들어 '나는 학생이다.'에서 '나', '우리는 소풍을 간다.'에서 '우리' 따위이다. 일인칭(一人稱).

[나+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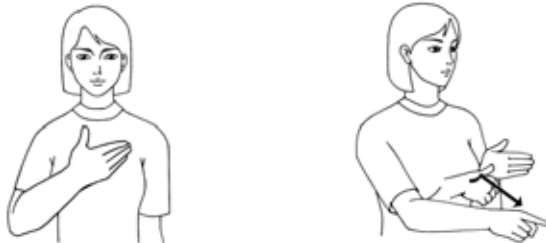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민다.

제일 인칭 대명사(第一人稱代名詞)

말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의 동아리를 이르는 인칭으로, '나, 저, 우리' 따위가 있다.

[일인칭+ 대명사]



오른 손바닥을 가슴 중앙에 댄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제주 방언

제주 방언(濟州方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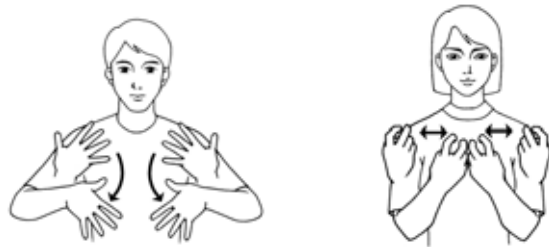
우리나라 지역 방언의 하나.
[제주+ 방언]



왼 주먹의 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오른쪽 밑에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대고 왼쪽으로 돌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조건법(條件法) ㄹ

가정적(假定的) 조건과 이에 대한 귀결을 나타내는 동사의 변화법.
[조건+ 방법]



두 손을 펴서 벌려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동시에 아래로 서서히 내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조사(助詞)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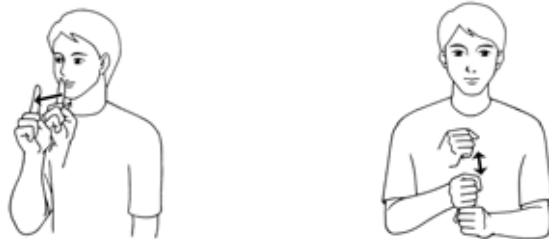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크게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나눈다.
[돕다+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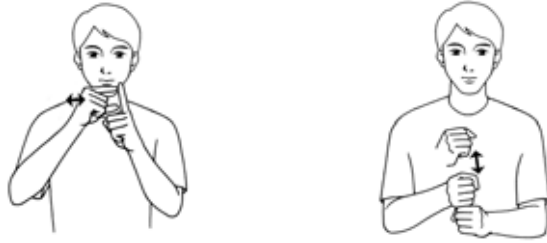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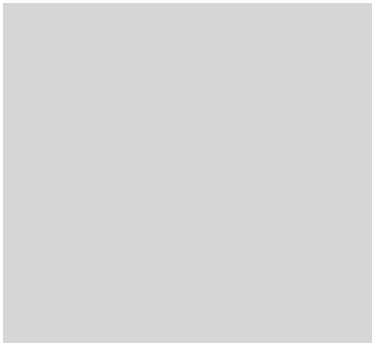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댔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조어(造語) ㄹ ㄹ

① 새로 말을 만들. 또는 그렇게 만든 말.
ㄹ 정치적 영향을 받은 조어는 언어생활에 좋지 않다.
② [언어] 실질 형태소에 다른 실질 형태소나 여러 가지 접사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일.
[①말+ 만들다. ②단어+ 만들다]



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다.



②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뎨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다.

조어론(造語論) [명]

단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하고 체계화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단어 형성론(單語形成論).
[조어+ 논하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뎨다 뎨다.

조어법(造語法) [명]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가 붙거나 실질 형태소끼리 붙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방법.
[조어+ 방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조어 성분(造語成分)

복합어를 구성하는 상위 또는 하위의 말.
[조어+ 성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왼 주먹의 1·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좁혀 5지 끝으로 왼 주먹의 5지 끝을 스쳐 뎨다.

조음

조음(調音) 명 하타 되자

말소리의 산출에 관여하는 발음 기관 즉, 성대, 목젓, 혀, 이, 입술 따위의 움직임을 통틀어 이르는 말.
[말+ 음성+ 조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1지 옆면에 붙이고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인다.

조음 기관(調音器官)

언어음을 만들어 내는 발음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입술, 이, 잇몸, 입천장, 혀, 인두 따위가 있다.
[조음+ 기관]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1지 옆면에 붙이고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이고,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리고,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안쪽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푹 짚은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모로 세위 좌우로 약간 흔들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조음 방법(調音方法)

자음이 만들어질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게 하는 방법.
[조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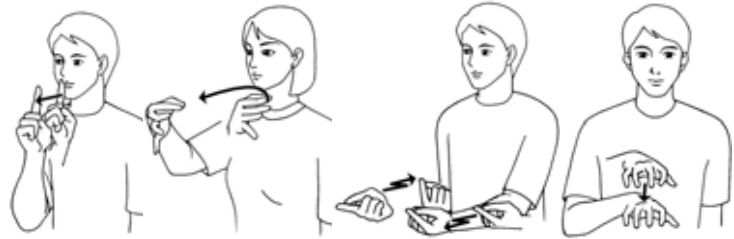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1지 옆면에 붙이고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인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조음부(調音部) ㄹ

발음 기관 가운데에서, 소리를 내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위. 비교적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능동부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고정부로 이루어진다.

[조음+ 부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1지 옆면에 붙이고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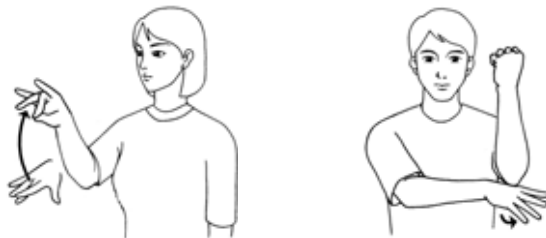
조음소(調音素) ㄹ

두 자음 사이에 끼여 음(音)을 고르게 하는 모음. ‘먹으니’, ‘손으로’에서 ‘-으-’ 따위이다. 매개 모음(媒介母音).

[조음+ 소(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1지 옆면에 붙이고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이고,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댄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며 손가락을 편다.

조음 양식(調音樣式)

자음의 조음 방법에 따른 장애의 형태. 장애의 형태에는 파열, 마찰, 파찰 따위가 있다.

[조음+ 양식]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1지 옆면에 붙이고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인 다음,

조음역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권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조음역(調音域) ㄹ

조음점이 넓은 부위에 걸쳐 있어 점으로 표시할 수 없을 때에 그 부위를 이르는 말.

[조음+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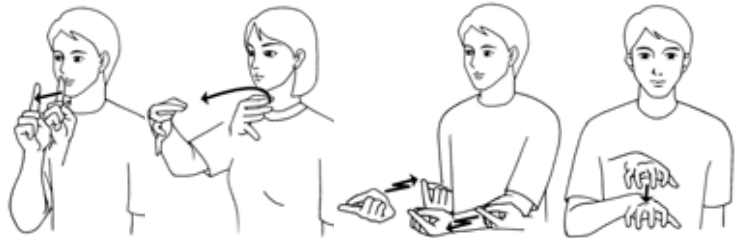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1지 옆면에 붙이고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인 다음, 1·5지를 편 두 주먹을 마주 보게 모로 세워 내린다.

조음 위치(調音位置)

자음이 만들어질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게 되는 위치.

[조음+ 위치]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1지 옆면에 붙이고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춘다.

조음점(調音點) ㄹ

자음의 조음 위치와 관련된 기관 가운데 조음체가 접근하는 자리. 윗입술, 윗니, 윗잇몸, 입천장 따위와 같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발음 기관을 이른다.

[조음+ 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5지를 1지 옆면에 붙이고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전후로 엇갈리게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짧게 내린다.

조차 ㄹ

((흔히 체언 뒤에 붙어))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하여 포함함을 나타낸다.

㉮ 그는 편지는커녕 제 이름조차 못 쓴다.
=도.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한 다음, 2지를 접고 1지 끝이 위로 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존경법(尊敬法) ㄹ

용언의 어간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높임법.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어머나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따위이다. 주체 높임법(主體-法).

[존경+ 법(法)]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으로 받쳐 올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존경어(尊敬語) ㄹ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 '아버님', '선생님' 따위의 직접 높임말, '진지', '따님', '아드님' 따위의 간접 높임말, '뵙다', '여쭙다', '드리다' 따위의 객체 높임말이 있다. 높임말. 존대어(尊待語).

㉮ 반말을 섞어 쓰던 아버지의 말씨는 각뚝한 존경어로 바뀌어 있었다. << 이상문, 황색인 >>

[존경+ -어(語)]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으로 받쳐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대다가 밖으로 내민다.

존대법(尊待法) ㄹ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다. 경어법(敬語法).

[존대+ 법(法)]



4·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을 이마에 대고 상하로 두 번 움직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을 동시에 위로 올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러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존대어

존대어(尊待語)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 '아버님', '선생님' 따위의 직접 높임말, '진지', '따님', '아드님' 따위의 간접 높임말, '뵙다', '여쭙다', '드리다' 따위의 객체 높임말이 있다. 높임말. 존경어(尊敬語).

[존대+ -어(語)]

=존댓말.



4·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을 이마에 대고 상하로 두 번 움직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을 동시에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존댓말(尊待-) 명

높임말.

[존대+ 말]

=존대어.



4·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을 이마에 대고 상하로 두 번 움직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을 동시에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존칭어(尊稱語) 명

높임말.

[존경+ 칭하다(지칭)+ -어(語)]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으로 받쳐 올린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댔다 떼면서 잡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종결 어미(終結語尾)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 동사에는 평서형·감탄형·의문형·명령형·청유형이 있고, 형용사에는 평서형·감탄형·의문형이 있다.

[종결+ 어미]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종결형(終結形) ㄷ

종결 어미로 끝나는 활용형.
[종결+ 형]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종성(終聲) ㄷ

음절의 구성에서 마지막 소리인 자음. '값', '궁'에서 'ㅌ', 'ㅇ' 따위이다.
끝소리.
[마지막+ 소리]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ㄷ

훈민정음에서, 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종성의 제자 원리.
[종성+ 부용(다시+ 사용)+ 초성]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의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붙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종성자

종성자(終聲字) ㄷ

종성을 적는 글자.
[종성+ 글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종성해(終聲解) ㄷ

《훈민정음해례》에서 보인 해례의 하나. 종성의 개념, 운용 방법, 소리의 완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종성+ 풀이]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편 두 손바닥을 'X'자로 포갠다가 양옆으로 벌린다.

종속문(從屬文) ㄷ

한 문장에서 종속 관계에 있는 문장.
[종속+ 문]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으로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끌어들이며 주먹을 쥘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종속적 관계(從屬的關係)

체언에 대한 조사, 용언의 어간에 대한 어미 및 한 단어의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접사의, 그 주된 말에 대한 관계.
[종속+ -적+ 관계]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으로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끌어들이며 주먹을 쥘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종속적 연결 어미(從屬的連結語尾)

앞의 문장을 뒤의 문장에 종속적으로 이어 주는 어말 어미. ‘봄이 오면, 꽃이 핀다.’에서 ‘-면’, ‘겨울이 되니, 날씨가 춥다.’에서 ‘-니’ 따위이다.
[종속적+ 연결 어미]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으로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끌어들이며 주먹을 쥔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자연스럽게 편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고 전후로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從屬的-文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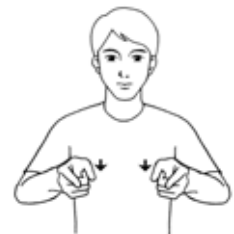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
☞ 날이 따뜻하니까 꽃이 피었다.
[종속적+ 있다+ 문장]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으로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끌어들이며 주먹을 쥔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고리를 만들어 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종속절(從屬節) ㉠

이어진 문장에서, 주절을 한정하는 절. ‘겨울이 되니 날씨가 춥다.’에서 ‘겨울이 되니’ 따위이다.
[종속+ 절]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으로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끌어들이며 주먹을 쥘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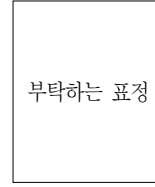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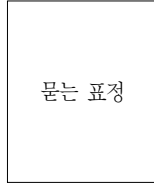
-조

-조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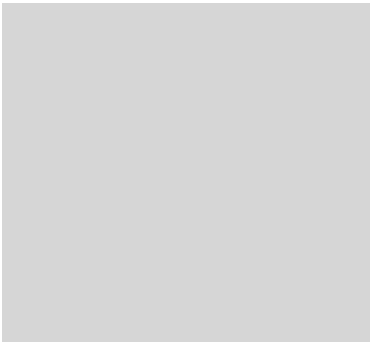
‘-지요’의 준말.

¶ 그만 집에 가죠. 저녁 하늘이 참
 붉죠. 모두 건강하시겠죠?

[①묻는 표정. ②부탁하는 표정. ③
 부탁하다]



- ① 묻는 표정을 짓는대(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②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대(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 ③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주격(主格) ㄷ

문장 안에서, 체언이 서술어의 주어
 임을 표시하는 격. 격 조사 ‘이’, ‘가’,
 ‘께서’, ‘에서’ 따위를 붙여 나타낸다.
 [주+ 격]



-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약간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린다.

주격 조사(主格助詞)

문장 안에서, 체언이 서술어의 주어
 임을 표시하는 격 조사. ‘이/가’, ‘께서’,
 ‘에서’ 따위가 있다.
 [주격+ 조사]



-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약간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주동(主動) ㄷ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
[주체(주인)+ 동작]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약간 위로 올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주동문(主動文) ㄷ

주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그는 밥을 먹는다.', '나는 책을 읽는다.' 따위이다.
[주동+ 문(文)]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약간 위로 올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댔다.

주동사(主動詞) ㄷ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 행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주동+ 단어]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약간 위로 올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주변적 의미

주변적 의미(周邊的意味)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의미.

[주변+ -적+ 의미]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둘레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원을 그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주성분(主成分) ㄷ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인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주되다(주인)+ 성분(일부)]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약간 위로 올린 다음, 왼 주먹의 1·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좁혀 5지 끝으로 왼 주먹의 5지 끝을 스쳐 낸다.

주어(主語) ㄷ

주요 문장 성분의 하나로, 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철수가 운동을 한다.'에서 '철수' 따위이다. 임자말.

[주체(주인)+ 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약간 위로 올린 다음, 5지를 접고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주어부(主語部) ㄷ

문장에서, 주어 단독으로나 주어와 그에 딸린 부속 성분으로 이루어진 부분.

[주어+ 부(部)]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약간 위로 올린 다음, 5지를 접고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댔다가 안으로 원을 크게 그리며 돌려 두 손목을 맞댄다.

주어성 의존 명사(主語性依存名詞)

문장에서 주어로만 쓰는 의존 명사. '할 수가 없다'에서 '수', '말할 나위가 없다'에서 '나위' 따위이다. [주어+ 성(性)+ 의존 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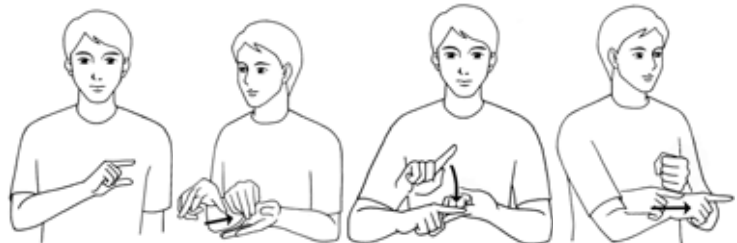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약간 위로 올린 다음, 5지를 잡고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다음.



오른쪽 어깨 앞에서 두 주먹을 상하로 이어대고 윗몸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주제적 의미(主題的意味)

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쓴 사람의 의도가 특별히 드러나는 의미. [주제+ -적+ 의미]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1·2·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등을 대고 안으로 당기며 1·2·5지 끝을 맞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주체 높임법(主體-法)

용언의 어간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높임법.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어머나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따위이다. 주체 존대법. 존경법. [주체(주인)+ 높임법]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약간 위로 올리고,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힌다.

주체 존대법

주체 존대법(主體尊待法)

용언의 어간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높임법.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따위이다. 존경법(尊敬法), 주체 높임법(主體-法).

[주체+ 존대법]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위 약간 위로 올리고, 4·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을 이마에 대고 상하로 두 번 움직인 다음,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 손을 동시에 위로 올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준말 (ㄷ)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 '사이'가 '새'로, '잘가닥'이 '잘각'으로 된 것 따위이다.

[줄이다+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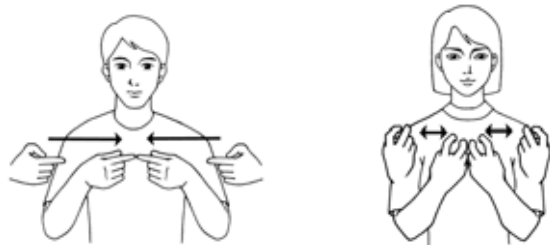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1지 아랫마디에 대고 1지 끝까지 밀어내면서 두 주먹의 1지 끝을 접근시킨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줄임법(-法) (ㄷ)

말의 소리를 줄여서 표시하는 방법.

[줄이다+ 방법]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1지 아랫마디에 대고 1지 끝까지 밀어내면서 두 주먹의 1지 끝을 접근시킨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줄임표(-標) (ㄷ)

안드러냄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할 말을 줄였을 때나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쓴다.

[줄임표를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줄임표(……)를 그린다.

중표(-標) ㄹ

이음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할 때에 쓴다.
[중표를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중괄호(中括弧) ㄷ

묶음표의 하나. 문장 부호 ‘{ }’의 이름이다. 여러 단위를 동등하게 묶어서 보일 때에 쓴다.
[중괄호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중괄호({ })를 그린다.

중모음(中母音) ㄹ

입을 보통으로 열고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하여 발음하는 모음. ‘네’, ‘외’, ‘기’, ‘고’ 따위가 있다.
[중(中)+모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중모음(重母音) ㄹ

이중 모음.
[이중(二重)+모음]
=이중 모음.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끝이 입으로 향하게 하여 넣는 시늉을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중문

중문(重文) ㉠

둘 이상의 홀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병렬문(並列文).

[있다+ 되다+ 문(文)]

=이어진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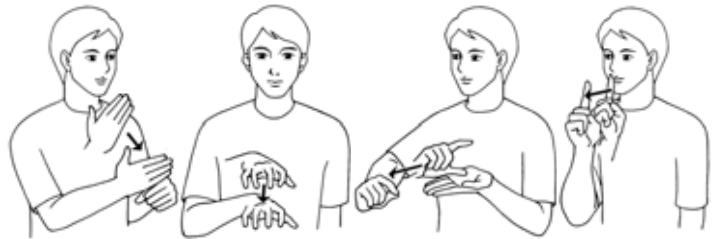


두 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고리를 만들어 걸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쪽 어깨 앞에서 오른손을,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웠다 손등이 밖으로 향하도록 손목을 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중부 방언(中部方言)

대체로 경기도 전역, 충청도·강원도의 대부분의 지역, 황해도의 남부 지역 등지에서 쓰는 방언.

[중부+ 방언]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워 댄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중설 모음(中舌母音)

혀의 가운데 면과 입천장 중앙부 사이에서 조음되는 모음. 국어에서는 ‘ㅡ, ㅜ, ㅛ’ 따위가 있다. 혼합 모음.

[중설+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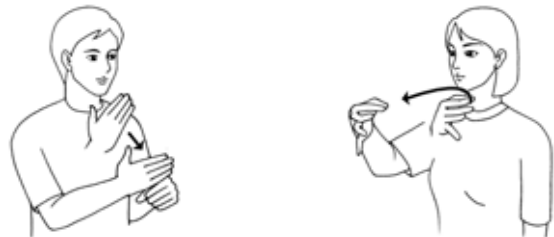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중성(中聲) ㉠

음절의 구성에서 중간 소리인 모음. ‘땅’에서 ‘ㅏ’, ‘들’에서 ‘ㅡ’ 따위이다. 가운데소리.

[중(中)+ 소리]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중성 모음(中性母音)

모음 조화가 있는 언어에서 어떤 모음과도 잘 어울리는 모음. 우리말의 모음 'ㅣ' 따위이다. 중성 홀소리.
[중성(中性)+ 모음]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댄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중성자(中聲字)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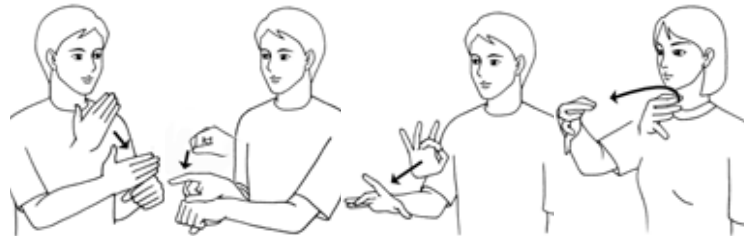
훈민정음의 기본이 되는 글자 가운데서 ‘·, ㅡ, ㅣ’ 세 개의 글자.
[중성+ 글자]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중성 홀소리(中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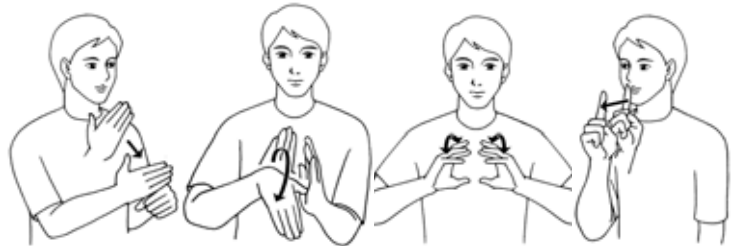
중성 모음(中性母音).
[중성(中性)+ 홀소리]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고, 오른손의 5지와 2지 끝을 맞댔다가 뿜기며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중세 국어(中世國語)

고려가 건립된 10세기 초부터 임진왜란이 발생한 16세기 말까지의 국어. 이 시기의 국어는 성조가 있었고,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으며, 동사 어간끼리의 결합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중(中)+ 시대+ 국어]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리고,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중심적 의미

중심적 의미(中心的意味)

다의어의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의미.

[중심(中(中))+ -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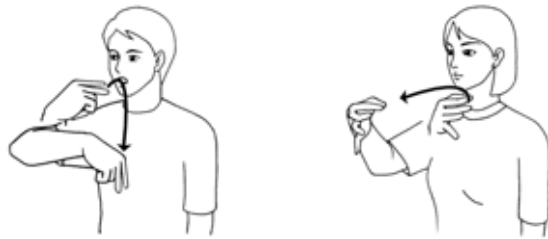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 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우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중음(重音) ㄷ

소리의 처음과 끝이 다르게 나는 소리. 겹소리. 복음(複音).

[이중+ 음(音)]

=겹소리.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손등이 위로 손끝이 입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돌려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중자음(重子音) ㄷ

둘 이상의 단자음으로 이루어진 자음. 겹친 소리의 앞뒤가 바뀌어도 음가(音價)가 달라지지 않는 ‘ㄷ’, ‘ㅌ’ 따위와, 음가가 둘인 ‘ㄱ’, ‘ㅋ’ 따위가 있다. 복자음(複子音).

[이중+ 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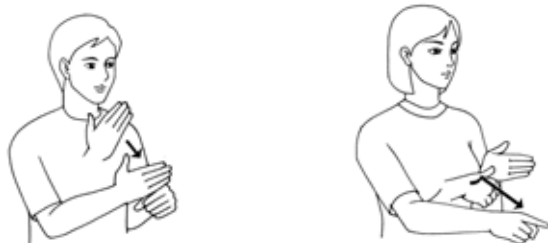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벌려 손등이 위로 손끝이 입으로 향하게 하였다가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돌려 내리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배를 스쳐 내리며 5지 바닥이 보이도록 손목을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중칭(中稱) ㄷ

삼인칭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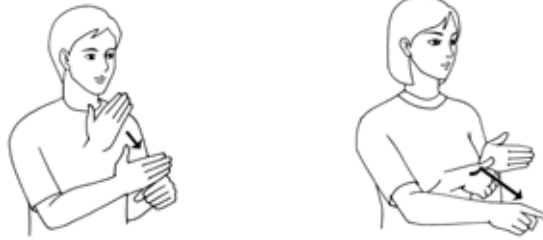
[중(中)+ 지칭]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댄다 떼면서 잡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민다.

중칭 대명사(中稱代名詞)

그리 멀지 아니한 곳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이’, ‘그것’ 따위가 있다.
[중칭+ 대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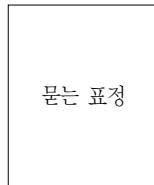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사이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5지를 댄다 떼면서 접고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내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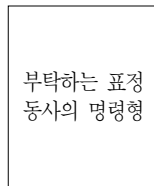
-지 (어미)

((용언 어간이나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나도 가지. 언제 오시지? 자네는 그만 떠나지. 이곳도 경치 좋은 곳이 있지.



① 묻는 표정을 짓는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②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물음표(?)를 그린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①묻는 표정. ②물음표. ③부탁하는 표정. 동사의 명령형. ④부탁하다]



③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다. 동사의 명령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표시한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④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지마는

-지마는 어미

((‘이다’,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지만.

¶ 잘한 일이지마는 자랑할 일은 아니다. 비가 오지마는 꼭 가야 합니다. =-지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지만 어미*

‘-지마는’의 준말.

¶ 그는 어렵게 살지만 얼굴에 그늘이 없다. 어려운 일이지만 참아 보기로 하자.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지시 관형사(指示冠形詞)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는 관형사. ‘이’, ‘저’, ‘그’, ‘다른’ 따위가 있다.

[지시+ 관형사]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가리키며 내밀고,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지시 대명사(指示代名詞)

어떤 사물이나 처소 따위를 이르는 대명사. ‘그’, ‘이것’, ‘어디’, ‘무엇’ 따위가 있다. 사물 대명사.
[지시+ 대명사]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가리키며 내민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뎠다.

지시 부사(指示副詞)

처소나 시간을 가리켜 한정하거나 앞의 이야기에 나온 사실을 가리키는 부사. ‘이리’, ‘그리’, ‘내일’, ‘오늘’ 따위가 있다.
[지시+ 부사]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가리키며 내밀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뎠다.

지시 형용사(指示形容詞)

사물의 성질, 시간, 수량 따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나타내는 형용사. ‘그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따위가 있다.
[지시+ 형용사]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끝으로 가리키며 내밀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뎠다.

지역 방언(地域方言)

지역에 따라 달라진 언어.
[지역+ 방언]



1·5지를 편 두 주먹을 마주 보게 모로 세워 내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서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이동하며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지역 언어학

지역 언어학(地域言語學)

지리적 분포를 달리하는 두 개의 대
등한 언어 형식이나 음성 또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언어 이론.
[지역+ 언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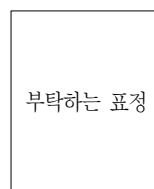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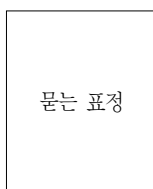
1·5지를 편 두 주먹을 마주 보게 모로 세워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지요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았-’, ‘-겠-’ 뒤에 붙어))
종결 어미 ‘-지’에 보조사 ‘요’가 결합
한 말.

¶ 어서 가지요. 그만 떠나시지요. 모
두 건강하시겠지요?

[①묻는 표정. ②부탁하는 표정. ③
부탁하다]



① 묻는 표정을 짓는다(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② 부탁하는 표정을 짓는다(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③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다(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지정사(指定詞) (ㄷ)

최현배 문법 체계에 설정된 품사의
하나. 무엇이 무엇이라고 지정하는
단어로, 긍정의 ‘이다’와 부정의 ‘아
니다’가 있다. 형식 용언(形式用言).
[지정+ 단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한 곳을 가리킨 다음,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으로 가슴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치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댈다.

직접 높임(直接-)

말하는 이가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임.

[직접+ 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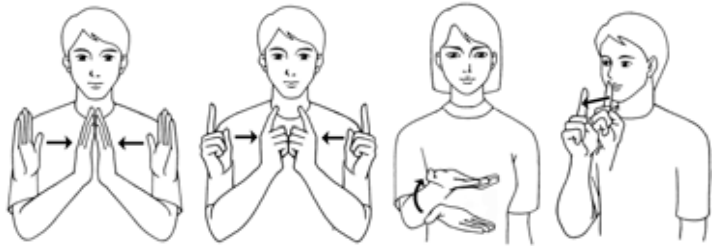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바닥을 맞댔다가 벌려 주먹을 쥐고 1지를 펴서 다시 맞댄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다.

직접 높임말(直接-)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말. ‘아버님’, ‘선생님’ 따위가 있다.

[직접+ 높임말]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바닥을 맞댔다가 벌려 주먹을 쥐고 1지를 펴서 다시 맞댄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직접 목적어(直接目的語)

목적어의 하나. 목적격 조사가 붙은 것으로, ‘철수에게 돈을 주었다.’에서 ‘돈을’을 이른다.

[직접+ 목적어]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바닥을 맞댔다가 벌려 주먹을 쥐고 1지를 펴서 다시 맞대고, 동그랗게 쥐고 모로 세운 왼 주먹의 1·5지 사이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넣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직접 인용절(直接引用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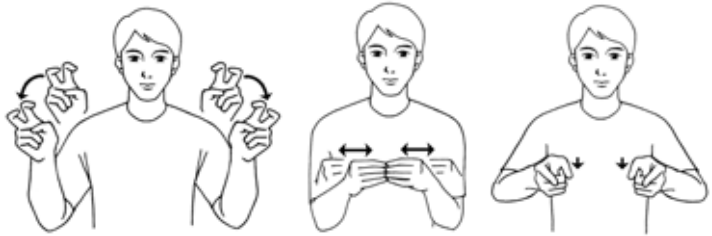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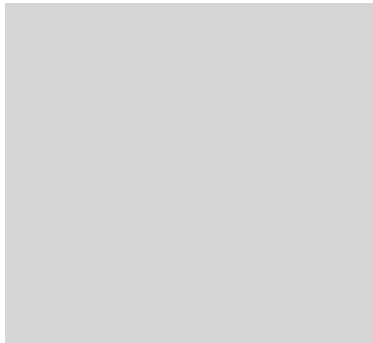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는 절. 직적 인용절에는 ‘라고’가 쓰인다.

[직접+ 인용절]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바닥을 맞댔다가 벌려 주먹을 쥐고 1지를 펴서 다시 맞댄 다음,

직접적인 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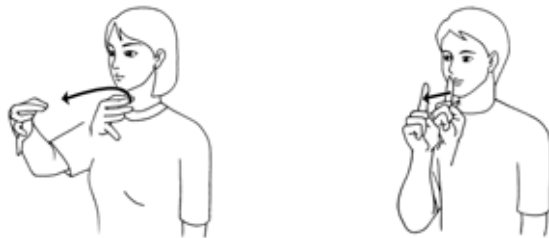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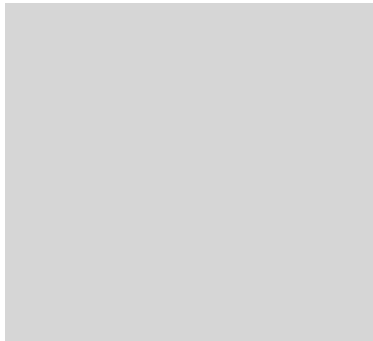
두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구부려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고 바닥이 마주보게 하여 약간 내린다.

직접적인 발화(發話)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직접 요청하는 형식으로 하는 말.
[직접+ -적+ 발화]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바닥을 맞댔다가 벌려 주먹을 쥐고 1지를 펴서 다시 맞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직접 화법(直接話法)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직접 되풀이하는 화법.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 따위이다.
[직접+ 화법]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바닥을 맞댔다가 벌려 주먹을 쥐고 1지를 펴서 다시 맞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진술 부사(陳述副詞)

말하는 이의 뜻을 베푸는 태도에 관한 부사. 전통 문법에서는 양태 부사 또는 양상 부사라 한다. 화식부사(話式副詞).

[진술+부사]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왼 손바닥으로 받치고 전후로 두 번 흔들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뎀다.

진행상(進行相) ㄷ

움직임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동사 동작상. 현재 진행상, 과거 진행상, 미래 진행상이 있다.

[진행+상(相)]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서로 엇갈리게 두 번 흔든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붙여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왼쪽 허리 앞으로 내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진행시(進行時) ㄷ

움직임이 계속됨을 나타내는 시제.

[진행+시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서로 엇갈리게 두 번 흔든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붙여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왼쪽 허리 앞으로 내리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을 대고 1·2지를 밖으로 돌린다.

ㅈ [쌍지읒]*

한글 자모 ‘ㅈ’의 된소리 글자.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세워 오른쪽으로 한 번 옮긴다.

짧은 부정문

짧은 부정문(-否定文)

부정 부사 ‘안, 못’을 사용하여 만든 부정문. 선행부정.

[짧다+ 부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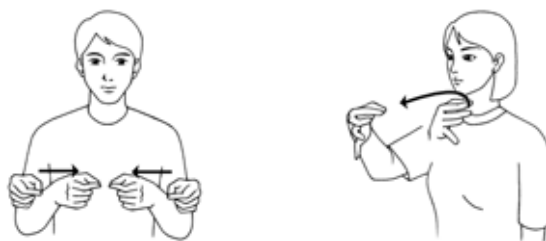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모로 세워 좌우에서 접근시켜 맞댄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대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짧은소리 [명]

짧게 내는 소리. 단음(短音).

[짧다+ 음성]

=단음.



1·5지 끝을 맞댄 두 주먹을 모로 세워 좌우에서 접근시켜 맞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ㅈ

ㅈ[치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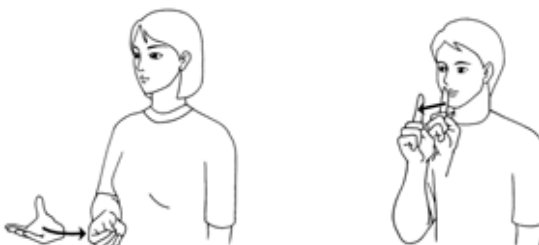
한글 자모의 열째 글자.



오른 주먹의 1·2·3·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세운다.

차용어(借用語) ㉸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 외래어(外來語).
[차용+ -어(語)]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면서 손끝을 맞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차청(次淸) ㉸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 가운데 ‘ㄱ’, ‘ㄷ’, ‘ㄹ’, ‘ㅈ’, ‘ㅊ’ 따위에 공통되는 음성적 특질을 이르는 말.
[다음+ 맑다]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 어깨 위에서 밖으로 반원을 그리며 내밀고,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얼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처럼

처럼 [조]*

((체언 뒤에 붙어)) 모양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음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새처럼 날고 싶다.

[혀(맛)+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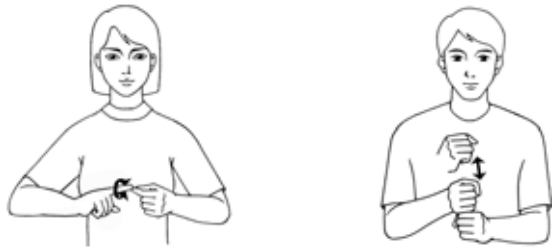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아랫입술에 댄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1·5지를 붙인다.

철자(綴字) [명] [하타]

자음과 모음을 맞추어 음절 단위의 글자를 만드는 일. ‘ㄱ’과 ‘ㄴ’을 맞추어 ‘가’를 만드는 것 따위이다.

[글자+ 만들다]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린다.

철자법(綴字法) [명]

①어떤 문자로써 한 언어를 표기하는 규칙. 맞춤법(-法).

㉠ 맞춤법에 맞게 글을 고치다.

②한글 맞춤법.

[철자+ 법]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첨가(添加) [명] [하타] [되자]*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더구나. 더욱. 추가. 하물며. 한층.



1·5지를 펴서 1지가 위에 5지가 아래에 놓이게 하여 약간 구부린 오른 주먹을 같은 모양의 왼 주먹의 5지 밑에 댔다가 왼 주먹의 1지 위에 올려놓는다.

첨가어(添加語) ㄹ

교착어(膠着語). 언어의 형태적 유형의 하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로, 한국어·터키어·일본어·핀란드어 따위가 여기에 속한다.

[첨가+ -어(語)]



1·5지를 펴서 1지가 위에 5지가 아래에 놓이게 하여 약간 구부린 오른 주먹을 같은 모양의 왼 주먹의 5지 밑에 댄다가 왼 주먹의 1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첫소리 ㄹ

음절의 구성에서 처음 소리인 자음. ‘님’에서 ‘ㄴ’ 따위이다. 초성(初聲).

[처음+ 소리]

=초성.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붙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청각 영상(聽覺映像) ㄹ

하나의 음 또는 몇 개의 음에 대한 심상(心像)을 이르는 말.

[청각+ 영상]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귀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옆으로 향하게 벌린 두 손을 약간의 간격을 두고 겹치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청유문(請誘文) ㄹ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 청유형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데 ‘귀중한 문화재 빠짐없이 등록하자.’ 따위이다.

[청유(요청)+ 문(文)]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청유법

청유법(請誘法) ㉞

문장에서 종결 어미에 나타나는 서법의 하나.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한다. ‘-자’, ‘-자꾸나’, ‘-세’, ‘-읍시다’ 따위의 어미로 표현된다.

[청유(요청)+ 법]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청유형(請誘形) ㉞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자’, ‘-자꾸나’, ‘-세’, ‘-읍시다’ 따위가 붙는 꼴이다.

[청유+ 형]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손을 모로 세워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상하로 두 번 흔든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청유형 종결 어미(請誘形終結語尾)

청유형의 어말 어미.

[청유형+ 종결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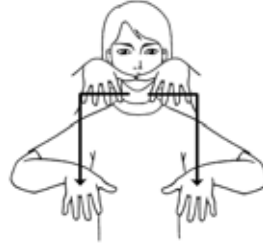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손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상하로 두 번 흔든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체계(體系) ㄷ

단어들이 이루고 있는 조직.
[짜인 모양새를 나타내는 동작]
=시스템.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맞댔다가 약간 벌려 내린다.

체언(體言)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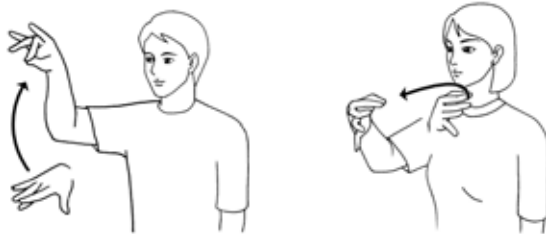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몸+ 말]
=몸말.



오른 손바닥으로 가슴과 배에 크게 원을 그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초성(初聲)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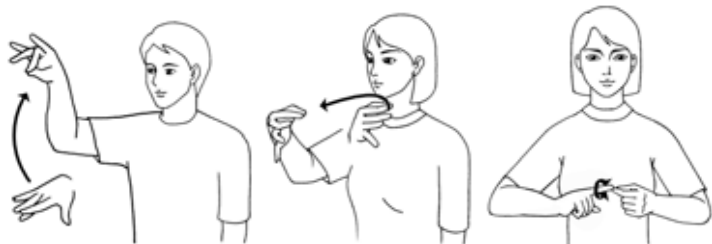
음절의 구성에서 처음 소리인 자음.
'님'에서 'ㄴ' 따위이다. 첫소리.
[초(初)+ 소리]
=첫소리.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붙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초성자(初聲字) ㄷ

훈민정음의 기본이 되는 글자 가운데서 'ㄱ, ㄴ, ㄷ, ㄱ, ㅅ, ㅇ' 다섯 개의 글자.
[초성+ 글자]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붙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추상 명사

추상 명사(抽象名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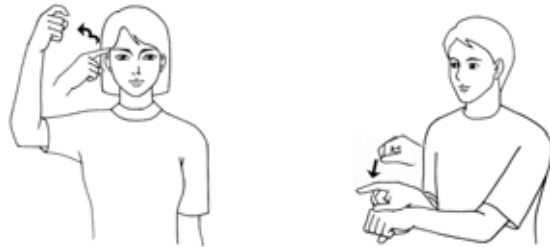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 '사랑', '희망', '삶' 따위가 있다.
[추상+ 명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두 번 구부렸다 펴며 밖으로 올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뎨다.

추상성(抽象性)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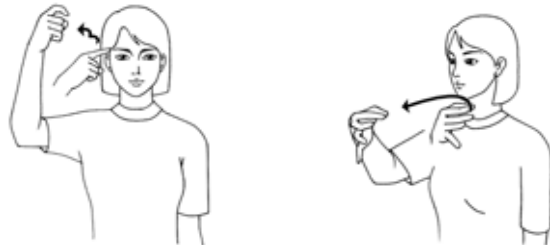
실제로나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성질. 또는 그런 경향.
[추상+ 성질]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두 번 구부렸다 펴며 밖으로 올린 다음, 왼 주먹 등에 오른 주먹의 바닥을 대며 1지를, 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다.

추상음(抽象音)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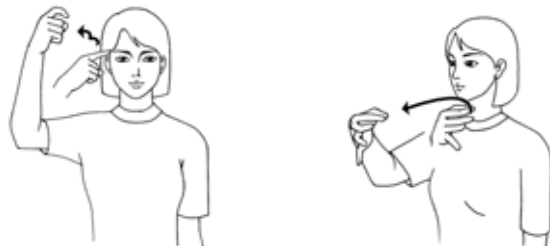
실제의 발음에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나 귀로 들을 때는 구분하지 못하여 머릿속에서는 같다고 생각하는 소리. 추상 음성(抽象音聲).
[추상+ 음(音)]
=추상 음성.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두 번 구부렸다 펴며 밖으로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추상 음성(抽象音聲)

실제의 발음에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나 귀로 들을 때는 구분하지 못하여 머릿속에서는 같다고 생각하는 소리. 추상음(抽象音).
[추상+ 음성]
=추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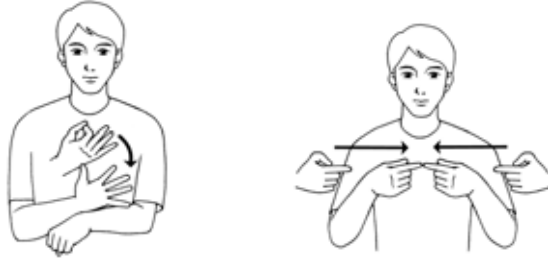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두 번 구부렸다 펴며 밖으로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축약(縮約) ㄹ ㅎ타 ㄷ자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 ‘종고’가 ‘조코’로, ‘국화’가 ‘구과’로, ‘가리+어’가 ‘가러’로, ‘되+어’가 ‘돼’로 되는 것 따위이다.

[간략하다+ 줄이다]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오른손을, 주먹 등이 위로 향한 왼 팔등에 내려놓으며 15지를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1지 아랫마디에 대고 1지 끝까지 밀어내면서 두 주먹의 1지 끝을 접근시킨다.

축약어(縮約語)

축약된 말.

[축약+ -어(語)]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든 오른손을, 주먹 등이 위로 향한 왼 팔등에 내려놓으며 15지를 편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1지 아랫마디에 대고 1지 끝까지 밀어내면서 두 주먹의 1지 끝을 접근시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취음(取音) ㄹ ㅎ타

①본래의 뜻이나 철자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음만 취하는 일. ②본래 한자어가 아닌 낱말에 그 음만 비슷하게 나는 한자로 적는 일. 예를 들어 ‘생각’을 ‘生覺’으로, ‘각시’를 ‘閻氏’로 적는 것 따위를 이른다.

[음(音)+ 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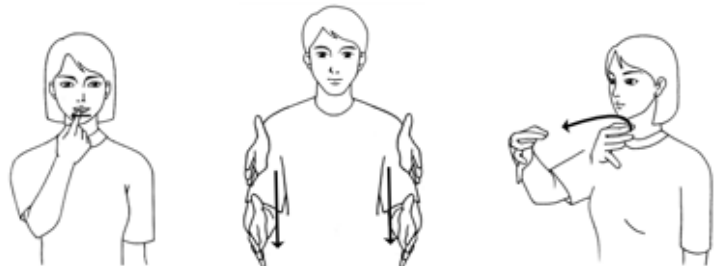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손바닥이 왼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안으로 당기며 주먹을 쥘다.

치간음(齒間音) ㄹ ㅎ타

혀끝이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놓여 이 사이에서 마찰되어 나는 소리. 잇사이소리.

[이+ 사이+ 소리]

=잇사이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위 어깨 높이에서 기슴 높이로 내리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치경음

치경음(齒莖音) ㄷ

혀끝과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한글의 ‘ㄷ’, ‘ㅌ’, ‘ㄸ’, ‘ㄴ’, ‘ㄹ’ 따위가 있다. 잇몸소리. 치조음(齒槽音).

[잇몸+소리]

=잇몸소리. 치조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잇몸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치고 ㄷ

((체언 뒤에 붙어)) ①‘그 전체가 예외 없이’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부정을 뜻하는 말이 뒤따른다.

¶ 남의 목숨 초개처럼 이는 사람치고 제 목숨은 천금처럼 알고 떨지 않는 사람 없다더니... <<박완서, 미망>>
=중(中).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다.

②‘그중에서는 예외적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겨울 날씨치고 따뜻하다.
=그런데.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치고는 ㄷ

①‘치고①’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말.

¶ 새끼치고는 예쁘지 않은 것이 없다.
=중(中).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다.

②'치고②'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말.

¶ 짧은 사람치고는 짐작다. 서양 사람치고는 키가 작다.
=그런데.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반원을 그리며 뒤집는다.

치고서 ㄹ

'치고'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우리 학교 학생치고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글자 '中'(중)을 나타내는 동작]
=중(中).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다.

치성(齒聲) ㅁ

혀끝과 윗니 또는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현대 국어에서 '스', '쓰', '니', '르' 따위를 이른다. 치음(齒音).
[이+소리]
=잇소리. 치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치음(齒音) ㅁ

혀끝과 윗니 또는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현대 국어에서 '스', '쓰', '니', '르' 따위를 이른다. 잇소리.
[치아+음성]
=잇소리. 치성.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치조음

치조음(齒槽音) [명]

혀끝과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한글의 ‘ㄷ’, ‘ㄷ’, ‘ㄸ’, ‘ㄴ’, ‘ㄹ’ 따위가 있다. 잇몸소리. 치경음(齒莖音).

[잇몸+ 소리]

=잇몸소리. 치경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잇몸에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치찰음(齒擦音) [명]

혀끝과 잇몸의 뒷부분이 좁아져서 나는 소리.

[치아+ 마찰+ 음(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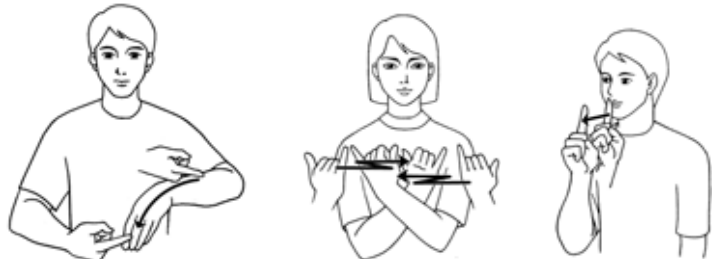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치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대고 비비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친족어(親族語) [명]

같은 기원(起源), 즉 동일한 조어(祖語)로부터 퍼져 나온 언어.

[친족+ -어(語)]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왼팔 등을 스쳐 내린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좌우로 엇갈리게 움직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ㅋ

ㅋ[키읃]*

한글 자모의 열한째 글자.



오른 주먹의 1지를 반쯤 굽히고 2·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아래로 향하게 세운다.

커녕 ㄱ

((체언 뒤에 붙어)) ①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밥커녕 죽도 못 먹는다.

②'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리어'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상커녕 벌을 받았다.



손등이 위로 향하게 손끝을 모아 쥘 두 손을 가슴 앞에서 전후로 놓았다가 동시에 반원을 그리며 움직여 두 손의 위치를 반대로 바꾸어 놓는다.

컴퓨터통신언어(computer通 信言語)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사용되는 언어.

[컴퓨터+통신+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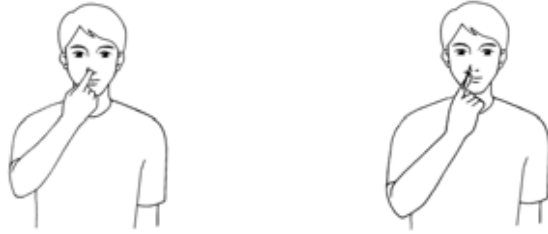
오른손을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5지 등을 손등이 위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손등에 대고 좌우로 두 번 이동한 다음, 두 손의 1지 끝을 포개어 좌우로 비스듬히 세우고 2지를 5지에 대고 튕기며 약간 벌려 밖으로 내미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코안

코안 (명)

코구멍에서 목젖 윗부분에 이르는 빈 곳. 냄새를 맡고, 공기 속의 이물을 제거하며, 들이마시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비강.

[코+코속을 가리키는 동작]
=비강.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에 댄 다음, 그 끝으로 코 속을 가리킨다.

콜론(colon) (명)

쉼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내포되는 종류를 들거나 작은 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 쓰며,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거나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 그리고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 쓴다. 쌍점(雙點).

[콜론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쌍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점을 찍고, 그 밑에서 다시 한 번 점을 찍는다.

콤마(comma) (명)

쉼표의 하나. 가로쓰기에 쓰는 문장 부호 ‘,’의 이름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낼 때에 쓴다. 반점(半點).

[콤마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반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콤마(,)를 그린다.

코길 (명)

말소리를 낼 때 폐에서 나온 기류가 통과하는, 코에서 목구멍까지의 길.

[코길을 나타내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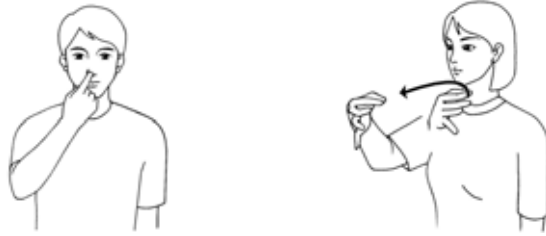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코에서 목까지 코길을 따라 내린다.

콧소리 ㄹ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 ‘ㄹ’, ‘ㅇ’ 따위가 있다. 비음(鼻音).

[코+소리]

=비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코에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큰따옴표(-標) ㄹ

따옴표의 하나. 가로쓰기에 쓰는 문장 부호 “ ”의 이름이다.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을 인용할 때에 쓴다.

[큰따옴표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두 주먹의 1·2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구부려 오른손은 왼쪽으로, 왼손은 오른쪽으로 돌린다.

큰말표(-標) ㄹ

뒷말에 대하여 앞말이 큰말임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 부호 ‘>’의 용어.

[큰말표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내리다가 왼쪽으로 비스듬히 내린다.

큰말 ㄹ

단어의 실질적인 뜻은 작은말과 같으나 표현상 크고, 어둡고, 무겁고, 약하게 느껴지는 말. ‘살랑살랑’에 대한 ‘설렁설렁’, ‘출출’에 대한 ‘철철’, ‘생글생글’에 대한 ‘싱글싱글’ 따위이다.

[크다+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ㅌ

ㅌ[티을]*

한글 자모의 열두째 글자.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쥘 오른 주먹의 1·2·3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2·3지는 붙이고 1지는 뻗는다.

타동사(他動詞)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밥을 먹다’의 ‘먹다’, ‘노래를 부르다’의 ‘부르다’ 따위이다.
[다르다+ 동사]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손등을 두 번 땀다 뻗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잇갈리게 흔들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땀다 뻗다.

탈락(脫落) ㅌ (하자 되자)

두 개의 음운이 만났을 때 어는 한 음운이 탈락하는 것. ‘가+아서’가 ‘가서’로, ‘울+는’이 ‘우는’이 되는 것 따위이다.
[떨어내는 동작]
=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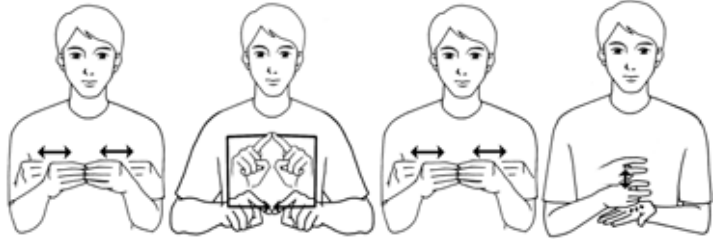


왼손을 펴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바닥을 손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오른손의 손등으로 스쳐 내린다.

텍스트 문법(text文法)

문장보다 더 큰 단위의 언어 구조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해리스(Harris, Z.)의 담화 분석을 기원으로 하며, 현대 유럽 언어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트(문장+ 덩어리)+ 문법]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대는 동작을 한 다음,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네모를 그리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대는 동작을 한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토록 조

((일부 체언 뒤에 붙어)) 앞말이 나타내는 정도나 수량에 다 차기까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그는 평생토록 신념을 잃지 않고 살았다.

[어떤 곳에 이름을 나타내는 동작] =이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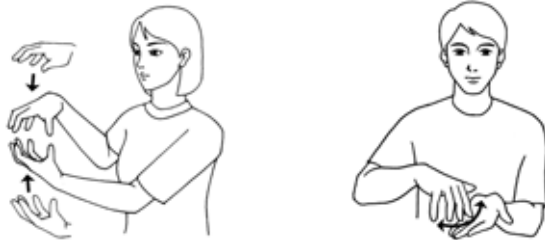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오른쪽으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을 약간 구부려 끝을 오른쪽에서부터 왼 손바닥에 가져다 대는 동작을 천천히 크게 한다.

통계 언어학(統計言語學)

어휘, 문법 형태, 음성, 문자 따위와 같은 언어의 여러 측면을 확률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응용 언어학.

[통계+ 언어학]



손가락을 구부린 두 손을 상하로 마주 보게 하여 합친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대고 좌우로 흔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앞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통사

통사(統辭) ㄹ

문장.
=문장.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통사론(統辭論) ㄹ

문장을 기본 대상으로 하여 문장의 구조나 기능, 문장의 구성 요소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문장론(文章論).
[문장+ 논하다]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통사적 사동문(統辭的使動文)

통사적 사용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동문.
[통사적+ 사동문]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댔다.

통사적 사동법(統辭的使動法)

'-게 하다'를 사용하여 사동문을 만드는 법.

[통사적+사동법]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민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1,2지를 펴서 구부러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힌다.

통사적 피동문(統辭的被動文)

통사적 피동법에 의해 만들어진 피동문.

[통사적+피동문]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통사적 피동법

통사적 피동법(統辭的被動法)

‘-되다, -어지다, -게 되다’를 사용하여 피동문을 만드는 법.

[통사적+ 피동법]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통시 언어학(通時言語學)

어떤 언어 현상을 여러 시대에 걸쳐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역사 언어학(歷史言語學).

[역사+ 언어학]

=역사 언어학.



4·5지를 펴서 세운 두 손을 마주 댔다가 오른손만 약간 흔들면서 아래로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앞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다.

통합적 관계(統合的關係)

하나의 언어 요소가 다른 언어 요소와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연쇄적으로 결합할 때 생기는 관계.

[통합+ -적+ 관계]



두 손을 펴서 벌려 가운데로 모으다가 오른 주먹을 쥐며 1지를 펴서 세워 위로 올린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대고, 두 손의 1·5지로 고리를 만들어 끼고 좌우로 두 번 움직인다.

ㅍ

ㅍ [피음]*

한글 자모의 열셋째 글자.



손등이 안으로 향하게 세운 오른손의 1·2·3·4·5지를 반쯤 굽힌다.

파생법(派生法) ㉮

실질 형태소에 접사를 붙여 파생어를 만드는 단어 형성 방법.

[파생(더불다+ 나오다)+ 방법]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파생어(派生語) ㉮

‘파생 접사+ 어근’ 또는 ‘어근+ 파생 접사’의 구성으로 된 복합어. 명사 ‘부채’에 ‘-질’이 붙은 ‘부채질’, 동사 어간 ‘뒹-’에 접미사 ‘-개’가 붙은 ‘뒹개’, 명사 ‘버선’ 앞에 접두사 ‘덧-’이 붙은 ‘덧버선’ 따위가 있다.

[파생(갈라지다+ 생기다)+ -어(語)]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다.

파생적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派生的使動文)

파생적 사동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동문.

[파생적+사동문]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민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파생적 사동법(派生的使動法)

동사,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결합된 파생어를 이용하여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

[파생적+사동법]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내민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1·2지를 펴서 구부러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파생적 피동문(派生的被動文)

파생적 피동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동문.

[파생적+ 피동문]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파생적 피동법(派生的被動法)

타동사의 어근에 피동접미사(‘-이-, -히-, -리-, -기-, -되-)가 결합된 파생어를 이용하여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

[파생적+ 피동법]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1·2지를 펴서 구부러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파생 접사

파생 접사(派生接辭)

접두사, 접미사 따위의 접사를 굴곡 접사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파생+ 접사]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 다음, 왼손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ㄷ'자 모양이 되게 하고, 그 사이로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한 오른손을 올리고,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파열음(破裂音) ㄷ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ㄱ', 'ㄴ', 'ㅇ', 'ㄷ', 'ㄸ', 'ㅌ', 'ㄷ', 'ㅌ', 'ㅋ' 따위가 있다.

[파열(터지다)+음성]



두 손을 오므려 입 앞에서 전후로 맞댔다가 빠르게 양옆으로 벌리며 손가락을 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파찰음(破擦音) ㄷ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소리. 'ㅈ', 'ㅉ', 'ㅊ' 따위가 있다.

[파열(터지다)+마찰+음(音)]



두 손을 오므려 입 앞에서 전후로 맞댔다가 빠르게 양옆으로 벌리며 손가락을 편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두 손의 손바닥을 맞대고 비비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판정 의문문(判定疑問文)

의문사 없이 긍정(‘예’), 부정(‘아니오’)의 어느 한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내일 가니?’, ‘숙제 했니?’ 따위이다.

[판정+ 의문문]



두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으로 가슴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을 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팔종성(八終聲) ㉞

종성으로 쓰인 여덟 자의 자음을 이르는 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다.

[팔(八)+ 종성]



4지만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벌린 오른손을 등이 밖으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팔종성가족용법(八終聲可足用法) ㉞

훈민정음 해례의 종성해에 있는 받침 규정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여덟 글자가 받침으로 충분하다는 말.

[팔종성+ 충분+ 사용+ 법]



4지만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벌린 오른손을 등이 밖으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오른손을 펴서 손끝을 왼쪽 가슴에 댔다가 오른쪽 가슴에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팔중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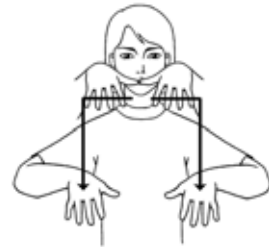
팔중성 체계(八終聲體系)

중성으로 팔중성을 사용한 표기 체계. 휴지(休止)나 자음 앞에서 ‘ㅅ’, ‘ㅈ’, ‘ㅊ’, ‘ㅌ’은 ‘ㅅ’이 되고, ‘ㄱ’은 ‘기’, ‘ㄷ’은 ‘디’, ‘ㄹ’은 ‘남’으로 되며, ‘ㅇ’은 음가가 없어 중성에 쓰이지 않으므로 중성에는 결국 여덟 자만 나타난다.

[팔중성+ 체계]



4지만 잡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벌린 오른손을 등이 밖으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맞댔다가 약간 벌려 내린다.

평서문(平敍文) 평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 혹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문장. 평서형 어미로 문장을 끝맺는데 ‘하얀 눈이 왔다.’ 따위이다.

[일반(보통)+ 서술+ 문장]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평서법(平絨法) ㄷ

문장에서 종결 어미에 나타나는 서법의 하나. 화자가 문장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한다. ‘-다’, ‘-습니다’ 따위의 어미로 표현된다.

[일반(보통)+ 서술+ 방법]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닿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1·2지를 펴서 구부러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평서형(平絨形) ㄷ

용언 및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의 하나. ‘-다’, ‘-오’ 따위의 예사로 온 종결 어미가 붙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문장 형태이다.

[일반(보통)+ 서술+ 형(形)]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닿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평서형 종결 어미

평서형 종결 어미(平敍形終結語尾)

평서형의 어말 어미.
[평서형+종결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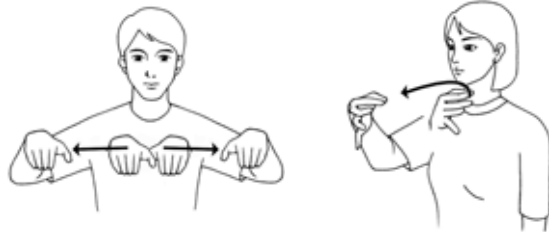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닿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는다.

평성(平聲) ㄷ

① 한자음 사성의 하나. 낮고 순평한 소리이다. ②중세 국어 사성(四聲)의 하나. 낮은 소리이다.
[평평하다+소리]
=평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의 5지 옆면을 맞닿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평순(平唇) ㄹ

발음할 때에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입술.
[평평한 입술을 나타내는 동작]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입에 댈다.

평순 모음(平唇母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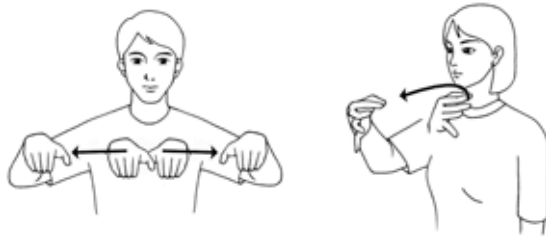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 ‘ㅣ’, ‘ㅡ’, ‘ㄱ’, ‘ㄴ’, ‘ㅈ’, ‘ㅋ’, ‘기’ 따위가 있다.
[평순+ 모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입에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잡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평음(平音) ㄹ

구강 내부의 기압 및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파열되는 음. 국어의 된소리 ‘ㄱ’, ‘ㄷ’, ‘ㅃ’, ‘ㅆ’, ‘ㅈ’에 대하여 ‘ㄱ’, ‘ㄷ’, ‘ㅈ’, ‘ㅅ’, ‘ㅆ’ 따위를 이른다. 예사소리(例事-).
[평평하다+ 음(音)]
=평성.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의 5지 옆면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폐모음(閉母音)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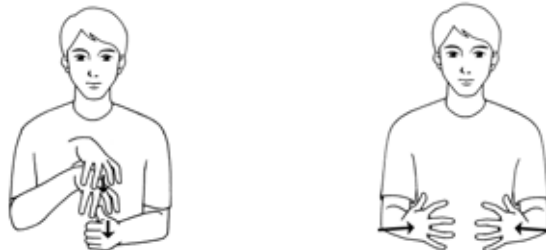
고모음(高母音).
[닫다+ 모음]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접근시켜 마주 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떼며 1지를 잡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폐쇄 집합(閉鎖集合)

어휘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고정적인 집합.
[갇히다+ 집합]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를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구부린 오른손으로 내리 덮으며 동시에 약간 내린 다음,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다.

표음주의(表音主義) ㄹ

맞춤법에서,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발음되면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표음+ 주의]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표의(表意) ㄹ 하타

문자나 부호로 뜻을 나타내는 일.
[뜻+ 나타내다]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표의 문자(表意文字)

하나하나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 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 고대의 회화 문자나 상형 문자가 발달한 것으로 한자가 대표적이다.

[표의+ 문자]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낸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땀다.

표제어(標題語) ㄹ

①표제가 되는 말.
¶ 그는 그 기사에 붙일 적당한 표제어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②[언어] 올림말. 사전 따위의 표제 항목에 넣어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말.

¶ 표제어 목록.

[표제(제목)+ -어(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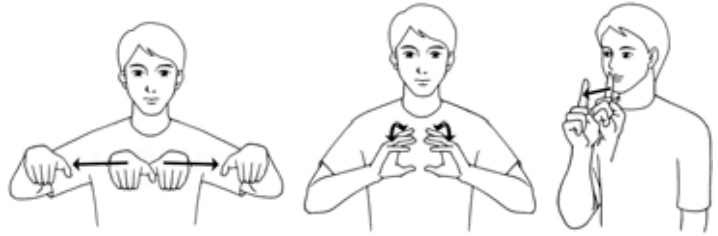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손바닥에 1·2·5지를 편 오른 주먹의 5지 등을 대고 안으로 당기며 1·2·5지 끝을 맞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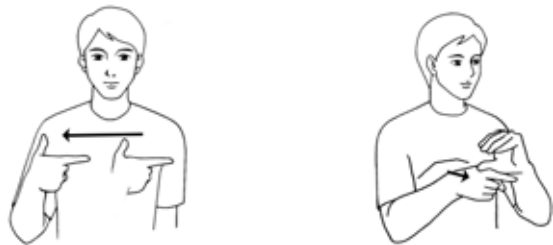
표준 국어 대사전

표준 국어 대사전(標準國語大辭典)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국어사전.
441,639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1999).
[표준+ 국어+ 대사전]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왼쪽으로 향하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C' 모양이 되게 편 왼손의 5지 밑에 대고 밖으로 내민다.

표준말(標準-) ㅁ

표준어.
[보통+ 말]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표준 발음(標準發音)

서로 발음하는 법이 달라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기 않도록 정해놓은 발음의 표준.
[표준+ 발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표준 발음법(標準發音法)

발음할 때의 표준을 정하여 놓은 규칙. 발음법.

[표준+ 발음법]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표준어(標準語) ㉔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 우리나라 표준어 규정(1988)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하고 있다.

㉔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투리보다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말.

[표준+ -어(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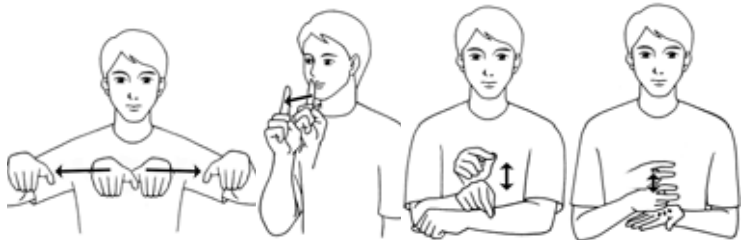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표준어 규정(標準語規程)

표준어 사정의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체계화한 규정. 1936년에 조선어 학회에서 사정하여 공표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크게 보완하고 합리화하여 1988년 1월에 문교부가 고시하였다.

[표준어+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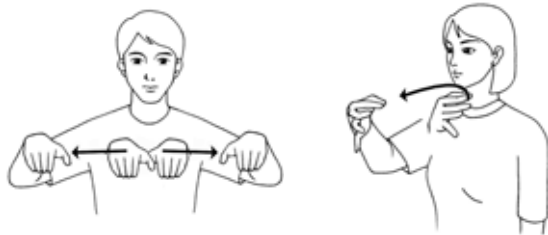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주먹을 쥔 왼 팔꿈치에 1·5지 끝을 맞댄 오른 주먹을 올려놓고 전후로 움직인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표준음(標準音) ㉕

어떤 말의 표준이 되는 발음.

[표준+ 음(音)]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풀어쓰기

풀어쓰기 (명)

한글의 현행 자형(字形)을 풀어서 초성, 중성, 종성의 차례대로 늘어놓아 쓰는 방식. '학교'를 'ㅎㅏ ㄱㅣㅇ'로 쓰는 것 따위이다.

[풀다+ 쓰다]



모로 세운 두 주먹을 상하로 맞댔다가 양옆으로 벌리며 손가락을 벌려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품사(品詞) (명*)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이홉 가지로 분류한다.

[단어+ 종류]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자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간다.

품사론(品詞論) (명)

문장에 쓰인 단어를 그 단어의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누어 연구하는 문법의 한 분야.

[품사+ 논하다]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자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품사 분류(品詞分類)

문법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수십만에 이르는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 따위의 공통되는 몇 개의 부류로 구분하는 일.

[품사+ 분류]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자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다.

품사 전성(品詞轉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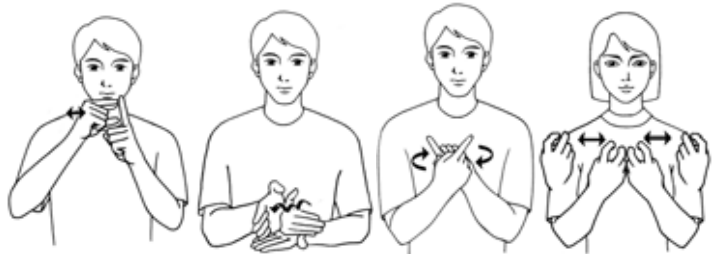
어떤 품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는 일.
예를 들어 동사 ‘울다’가 명사 ‘울음’
으로 바뀌는 것 따위이다.
[품사+ 바꾸다]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자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떴다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린다.

품사 전성법(品詞轉成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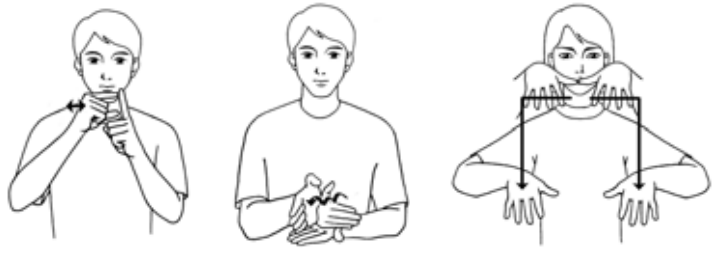
어떤 품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는 일.
예를 들어 동사 ‘울다’가 명사 ‘울음’
으로 바뀌는 것 따위이다. 품사 전성
(品詞轉成).
[품사+ 전성+ 방법]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자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떴다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손바닥을 ‘X’자로 맞대고 돌린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품사 체계(品詞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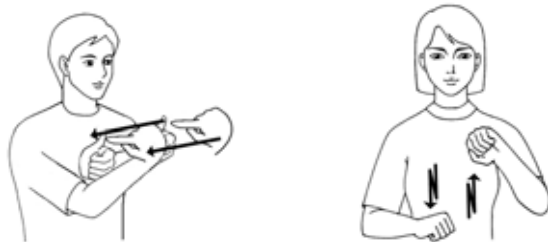
한 언어 안에 들어 있는 품사들의
유기적인 체계.
[품사+ 체계]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자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떴다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모로 세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리며 짚어 나가고,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맞댔다가 약간 벌려 내린다.

피동(被動) ㉞

주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 입음.
[‘시키다’의 피동형+ 움직임이다]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다.

피동문

피동문(被動文) ㄷ

피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 ‘도둑이 경찰에 잡혔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었다.’ 따위이다.

[피동+ 문(文)]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맞댄다.

피동법(被動法) ㄷ

문장이 피동이 되게 하는 표현법.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와 같이 피동사에 의한 것과 ‘새로운 사실이 김박사에 의해 밝혀졌다.’와 같이 ‘-아/어지다’에 의한 것이 있다.

[피동+ 방법]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피동사(被動詞) ㄷ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하여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보이다’, ‘물리다’, ‘잡히다’, ‘안기다’, ‘업히다’ 따위가 있다.

[피동+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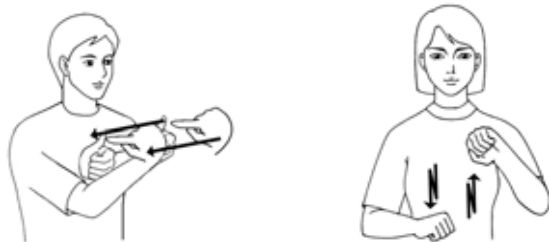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피동 접미사(被動接尾辭)

능동사의 어간에 붙어 피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피동+ 접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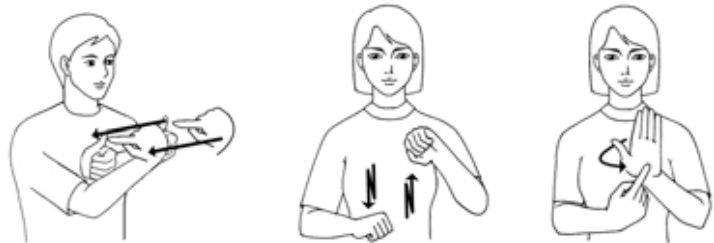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힌주어 내려놓은 다음, 왼 손바닥에 오른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떴다.

피동 표현(被動表現)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표현.
[피동+ 표현]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한다.

피동형(被動形) ㄷ

피동태를 나타내는 형태.
[피동+ 형(形)]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을 동시에 약간 아래로 당긴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들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피수식어(被修飾語) ㄷ

수식어에 의하여 의미상의 한정을 받는 말.
[수식+ 받다+ -어(語)]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볼에 대고 살짝 돌린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오른손을 안으로 당긴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ㅎ

ㅎ [히읃]*

한글 자모의 열넷째 글자.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다.

하게체(一體)

상대 높임법의 하나. 보통으로 낮추면서 약간 대우하여 주는 종결형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든 화자가 나이가 든 손아랫사람이나 같은 연배의 친숙한 사이에 쓴다. '김 군. 이것 좀 연구해 보게. 혼자 할 수 있겠나?' 따위이다. 예사 낮춤.

[보통+ 낮추다+ 체]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닿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아래로 약간 내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꺾인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하고 ㄱ

[1] (구어체로)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나하고 놀자. 너는 누구하고 갈 테냐? 친구하고 놀러 간다.

=같이.



두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였다가 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중앙으로 반원을 그리며 돌려 맞댄다.

[2] ((체언 뒤에 붙어)) (구어체로)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너라. 어머니하고 언니하고 다 직장에 나갔어요. 붓하고 먹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하며 ㄹ

((체언 뒤에 붙어)) (구어체로) 하고. ¶ 시골에서 쌀하며 무하며 배추하며 보내왔다.

[손가락을 펴서 두 번째를 나타내는 동작] =그리고.



오른 주먹의 5지 바닥을 1·2지 손톱에 가볍게 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아래로 내리며 1·2지를 편다.

하소서체(一體) ㅁ

상대 높임법의 하나.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종결형으로, 현대 국어의 구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하시옵소서’, ‘가사이다’ 따위이다. 아주 높임.

[아주+ 높이다+ 체]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하십시오체(一體)

상대 높임법의 하나.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종결형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따위이다. 합쇼체. 아주 높임.

[아주+ 높이다+ 체]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하오체

하오체(一體)

상대 높임법의 하나.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으로, 현대 국어의 구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빨리 인도로 나오시오.’, ‘왜 꾸물거리시오?’ 따위이다. 예사 높임.

[보통+ 높이다+ 체]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러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맞닿다가 양옆으로 벌린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하위어(下位語) ㄷ

어떤 말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뜻이 있는 말. 하위어(下義語).

[하위+ -어(語)]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손등을 댔다가 아래로 내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하의어(下義語) ㄷ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단어. 하위어(下位語).

[하(下)+ 뜻+ -어(語)]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손등을 댔다가 아래로 내린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하이픈(hyphen) ㄷ

이음표의 하나. 문장 부호 ‘-’의 이음이다. 사전, 논문 등에서 파생어나 합성어를 나타내거나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때,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외래어와 한자어가 결합하는 경우에 쓴다. 붙임표(-標).

[하이픈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작] =붙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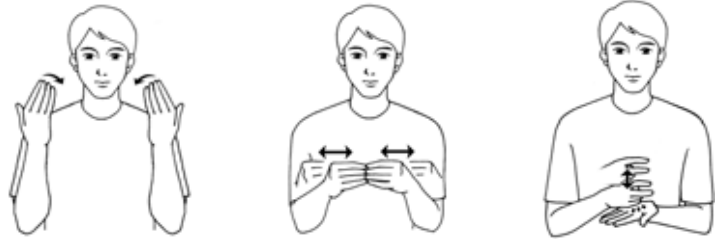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학교 문법(學校文法)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서술한 문법.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규율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나 학교 교육이나 외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데 유용하다.

[학교+ 문법]



두 손을 펴서 손끝이 위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얼굴 앞에 세워 한 번 당기고,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학술 용어 사전(學術用語辭典)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따위의 전문 분야에서 쓰는 용어의 개념을 풀이한 사전.

[학술+ 용어+ 사전]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옆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5지 손톱이 닿게 이마 중앙에 두 번 댔다 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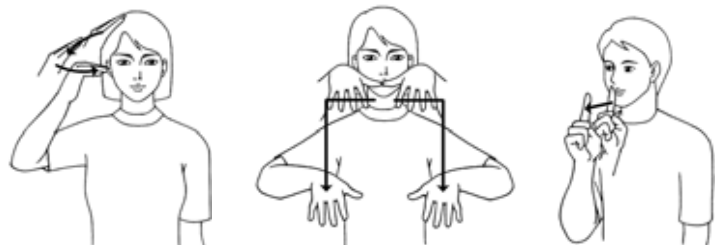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옆면을, 손끝이 오른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C' 모양이 되게 편 왼손의 5지 밑에 대고 밖으로 내민다.

한계 언어(韓系言語)

역사 시대 이후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터전을 잡게 된 우리 민족의 언어 중 남방의 언어.

[한국+ 시스템+ -어(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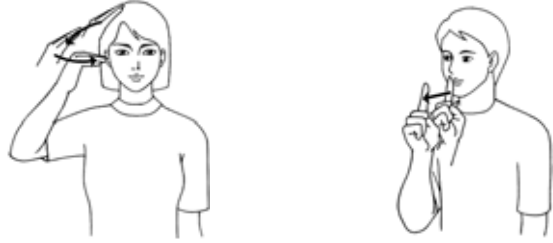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다가 손바닥을 반쯤 구부러 관자놀이에 댄 다음,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맞댔다가 약간 벌려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한국말

한국말(韓國-)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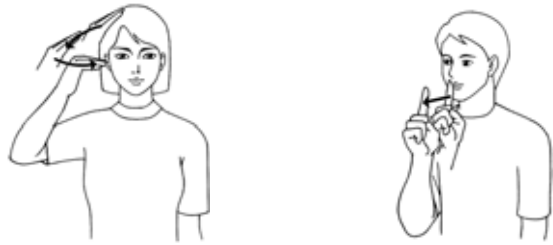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로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語順)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놓이는 것 따위의 특성이 있다. 한국어(韓國語). 한어(韓語).
 [한국+ 말]
 =한국어. 한어(韓語).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다가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관자놀이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한국어(韓國語)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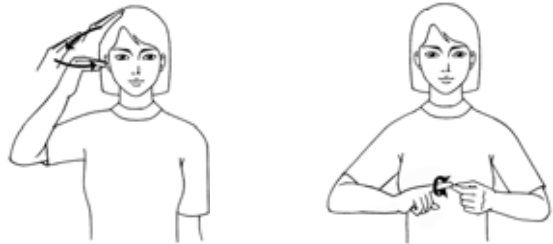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로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語順)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놓이는 것 따위의 특성이 있다. 한국말(韓國-).
 [한국+ -어(語)]
 =한국말. 한어(韓語).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다가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관자놀이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한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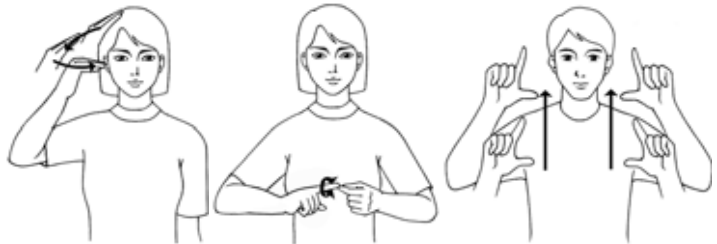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유 문자의 이름.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창제한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 달리 이르는 것으로, 1446년 반포될 당시에는 28 자모(字母)였지만, 현재는 24 자모만 쓴다.
 ♣ 한글을 깨치다.
 [한국+ 글자]
 =훈민정음.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한글날 명*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을 보급·연구하는 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
 [한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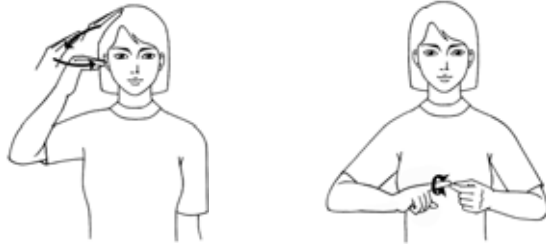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가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동시에 위로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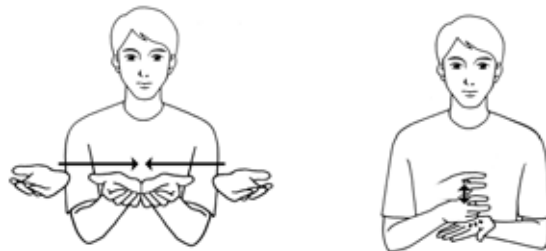
한글 맞춤법(-法)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이르는 말. 효시는 훈민정음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의 맞춤법은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하여, 1988년 1월 문교부가 확정·고시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나란히 놓았다가 가운데로 접근시켜 4지 옆면을 맞댄 다음,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린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法統一案)

한글의 맞춤법 체계를 통일하여 작성한 안. 1933년 조선어 학회가 발표한 것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 안(案)]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손바닥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두 손을 나란히 놓았다가 가운데로 접근시켜 4지 옆면을 맞댄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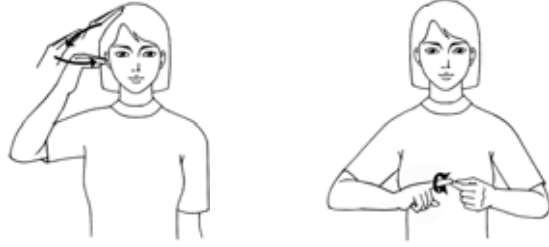


1·2지를 펴서 구부러 모로 세운 오른 주먹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두 번 두드리고, 자연스럽게 편 왼 손등에 오른 손바닥을 댔다가 올리며 주먹을 쥐고 1지를 편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댔다가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대고 밖으로 내린다.

한글의 제자 원리

한글의 제자 원리(-製字原理)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인 상형(象形),
가획(加劃), 병서(並書), 연서(連書).
[한글+ 만들다+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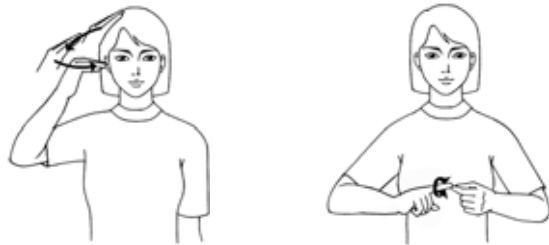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손등을 대고 손가락을 활짝 편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4지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 윗면으로 스쳐 낸다.

한글 학회(-學會)

우리말과 우리글을 연구하고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된 학회. 1921년 '조선어 연구회'를 '조선어 학회'로 고치고, 다시 1949년 지금의 이름으로 고친 것이다. 《큰사전》을 편찬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였으며, 기관지로 《한글》을 발간한다.
[한글+ 학회]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며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끝을 머리 오른쪽에 댄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그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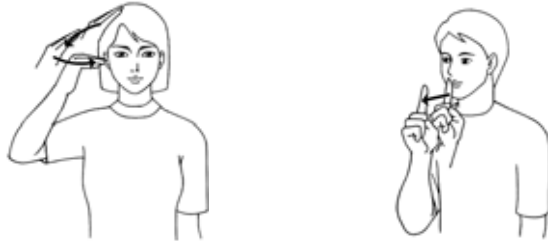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앞에서 밖으로 두 번 내민 다음, 두 손의 손끝을 마주 댔다가 안으로 원을 그리며 돌려 두 손목을 마주 댄다.

한어(韓語) ㄹ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로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語順)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놓이는 것 따위의 특성이 있다. 한국어(韓國語).

[한국+ -어(語)]
=한국말. 한국어.



오른 손바닥으로 머리 오른쪽을 스쳐 내리다가 손바닥을 반쯤 구부려 관자놀이에 댄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한자(漢字) ㄹ*

중국어를 표기하는 문자.
[글자의 모양(象形)을 나타내는 동작 <옛 한자(甲骨文, 金文 등)>]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손가락을 벌려 손끝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린 오른 손등으로 두 번 두드린다.

한 자리 서술어(-敍述語)

주어 하나만 필요한 서술어. ‘그녀는 예뻐다.’와 같은 경우이다.
[하나+ 자리(첫 그림만)+ 서술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손끝이 옆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 밑에 같은 모양의 왼손을 놓고 두 손목을 동시에 전후로 돌리면서 내린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왼 손목을 돌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한자어

한자어(漢字語) ㄷ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
[한자+ -어(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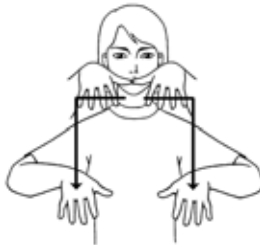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손가락을 벌려 손끝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린 오른 손등으로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한자어계수사(漢字語系數詞)

한자어 계열의 수사.
[한자어+ 계+ 수사]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손가락을 벌려 손끝이 위로 향하게 약간 구부린 오른 손등으로 두 번 두드린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위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밀고,



두 손을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5지 끝을 맞댔다가 약간 벌려 내리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손가락을 5지부터 차례로 짚은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멘다.

한테 ㄷ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①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 '에게'보다 더 구어적이다.

▶ 너한테 색연필 있니? 나한테 돈이 좀 있다.

②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게'보다 더 구어적이다.

▶ 이것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

③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에게'보다 더 구어적이다.

¶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았다.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

한테로 ㄹ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구어적으로)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격 조사 '한테ㄹ'와 '로'가 결합한 말이다.

¶ 그 책임이 누구한테로 돌아갈까? 모두들 그 사람한테로 몰려들었다.

[상대를 가리키는 동작]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

한테서 ㄹ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붙어)) (구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킨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친구한테서 들은 이야기. 선생님한테서 배우다. 형한테서 소식이 왔다. 이 말이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상대를 가리키는 동작]

=에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왼 주먹의 5지 등을 가리킨다(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경우에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한다).

함축적 의미(含蓄的意味)

사전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미. 내포적 의미, 연상적 의미.

[포함+ -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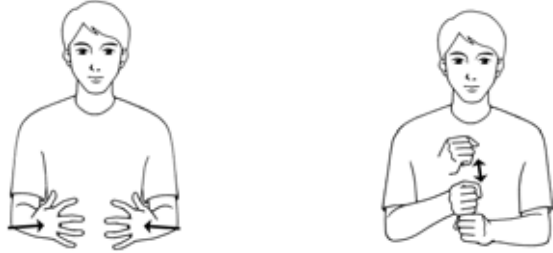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으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바닥을 댄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낸다.

합성 관형사

합성 관형사(合成冠形詞)

둘 이상의 말이 결합된 관형사. ‘한 두’, ‘서너’, ‘여남은’ 따위가 있다. 복합 관형사(複合冠形詞).
[합성+ 관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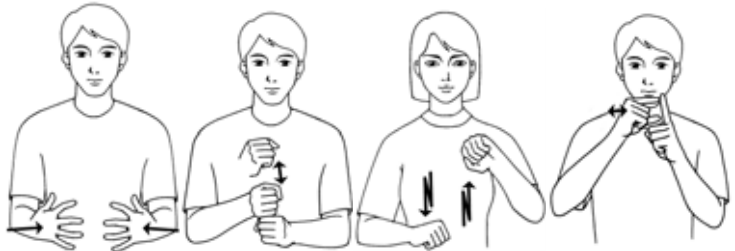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1:5지를 펴서 벌린 두 주먹을 머리 위에서 머리로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뎠다.

합성 동사(合成動詞)

복합 동사.
[합성+ 동사]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두 주먹을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엇갈리게 흔든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뎠다.

합성 명사(合成名詞)

복합 명사(複合名詞). 둘 이상의 말이 결합된 명사. ‘눈밭’, ‘눈물’, ‘새해’, ‘지름길’, ‘늦더위’, ‘부슬비’ 따위가 있다.
[합성+ 명사]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뎠다.

합성법(合成法)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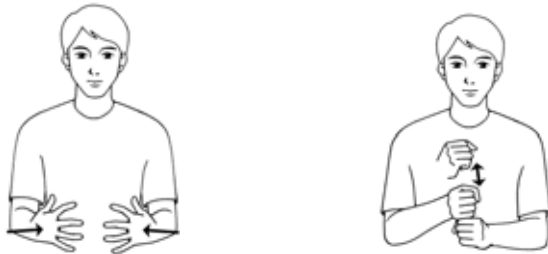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드는 단어 형성 방법.
[합성+ 방법]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1·2지를 펴서 구부려 세운 두 주먹의 4지 옆면을 두 번 맞부딪친다.

합성 부사(合成副詞)

둘 이상의 말이 결합하여 된 부사.
'밤낮', '한바탕', '곧잘' 따위가 있다.
[합성+ 부사]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뎠다.

합성어(合成語) ㉞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집안', '돌다리' 따위이다.
[합성(결합)+ -어(語)]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합성 형용사

합성 형용사(合成形容詞)

둘 이상의 말이 결합하여 된 형용사.
‘손쉽다’, ‘눈설다’, ‘깎아지르다’, ‘불
디붙다’ 따위가 있다.
[합성+ 형용사]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땀다 땀다.

합쇼체(一體)

상대 높임법의 하나. 상대편을 아주
높이는 종결형으로, ‘안녕히 계십시
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반갑
습니다.’ 하는 따위이다.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아주+ 높이다+ 체]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쿼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합용(合用) ㄹ ㅎ타 ㄷ자

같이 쓰거나 합하여 씀.
[합하다+ 쓰다]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합용 병서(合用並書)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붙
여 쓰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글자.
‘ㄹ’, ‘ㄴ’, ‘ㄹ’, ‘ㄷ’, ‘ㄷ’, ‘ㄴ’, ‘ㄷ’
따위가 있다.
[합용+ 병서]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나란히 세워 약간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합음자(合音字) ㄹ

둘 이상의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를 만들. 또는 그렇게 만든 글자. 합자(合字).

[합하다+ 음(音)+ 글자]



두 손을 약간 구부러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합자(合字) ㄹ ㄷ

둘 이상의 글자를 합하여 한 글자를 만들. 또는 그렇게 만든 글자. 합음자(合音字).

[합하다+ 글자]



두 손을 약간 구부러 마주 보게 하여 중앙으로 모은 다음,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해라체(一體)

상대 높임법의 하나. 상대방을 아주 낮추는 종결형으로, '철수야, 빨리 자라. 내일 새벽에 운동해야 한다.' 따위이다. 아주 낮춤.

[아주+ 낮추다+ 체]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아래로 약간 내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꺾은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해요체(一體)

상대 높임법의 하나.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으로, 격식체인 '하오체'와 '합쇼체'를 쓸 자리에 두루 쓰는 비격식체이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들르겠어요.' 따위이다. 높임.

[높이다+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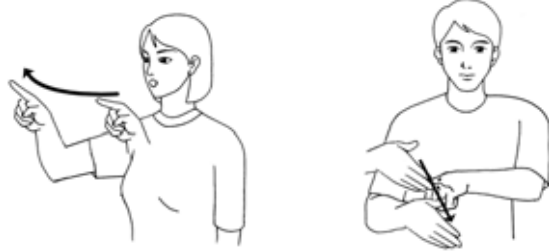
오른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돌려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꺾은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해체

해체(一體)

상대 높임법의 하나. 상대편을 높이지 않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으로, 격식체인 ‘해라체’와 ‘하게체’를 쓸 자리에 두루 쓰는 비격식체이다. ‘철수야, 이리 와서 먹어.’ 따위이다. 반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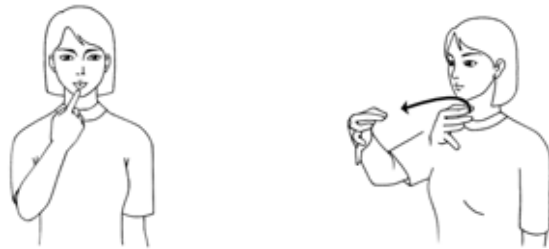
[-해+ 체]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밖으로 내밀며 약간 위로 올린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린다.

혀끝소리 ㄹ

혀끝을 윗니의 뒷부분이나 윗잇몸에 대어서 내는 소리. 설단음. 설청음.
[혀끝+ 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혀뿌리소리 ㄹ

혀뿌리와 여린입천장·목젖 사이에서 나는 소리. 국어의 ‘ㄱ’, ‘ㅋ’, ‘ㅇ’ 따위가 있다. 설근음(舌根音).
[혀+ 뿌리+ 소리]
=설근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킨 다음,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펴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혀앞소리 ㄹ

혀의 앞부분과 경구개 사이에서 조음되는 소리. 전설음(前舌音).
[혀+ 앞+ 소리]
=전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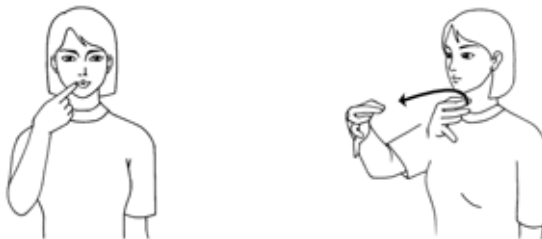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킨 다음,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오른 손바닥을 얼굴 앞에서 밖으로 내밀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혀옆소리 ㄹ

혀끝을 윗잇몸에 아주 붙이고, 혀 양 쪽의 트인 데로 날숨을 흘려 내는 소리. ‘쌀’, ‘길’ 따위의 ‘ㄹ’ 음이다. 설측음(舌側音).

[혀 옆+ 소리]

=설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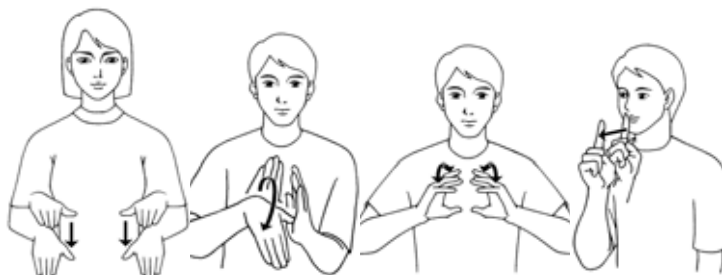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약간 내민 혀의 옆면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현대 국어(現代國語)

국어사 시대 구분 단위의 하나. 대체로 갑오개혁 이후부터 현재까지 쓰고 있는 국어를 이른다.

[현대+ 국어]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린 다음,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리고,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러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현대어(現代語) ㄹ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

[현대+ -어(語)]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린 다음, 손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현재(現在) ㄹ*

동작이나 상태가 지금 행하여지고 있거나 지속됨을 나타내는 시제. 동사의 경우 기본형에 선어말 어미 ‘-ㄴ /-는’을 넣어서 나타내며,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이다’는 그냥 기본형으로 나타낸다. 보편적인 진리나 습관을 나타낼 때도 현재 시제를 쓴다.

=이제. 지금.



1·2·5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두 주먹을 아래로 약간 내린다.

현재 시제

현재 시제(現在時制)

말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시제.
[현재+ 시제]



1:2:5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두 주먹을 아래로 약간 내린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주먹의 1:2:5지를 벌려 펴서 5지 끝을 대고 1:2지를 밖으로 돌린다.

현재 완료(現在完了)

과거에 시작하였던 동작이 현재에 끝났음을 나타내는 시제.
[현재+ 완료]



1:2:5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두 주먹을 아래로 약간 내리고,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은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댄다.

현재 진행(現在進行)

현재 동작이 진행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어법.
[현재+ 진행]



1:2:5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두 주먹을 아래로 약간 내리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서로 엇갈리게 두 번 흔든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붙여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왼쪽 허리 앞으로 내린다.

현재 완료 진행(現在完了進行)

완료상(完了相) 시제의 하나. 진행되던 동작이 현재의 어느 때에 이미 끝났음을 나타낸다. '나는 자고 있었다.' 따위이다.
[현재완료+ 진행]



1:2:5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두 주먹을 아래로 약간 내리고, 두 손을 펴서 손등이 위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마주 댔다가 원을 그리며 내려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은 다음,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 손끝을 가져다 대고,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두 주먹을 양쪽 가슴 앞에서 마주 보게 하여 상하로 서로 엇갈리게 두 번 흔든 다음, 두 손 각각 1·5지 끝을 붙여 고리를 만들어 서로 끼고 오른쪽 어깨 앞에서 왼쪽 허리 앞으로 내린다.

현재형(現在形) ㉓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 형태.
[현재+ 형(形)]



1·2·5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두 주먹을 아래로 약간 내린 다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현지 언어학(現地言語學)

실제로 언어 자료를 수집하여 언어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현지+ 언어학]



1·2·5지를 펴서 등이 위로 끝이 밖으로 향하게 한 두 주먹을 아래로 약간 내린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반쯤 구부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약간 내리다가 멈추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옆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두 손을 양쪽 귀 앞에서 밖으로 두 번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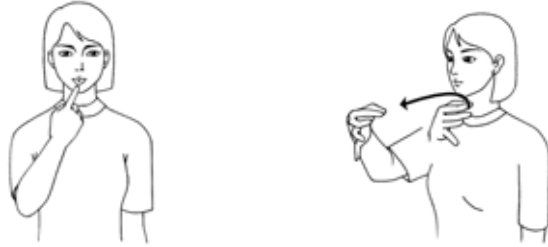
혃바닥소리

혃바닥소리 ㄹ

전설면(前舌面)과 경구개, 후설면(後舌面)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전자를 전설음, 후자를 후설음이라 한다. 설면음(舌面音).

[혃바닥+ 소리]

=설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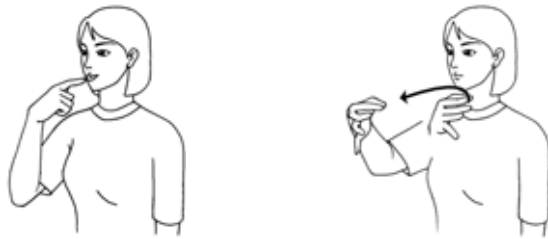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내민 혃 바닥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혃소리 ㄴ

①혀끝과 잇몸의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ㄴ’, ‘ㄷ’, ‘ㄷ’ 따위가 있다. ②중국 고대의 음운학에서 오음(五音)의 하나로, 혃끝을 잇몸 또는 경구개에 대어 내는 소리. ‘단(端)’, ‘정(定)’, ‘지(知)’ 따위의 자음을 이른다. 설음(舌音).

[혃+ 소리]

=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혃를 가리킨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형상 문자(形象文字)

물건의 모양을 본떠 만든 회화 문자에서 발전하여 단어 문자로 된 것으로, 원형과의 관련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문자. 한자, 수메르 문자, 이집트 문자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상형 문자(象形文字).

[형상+ 문자]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댄다.

형성(形聲) ㄹ

①한자 육서(六書)의 하나. 두 글자를 합하여 새 글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쪽은 뜻을 나타내고 다른 쪽은 음을 나타낸다. ‘銅’자에서 ‘金’은 금속의 뜻을 나타내고 ‘同’은 음을 나타내는 따위이다. ②형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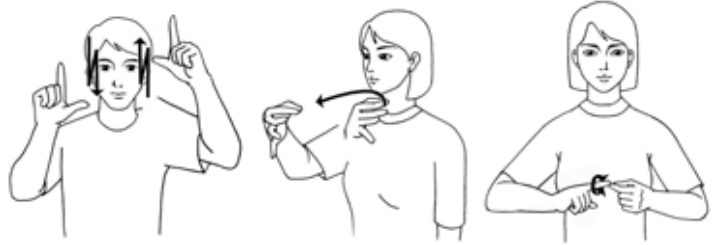
[형(形)+ 음(音)]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형성자(形聲字) ㄹ

형성(形聲)의 방법으로 만든 한자.
한자의 약 80%가 이에 속한다.
[형성+ 자(字)]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왼 주먹의 1·5지 끝을 맞대고 끝에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대고 전후로 손목을 돌린다.

형식 명사(形式名詞)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갯’, ‘따름’, ‘뵈’, ‘데’ 따위가 있다. 의존 명사(依存名詞).
[형식+ 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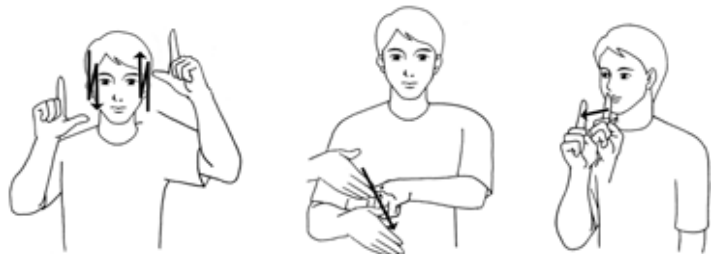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리고,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ㄹ’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댔다.

형식어(形式語) ㄹ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의 보조로서, 오로지 추상적인 관계나 문법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말. 조사·보조동사 따위가 있으며, 형식 명사를 말하기도 한다.
[형식+ -어(語)]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리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형식 용언

형식 용언(形式用言)

최현배 문법 체계에 설정된 품사의 하나. 무엇이 무엇이라고 지정하는 단어로, 긍정의 '이다'와 부정의 '아니다'가 있다. 지정사(指定詞).

[형식+ 용언]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리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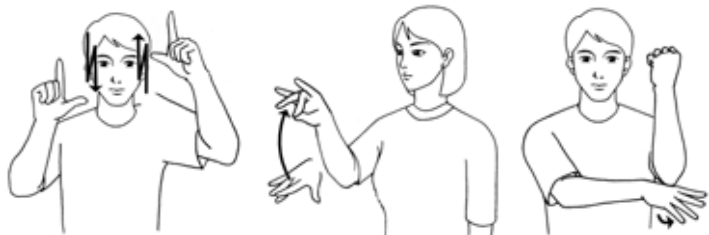
형식 형태소(形式形態素)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조사, 어미 따위가 있다.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쥘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리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쥘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형용사(形容詞) ㄷ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 활용할 수 있어 동사와 함께 용언에 속한다.
[형용+ 단어]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땀다 땀다.

형태론(形態論)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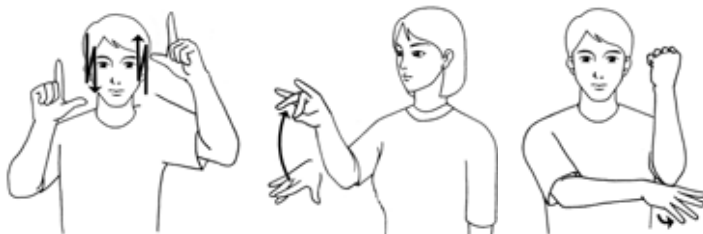
형태소에서 단어까지를 다루는 문법학 분야.
[형태+ 논하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땀다 땀다.

형태소(形態素) ㄷ

①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야기책’의 ‘이야기’, ‘책’ 따위이다. ②문법적 또는 관계적인 뜻만을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 성분.
[형태+ 처음+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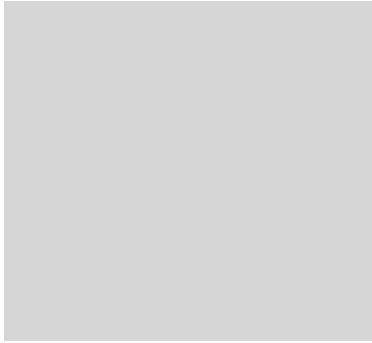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맞대고,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편다.

형태 음소론(形態音素論)

형태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이형태 등에서 보이는 음소 교체 현상을 연구하는 언어학 분야. 형태 음운론(形態音韻論).
[형태+ 음소+ 논하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손바닥이 아래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편 오른손을 위로 올리며 2지와 5지 끝을 붙인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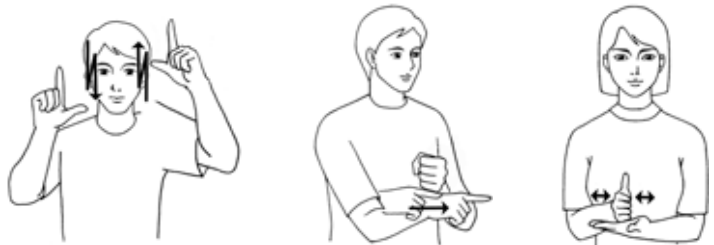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주먹을 쥐고 세운 왼팔의 팔꿈치 밑에 오른 주먹의 등을 대고 손가락을 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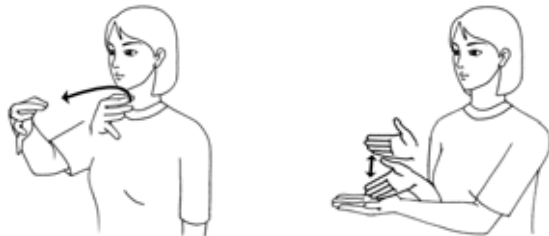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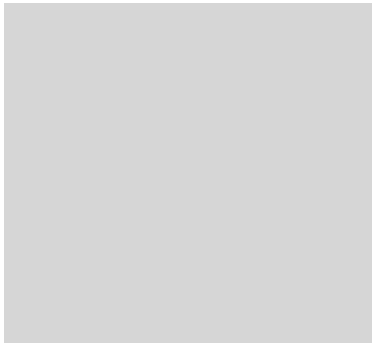
형태 음운론(形態音韻論)

형태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이형태 들에서 보이는 음소 교체 현상을 연구하는 언어학 분야. 형태 음소론(形態音素論).

[형태+ 음운+ 논하다]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 다음,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윗면으로 스쳐 내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오른손을 대고 좌우로 스쳐낸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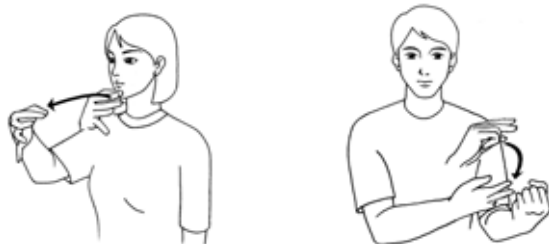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밀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땀다.

호격(呼格) ㄷ

①호격 조사. ②문장 속에서, 체언이 부름의 자리에 놓이게 하여 독립어가 되게 하는 격.

[부르다+ 격]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턱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앞통을 그린다.

호격 조사(呼格助詞)

문장 안에서, 체언이 부름의 자리에 놓이게 하여 독립어가 되게 하는 조사. ‘영숙아’의 ‘아’, ‘철수야’의 ‘야’ 따위가 있다.

[호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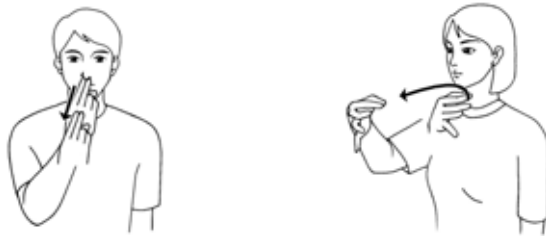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턱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1·2·5지를 펴서 끝으로 주먹을 쥐고 굽힌 왼팔의 위팔에 알통을 그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댄다.

호기음(呼氣音) ㄹ

내쉬는 숨에 의하여 발음되는 소리. 날숨소리. 호식음(呼息音).

[내쉬는 숨+ 음성]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코로 향하게 하였다가 밖으로 비스듬히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호칭어(呼稱語) ㄹ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 ‘아버지’, ‘어머니’, ‘여보’ 따위가 있다. 부름말.

[호칭+ -어(語)]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왼쪽 가슴에 1·5지 옆면이 닿게 댄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끝을 턱에 댄다가 밖으로 내밀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댄다가 밖으로 내민다.

혼동 보조사(混同補助詞)

무엇이 여럿 가운데 섞여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김 선생서건 왔습니다.’에서 ‘서건’ 따위이다.

[섞이다+ 보조사]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러 올려놓고 서로 엇갈리게 돌린 다음, 서로 엇갈리게 돌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그 등에 오른 손바닥을 세워 두 번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댄다.

혼성 복자음

혼성 복자음(混成複子音)

앞뒤 차례가 바뀌어도 한 가지 소리만 나는 복자음. ‘ㅍ(=ㅂ+ㅎ=ㅎ+ㅂ)’, ‘ㅊ(=ㅈ+ㅎ=ㅎ+ㅈ)’, ‘ㅋ(=ㄱ+ㅎ=ㅎ+ㄱ)’, ‘ㅌ(=ㄷ+ㅎ=ㅎ+ㄷ)’ 따위가 있다.

[혼성+ 복자음]



왼손을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러 올려놓고 서로 엇갈리게 돌린 다음, 서로 엇갈리게 돌리고, 모로 세운 오른 주먹의 밑면으로 모로 세운 왼 주먹의 윗면을 두 번 두드리고,



가슴 앞에서 두 손바닥을 맞댔다가 살짝 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끝 바닥으로 배를 스쳐 내리며 5지 바닥이 보이도록 손목을 돌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혼종어(混種語) ㄷ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종류+ 섞이다+ 단어]



5지를 펴서 모로 세운 왼 주먹 밑에 오른 주먹의 손목을 댔다가 오른쪽으로 돌리며 손가락을 펴서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러 올려놓고 서로 엇갈리게 돌린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떼다.

혼철(混綴) ㄷ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자음을 각각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표기법.

[섞이다+ 적다]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리고, 그 위에 오른손을 펴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약간 구부러 올려놓고 서로 엇갈리게 돌린 다음,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을 맞대어 왼 손바닥에 대고 전후로 약간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화식 부사

화식 부사(話式副詞)

말하는 이의 뜻을 베푸는 태도에 관한 부사. 전통 문법에서는 양태 부사 또는 양상 부사라 한다. 진술 부사(陳述副詞).

[이야기+ 식+ 부사]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왼 손바닥으로 받치고 전후로 두 번 흔든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쥔 왼 주먹을 밖으로 스쳐 내리고,



5지를 펴서 세운 왼 주먹 밑에, 5지를 펴서 세운 오른 주먹을 댄 다음,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댔다 뎠다.

화용론(話用論) ㉞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장소 따위로 구성되는 맥락과 관련하여 문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미론의 한 분야. 어용론(語用論).

[화용+ 논하다]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 팔꿈치를 왼 손바닥으로 받치고 전후로 두 번 흔든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스쳐내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하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오른손을 모로 세워 4지 끝을 두 번 댔다 뎠다.

확대(擴大) ㉞ ㉞타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더 크게 함. ¶ 사진을 확대하겠다.

[커지거나 많아짐을 나타내는 동작]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끝이 마주 보게 하여 모로 세워 양옆으로 벌린다.

확인 의문문(確認疑問文)

어떤 사실을 알고 그것을 확인하는 의문문. '-지 않-'이 붙는다. '김 선생 이 그 분야의 권위자이지 않나?' 따위 이다.

[확인+ 의문문]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왼쪽 눈 밑에 댄다가 오른쪽 눈 밑에 댄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하여 눈앞으로 확 당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을 오른쪽 관자놀이에 댄다가 내리며 손끝이 밖으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활용(活用) ㄹ ㅎ타 ㄷ자*

용언의 어간(변하지 않는 줄기 부분)이나 서술격 조사에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변하는 꼬리 부분)가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꿈. 또는 그런 일. 이로써 시제·서법 따위를 나타낸다. 어미변화.

[이용+ 사용]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쪽을, 구부린 오른손으로 덮어 두 손을 동시에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힘주어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두 번 스쳐 낸다.

활용어(活用語) ㄹ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꾸는 단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활용+ 단어]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쪽을, 구부린 오른손으로 덮어 두 손을 동시에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힘주어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두 번 스쳐 내고, 왼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우고, 그 바닥에 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ㄷ' 모양이 되게 하여 끝을 두 번 댄다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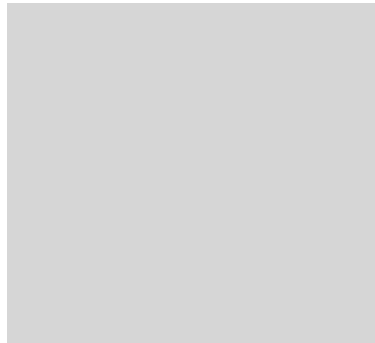
활용 어미(活用語尾)

활용이 어미의 교체로 행해질 때에 그 교체되는 부분.

[활용+ 어미]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쪽을, 구부린 오른손으로 덮어 두 손을 동시에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힘주어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두 번 스쳐 내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앞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힙주어 내려놓는다.

활용형(活用形) ㄷ

어미변화의 형식.
[활용+ 형(形)]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우고 그 위쪽을, 구부린 오른손으로 덮어 두 손을 동시에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힘주어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끝으로 왼 손바닥을 손목에서 손끝으로 두 번 스쳐 내고, 두 주먹의 1·5지를 펴서 1지 끝이 위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앞에서 상하로 엇갈리게 두 번 움직인다.

회의(會意) ㄷ

한자 육서(六書)의 하나. 둘 이상의 한자를 합하고 그 뜻도 합성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日’과 ‘月’을 합하여 ‘明’ 자를 만들어 ‘밝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 따위이다.
[뜻+ 합치다]



모로 세운 왼 주먹의 밑면을,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뒷면으로 스쳐 낸 다음, 두 손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하였다가 가슴 중앙으로 모은다.

회화 문자(繪畫文字)

그림이나 대상을 본뜬 도안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 체계. 고대 이집트의 그림 문자 따위가 여기에 속하며 보다 추상화되는 과정을 거쳐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나 알파벳과 같은 표음 문자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림 문자(-文字).
[회화+ 문자]
=그림 문자.



오른 손가락 등으로 바닥이 안으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두 번 스쳐 낸 다음,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왼 손바닥에 두 번 댔다 뻗다.

후구개음(後口蓋音) ㄹ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 ‘ㅇ’, ‘ㄱ’, ‘ㅋ’, ‘ㆁ’ 따위가 있다. 연구개음(軟口蓋音). 후설음(後舌音).
[입천장+ 뒤+ 음성]
=후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벌린 입천장을 가리킨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오른쪽에서 약간 뒤로 이동하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후기 중세 국어(後期中世國語)

고려의 건국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중세 국어 중에서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한글로 적은 문헌 자료가 많이 나온 시기부터의 국어.
[후기(후(後)+ 동안)+ 중세 국어]



손등이 밖으로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편 왼 손등에,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 손등을 댔다가 밖으로 내린 다음, 두 손을 펴서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워 어깨 높이에서 가슴 높이로 내리고,



손끝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모로 세운 왼손의 1·5지 중간에 오른손을 4지 옆면이 닿게 세운 다음, 손끝이 위로 손바닥이 왼쪽으로 향하게 세운 왼 손바닥에 오른손의 5지 끝을 대고 밖으로 돌리고,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러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들 다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세워 옆면을 입에 댔다가 밖으로 내민다.

후두(喉頭) ㄹ*

인두(咽頭)와 기관(氣管) 사이의 부분. 소리를 내고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후두를 나타내는 동작]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목 위쪽에 댔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린다.

후두개

후두개(喉頭蓋) ㄷ

후두 어귀를 덮고 있는 뚜껑과 같은 구조. 속에는 물렁뼈가 있다. 울대마개.

[후두+ 덮개를 나타내는 동작]
=울대마개. 후두덮개.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목 위쪽에 댄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 왼 주먹을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오른쪽에 오른손의 손바닥을 대고 1·2·3·4지를 접어 왼손의 1지 윗면에 대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후두덮개(喉頭-) ㄷ

후두 어귀를 덮고 있는 뚜껑과 같은 구조. 속에는 물렁뼈가 있다. 울대마개. 후두개(喉頭蓋).

[후두+ 덮개를 나타내는 동작]
=울대마개. 후두개.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목 위쪽에 댄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 왼 주먹을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모로 세우고 그 오른쪽에 오른손의 손바닥을 대고 1·2·3·4지를 접어 왼손의 1지 윗면에 대는 동작을 두 번 반복한다.

후두음(喉頭音) ㄷ

목구멍, 즉 인두의 벽과 혀뿌리를 마찰하여 내는 소리. 목구멍소리. 목청소리. 후음(喉音).

[후두+ 소리]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목 위쪽에 댄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린다.

후두화(喉頭化) ㄷ

어떤 음이 동시 조음되면서 성문(聲門)의 폐쇄 또는 긴장을 수반하게 되는 현상. 목청소리되기. 성문화(聲門化).

[후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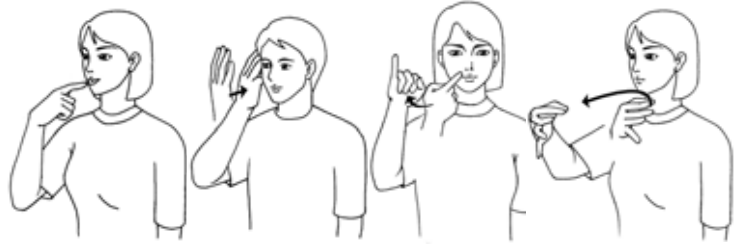


오른손의 1·5지 끝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목 위쪽에 댄다가 목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 왼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하여 두 손바닥을 맞대고 세웠다가 180도 돌려 세운다.

후설 모음(後舌母音)

혀의 뒤쪽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발음되는 모음. ‘ㄷ’, ‘ㄱ’ 따위가 있다.

[후설(혀+ 뒤)+ 모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킨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오른쪽에서 약간 뒤로 이동하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 바닥을 오른쪽에 댄다가 떼며 1지를 접고 4지를 펴서 세운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후설음(後舌音) ㄹ

연구개음. 후구개음.
[후설(혀+ 뒤)+ 음(音)]
=후구개음.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약간 내민 혀를 가리킨 다음, 오른손을 펴서 손등이 밖으로 향하게 세워 얼굴 오른쪽에서 약간 뒤로 이동하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후음(喉音)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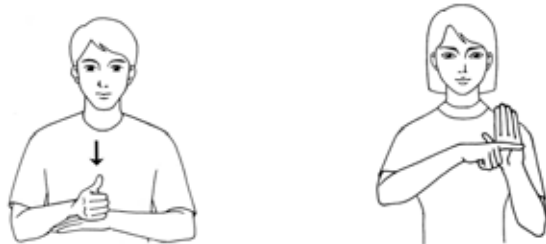
목구멍소리. 목청소리. 후두음.
[목구멍+ 소리]
=목구멍소리.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목을 가리킨 다음, 왼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으로 그 속을 가리키고,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후행 부정(後行否定)

긴 부정문. 부정 요소가 서술 용언의 뒤쪽에 놓인 부정.
㉮ 그이는 양말을 신지 않는다.
[마지막+ 부정]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은 다음,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댄다.

후행 부정문

후행 부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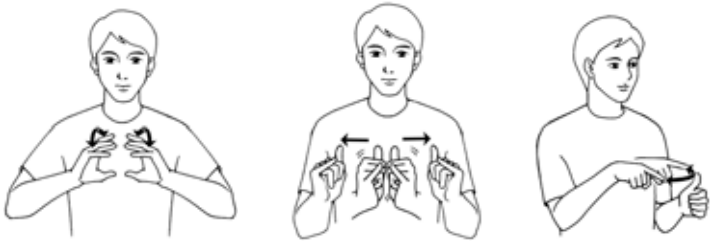
긴 부정문.
[후행 부정+문(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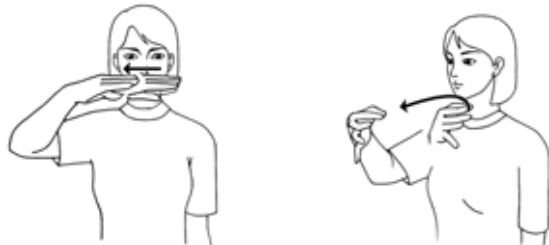
오른 주먹의 5지를 펴서 세워 왼 손등에 힘주어 내려놓고, 왼손을 펴서 손바닥이 밖으로 손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가슴 앞에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쪽으로 향하게 하여 1지 옆면을 왼 손바닥에 댄 다음, 손가락을 모아 붙인 두 손의 손끝을 두 번 마주 댄다.

훈민정음(訓民正音) ㅁ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
[백성+ 가르치다+ 바르다+ 소리]



두 손의 손가락을 약간 구부려 마주 보게 세워 전후로 약간 흔든 다음, 두 주먹의 4·5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맞대고 세워 좌우로 두 번 약간 돌리며 벌리고, 왼 주먹의 5지를 펴서 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세우고, 오른 주먹의 1지를 펴서 끝이 왼 주먹의 5지 등으로 향하게 하여 좌우로 두 번 흔들고,



손끝이 왼쪽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편 오른손의 1지 옆면으로 코밀을 오른쪽으로 스쳐 낸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흡기음(吸氣音) ㅁ

들이쉬는 숨에 의하여 발음되는 소리. 남아프리카의 토어(土語)에 흔한 소리이다. 흡식음(吸息音). 흡착음(吸着音).
[들이쉬는 숨+ 소리]



오른 주먹의 1·2지를 펴서 등이 밖으로 끝이 코로 향하게 하여 올린 다음, 오른손의 1·5지 끝을 맞대어 목에서 입으로 올려 내민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2). **중학교 국어 2-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고려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2). **중학교 국어 2-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고려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3). **중학교 국어 3-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고영근 · 남기심(2006). **7차 고교 문법 자습서**. 서울: 탐출판사.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08).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 김상옥 등(2010). **중학교 국어 1-2**. 경기: 창비.
- 이기문 감수(2007). **동아 새국어사전**(제5판). 서울: 두산동아.
- 이남호 등(2009). **중학교 국어 1-1**. 서울: 미래엔컬처그룹.
- 이희승 감수(2001).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국어(상)**.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국어(하)**.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0). **고등학교 문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원대학교 · 고려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3). **중학교 국어 3-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 국어편찬위원회(2009). **초등학교 국어 읽기 1-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 국어편찬위원회(2009). **초등학교 국어 읽기 1-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 국어편찬위원회(2009). **초등학교 국어 읽기 2-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 국어편찬위원회(2009). **초등학교 국어 읽기 2-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원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국정도서 국어편찬위원회(2010). **초등학교 국어 읽기 3-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원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국정도서 국어편찬위원회(2010). **초등학교 국어 읽기 3-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원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국정도서 국어편찬위원회(2010). **초등학교 국어 읽기 4-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원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2010). **초등학교 국어 읽기 4-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국어 읽기 5-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국어 읽기 5-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국어 읽기 6-1**.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국어 읽기 6-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8). **한국수화 1**.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9). **한국수화 2**.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10). **한국수화 3**.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화 문형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5). **한국수화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7). **한국수화사전 별책 I 일상생활수화 (1)**.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9). **한국수화사전 별책 I 일상생활수화 (2)**.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10). **한국수화사전 별책 I 일상생활수화 (3)**.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9). **한국수화사전 별책 IV 의학수화**.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10). **한국수화에 의한 한국어 문법 교육**.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2008). **한국어-미국수화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 한국농아인협회.